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박사 학위논문

사물과 인간의 얽힘을 통해 본
읽과 교육의 실천
- 목공의 세계를 사례로 -

2022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전공
김 은 아

사물과 인간의 얽힘을 통해 본
삶과 교육의 실천

- 목공의 세계를 사례로 -

지도교수 조 용 환

이 논문을 교육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11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전공
김 은 아

김은아의 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2년 1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국문초록

인간은 특정한 세계에 태어나 그 세계의 문화를 가르치고 배우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가고 새로운 가능성을 실현해 나간다. 문화는 세대를 거치면서 적극적으로 향유되고 재창조되는 과정을 통해 그 존재와 가치가 지속될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문화가 이동하기 위해서는 문화에 대한 구체적인 체험과 행위를 가능하게 만드는 다양한 존재들이 필요하다. 문화를 일상 속에서 체험하고 향유하는 일은 의미의 규칙이나 체계를 인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생활세계를 이루고 있는 사물들, 사람들과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이다. 따라서 문화를 가르치고 배우며 새로운 가능성을 실현하고 더 나은 존재로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교육의 실천이 특정한 시공간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물과 사람의 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보는 일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목공 문화가 저변을 확대하며 오늘날까지 지속되어 온 과정을 사례로 하여 사물과 인간의 얽힘 가운데 앎과 교육이 어떻게 실천되는지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짜맞춤 목공은 조선시대에 꽃피운 목공 문화로 근대화와 산업화 시기를 거쳐 수작업의 필요성과 가치가 낮게 평가되면서 소수의 장인들에 의해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2000년대를 전후로 목공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이 짜맞춤 목공을 배워 새로운 짜맞춤 가구를 만들 뿐만 아니라 제작과정과 작품을 온라인에 등록하고 공유하며 활발한 소통을 해나가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과정을 가능하게 한 사물과 인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짜맞춤 전수관을 연구현장으로 선정하여 장기간의 참여관찰, 교수자 및 학습자와의 심층면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현지자료조사를 진행하였다.

연구를 통해 짜맞춤 목공을 조석진으로부터 배운 백만기가 이후 세대들에게 목공의 앎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건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목공의 세계는 조석진으로부터 백만기로, 백만기로부터 이후 세대로 고정된 실체로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물과 사람의 얽힘 가운데 재

맥락화되며 계속 변화하고 있었다. 목공 세계의 재맥락화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수공구의 부활'을 통해 소수의 장인들만 알고 있고 폐쇄적인 문화 가운데 공유되지 않았던 수공구가 어떻게 짜맞춤 전수관에 있게 되었는지, 이전 세대와의 차이는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었다. 오늘날 먹금칼과 대패라는 수공구는 백만기, 책, QR 코드, 인터넷 카페, 유튜브와 연결되어 짜맞춤 목공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되었다. 그리고 교수자가 수공구를 사용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배웠던 방식은 체계적으로 정리된 원리와 언어적 표현과 함께 가르치고 배우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다음으로 '나무의 변화'는 오늘날 목공방에서 다루게 되는 나무가 어떠한 물질성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러한 나무를 통해 변화된 앎과 교육의 실천을 드러내고 있었다. 목공방의 학습자들은 제재된 나무를 사용하게 되면서 벌목, 제재, 건조, 숙성과 같이 좋은 나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기회가 제한되고 나무를 다루는 기술과 앎도 달라지고 있었다. 나무가 갖는 이러한 상황성은 이중적인 측면을 갖는데 한편으로는 쉽게 쓸 수 있는 나무를 통해 짜맞춤 목공에 보다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얻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나무를 보는 힘이나 앎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은 제외되고 있었다.

목공 세계의 재맥락화는 그 다음으로 '교육 장소의 탄생'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짜맞춤 전수관이라는 장소의 배치와 구성 요소들은 개방성, 교류, 충분한 숙련의 시간이라는 교육의 가치를 추구하는 일에 관여하고 있었다. 또한 작품이나 상품의 제작과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짜맞춤 전수관에서는 교수자의 작업과정을 지켜보는 방식이 아니라 강의와 시범, 실습, 일대일 레슨, 공동 피드백과 같은 교육활동을 통해 수업식으로 배우고 있었다. 이러한 교육활동은 교수자 작업대, 칠판, 학습자의 개인 작업대와 같은 사물과 함께 질서화되고 있었다. 한편 짜맞춤 전수관은 단순한 사용법이 아닌 깊이 있는 원리를 가르치기 위해 장소화 되어 있지만, 회원제 목공방으로서 학습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나 목표에 따라 다른 장소가 될 수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끝으로 '새로운 전통 만들기'에서는 짜맞춤 가구가 오늘날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를 만드는 사람들이 온-오프라인을 오고 가며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목공의 세계가 재맥락화 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짜맞춤 가구는 조선시대의 것을 그대로 재현하는 방식이 아닌 오늘날의 가구, 주거환경, 취향, 관심 등에 따라 다르게 만들어지고 있었다. 또한 짜맞춤 전수관의 사람들은 핀터레스트와 같은 앱을 스마트폰으로 사용하며 짜맞춤 목공에 필요한 이미지를 검색하고 변형하면서 자신만의 가구를 만들어 가고 있었다. 핀터레스트와 같은 앱은 가구디자인에 대한 앎을 폭넓게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었는데, 반면 이미지만으로는 볼 수 없는 나무의 물성으로 인해 숙련자의 가르침을 필요로 하게 만들고 있었다. 한편 사람들은 인스타그램과 같은 앱을 통해 목공의 과정과 결과를 공유하고 공감하면서 짜맞춤 전수관에서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목공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연결해 나가고 있었다.

목공의 세계, 그리고 그 안에서의 앎과 교육의 실천은 다양한 물질들과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연결되는가에 따라 재맥락화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의 실천에서 사물과 같은 물질들은 수동적으로 주어져 있거나 변화를 결정하는 원인이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 가운데 크고 작은 차이를 함께 만들며 교육의 실천에 변화를 가져오는 힘이 있음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앎은 머릿 속이나 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 이를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물질들에 따라 그 종류와 범위가 달라지며 독특한 경계를 갖게 된다. 따라서 결과로서의 지식보다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과정을 가능하게 하는 사물들과의 상호작용을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논의하였다.

이 연구는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앎과 교육의 실천은 무엇이며, 어떻게 그것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의 문제는 사물과 같은 물질들과의 관계와 분리될 수 없음을 구체적인 사례로 드러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상황학습, 사물과 인간의 얽힘(관계), 물질성, 목공

학 번 : 2013-30404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 문제	6
3. 선행연구와 연구의 관점	8
4. 연구 방법	31
II. 목공 세계와의 만남	41
1. 짜맞춤 목공의 역사	41
1) 짜맞춤 목공의 특징	41
2) 짜맞춤 목공과 DIY문화	47
2. 짜맞춤 목공의 이동	58
III. 목공 세계의 재맥락화와 교육의 실천	64
1. 수공구의 부활	64
1) 얹의 체계화	65
2) 후속세대와의 연결	88
2. 나무의 변화	100
1) 목공방의 나무	102
2) 나무와 상황적 지식	115
3. 교육 장소의 탄생	128
1) 장소의 구조화	129
2) 종적·횡적 연대	141

4. 새로운 전통 만들기	165
1) 짜맞춤가구의 변화	165
2) 온-오프라인 목공	172
IV. 해석 및 논의	181
1. 교육의 실천과 물질성	182
2. 얇은 경계들	189
V. 요약 및 결론	193
1. 요약	193
2. 결론	196
참고문헌	201
Abstract	215

표 목 차

<표 2-1> 짜맞춤의 종류 (1)	44
<표 2-2> 짜맞춤의 종류 (2)	45
<표 3-1> 먹금칼과 교육적 사건	77
<표 3-2> 짜맞춤 기술을 담고 있는 다양한 물질들	89
<표 3-3> 나무의 종류	103

그림 목 차

<그림 2-1> 이동하는 목공의 세계	61
<그림 3-1> 먹금칼과 시간의 두 차원	79
<그림 3-2> 목재와 가구의 생산 과정	120
<그림 3-3> 짜맞춤 전수관의 배치	131
<그림 3-4> 짜맞춤 전수관의 사물과 교육활동	134

사진 목 차

<사진 3-1> 먹금칼	65
<사진 3-2> 대패	81
<사진 3-3> 대패에 대한 유튜브 동영상	86
<사진 3-4> QR 코드	87
<사진 3-5> 목공방 안에 있는 '나의 오크'	105

<사진 3-6> 숲에 있는 오크	107
<사진 3-7> 위스콘신 야적장에 있는 나무와 상인들	110
<사진 3-8> 나무와 인간과 건조기	115
<사진 3-9> 목공방에서 나무를 고르는 학습자	119
<사진 3-10> 짜맞춤 전수관 안의 개인 작업대	133
<사진 3-11> 대패와 인간이 함께 하는 대패질	150
<사진 3-12> 학습자와 교수자, 두 몸의 만남	160
<사진 3-13> 조석진이 만든 문갑	166
<사진 3-14> 조석진이 만든 좌식 테이블	166
<사진 3-15> 나미목의 날개책상 (1)	171
<사진 3-16> 나미목의 날개책상 (2)	171
<사진 3-17> 인스타그램 (1)	176
<사진 3-18> 인스타그램 (2)	177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인간은 특정한 세계에 태어나 그 세계의 문화를 가르치고 배우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가고 새로운 가능성을 실현해 나간다. 옷을 입고, 밥을 먹으며, 집을 짓는 것에서부터 말하고, 생각하며, 이해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각양각색의 문화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묻고 답해 온 공동체의 흔적이라 할 수 있다. 앞선 세대가 남긴 흔적은 다음 세대에게 길이 되며 다음 세대들은 이 길과 접속하여 삶의 방식을 익히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문화는 어떠한 것들이며, 그것을 어떻게 지속되게 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

문화는 세대를 거치면서 적극적으로 향유되고 재창조되는 과정을 통해 그 존재와 가치가 지속될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문화가 이동하기 위해서는 문화에 대한 구체적인 체험과 행위를 가능하게 만드는 다양한 실체들이 필요하다. 문화를 일상 속에서 체험하고 향유하는 일은 의미의 규칙이나 체계를 인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다양한 실체들과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필요로 한다.

여기에는 장인이나 아마추어(amateur)¹⁾와 같이 어떤 문화를 좋아하고 그에 대한 감수성과 능력을 발달시켜 나가는 사람들이 포함된다. 또한 물건, 도구, 기술과 같은 물질적 실체와 아이디어, 규범, 기호와 같은 비물질적 실체들도 포함된다. 이러한 다양한 실체들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연결되는가에 따라서 구체적인 체험과 행위를 가능하게 하기도 하고 제한하기도 한다.

1) 에니옹(Hennion, 2007)은 아마추어를 비전문가와 같은 부정적인 의미로 보지 않는다. 아마추어는 “체계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일반인을 가리키며, 이들은 특정 영역에서 다양한 수준의 감수성과 능력을 발달시켜 나간다”(Hennion, 2007: 112).

가르침과 배움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실현하며 더 나은 존재로의 변화를 만들어 가는 교육의 실천은 다른 여타의 삶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사물들이 있는 물질적 세계에서 전개된다. 학습을 개인적이고 인지적인 내면화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본 학자들은 일상화된 활동과 도구에 불박혀 있는 실천공동체에 사회문화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서 학습을 바라보는 관점을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문화적 관점은 여전히 개인 학습자들과 이들의 발달 과정을 초점에 두으로써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사물들의 활동적이고 수행적인 힘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주목하지 못하였다. 이런 점에서 도구와 같은 사물들이 있는 상황 안에서 학습이 수행된다고 보는 관점을 넘어 사물들이 인간과 함께 상황을 어떻게 만들어 가고 있는지, 사물과 인간이 접속하고 함께 행위함으로써 어떠한 삶과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지 탐구할 필요가 있다.

손기술로 무엇인가를 잘 만드는 활동은 ‘공예(craft)’ 또는 ‘만들기(making)’라는 이름으로 부를 수 있다. 여기에는 도예, 뜨개질, 목공과 같은 ‘전통적인’ 공예뿐만 아니라 산업사회에서 등장한 각테일 제조, 미용 등과 같은 일도 포함될 수 있다(Ingold, 2013; Price & Hawkins, 2018). 이러한 공예는 세계와 상호작용하며 물질적으로 관계해 온 인류의 지혜와 생활양식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그 활동을 하는 가운데 기술, 경험, 능력의 발달과 같은 개인의 존재적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 왔다.

공예라는 삶의 방식을 지속시키고자 하는 사회적 필요와 관심은 무형문화재와 장인들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정책의 추진으로 연계되거나(김세건, 2002), 지역의 문화산업과 연계하여 공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시행하는 것(김영주, 2012; 김정석·이지혜, 2012)과 같은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공교육제도인 학교에서도 미술과 실과,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과 같은 교육과정에 공예교육을 계속 포함시키고 있다(김용익, 2009).

공예를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제도적 노력과 함께 특정한 공예 분야가 어떻게 계속 지속되고 있는지, 무형문화재나 장인과

같이 공예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의 지식과 기술은 어떠한 것이며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박성용, 2014; 김재호, 2015, 임근혜, 2016, 정성미, 2018). 또한 공예를 배워 숙련된 장인이 되어가는 생애과정과 학습 활동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권미애·손민호, 2018; 안주영, 2009; 이병준·박응희, 2015; 장원섭·김지영, 2013; 장인온·장원섭, 2013, Kang, 2015).

이러한 연구들에서 볼 수 있는 공통점은 어떤 공예의 지식과 기술, 또는 공예품 자체가 고정된 것으로 주어져 있지 않고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계속 새롭게 변화하며 그에 따라 사람들의 정치적, 경제적, 교육적 실천이 달라져 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떠한 공예의 세계에서 나타난 재료나 기술과 같은 변화가 제작자에게 새로운 체험과 행위를 하도록 이끄는지, 이 과정에서 제작자는 재료나 기술과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며 공예의 세계를 다시 만들게 되는지와 같은 문제는 주목되지 않았다. 어떠한 재료나 기술은 인간의 의도, 목적, 관심에 의해 단순한 도구로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 차이와 변화를 가져오는 힘이 있고 이와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에 따라서 공예의 세계가 새롭게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을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공예의 세계가 형성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제작자인 인간뿐만 아니라 재료, 도구, 기술, 장소와 같은 비인간의 관여를 필요로 한다. 이들 각각의 요소는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역동적이고 유동적인 접속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만든다. 이와 같이 인간과 비인간 사이의 관계맺음을 통해 모든 실체들이 생성되는 것으로 보는 관점은 특정한 공예의 세계에 나타나는 지속적인 변화의 과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 연구는 이러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2000년대를 전후로 일반인들에게 접근이 가능하게 된 짜맞춤 목공의 세계를 탐구해 보고자 한다. 목공방에서 만드는 가구는 DIY²⁾가구와 짜맞춤가구로 크게 구분할

2) 'Do It Yourself'의 줄임말로 자신이 스스로 한다는 뜻을 갖고 있다.

수 있는데, 이중 나사나 못을 사용하지 않고 나무와 나무를 연결하는 짜맞춤가구는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가구제작 기술이다. 짜맞춤은 목가구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결구법을 가리키는 말로 이를 통해 나무의 물성에 따른 변형을 최소화하고 보다 견고한 목가구를 만들 수 있다(백만기·김량·김지우, 2016).

그러나 이러한 짜맞춤 기술에 바탕을 둔 목가구는 근대화와 산업화라는 급속한 시대적 변화 가운데 점차 그 필요와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짜맞춤 기술은 무형문화재나 장인과 같은 소수의 사람에 의해 근근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백만기, 2020). 그런데 2000년대를 전후로 목공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이 짜맞춤 기술을 배워 현대의 주거환경에 맞는 짜맞춤가구를 만들 뿐만 아니라 제작과정과 작품을 온라인매체에 등록하고 공유하며 활발한 소통을 해나가고 있다.

짜맞춤 기술을 현대에도 지속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짜맞춤 결구의 특징을 분석하고 현대인들이 선호하는 짜맞춤의 종류나 난이도를 분석한 바 있다(남궁선·이유리·정수경·정성환, 2010; 남궁선, 2013; 유진경; 2015). 한편 한국과 일본의 짜맞춤 결구를 비교하거나(이재희, 2019), 짜맞춤 결구를 활용하여 한글교구를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탐구하기도 하였다(정수경, 2013).

이러한 연구들은 짜맞춤 기술의 우수함과 선조들의 지혜를 이어가려는 노력을 보여주지만, 짜맞춤 기술이 결과물로 구현된 결구에 초점을 두고 있어 짜맞춤 기술이 지속되기 위해 어떠한 구체적인 실천이 이어져 왔으며 그 가운데 제작자, 도구, 재료 등이 어떠한 관계를 맺고 목공의 세계를 새롭게 만들어 온 과정과 역동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짜맞춤가구 만들기와 같은 목공의 세계가 오늘날 목공방에서 어떻게 지속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인간과 사물이 접속하여 함께 만드는 교육 상황과 이 가운데 나타나는 삶과 교육의 실천에 주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목공의 세계가 생성되고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행위만이 아니라 도구, 재료, 기계, 기술과 같

은 다양한 비인간의 참여를 통해 인간과 비인간의 얽힘이 지금-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실행되는 방식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목공의 세계를 인간과 비인간의 얽힘의 관점에서 바라볼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인간과 비인간의 얽힘이 만들어내는 상황 가운데 구체적인 체험과 행위, 그리고 그 성장을 도모하는 가르침과 배움이 어떻게 실천되는지 살펴보는 것은 학습자와 교수자라는 인간뿐만 아니라 세계, 지식, 사물이 일상의 교육적 삶 가운데 어떻게 부단히 변화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함께 생성해 나가는지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할 것이다.

“문화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때, 그 의미를 서로 나누어 가질 수 있을 때 비로소 살아 있는 문화가 된다”(조용환·윤여각·이혁규, 2006: 51). 이런 점에서 짜맞춤 목공과 같은 문화가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 있는 문화가 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짜맞춤가구 만들기에 관심을 가지고 직접 이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과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짜맞춤 목공을 가능하게 하는 특정한 나무, 수공구, 기계, 기술, 책 등이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며 어떠한 체험과 행위를 함께 만들고 있는지 살펴보는 일이 중요하다.

이 연구는 인간과 사물의 얽힘이 서로의 존재를 함께 생성할 뿐만 아니라 특정한 체험과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상황을 만들어낸다는 관점으로 교육의 실천을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목공의 세계를 사례로 선택하여 인간과 사물이 특정한 체험과 행위, 그리고 이를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의 실천과 상황을 생성하는 데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 탐구하고자 한다. 즉 목공의 세계에 어떠한 인간과 사물이 함께 모여 교육 상황을 만드는지, 그 과정에서 삶과 교육의 실천들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이해해 보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이 연구의 목적은 짜맞춤 목공을 사례로 사물과 인간의 얽힘을 통해 목공 문화가 어떻게 저변을 확대하며 지속되는지, 그 가운데 삶과 교육의 실천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탐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물과 인간이 함께 행위하며 만들어 낸 다양한 사건들에 주목하면서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에 답하고자 하였다.

첫째, 목공 문화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물과 인간은 어떻게 모이게 되는가? 사물과 인간의 관계 가운데 짜맞춤 목공은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가?

이 연구는 짜맞춤 전수관이라는 연구현장에서 주 참여자인 백만기와 그에게 짜맞춤 목공을 배우는 학습자들로, 이들은 2010년대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짜맞춤 목공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오늘날 짜맞춤 목공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것은 백만기의 스승이었던 조석진 혹은 그 이전의 짜맞춤 목공을 그대로 전달받았기 때문이 아니다. 목공 문화는 언제 어디서나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물과 인간이 참여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특수성을 갖는다. 짜맞춤 목공을 하고, 이를 가르치고 배우기 위해서는 인간만이 아니라 수공구, 나무, 가구 등 다양한 사물들의 참여에 의해 가능하게 된다. 이들은 고정된 실체로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관계맺음을 통해 변화하는 과정 중에 있으며, 다른 존재들과의 접속에 열려 있다. 백만기는 짜맞춤 목공의 저변 확대를 위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짜맞춤 목공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때로는 새로운 사물과 연결되고 때로는 다른 사물로 전환하는 일이 필요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처럼 사물과 인간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어떻게 한 자리에 모여 짜맞춤 목공을 다시 새롭게 실행하게 되는지에 대하여 중요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짜맞춤 목

공을 안정되게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사물과 인간 가운데 무엇이 어떻게 포함/제외되었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로 보여주고자 하였다.

둘째, 사물과 인간의 얽힘 가운데 목공에 대한 앎과 교육의 실천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특정한 사물과 인간의 얽힘 가운데 실행되는 짜맞춤 목공은 시공간에 따라 다른 상황에 놓이며 특수성을 갖는다. 이 연구에서는 짜맞춤 목공과 관련하여 어떠한 사물과 인간이 앎을 체화하고 있는지, 이들의 관계가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 가운데 어떠한 것을 가능하게 하고 제한하는지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수공구, 나무, 온라인 앱 등 다양한 사물들은 주위의 다른 사물들과 연결되어 짜맞춤 목공에 대한 앎을 체화하고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 백만기와 학습자들은 이러한 앎에 어떻게 관계되어 있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짜맞춤 목공에 대한 앎을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들이 사물과 인간의 얽힘 가운데 이전 세대 혹은 다른 목공방과 어떻게 다르게 실천되고 있는지를 보고자 하였다. 이에 짜맞춤 전수관에서 사물과 인간이 함께 형성하는 구체적인 상황이 어떠한지, 이 가운데 교육의 실천은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지 드러내고자 하였다. 짜맞춤 목공의 저변 확대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들을 중심으로 앎과 교육의 실천이 어떻게 변화하였고 어떤 특징을 갖는지 정리하였다.

셋째, 목공 문화의 지속과정에서 볼 수 있는 사물과 인간의 얽힘은 어떤 교육학적 함의를 갖는가?

목공 문화의 지속과정, 그리고 교육의 실천에서 볼 수 있는 사물과 인간의 얽힘은 어떠한 것이 존재하고 계속 실행되기 위해서는 주위의 다른 존재들과 관계를 맺어야 함을 드러내준다. 짜맞춤 목공이 사라지지 않고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짜맞춤 전수관을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안정되게 실천될 수 있는 것은 머릿 속이나 책에 있는 앎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목공의 체험과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구체적인 상황이 창조되

고 유지되어 왔기 때문이다. 교육의 실천은 다른 여타의 활동과 마찬가지로 사물들과의 물질적 상호작용을 통해 가능하다. 짜맞춤 목공의 앎과 교육의 실천이 지속되는 가운데 사물들은 수동적인 배경으로 주어져 있거나 어떤 결과를 결정짓는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었다. 사물들은 주위의 다른 사물 그리고 인간과 어떠한 관계를 맺는가에 따라서 그들과 함께 특정한 상황, 문제, 가치, 해결방법 등을 형성하고 조율해 나간다. 이러한 사물과 인간의 얽힘을 통해 앎과 교육의 실천을 이해하는 것은 어떠한 교육학적 의미를 갖는지 논의하였다.

3. 선행연구와 연구의 관점

이 연구의 목적은 인간과 사물의 얽힘을 통해 목공의 세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하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나타나는 앎과 교육의 실천을 탐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종류의 목공 중 짜맞춤가구 만들기를 사례로 선택하였는데 이 장에서는 가구 만들기와 목공교육, 그리고 공예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학습이론의 존재론적 가정들을 인간과 사물의 관계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이 연구의 관점으로 삼은 상황학습과 사회물질적 접근을 정리함으로써 이 연구가 어떠한 문제의식과 접점을 형성하고 있으며 어떠한 지향을 추구하는지를 드러내었다.

1) 가구 만들기와 목공교육

목공은 나무를 재료로 하는 공예로 어떤 내용에 초점을 두는가에 따라 다르게 불리기도 한다. 목공(woodworking)은 나무라는 특정 재료에, 가구제작(furniture making)은 만드는 사물의 유형에, 짜맞춤(joining)은 제작기술에 초점을 두고 있다(Risatti, 2007).³⁾ 그런데 이러한 구분은 나무

로 가구를 만드는 일을 목공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며 나무를 조각하여 작품을 만드는 우드카빙(woodcarving)도 목공에 해당한다. 한편 나무와 나무를 직접 연결하여 가구를 만드는 기법을 가리키는 짜맞춤과 같은 목공이 있는가 하면, 나무의 연결에 못이나 나사를 사용하는 DIY 목공도 있다.

나무를 다루어 무엇인가를 만드는 일을 목공이라고 부르지만 무엇을, 어떻게 만드는가에 따라 여러 종류의 ‘목공들’로 구분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구분은 ‘특정한’ 목공의 세계를 형성하는 나무, 도구, 기술, 사람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짜맞춤가구 만들기라는 특정한 목공의 세계에서 인간과 사물의 얽힘이 어떻게 나타나며, 교육적 실천은 목공의 세계가 형성되고 변화하는데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국내에서 가구 만들기와 관련된 목공교육 연구는 양과 질 모두 상당히 부족한 편이다. 다양한 종류의 목공들 가운데 가구 만들기에 관한 연구는 크게 DIY가구와 짜맞춤가구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부터 목공방이 상업화되고, 일상 주변의 재료와 도구를 이용하여 필요한 물건을 스스로 만든다는 DIY 개념이 대중화되기 시작하였다(김영주, 2015). 이 과정에서 DIY와 목공방이 합쳐진 DIY 목공방이 창업되었고 집성판을 못이나 나사로 연결하는 방식의 DIY가구 만들기를 일반인들이 접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나사나 못을 사용하지 않고 나무와 나무를 연결하는 짜맞춤가구는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가구제작 기술로 만든다.⁴⁾ 짜맞춤은 목가구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결구법을 가리키는 말로 이를 통해 나무의 물성에 따른 변형을 최소화하고 보다 견고한 목가구를 만들 수 있다(백만기·김량·김지우, 2016).

3) 리사티(Risatti, 2007)는 목공을 부르는 이러한 다양한 이름에서 공예의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바로 재료와 재료를 다루는 기술과 지식이 공예 분야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4) 목가구는 나무라는 재료의 특성으로 인해 썩어 없어지게 된다. 오늘날 유물로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우리나라의 짜맞춤가구는 조선시대의 것이다.

먼저 DIY가구 만들기에 대해서는 DIY 목공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Chun & Kim, 2008), DIY가구 제작체험(이진욱·이태경, 2016)을 살펴본 연구가 있다. 천동환·김광렬(2008)은 대학생과 일반인들에게 여가활동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학에서 운영한 DIY 목공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였다. DIY 목공 프로그램의 기술 수준, 시설, 서비스, 비용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참여자들은 편리한 시설과 합리적인 비용 면에서는 만족하였지만 교육내용과 교육방식 면에서는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DIY가구 만들기의 체험이 갖는 의미를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연구한 이진욱·이태경(2016)에 따르면, 사람들은 스스로 가구를 만들면서 성취감을 느끼며 자기 성장의 계기를 갖는다. 연구자들은 DIY가구 만들기를 통해 사람들이 상품의 소비가 아닌 생산을 통해 스스로 중요하게 여기는 감성과 가치를 적극적으로 추구해 나가고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연구들은 DIY가구 만들기에 참여한 사람들의 체험과 의미를 살피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DIY가구 만들기를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과 맥락이 드러나지 않고, DIY가구 만들기의 고유한 체험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들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다음으로 짜맞춤가구 만들기에 대한 연구는 제작기법으로서의 짜맞춤을 현대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와 같은 조형적 분석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즉 짜맞춤이라는 가구의 구조 또는 그러한 구조를 만들어내는 기술에 한정하여 새로운 가구나 생활용품을 만드는 데 활용하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아동 교육에 필요한 교구 개발(김은주·정수경, 2010; 정수경, 2013), 현대 생활가구 제작에 사용할 수 있는 짜맞춤 종류의 분석(남궁선·정수경·김태호, 2010, 남궁선·이유리·정수경·정수환, 2010; 남궁선, 2013; 유진경·박유정·최경란, 2015; 최기·문정인·최임정, 2016) 등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짜맞춤이라는 제작기법의 우수성을 드러내고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그 가치를 이어갈 수 있도록 기초 자료를 구축해 나

가는 노력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남궁선·이유리·정수경·정수환(2010)은 접착제나 못을 사용하지 않고 견고하게 가구를 만드는 전통적인 짜임기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스스로 가구를 만들고 싶어 하는 일반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다만 이와 같은 짜맞춤에 대한 조형적 분석은 짜맞춤가구를 만드는 과정이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지속되고 있는지, 이를 가능하게 하는 교육적 실천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연구와 병행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짜맞춤가구 만들기라는 체험과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구체적인 맥락이 교육적 실천을 통해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에 주목하는 이 연구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2014-2015)에서 발행한 공예백서에 따르면 공예교육은 크게 학교 교양교육, 학교 전공교육, 사회 취미교육, 사회 직업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구분에 따라 목공교육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학교 교양교육과 사회 취미교육에 해당하는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⁵⁾

먼저 학교 교양교육과 관련하여 목공의 교육적 가치에 대한 연구(김용익, 2009; 이민경·강호양, 2008)를 보면 재료와 도구를 다루는 손의 활동을 통해 학습자가 체험할 수 있는 가치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 논의하고 있다. 이민경·강호양(2008)은 수공노작교육의 관점에서 목공의 교육적 가치를 정립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르면 수공노작은 손의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수공적 활동이 정신적 활동과 통합되어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목공은 수공노작의 한 종류로 재료와 도구를 사용하면서 손조작 능력, 협응력, 두뇌기능, 창의성을 발달시킨다는 점에서 교육적 가치를 갖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들은 목공이라는 활동이 갖는 특수성에 주목하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과교육과 다른 교육적 가치를 드러내기는 하였지만, 그러한 가치를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구체적인 특정한 목공의 세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보여주지는 않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목공은 어떠한 나무, 도구, 기술, 사람 등으로 형성되는가에

5) 사회 취미교육에 해당하는 연구는 앞서 DIY가구 만들기 부분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따라 목공활동의 성격이 달라지고 이에 따른 교육적 가치도 변하게 된다. 따라서 목공의 교육적 가치는 목공교육의 중요성을 드러내고 실제 활동을 이끄는 방향성으로 삼을 수 있지만, 목공을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에서 어떠한 교육적 가치가 체험되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상황적 맥락으로서의 세계를 이해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학교에서의 목공교육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학교에서 실행되는 목공교육에 대한 연구로 먼저 초등학교의 실과 교육과정과 창의적 체험활동⁶⁾에서 목제품을 만드는 과정이 학생들에게 어떠한 영향이나 효과가 있는지 탐구한 것이 있다(백성희·금지현, 2013; 송미원·남현욱, 2010; 이미경·이춘식, 2008; 이은희·이춘식, 2008). 이러한 연구들은 목공 활동을 하기 전과 후에 학생들의 능력과 태도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백성희·금지현(2013)은 카혼(악기) 만들기와 같은 목공 활동이 학생들의 창의성, 배려, 의사소통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목공 활동을 하는 학생들의 체험을 미리 정해진 기대효과에 비추어 검증하는 방식이어서 목공 활동의 과정과 맥락은 드러나지 않는다.

목공 활동과 학생들의 체험에 대한 통계 분석연구 가운데 송미원·남현욱(2010)은 다른 연구들과 달리 새로운 목공 활동을 시도하는 과정을 비교적 자세히 소개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개방형 질문지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목공 활동에서 어떤 체험을 하였는지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연구자들은 키트⁷⁾에 의존하여 선반이나 메모판과 같은 간단한 생활용품을 만드는 기존의 실과 ‘목제품 만들기’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흥미를 끌지 못하며 목공교육의 가치를 충분히 체험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교육 소재로서 드래그스터라는 경주용 자동차

6) 창의적 체험활동은 국가 수준의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교과 이외의 활동을 말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의 4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목공은 동아리활동의 하위영역인 청소년단체활동에 속해 있다.

7) 키트(kit)는 조립용품 세트로 조립을 해서 무엇을 바로 만들 수 있도록 부품들을 모아 놓은 것을 말한다.

만들기를 시도하였다. 학생들은 아이디어를 실제 자동차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나무, 실톱, 사포와 같은 재료나 도구에 대한 자신의 체험이 변화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드래그스터라는 새로운 사물이 목공 활동의 새로운 맥락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이 이전의 교육과정과는 다른 새로운 체험과 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학교에서 실행되는 목공교육과 관련하여 수행된 질적 연구는 김지혜·이건남·최지연(2017)이 있다. 이들은 초등학교 교사 세 사람의 목공교육 실행 경험을 내러티브 연구방법으로 탐구하였다. 교사들은 각자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공교육의 가치에 따라 학생들이 어떠한 활동을 하면 좋은지 판단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료와 도구를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모습을 보였다. 가령, 이들은 조립용품 세트가 아닌 나무 판재를 직접 구하여 수업을 한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이를 통해 앞서 송미원·남현욱(2010)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목공 활동은 고정된 실체로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의 관심, 동원할 수 있는 사물들이 함께 구성해내는 것임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목공교육의 과정을 연구할 때 만들고자 하는 작품의 종류, 필요한 재료와 도구를 당연하게 주어져 있는 활동의 배경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물들이 교사, 학생들과 함께 목공 활동의 구체적인 맥락을 형성하는 힘을 갖고 있다는 것에 주의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많은 연구가 목공교육을 통해 교수자나 학습자가 갖게 되는 의미, 태도, 능력을 다루고 있는 것에 비해 목공 활동을 구성하는 작품, 재료, 도구, 인간의 몸이 이루는 물질성과 물질적 상호작용을 심도 있게 살피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주목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2) 공예 연구

공예의 지속과 변화에 관한 연구는 크게 인류학적 접근과 교육학적 접근

근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인류학적 접근은 특정한 공예품의 생산전통이 지속되는 과정에 관한 연구(문옥표, 2011; 임근혜, 2016; 정성미, 2012)와 공예를 만드는 지식과 기술의 내용에 관한 연구(김재호, 2015; 박성용, 2014; 정성미, 2018)가 있다.

먼저 공예품의 생산전통이 어떻게 지속되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들은 견직물, 유기, 복조리와 같은 공예품이 어떠한 시대적 변화 가운데 놓여 있으며 지속적으로 생산/소비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의 과정이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가령, 조리는 쌀에 혼합되어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기능이 공정 도구의 기계화로 필요하지 않게 되었지만, ‘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국의 문화가 조리에 복을 담는다는 상징적 실천으로 연결되어 ‘복조리’의 생산과 소비가 지속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복조리를 만드는 기술은 전통지식에 바탕을 두고 있으면서도 크기, 모양, 장식 등에서 변화가 생겨났다.

이러한 공예품의 지속과 변화에 관한 인류학적 연구에서 주목할 부분은 전통을 지속적으로 변화하며 다양한 의미를 획득해 가는 것으로 보며, 인간과 사물은 영향을 주고받으며 서로를 함께 만들어 간다는 관점에 있다. 이러한 분석적 관점을 명시적으로 잘 드러낸 것으로 임근혜(2016)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먼저 전통과 주체의 관계는 ‘전통계승론’과 ‘전통창출론’이라는 두 관점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임근혜, 2016). 전통계승론은 현대사회에 존재하는 전통을 잔존문화로 바라보고 무형문화재를 통해 과거 문화가 어떻게 보존되고 있는지, 혹은 보존되어야 하는지를 논의하는 입장을 가리킨다. 이러한 전통계승론은 고정된 형태의 문화를 전제하고,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장인에게 이를 재현하고 보존하는 역할과 정체성을 부여한다.

이와 달리 전통창출론은 변화하는 시대적, 사회적 상황 가운데 문화를 재해석하고 새로운 기술 개발과 적용 전략 등을 발전시키면서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주체의 삶에 주목한다. 이러한 관점은 과거의 잔존문화가 아닌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화와 그 문화를 만들어 가는 주체의 실

천을 중요하게 여긴다. 전통은 당해 문화의 주체인 인간이 과거와의 연속성 속에서 지속과 창출의 과정을 통해 현재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주체의 삶과 실천을 통해 만들어가는 것으로 전통을 바라보는 관점은 전통과 주체가 변화하는 정치적, 경제적, 역사적 맥락을 중요하게 다루며 자세하게 드러낸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주체의 실천은 맥락에 의해 구속되면서도 새로운 맥락을 창조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공예를 만드는 지식과 기술의 내용에 관한 인류학적 연구들은 앞서 공예품의 지속에 관한 연구와 마찬가지로 신기술의 도입, 사회문화적 변화에 대응하여 장인들이 지식과 기술을 조정하고 새롭게 창조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다만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가르치는 과정이 전면에 드러나기보다 지식과 기술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결과로서 제시되는 측면이 크다.

이처럼 공예의 지속과 변화에 관한 인류학적 연구는 공통적으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맥락의 변화와 공예의 세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장인과 같은 제작자들은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반응하며 공예품과 자신들의 지식, 기술을 다시 만들어 나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공예품과 이를 만들기 위한 지식, 기술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가르침과 배움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주목되지 않고 있다. 공예의 세계를 형성하고 지속하게 하는 교육의 실천이 어떻게 나타나며, 이를 통해 새롭게 변화하는 공예의 세계를 드러낼 필요가 있다.

공예의 지속과 변화에 관한 교육학적 접근은 인류학적 접근과 마찬가지로 장인이나 무형문화재를 중심으로 수행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장인이 되기까지 전생애에 걸쳐 어떠한 학습 활동(이병준·박응희, 2015; Kang, 2015)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거나, 장인이 기술을 숙련하는 학습의 상황과 과정(권미애·손민호, 2018; 안주영, 2009; 장원섭·김지영, 2013; 장인운·장원섭, 2013)은 어떠한지를 다루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에서 장인이나 무형문화재의 학습 활동과 과정은 입문기, 숙련기, 확장기와 같이 생애과정에 따라 분석되는 경우가 많다(이병

준·박응희, 2015; 장원섭·김지영, 2013; 장인운·장원섭, 2013). 이 연구들은 장인이나 무형문화재를 독립된 개인으로 보지 않고 집단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보고 학습의 과정이 이 가운데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피고자 하였다.

한편 강대중(2015)의 연구는 장인들의 생애과정에서 나타난 학습 활동과 과정을 시기의 변화가 아닌 다양한 유형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 역시 사회문화적, 역사적 맥락과 분리되지 않은 학습자의 삶을 강조한다. 사회문화적, 역사적 맥락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그에 따라 완전히 결정되는 것은 아닌 다양한 학습 활동이 어떠한 유형으로 나타나며, 학습 활동들이 학습자의 삶을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이들의 연구는 강대중(2015)이 말한 바 있듯 장인들이 배워야 할 지식이 미리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역사적 맥락이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따라 장인들의 지식과 학습이 함께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생애 과정에 나타난 학습 활동과 과정에 대한 연구는 사회문화적, 역사적 맥락과 학습의 관계에 주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스승, 동료와 같은 타인들과의 상호작용에 비해 재료나 도구와 같은 사물들과의 상호작용은 학습의 체험이나 활동 면에서 어떠한 변화를 가능하게 하였는지 자세히 드러나 있지 않다. 물론 이들의 연구가 장인이 만들고자 하는 것에 있어서 새로운 재료나 도구, 혹은 기술과 같은 변화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인간 간의 상호작용만을 주목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다양한 사물들이 장인이 몸담고 있는 공예의 세계를 어떻게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는지, 사물들이 인간 그리고 다른 사물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차이와 변화를 가져왔는가에 대한 주목도 부족한 면이 있다.

한편 장인이 기술을 숙련하는 학습의 상황과 과정을 다룬 연구 가운데 권미애·손민호(2018)는 장인이 사물을 다루는 방식을 중심으로 장인이 어떻게 하여 숙달된 상태에 이르게 되는지를 탐구를 하였다. 이들은 민속방법론적 관점에서 도구와 사물을 타자의 연장선으로 보고 목공장인의 도구와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목공장인이 작품을 만드는 현

장에서 자신을 둘러싼 도구와 상황들을 어떻게 조정하고 배치하는지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장인의 숙련된 지식이 개인의 내면이 아닌 그의 생활세계를 이루는 인간과 사물, 인간과 상황의 관계에 분산되어 있다고 보았다. 또한 작업장에 있는 도구와 재료를 다루면서 그것들이 갖고 있는 물질성이 장인에게 어떠한 체험과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지를 기술하고 있다.

이는 공예와 관련된 교육학적 연구 가운데 참여관찰을 통해 실제 작업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인간과 사물의 물질적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여러 공예 분야 가운데 목공의 세계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관심과 유사한 면이 있다. 그러나 차이점도 찾아볼 수 있는데, 권미애·손민호(2018)는 장인의 작업장에 있는 사물들이 주어진 것으로 보고 장인이 그것들을 어떻게 즉각적이고 유연한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가에 주된 초점을 두고 있다. 사물들이 어떻게 중요한 물질이 되었는지, 이 과정에서 장인의 삶과 그가 몸담고 있는 세계에 나타난 변화는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연구의 관점

나는 목공의 세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하며, 그 가운데 삶과 교육의 실천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인간과 사물의 얽힘 속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관계들로 바라보고자 한다. 이는 목공의 세계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어떠한 지역적이고 상황적인 실천들이 나타나는지, 그 가운데 다양한 물질들이 어떻게 함께 모이고 관계가 변화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학습이론에서 볼 수 있는 인간과 사물에 대한 존재론 가정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인식론은 인간이 세계에 대한 참된 지식을 어떻게 알게 되는가에 초점을 둔다면 존재론은 세계에 무엇이 존재하는지, 지식을 만드는 존재들은 무엇인지를 묻는다. 학습이론을 존재

론의 측면에서 검토하는 것은 세계에 대한 인간의 재현, 그리고 그 산물로서의 지식을 강조해 온 인식론적 접근에서 간과되었던 사물의 존재를 다시 생각해 보기 위함이다.

(1) 학습이론의 존재론적 검토

교육학에서는 행동주의, 인지주의, 구성주의, 사회문화적 이론 등 다양한 학습이론이 논의되어 왔다. 이러한 학습이론들은 인간과 세계에 대하여 존재론적으로 다른 전제를 가지고 있다. 아래에서는 각 학습이론의 존재론적 전제를 살펴보고 그 가운데 사물과 인간의 관계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해 보고자 한다.

20세기 교육학 분야에서 행동주의 이후 나타난 학습이론들은 마음(mind)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이해하고자 노력하였다. 이 가운데 인지주의는 “학습을 외적 세계에 대한 내적 표상 혹은 심리모형(mental model)으로 보는 것”(Davis, Sumara, Luce-Kepler, 2008/2017: 160)이다. 머릿속에 실제 세계에 대응하는 지도와 같은 것이 있다고 보는 이러한 입장을 잘 나타내는 은유는 컴퓨터인데, 학습자는 컴퓨터와 같이 “정보를 ‘내면화하고’ ‘입력하며’, 지식을 ‘저장하고’ ‘처리하는’”(Ibid: 160) 활동을 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인지주의는 세계를 직접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질과 사실의 집합이라 여기며, 이를 상징체계로 재현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밖’에 있는 대상과 그것을 상징체계로 받아들이는 주체의 ‘안’을 이원론적으로 분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상징체계는 세계에 대한 참된 진술을 반영하고 있는가와 같이 둘 사이의 대응 여부가 진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이러한 인지주의에서 사물과 인간은 재현되는 것과 재현하는 자의 관계로 볼 수 있으며, 사물은 인간의 밖에 고정된 실체로 주어져 있다.

다음으로 구성주의는 인지적 구성주의와 사회적 구성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 구성주의 입장을 취하는 학자들은 인지주의가 전제하는 실재의

객관적인 존재와 그것을 언어와 같은 상징체계에 그대로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들은 실재를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개인의 내적인 체험구조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고 말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인지적 구성주의를 대표하는 학자인 피아제(Piaget, J.)의 발생적 인식론에 따르면, 학습이란 체험구조를 구성하고 다시 재조직해 나가는 일로 실재와의 대응 여부보다 체험구조의 정합성이 더 중요하다. 학습자는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자신의 체험구조를 변화시켜 나가는 능동성을 갖는다.

피아제는 아동의 발달을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로 구분하였다. 이는 세계 대한 우리의 지각을 조직하는 인식론적 구조가 발생적으로 구성되어 가는 단계를 가리킨다.⁸⁾ 아동은 물리적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점차 반성적 추상화를 할 수 있게 되고 그 최종 단계가 형식적 조작기이다. 형식적 조작기가 되면 아동은 이전 단계인 구체적 조작기와 감각적 조작기의 특징인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추상화된 사고를 할 수 있게 되고, 이는 가설 연역적인 사고로 특징지어지는 과학을 가능하게 한다. 그런데 피아제는 아동이 세계를 어떻게 재현하는가에 관심을 두었고, 세계가 실제로 어떻게 재생산되고 혹은 변형되는가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따라서 아동의 행위는 자신과 독립적으로 있는 환경을 조작하는 도구적 활동이 되고, 이로 인하여 세계에 대한 지식은 구성되지만 세계 자체는 생성되거나 변화하지는 않는다.

인지주의와 구성주의는 인간과 세계, 지식과 학습에 대하여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 인지주의는 세계를 그대로 재현하는 상징체계가 존재하며, 세계와 상징체계는 일치한다고 본다. 한편 구성주의는 세계를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상징체계는 없으며 주체의 내면에 구성된 구조를 통해서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고 보고, 세계와의 일치가 아닌 정합적인 의미 구조의 구성을 중요하게 보았다.

8) 이런 점에서 피아제는 칸트의 계승자라고 할 수 있는데 칸트는 감각과 오성을 종합하는 선형적 도식이 있다고 보았으나, 피아제는 그러한 도식이 발생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레이브와 패커(Lave & Packer, 2008)는 인지주의와 구성주의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전제를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로, 주체와 세계는 두 개의 독립된 실체이다. 주체는 정신적이고 인지적인 실체인 반면, 세계는 결정된 속성을 가진 대상의 집합이다. 주체는 개인이며, 세계는 역사가 없는 환경이다. 즉, 두 이론은 주체와 세계에 대한 이원론적 입장을 취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 주체와 세계의 관계는 인식론적인 것이다. 학습은 주체가 세계를 더 잘 아는 것의 문제가 된다. 세계 안에서의 행위는 새로운 창조나 변화를 낳을 수 없고 세계를 정확히 재현하는 것이 된다. 셋째로, 학습의 방향은 보다 추상적, 형식적, 객관적인 앎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넷째로, 이러한 추상적 앎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법은 반성과 거리두기에 있다.

이러한 학습이론은 독립적인 개인을 상정하고, 변화무쌍한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정확하고 정교하며, 언제 어디서나 참된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지식을 아는 것을 중요하게 다루었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반성과 거리두기를 학습의 방법으로 삼았다. ‘만약 내가 마음이라면’⁹⁾과 같은 가정에 토대를 두고 있는 개인주의적이고 합리적인 주체는 탈신체화 되어 있고, 비사회적이며, 비역사적이다. 이처럼 인지주의와 구성주의는 인간 주체를 중심에 두고 인간과 다른 사물들의 물질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거나 인간의 인지(cognition)와 행위성(agency)에 종속되는 것으로 보았다. 다시 말하여 “물질적 사물은 교육 실천이 일어나는 배경적 맥락으로 간주되거나, 인간에 의해 사용되는 단순한 도구 혹은 인간이 탐구하는 대상으로 받아들여졌다.”(Fenwick, Edwards & Sawchuk, 2011: 3) 이처럼 인간 주체의 의식에 특권을 부여하면서 물질적인 것은 비인간이며 인간은 이와 분리되어 있고, 전적으로 다른 존재라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교육학 연구에서 교육의 실천과 사물은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는가라는 물음은 주목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고, 사물을 교

9) 과학철학자 힐러리 퍼트넘(Hilary Putnam, 1981)은 몸과 분리된 순수한 정신을 “통 속의 정신 (mind in a vat)”(Latour, 1999/2018: 30에서 재인용)이라는 개념으로 말한 바 있다.

육적 수행에 앞서 단지 주어지 있는 배경 혹은 도구로만 여기게 되었다 (Sørensen, 2009).

인본주의적 관념과 전제들에 바탕을 둔 학습이론에 따르면 “학습자는 데카르트의 마음/신체의 이원론을 바탕으로, 물질세계와 구분되는 자아와 의식을 가진 독립적 존재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인본주의적 학습자들은 개별적 능동성과 선택에 의해 자신의 의지와 지적 욕구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세상을 탐색해 나가는 존재”(박휴용, 2019: 122)이다. 이러한 인본주의적 학습이론에서는 “수많은 학습들의 도구들과 기술적 매체들은 개별 학습자와 분리된 요소로서 학습을 보조하는 단순한 매개체로서 간주되었고, 그로 인해 학습의 본질이 될 수 있는 지식, 사물, 도구, 그리고 인간의 공통된 물질성(materiality)이 간과되었다”(ibid.: 122).

인지주의와 구성주의의 존재론적 전제는 데카르트의 주체-객체 이원론을 따르는 것으로, 그는 인간 주체를 무엇보다 정신적이고 인지적인 존재로, 세계의 대상으로부터 거리를 둔 생각하는 개인으로 보았다. 대상은 물질적이고, 실제적이며, 공간 안에 연장되어 있지만 주체는 인과의 법칙이 아닌 논리적인 사고와 관념의 영역에 있었다. 그러나 사회문화적 학습이론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맑스(Marx, K.)는 일상의 실존은 데카르트의 관점과 다른 세계-내-존재에 터하고 있으며, 정신과 물질을 분리하는 것은 인간 행위자와 세계 사이의 관계를 잘못 해석하는 것이라고 보았다(Lave & Packer, 2008).

다음에서는 상황학습이라고도 불리는 사회문화적 학습이론의 존재론적 전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교육학 논의에서 상황학습은 흔히 사회구성주의로 구분되는데(강인애, 1995; 광영순, 2001), 이는 사회구성주의와 사회문화적 학습이론의 중요한 차이를 간과한 것이다. 사회구성주의자들은 사회적, 문화적 실천을 중요하게 논의한 맑스(Marx, K.)와 비고츠키(Vygotsky, L. S.)에 기대어 개인의 인지적 활동이 사회적 관계를 통해 재구성되는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인지적 구성주의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인식론적인 발달에 초점을 두고 개인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어떠한 신념, 가치, 개념, 규범을 갖게 되는가에 주목하기 때문에 사회문화적 학습이론과 다르다(Packer & Goicoechea, 2000).

사회문화적 학습이론은 세계-내-존재와 세계는 실천 가운데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은 세계 내에서의 실천 밖에 존재할 수 없다고 본다. 즉, 실천을 통해 우리의 지식만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세계를 함께 구성해 나간다. 이와 같이 사회문화적 학습이론의 실천 개념을 사회구성주의자들이 말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단순한 차원으로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

상황학습 또는 사회문화적 학습이론이 전제하고 있는 맑스의 사회적 존재론(social ontology)은 실천 철학(philosophy of praxis)으로 불린다(Packer & Goicoechea, 2000). 실천으로서의 학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사물을 구분하는 이분법적 존재론을 벗어날 필요가 있다. 학습은 구성주의와 같은 개인의 내적 마음을 발달시키는 얇이 아니라 세계-내-존재로서의 실천에 뿌리내리고 있음에서부터 출발한다. 학습에 대한 이원론적 합리주의 이론은 세계를 도구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객관적 지식을 궁극적으로 전제한다. 학습의 목적은 보편적이고 추상적 지식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와 달리 실천으로서의 학습은 세계-내-존재로서 다른 타자들과 함께 세계에 참여하며 세계를 만들어가는 일에 관심을 둔다.

조현영·손민호(2017)는 상황주의 학습이론을 경험이나 행위의 변화에 대해 새롭고 풍부한 이해를 가져다주는 중요한 패러다임으로 보고, 이러한 상황주의 학습이론이 후기 현상학, 듀이 등의 프래그머티즘,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사회인류학, 실천에 대한 공동체주의 철학 등 오랜 탐구의 전통과 맥락이 닿아 있다고 말한다. ‘머릿 속의 마음’이 아닌 몸을 가진 존재로서 사회적, 문화적, 물질적 맥락과 상호작용하는 ‘행위로서의 마음’에 주목하는 이러한 상황주의는 체화 인지, 분산 인지를 다루는 인지과학의 관점에서 1990년대 이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이정모, 2010; 조현영·손민호, 2017).

인지주의 이론은 세계로부터의 거리두기, 숙고, 정신적 조작, 형식적 재현에 가치를 두고 실천적이고 물질적인 활동의 가치를 낮게 매긴다. 그러나 세계에 대한 행위자의 지식 그리고 세계의 사물은 행위자, 사물, 세계를 변형시키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지식은 사물들과 함께 수행하는 실천에 의해서 생성되는 것이며, 이 과정을 통해 오래된 사물은 다시 만들어지고 새로운 사물이 창조된다. 이런 점에서 학습은 단순히 객관적 세계에 대한 자율적인 주체의 지적 변화가 아니라, 세계에 참여하는 주체의 재구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때 주체의 재구성은 타인, 사물, 제도와 같은 것들의 (재)생산과 맞물려 있다.

이처럼 상황학습은 세계-내-존재의 일상 활동과 물질성 안에 있는 학습에 주목한다. 학습자는 세계에 대한 사실적 지식을 받아들이는 몸이 아니라 세계 안에서, 세계와 함께 행위하며 자기 자신과 세계를 동시에 상호적으로 구성하는 존재이다. 사물은 상징으로 재현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실천을 통해 인간과 함께 세계를 만들어가는 존재론적 지위를 갖는다. 사물들은 고정된 속성을 갖는 실체가 아니라 다른 사물들, 인간들과의 관계를 통해 변화하고 생성된다(Packer & Goicoechea, 2000).

또한 1980년대 중반 국외에서는 사회구성주의의 문제를 성찰하고 이를 넘어서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이는 포스트구성주의(post-constructivism)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에 따르면 지식이나 이해는 기술, 도구, 제도, 상황적 담론의 교환 안에 체화되어 있는 것이다(Wehling, 2006).¹⁰⁾ 이는 기존의 자연적 객체와 사회문화적 의미를 결합하려고 했던 사회구성주의의 전통을 넘어서는 것이다.

10) 사회구성주의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포스트구성주의의 입장을 따르는 학자들로 포스트휴머니즘의 대표적인 학자들인 Latour(1999)나 Barad(2003)를 들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 포스트구성주의 학자들은 실천과 상황성을 중요한 개념으로 강조하는데, 이는 교육학의 사회문화적 학습이론(상황학습)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문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교육학 분야에서 상황학습을 사회구성주의의 한 갈래로 구분하는 것은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할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바라드(Barad, 2003)는 재현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행위(performance)를 강조한다. 과학이 연구하는 대상은 독립적으로 주어지 있거나 발견을 기다리는 안정된 무엇이 아니라 과학 실천에 의해, 과학 실천 안에서 공동으로 생성되는 시간적인 발생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때의 행위는 인간만의 것이 아니라 인간과 비인간이 함께 얽히어 사건을 만들어 가는 것을 뜻한다. “얽은 독립적으로 주어지 있는 실재가 무엇인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인간과 비인간 사이의 구성적 얽힘을 통해 지역적, 시간적으로 성취된 것”(Pickering, 1995/ Wehling, 2006: 92 재인용)이다. 이러한 지식의 안정성과 타당성은 인간과 비인간이 공동으로 생산한 실천의 유지와 반복에 의존한다.

얽과 배움은 외부의 대상이 갖는 속성을 인간의 내면으로 재현하는 일이 아니며,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오고가는 구성적 텍스트나 대화도 아니다. 얽과 배움은 세계와 그 세계를 이루는 다양한 인간과 비인간의 상호의존적인 관계 속에서 물질적으로 함께 되어 가기(becoming with)의 과정 속에 있다(Haraway, 2008). 다른 인간들, 인간이 아닌 것들, 살아 있거나 살아 있지 않은 존재들과 우리들의 물질적 얽힘은 환경에 속해 있고 체현되어 있는 상황적 지식을 생성한다. 이러한 상황적 지식은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배운다고 할 때, 그 얽과 배움을 형성하고 있는 인간, 사물, 장소 등의 물질적 힘과 관계를 중요하게 다루어야 함을 보여준다(Taguchi, 2010).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상황학습에서 사물은 추상적 개념으로 가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지식과 교육적 실천을 인간과 함께 수행한다. 인간은 사물과 함께 살아가고, 사물과 함께 새로운 세계와 자신을 창조한다고 할 수 있다.

(2) 사회물질적 접근

앞서 살펴본 상황학습에 따르면 인간과 사물은 세계 안에서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행위하며 상호적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이러

한 상황학습에서 제안된 주요 분석적 개념들이 학습자 또는 그들 간의 관계를 중심에 두게 됨으로써 상황적 실천의 물질적 차원이 간과되게 되었다(Fenwick, 2012).

레이브와 웅거(Lave & Wenger, 1991)는 체험과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맥락으로서의 세계를 경험적으로 탐구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으로 ‘실천공동체(community of practice)’와 ‘합법적 주변 참여(legitimate peripheral participation)’를 제안한 바 있다. 실천공동체는 “관심의 영역을 공유한 구성원들 사이에 형성된 관계를 바탕으로 특정한 실천 양식을 공유한 사람들의 집단”(손민호, 2015)을 의미한다. 이러한 실천공동체는 우리의 행위를 구속하고 이끄는, 그리고 다시 내가 그 존속에 기여하게 되는 나를 둘러싼 중요한 타자들과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Wenger, 1998/2007, 역자서문).

한편 실천을 공유하고 있는 어떠한 실천공동체에 참여하면서 구성원들은 의미를 협상하고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으로서의 학습을 해나간다. 실천공동체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적 체계를 통한 산물로서 경험이 많은 장인, 중간기술자, 도제의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실천공동체에의 참여는 권력 관계,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사회적 세계에서 의 위치가 주변적인 것에서 점차 전임적인 것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거친다.

한편 실천공동체를 이론적으로 미리 주어져 있는 맥락으로 다루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타났다(Fox, 2000). 실천공동체를 미리 주어져 있는 맥락으로 볼 경우, 실천공동체에서 영향력을 갖는 사람의 지식이나 힘은 고참이라고 불리는 앞선 세대들에게 속해 있는 것이 된다. 또한 실천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이 다루는 도구나 재료들 역시 주어져 있는 것으로 도구나 재료가 사람들에게 저항하고 변화시키는 물질적 힘을 간과하게 되고 새로운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이해하기 어렵게 된다. 다음으로 실천공동체가 외부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 가운데 특정한 실천공동체가 어떻게 발생하고 지속되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

팍스(Fox, 2000)는 실천공동체가 지식과 학습의 과정에 영향을 주는 역동적인 물질적 힘이 아닌 사람들 사이의 안정된 관계적 체계로 다루어짐으로써 인지주의 학습에서 맥락을 외부에 있는 ‘그릇’으로 본 것과 같이 정적이고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기 쉽다고 보았다. 에드워즈(Edwards, 2005) 역시 사람들 사이의 관계와 공동체에 초점을 두는 실천공동체는 맥락을 지나치게 경계지어져 있는 것으로 보게 하고 학습의 관계적 특성을 잘 포착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한편 조현영·손민호(2015, 2017)는 실천공동체가 교육이론에서 성공적인 모형으로 다루어지면서 공동체에서의 학습 또는 조직학습과 같이 지식을 관리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처방적 관점으로 변화해 왔다고 본다. 이는 공동체의 상호작용 과정이나 규칙을 명시화하여 실천공동체가 조성되도록 관리하는 교수적 또는 기업관리적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어떤 조직이나 집단을 실천공동체로 간주하고 이를 구성하는 요소를 공동업무, 공동자산, 실천 등으로 분석하여 어떻게 하면 이러한 것들에 참여하게 만들 것인가를 처방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다양하고 역동적인 과정으로 나타나는 실천에 대한 주목보다 공동체를 실체화하고 이를 구성요소로 분석하는 일에 치중하는 한계가 있다(조현영·손민호, 2015).

상황학습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실천과 그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맥락으로서의 상황성을 강조하는 또 다른 입장으로 행위자연결망이론(Actor-Network Theory; ANT)을 들 수 있다. 실천공동체가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이들에 의해 형성된 안정된 맥락을 미리 주어져 있는 것으로 전제한다면 행위자연결망이론은 인간과 비인간의 관계를 통해 맥락이 형성되고 변화하는 역동이 발생한다고 본다.

행위자연결망이론은 1980년대 중반 과학기술학 분야의 연구자들이 제안한 이론이다(홍성욱, 2010; 김환석; 2011). 행위자연결망이론은 인간뿐만 아니라 비인간의 행위성에 주목하여 인간들의 ‘사회’가 아니라 인간과 비인간으로 구성된 집합체(collective)를 탐구하고자 한다. 행위성

(agency)에 대한 기존의 사회학적 논의에서 “행위성은 자신의 의도에 따라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고 그 선택을 세계에 부과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런 능력은 자유의지와 이성적 사고 그리고 언어적 능력이 있는 능동적 주체인 인간만이 소유한 것”(김환석, 2012: 45)으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자연물, 동식물, 사물, 기계와 같은 “비인간은 결정론적 인과관계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수동적 객체이기 때문에 행위성이 없는 존재”(ibid.: 46)가 된다. 그러나 인간과 비인간 사이의 연결망을 통한 과학과 기술의 탄생 과정을 탐구하였던 행위자연결망이론에 따르면, 행위성은 “세계에 차이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능력”(ibid.: 46)이다. 이러한 행위성은 인간을 넘어 비인간으로 확장되어 인간, 세균, 텍스트, 기계 모두 세계의 창조와 유지에 관여한다.

행위자연결망이론에 따르면 지식, 주체성, 행위성, 사회 등 모든 것은 관계들의 망 안에서 지속적으로 생성된 효과들이다. 인간은 세계에서 특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세계의 일부이다. 모든 행위자들은 힘을 드러내고 함께 모여서 서로를 변화시키고 변화된다. 행위자연결망이론은 인간과 비인간의 요소가 사물들에 얽히게 되는 방식, 사물들을 존재하게 하는 연결과 번역을 따라가고, 이러한 일상의 실천 가운데 특정한 방식으로 창조되는 사물들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데 관심이 있다.¹¹⁾

일과 학습의 실천은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주로 논의되어 왔다(Fenwick, 2010). 학습을 개인 내면의 심리적 과정과 습득의 관점으로 바라보던 것은 점차 지식의 구성에 대한 집단적 또는 참여적 이해로 변화하였다. 그런데 학습을 참여로서 바라보는 관점은 사회적 관계와 문화적 힘에 초점을 두고 인간의 상호작용을 다루고 도구는 인간의 의해 사용되는 것으로 바라보았다. 이러한 관점은 맥락을 이루는 다른 실체들과 이 실체들이 만드는 가능성이 어떻게 물질화되는지를 이해하기 어렵다.

11) 행위자연결망이론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이 관점과 주요 개념들이 어떠한 현상을 분석하는 도식적인 틀로 적용되는 것을 반대하며, 그들은 행위자연결망이론은 현상을 느끼고, 보고, 들으며, 맛보는 감수성이자 도구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Fenwick, 2010; Mol, 2010).

포스트휴먼 관점으로 불리기도 하는 사회물질적 접근은 물질이 모든 실체들, 관계들을 구성하는 중요한 힘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사회물질적 접근은 주체와 대상, 인식자와 대상의 구분에 문제제기를 하며 인간과 비인간의 구분에 대해서도 도전한다. 이는 텍스트, 몸, 도구 등과 같은 사물들이 있다는 것 자체에 초점을 두는 것이라기보다 일상의 국지적 실천의 비결정적 얽힘 안에서 사물들이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중요하게 여긴다. 모든 실체들은 상호구성적이며 관계맺음을 통해 생성된다. 이러한 사회물질적 접근에 따르면 삶과 교육은 연결을 만들고 유지하는 가운데 수행된다.

사회물질적 접근에 따르면 단순한 ‘도구’, ‘객체’, ‘비인간’으로서 규정되었던 사물은 여타의 요소들과 복잡한 매개를 수행하는 ‘행위자’로서 규정된다. 베넷(Bennett, 2010)이 ‘배치의 행위성(agency of assemblages)’이라는 개념을 통해 말하고 있듯이 행위성은 특정 요소가 아닌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연합된 요소들의 힘이라 할 수 있다. 베넷(Bennett, 2010)은 중국어의 ‘勢(shi)’를 통해 행위성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勢(shi)는 군사 전술에서 유래된 말로 다양한 사물과 인간의 배치가 이루는 독특한 스타일, 힘, 성향을 의미한다. 같은 맥락에서 바라드(Barad, 2007)는 행위성은 누군가 혹은 무엇인가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아니라 실행되는 것(enacted)이라고 강조한다.

몰(Mol, 2015)은 과학기술학연구나 행위자연결망이론과 같이 사회물질적 접근을 따르는 학자들 가운데 비인간의 행위성을 ‘물질 자체의 살아있음(the liveliness of matter itself)’으로 다루는 방식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보인다. 예를 들어, 식탁 위에 놓인 잘 구워진 생선을 먹는 상황에서 생선이 행위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생선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을 먹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인가? 그러나 결국 생선을 먹는 것은 인간이 아닌가? 비인간의 행위성을 물질 자체의 살아있음과 같이 어떤 개별적 실체의 능력과 같은 의미로 말할 경우, 과연 행위성을 갖는 것은 누구 혹은 무엇인가와 같은 논리에 빠지게 된다.

사물의 행위성과 같은 도발적인 용어가 처음 사용되었을 때, 이는 모든 행위의 분산된(distributed) 특징에 주목하는 일이 중요함을 환기시키려는 것이었다(Mol, 2015). 초기의 행위자연결망 이론에서 주장한 바는 “그 어떤 행위자도 혼자서 행위하지 않으며, 모든 행위자는 네트워크에 의존하여 그것의 한 부분으로 참여하고 그것의 형성을 돕는다.”(Mol, 2015: 13)는 것이다. 즉, 사물의 행위성은 ‘관계를 이루는 물질(matter in relation)’에 주목하기 위해 도입된 용어인 것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러한 관계적 물질성과 행위의 분산된 특징은 사라지고 행위성이라는 용어만이 남아 있게 되었다. 이에 몰(Mol, 2015)은 관계적 물질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 행위성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하여 의문을 표한다.

그렇다면 물질의 행위성은 무엇을 뜻하며, 물질이 행위한다고 할 때 이를 표현하는 적절한 말은 무엇인가? Mol(2015)은 자유와 선택이라는 인간적인 행위성의 특징을 세계의 다른 존재들로 확장하는 것에 반대하고, 동시에 외부의 힘에 의해 움직이게 되는 것과 같이 인과적 모델로 비인간 행위성을 바라보는 것 역시 반대한다. 이는 행위자라는 근본적 실체를 전제하고 이를 맥락으로부터 분리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물질들은 외부의 힘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것도, 그 자체로 행위하는 것도 아니다. 물질은 관계를 통해 작동한다. 물질은 서로 반응하고, 특정한 관심과 행위를 유도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관계적 물질성을 강조하는 사회물질적 접근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물음은 누가 또는 무엇이 행위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가가 아니라, 인간과 비인간이 어떻게 함께 관계를 맺고 특정한 사건을 낳게 되는가라고 하겠다.

사회물질적 접근은 인간과 비인간이라는 다양한 존재자들의 관계를 통해 어떻게 특정한 세계가 만들어지고 다시 만들어지는가에 주목한다. 인간은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판단과 선택에 의해 자신의 주변 타자들을 구성하거나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들과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세계를 형성하는 부분적인 참여자가 된다. 이때 강조해야 할 점은 인간과 비인

간은 더 이상 누가 주체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권한을 갖는가와 같은 위계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간 이외의 존재들은 인간과 다른 능력과 방식으로 세계의 일부를 이루며 인간과 함께 세계를 형성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사회물질적 접근 창조적인 행위자들의 비위계적인 연합, 공생, 섞임으로부터 드러나는 새로운 관계들의 생성을 중요하게 여긴다.

이러한 사회물질적 접근은 세계의 물질성과 실천의 관계성에 대한 감수성을 갖도록 도와준다. 인간과 사물이 함께 만드는 “실천들이 세계를 만든다고 사유하는 이러한 방식에 따르면 물컵들, 소프트웨어, 그늘진 장소들은 사람들과 함께 바쁘게 행위한다. 따라서 실천은 개인적 또는 사회적 구성이 아니라, 물질적으로 이질적인 질서화와 재질서화의 문제이다”(Law, 2010: 3).

펜윅(Fenwick, 2010)은 인간과 사물의 얽힘을 통한 교육의 실천을 사회물질적 접근으로 관점으로 볼 때 중요한 점으로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한 바 있다. 첫째, 존재하는 것은 독립된 실체들이 아니라 관계의 연결체들이다. 둘째, 관계들을 통해 발생하는 요소들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앎과 배움은 물질적 활동에 불박혀 있다. 이러한 사회물질적 배치의 접근은 앎을 외부의 실재에 대한 객관적인 명제들로 바라보는 재현주의 관점에서 벗어나 세계와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의미를 만들어가는 참여적 관계이자 행위로 파악한다.

짜맞춤가구 만들기라는 목공의 세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앎과 교육의 실천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탐구하기 위해서 나는 활동적이고 수행적인 사물과 인간이 함께 만들어가는 접속과 생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물질적 접근을 따르고자 한다. 이는 짜맞춤가구 만들기라는 목공의 세계를 이루는 수공구나 나무와 같은 사물들이 미리 주어져 있거나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인간과 사물들의 관계 가운데 계속 변화하는 과정에 있음을 주목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더하여 도구, 나무, 장소, 책 등 다양한 사물들은 인간과의 연결 가운데 특정한 형태의 참여

를 가능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중요하게 고려하기 위해서이다.

이는 나의 교수자이자 주된 연구참여자였던 백만기가 짜맞춤 기술을 어떻게 체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가 살아온 목공의 세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다양한 사물들을 접하게 되면서 더 확실하게 느껴졌다. 조석진과 같은 스승과의 만남뿐만 아니라 먹금칼, 현미경, 나들목 대패, 유튜브와 같은 사물들이 그를 성장하게 하였다. 또한 백만기는 사물들을 변화시키거나 사물들과 연합하면서 목공의 세계를 풍성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인간들과 사물들이 함께 만들어 온 목공의 세계는 새로운 학습자들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고 있었다.

4. 연구 방법

이 연구는 인간과 사물 가운데 어느 한편을 중심에 놓지 않고 인간과 사물이 함께 관계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주목하여 목공의 세계를 생성하고 있는 다양한 물질들에는 무엇이 있으며, 이들이 관계를 이루어 가는 과정에서 앎과 교육의 실천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탐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인간과 사물이 서로 얽히는 접촉 지대를 찾아 분석하는 일은 인간 이외의 중요한 존재들이 세계를 형성하는 힘을 인간과 함께 어떻게 발휘하고 있는지 주목함을 통해 가능하다. 또한 인간과 사물의 관계와 상호작용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부단히 발생적으로 변화하므로 관계맺음의 과정과 흐름을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다. 다음에서는 문화기술지(ethnography)를 통해 인간과 사물의 관계를 사회물질적 접근으로 연구하는 방법을 정리하고, 연구 현장이 되어준 짜맞춤 전수관(이하 전수관 혹은 목공방)¹²⁾을 소개하며, 어떠한 연구방법으로 자료화하였는지 정리하

12) 짜맞춤 전수관은 나사나 못을 사용하지 않고 나무와 나무를 짜맞추는 방식으로 가구를 만드는 법을 교육하는 목공방이다.

였다.¹³⁾

1) 문화기술지

이 연구는 짜맞춤기술이 지속되고 변화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인간과 사물의 얽힘이 나타나는지, 그 가운데 교육의 실천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탐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짜맞춤가구를 더 잘 만들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모인 사람들은 다양한 사물들과 함께 새로운 의미와 가능성을 만들어 나간다. 나는 이러한 사람들과 사물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서로를 형성하고 목공 세계의 지속과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지 이해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서 문화기술지를 작성하였다.

문화기술지는 어떤 사회나 집단의 “삶의 방식(ways of living)”(조용환, 1999: 114)을 이해하는 과정의 기록이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의 생활세계 속에서 참여관찰, 심층면담, 현지자료조사를 하면서 그들의 삶이 갖는 특징을 이해하고 그 의미의 맥락을 생생하게 드러내고자 한다. 이러한 문화기술지는 “과학철학에서 말하는 구성주의(constructionism) 혹은 해석주의(interpretivism)”(조용환, 1999: 115)라고 불리는 인식론적 관점을 따른다고 논의되어 왔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세계의 질서는 선형적인 힘이나 원리가 아닌 사람들의 집단적 사고와 경험에 의해 구성되고 재구성된다. 이처럼 문화, 의미, 정체성 등과 같은 실재의 사회적 구성에 초점을 두는 해석주의적 문화기술지는 물질적 세계보다는 사회적 구성에 강조를 두는 연구방법으로 볼 수 있다(Niemimaa, 2014; Tummons &

13) 이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의 이름이나 장소에 대해 실명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도 하고, 가명을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실명의 공개는 목공 작업에 사람들의 삶과 이야기가 뒤얽힌다는 점, 그리고 이들의 참여 또는 헌신을 통해 목공 세계가 지속적으로 살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위해 이루어졌다(김은아, 2018). 실명/별명의 사용 여부에 대한 동의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연구동의서를 통해 이루어졌다. 실명/별명 공개에 동의한 사람의 이름은 백만기, 호인, 다랑, 도리, 밍구, 윤성아빠, 이영수, 이인원, 아미산, 초등생, 치도리, 훈훈이며 그 외는 가명을 사용하였다. 또한 백만기가 운영하는 짜맞춤 전수관, 나들목가구 만들기(네이버 카페) 역시 실명임을 밝힌다.

Beach, 2020).

그런데 이와 같은 해석주의적 관점을 기반으로 한 문화기술지일지라도 일상생활의 구체적인 맥락을 자연주의적이고 생태학적으로 이해하고자 한 노력에 의해 문화기술지는 일상생활의 물질성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Niemimaa, 2014). 다시 말하여 어떤 사회나 집단의 삶의 방식을 기록한 문화기술지에는 언제나 조개 팔찌, 조개 목걸이, 돼지, 카누, 여성용 치마 등과 같은 물질들이 사회적 의례나 관습을 실천하는 사람들과 함께 등장해 온 것이다(오명석, 2012). 그러나 일상생활의 물질성을 인간의 신념이나 가치를 실천하는 일이 나타나는 배경이나 수단으로 보고, 사회의 질서를 만들고 변화시키는 가능성을 인간과 함께 구성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았다. 가령, 오명석(2012)은 쿨라 연결망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들이 개인 행위자들의 전략에 주목하고 사물을 연결망 구성의 능동적 행위자로 간주하는 관점은 결여하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해석주의적 문화기술지는 언어, 담론, 문화에 비해 물질은 중요한 것으로 다루지 않는 인문사회 전반의 사회 구성주의적 흐름과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Barad, 2003).¹⁴⁾

나는 이처럼 문화기술지가 해석주의 관점으로 인하여 갖는 제한점과 일상생활의 물질성을 인간과 함께 드러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모두 고려하며, 교육의 실천을 인간뿐만 아니라 비인간의 힘이 필요한 관계적 장에서 생성되는 과정으로 이해하기 위한 새로운 관점으로 행위자연결망이론과 같은 사회물질적 접근과 접촉할 필요가 있었다. 이는 사물, 몸, 장소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이들 모두가 교육의 실천을 특정한 양태로 전개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음에 주목하는 것이다.

행위자연결망이론과 같은 사회물질적 접근은 인간과 비인간이 함께 모여 어떠한 실천을 생성하게 된다는 점을 중요하게 여긴다. “인간이 사회 질서를 구성한다는 것은 인간이 다른 인간들과 상호작용하기 때문만이

14) "Language matters. Discourse matters. Culture matters. There is an important sense in which the only thing that does not seem to matter anymore is matter"(Barad, 2003: 801).

아니라 다른 수많은 물체들과도 상호작용하기 때문이다”(Law, 2004/2010: 44). 인간은 합리적인 이성과 미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자족적 능력을 가지고, 삶의 의미를 만드는 특권화된 행위자가 아닌 주변의 도구와 물질들에 잠기어 있고 그들에 의존하여 함께 살아가는 행위자이다. 또한 비인간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세계의 일부를 이루며 사회적 실천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칭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물질적 접근을 따르는 문화기술지는 인간과 비인간이 어떻게 “함께 운동하면서 구체적인 실재들을 생성하고 의미화”(조용환, 2021: 125)하는지, 인간과 비인간 모두의 행위성이 “한 몸’ 속에서”(ibid.:125) 무엇을 이루어 가는 지, 그 흔적과 사건을 따라갈 필요가 있다.

나는 목공의 세계를 이러한 인간과 비인간이 함께 모이고 연결됨으로써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사회물질적 집합체로 보고 문화기술지를 작성하였다. 이처럼 사회물질적 집합체에 주목하는 문화기술지를 ‘사회물질적 문화기술지(sociomaterial ethnography)’(Niemimaa, 2014)라고 부르기도 하고, ‘실천기술지(praxiography)’(Mol, 2002)라고 부르기도 한다. 후자는 영어 표현인 ‘ethnography’에 포함되어 있는 ‘인간(ethno)’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비인간 모두가 관여하여 어떤 실재를 생성하는 “실천들에 관한 이야기”(Mol, 2002: 31)를 기술하는 것임을 나타낸다.

이는 단순히 목공 세계에 있는 사물은 무엇인가를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과 인간의 관계맺음과 그들의 수행적이고 시간적인 움직임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곧 인간과 사물이 함께 참여하여 어떠한 연결을 만들어내고, 이러한 연결이 어떻게 안정되는지 또는 불안정하게 되는지, 특정한 현상이 어떻게 펼쳐져 가는지를 쫓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목공 교육의 실천을 문화기술지 연구방법으로 탐구하는 일은 사물들에 대해 배우고 그것을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를 배워 가는 과정이었다. 이때 사물과 인간이 함께 수행하며 일상의 실천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 지 살피는 것이 중요하였다.

2) 연구 현장

인간과 사물의 얽힘을 만들어내고 그 얽힘 가운데 나타나는 삶과 교육의 실천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연구 현장으로 선택한 곳은 짜맞춤 전수관이다. 나무와 나무를 직접 연결하여 가구를 만드는 짜맞춤기술은 우리나라에서 조선시대에 꽃을 피웠으나 근대화와 산업화 시기를 거쳐 가구생산이 공장식으로 변화하고, 유럽이나 중국에서 가구를 수입하는 유통망이 생겨나면서 수작업 기반의 짜맞춤가구를 만드는 일은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그런데 2000년대부터 목공방을 중심으로 DIY가구 만들기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였고 더 견고하고 아름다운 가구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짜맞춤기술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나는 짜맞춤가구 만들기가 이렇게 지속되는 과정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

한국에 나무를 가공하여 가구를 만드는 목공방은 2016년을 기준으로 약 1,500여 개가 있다고 한다.¹⁵⁾ 목공방은 주로 다루는 나무, 사용하는 도구와 기계, 재료를 연결하는 방식, 추구하는 가치 등에 의하여 여러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나는 인터넷에 공개된 목공방을 살펴보면 나무와 나무를 연결하는 전통 방식의 ‘짜맞춤가구’와 2000년대 이후 한국에서 활성화된 DIY가구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짜맞춤가구 만들기가 DIY가구 만들기에 비해 더 어려운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목공인들 사이에서 배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주목된다는 점에 흥미를 갖게 되었다. 이에 짜맞춤가구 만들기라는 목공의 세계를 탐구하기에 적절한 연구현장을 찾아보았다.

나는 인터넷에 공개된 목공방 가운데 짜맞춤가구 만들기를 교육과정으로 명시하고 있는 두 곳을 예비조사하였다. 이 가운데 한 곳에서는 목공방의 규모가 크지 않아 기계나 큰 나무를 다루는 목공 활동을 참여관찰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에게 방해가 되고 연구자 자신도 위험할 수 있다는 의견을 듣게 되었다. 다른 한 곳은 다행히도 목공방의 규모와 위험부

15) ‘국내 DIY 산업현황’에 대한 기사 참조 (<http://blog.daum.net/samgan/8192042>)

담 측면에서 연구 수행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고, 예비조사에서 목공방의 운영자가 짜맞춤가구 만들기의 저변확대를 위해 20년이 넘게 노력해 온 과정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기록되어 있고 나의 연구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보여주었다.

이 곳의 이름은 짜맞춤 전수관으로, 2020년 현재 인천시 부평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무형문화재 소목장 故조석진의 제자인 백만기에 의해 2013년에 설립되었다. 이는 “짜맞춤가구 기술을 널리 알려 저변 확대에 노력하는 것과 짜맞춤가구 전수관을 만드는 것”이라는 스승의 유지를 따른 것이었다. 백만기는 2020년 현재 한국짜맞춤가구협회 회장이며, 짜맞춤가구의 계승 발전과 저변 확대 및 현대화 작업을 목표로 전수관의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운영함으로써 전수자 양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는 회원수가 약 19,000명이 되는 ‘나들목가구 만들기’라는 온라인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온라인 카페에 자신이 체득하고 있는 짜맞춤가구 만들기의 기술을 글, 사진, 영상으로 정리하여 회원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영상자료는 유튜브에도 공개가 되어 있다. 또한 2016년에는 짜맞춤 결구와 기본 수공구 사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짜맞춤, 그 견고함의 시작>이라는 책을 발행하였고, 2020년에는 홍익대학교 목조형학과 석사학위논문으로 <짜맞춤 결구를 활용한 가구디자인에 관한 연구>를 작성한 바 있다.

전수관의 교육과정은 입문반, 이수자반, 연구자반으로 구분되며 백만기와 조교 2명에 의해 운영된다. 입문자반과 이수자반은 8주를 단위로 운영되고 매 기수마다 최대 20명의 새로운 회원이 등록할 수 있다. 입문자반에서는 수공구와 결구법을 배우고, 이수자반에서는 전수관에서 정한 두 가지 종류의 가구를 만들며 가구제작의 전체적인 흐름을 익힌다. 연구자반은 특별한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전수관에서 제공하는 개인 작업대와 기계를 사용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가구를 자유롭게 만든다. 짜맞춤 전수관은 수공구의 원리와 사용법을 체득하고 하드우드를 사용하여 자신의 이야기가 담긴 가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배우는 것

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3) 자료화의 과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에서 공예의 지식과 교육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무형문화재와 장인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또한 짜맞춤가구에 대한 연구는 실천 과정으로서의 만들기보다 목가구의 문화적 특징이나 짜맞춤 기법의 활용과 같이 결과로서의 공예품에 제한되어 있다.

이 연구는 목공의 세계에서 인간과 비인간의 얽힘 가운데 어떠한 앎과 교육이 실천되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현장연구를 바탕으로 한 문화기술지를 작성하였다. 문화기술지는 한 집단이 어떤 질서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왜 그러한 질서체제를 구성하게 되었는가를 이해하는 과정의 기록이라 할 수 있다(조용환, 1999). 이러한 문화기술지는 사회의 역동을 이해하고 사건들의 맥락과 흐름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하고자 할 때 유용한 연구방법이다(조용환, 1999).

어떠한 연구를 수행한다는 것은 연구에 필요한 다양한 인간과 비인간의 관계에 접속하고 그 관계의 일부가 되어가는 일이다. 이러한 점에서 연구의 수행은 곧 연구의 배치를 이루어 가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자료는 연구의 배치를 이루어 가는 과정에서 생성되게 된다. 나는 연구 도구들(현장노트, 질문 목록, 인터뷰 일정표), 기록 및 분석 기술들(연필, 메모장, 노트북 컴퓨터, 모바일 폰, 디지털 카메라, 녹음기, USB), 컴퓨터 소프트웨어(헌글 2007, PDF Reader, 팟플레이어), 이론적 틀과 가설들(포스트휴머니즘, 사회물질적 접근), 연구가 일어나는 물리적 공간과 기관들(연구현장인 짜맞춤 전수관, 제재소, 수공구 판매장), 과학연구의 틀과 문화, 윤리적 원칙과 위원회, 도서관, 저널, 저서와 편저, 인간연구자들 자신으로 이루어진 연구의 배치를 생성하고자 노력하였다.

연구현장인 짜맞춤 전수관에 있는 교수자와 학습자를 주된 연구참여자로 하였으며 연구자가 직접 목공을 배우는 일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또한 목재 상인, 공구 판매자, 작품 제작을 중심으로 공방을 운영하는 목수와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 목공의 세계를 보다 풍성하게 이해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들뿐만 아니라 가구, 나무, 수공구, 전동기계, 책, 프로그램, 온라인 매체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비인간이 목공의 세계를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 주목하였다. 이를 통해 인간과 인간, 인간과 비인간, 비인간과 비인간과 같은 다양한 연결과 그 가운데 실천되는 지식과 교육의 흐름을 인간중심적인 관점을 넘어 탐구하고자 하였다.

주된 연구참여자인 백만기와는 9회에 걸쳐 심층면담을 진행하여 짜맞춤가구 만들기를 배우고 가르친 그의 교육적 생애에 녹아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었다. 나는 그가 짜맞춤 전수관에서 하는 교육과 연구 활동을 참여관찰하고 면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주에서의 대패 특강, 대학원 작품전시회, 제재소, 목재소에 함께 동행하였다. 그리고 그가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인 ‘나들목가구 만들기 카페’에 가입하여 짜맞춤가구 만들기와 관련하여 그가 작성한 일지들, 교육자료, 회원들과 주고받는 게시글과 댓글을 살펴보았다. 또한 그가 온라인 매체인 유튜브에 게시한 영상 교육자료를 시청하였고, 그가 쓴 <짜맞춤, 그 견고함의 시작>이라는 책과 대학원 석사학위논문을 자료로 삼았다.

나는 짜맞춤 전수관에서 목공을 배우는 학습자로 참여하였는데 입문자반과 이수자반을 이수하면서 도구, 나무, 기계, 도면 프로그램을 직접 배우며 그 과정과 체험을 학습일지의 형태로 기록하였다. 학습일지는 글, 그림, 사진, 영상을 통해 작성되었다. 이 가운데 몇몇 에피소드는 ‘나들목가구 만들기’에 온라인 게시글로 공유하였다. 입문자반에서는 백만기와 호인 조교에게, 이수자반에서는 윤은 조교에게 배웠는데 두 명의 조교와 면담을 하였고 두 조교가 강의를 맡은 입문자반, 이수자반 수업을 1년 동안 참여관찰하였다.

짜맞춤 전수관에서 짜맞춤가구 만들기를 배우는 학습자들의 수업시간과 자습시간을 참여관찰하며 현장노트를 작성하였다. 이 역시 글과 그림뿐만 아니라 사진, 영상을 통해 기록하였다. 10명의 학습자들과 공식적인

면담을 하여 그들이 짜맞춤가구를 만들게 된 계기와 학습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입문자반, 이수자반, 연구자반에 있는 학습자들과 수시로 만나 대화하는 동안 그들이 가구를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몇몇 학습자들의 SNS¹⁶⁾인 인스타그램(Instagram), 페이스북(Facebook)을 소개받아 ‘팔로워’가 되었고 개인 블로그를 방문하기도 하였다. 또한 학습자들이 활동하는 또 다른 온라인 카페인 우드워커(Woodworker), 가구 디자인을 하기 위해 자주 방문하는 핀터레스트(Pinterest)를 소개받기도 하였다. 한편 학습자들 가운데 초등생은 지금까지 만든 가구의 디자인이 담긴 10권이 넘는 스케치북을 열람할 수 있게 해주었고, 산초는 온라인 게시판에 자신이 쓴 학습일지를 공유해 주었다. 또 여러 학습자들이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메모한 노트와 자신이 가구를 만드는 과정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처럼 이 연구는 짜맞춤 전수관과 연결된 전주, 전시회장, 제재소 등 다양한 현장을 살펴보고자 노력하였으며 여기에는 온라인 공간 역시 포함된다. 특히 연구참여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는 특정한 물리적, 지리적 경계를 갖는 곳을 연구 현장으로 삼아온 기존의 연구방법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 보게 하였다. 오늘날 목공의 세계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에 걸쳐 존재하며 오프라인의 이야기가 온라인으로, 온라인의 이야기가 다시 오프라인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¹⁷⁾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연구는 인간과 비인간이 함께 이루고 있는 관계적 배치를 생성한 교육적 사건들, 그 사건들 속의 이야기들과 흔적들을 따라가고자 노력하였다.¹⁸⁾ 참여관찰, 심층면담, 현지자료조사,

16) ‘Social Network Service’의 줄임말로 특정한 관심이나 활동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망을 구축해 주는 온라인 서비스를 가리킨다.

17) 오가와(Ogawa, 2018)는 연구참여자들이 사용하는 SNS를 자문화기술지의 하나로 보고, 연구자의 문화기술지와 연구참여자의 자문화기술지를 교차시키며 연구하는 방법의 의미와 사례를 이야기한 바 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병행한 문헌연구는 이러한 따라가기의 구체적인 방법이 되었는데, 하나의 활동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차이들이 그 방법들 사이에서 나타났기 때문이다. 현장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자신의 관점과 연구참여자들의 관점, 그리고 학문공동체의 관점 사이를 부단히 오고가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나는 연구자로서 현장노트, 연구노트, 문헌정리, 감정적인 글쓰기 사이를 부단히 오고가며 해석학적 순환의 과정을 거쳐 이 연구의 관심과 관계되는 자료들을 구성하였다. 이 연구는 인간 중심주의를 넘어서려는 포스트휴머니즘의 입장을 따라 인간과 인간 사이의 대화나 행위 같은 사회적 상호작용에만 초점을 두지 않고 인간과 인간, 인간과 비인간, 비인간과 비인간의 다층적인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자료화하였으며, 목공의 세계를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관계의 역동에 따라 변화해 가는 흐름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18) 들뢰즈와 가타리는 연구결과의 재현에 초점을 두는 주류의 과학연구와 달리 사건의 흐름을 그것이 펼쳐지는 대로 따라가는 소수과학(minor science)을 옹호한다. 그리고 이러한 소수과학의 방법론으로 “어떤 강과 그 내용을 강둑의 고정된 지점에서 관찰하고 기록하는 대신에, 소수과학은 배를 타고서 소수과학이 충분히 이해하기를 원하는 흐름의 일부가 되는 것”을 말한다 (Deleuze & Guattari, 1988/ Fox, 2018: 52 재인용)

II. 목공 세계와의 만남

가르침과 배움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실현하며 더 나은 존재로의 변화를 추구하는 일은 생활세계 안에서 전개된다. 생활세계에는 중요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무, 도구, 장소와 같은 다양한 사물들이 포함된다. 교육의 실천은 사람과 사물이 함께 형성하는 생활세계의 특정한 상황 가운데 몸으로 참여하며, 구체적인 경험과 행위를 해나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사물과 인간의 얽힘 가운데 목공의 세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하며, 그 가운데 삶과 교육의 실천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탐구하기 위해 사례로 선택한 곳은 짜맞춤 목공을 가르치고 배우는 인천의 한 목공방이었다. 이 장에서는 주 연구참여자인 백만기가 몸담고 있는 목공의 세계는 어떠한 특징을 갖는지에 대하여 짜맞춤 목공의 역사, 그리고 DIY문화와의 관계 속에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사물과 사람의 관계에 따라 목공의 세계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1. 짜맞춤 목공의 역사

1) 짜맞춤 목공의 특징

한국 가구의 역사는 조선시대 가구의 역사라고 일컬어질 만큼, 그 이전의 가구 유물들은 찾아보기 힘들다(조숙경, 2019). 이는 대부분의 가구가 나무라는 재료로 만들어져 자연적으로 썩거나, 전쟁과 화재로 인해 사라져 현재까지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에는 양반가에서 주로 가구를 사용하였는데 유교문화에 의해 남성과 여성의 생활공간이 뚜렷하게 구분되었다. 생활공간은 크게 남성이 주로 사용한 사랑방, 여성이 머문 안방, 그리고 부엌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가구는 이러한 생활공간을 따라 사랑방가구, 안방가구, 부엌가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조숙경,

2019). 서안¹⁹⁾, 사방탁자²⁰⁾, 문갑²¹⁾과 같이 색상과 장식에 있어 차이는 있지만 사랑방과 안방에서 모두 사용된 가구도 있고, 장²²⁾과 농²³⁾처럼 각각 사랑방과 안방에서만 사용된 가구도 있다. 이 밖에도 크고 작은 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함과 캐를 들 수 있다.

이처럼 일상생활 가운데 사용된 조선시대의 목가구는 종류와 용도에 따라, 지역별로 자생하는 나무의 종류와 생활양식의 차이에 따라, 그리고 이에 더하여 사용자의 취향과 요구에 따라 다양하게 발전해 왔다. 이러한 조선시대의 가구는 대부분 장인들에 의해 만들어졌다. 장인들은 나무의 물성을 깊이 이해하여 짜맞춤 기술을 부단히 발전시켜 왔고 생활의 필요와 시대감성에 맞는 가구를 만들며 전통 목가구의 지속에 기여하였다(백만기, 2020).

조선시대의 장인들은 의무적으로 국가를 위해 일하였는데, 그들은 당시 조정의 수공예 기관이었던 중앙의 경공장, 지방의 외공장 등에 교대로 들어가며 물건을 만들었다. 이들은 봉급을 받기도 했지만 대체로 대우가 좋지 않았고 착취에 가까울 정도의 노동량을 요구받았다. 조선 후기에 들어섬에 따라 점차 장인들은 경공장을 기피하게 되었고 민간 시장에서 공예품을 만들고 팔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데에 주력하였다. 오늘날 무형문화재로 등록된 장인은 대부분 경공장에서 일했던 옛 전문 장인의 기술을 계승해 왔다.²⁴⁾

19) 책을 읽거나 글씨를 쓰는 데 사용하는 가구로, 상판과 다리로 구성되며 필요한 경우 선반이나 서랍이 추가되기도 한다.

20) 사방이 뚫려 있는 탁자로 책을 쌓아두거나 도자기 등의 소품을 전시하는 데 쓰는 가구이다. 얇은 네 귀통이의 기둥에 선반이 연결된 구조로 선반은 필요에 따라 3-6개까지 만들었다.

21) 대부분 단순한 사각형으로 높이가 낮고, 옆으로 길게 같은 모양의 두 개를 나란히 놓는데 책이나 생활소품을 수납하는 용도로 쓰였다.

22) 하나의 통으로 되어 있으며 여단이문이 있다. 농보다 높고 넓은 가구로 용도에 따라 옷장, 의걸이장, 책장, 찬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옷이나 책을 수납하는 가구의 특성상 일정 무게를 지탱해야 하므로 제작이 어렵고 가격이 비쌌다고 한다.

23) 여러 개로 제작하여 쌓아올리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옷을 수납하는 데 쓰였다. 장보다 저렴해 양반이 아닌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한다.

24) <http://www.handmk.com/news/articleView.html?idxno=1734>

조선 목가구의 특징 중 하나는 튼튼한 결구이다. 인류가 정착생활을 하며 나뭇가지들을 엮어 만든 것을 시작으로 점차 변화하고 발전되어 오늘날 볼 수 있는 건축물 구조나 가구 결구가 되었다. 목가구에서 사용하는 “짜맞춤이란 두 부재가 결구될 때 한 부재에는 돌출부를, 다른 부재에는 돌출부가 끼일 홈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부재를 이용하여 서로 직교하거나 경사지게 짜여 지는 자리나 방법”을 말한다(백만기, 2020). 이러한 짜맞춤 기술을 바탕으로 “짜맞춤 가구를 만드는 일은 가구의 울거미(문짝) 혹은 부분품을 ‘짜고’, 서로 맞대어 쇠목 등으로 연결하여 ‘맞춤’으로서 가구를 완성하는 일련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백만기,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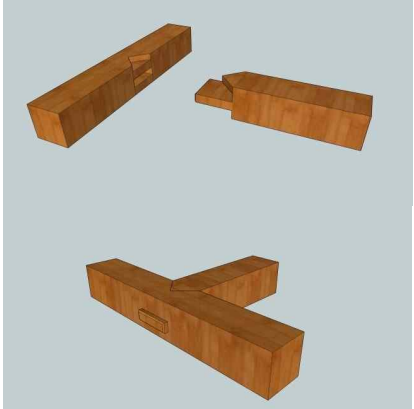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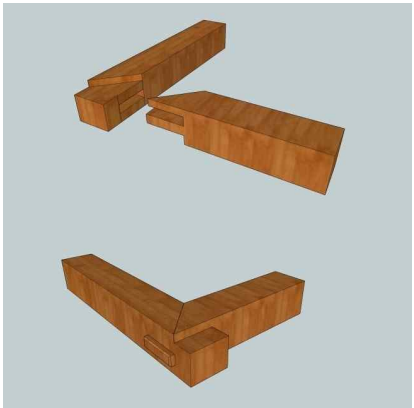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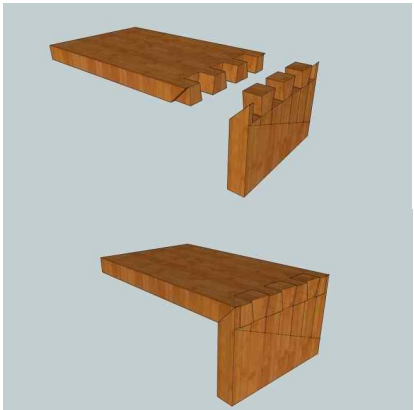
금속 나사나 못을 사용하지 않던 목가구 제작에서 짜맞춤 기술은 목재와 목재를 연결하여 가구의 기능과 모양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일본의 한 목수는 짜맞춤이 어려운 기술이지만 나무를 존중하고 그 품위와 힘을 살려내기 위해 중요한 것임을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하였다(Nakashima. 1981/2011: 132). “나무에 대한 깊은 존경심은 우리로 하여금 짜맞춤이라는 어려운 기술을 습득하도록 이끕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나무에게 품위와 힘이라는 새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소목의 짜맞춤은 건축의 대목에서 사용된 기법과 중복되나, 가구의 규모가 건축보다 작고 대목보다 심미성이 요구되므로 더 세밀하고 그 종류도 다양하다. 서양과 동양의 목재 짜맞춤 기법은 유사하나 이러한 전통 목구조를 현대화한 정도에 따라 짜맞춤 종류가 나라별로 다르게 나타난다(조숙경, 2019). 대표적인 짜맞춤으로는 제비촉 장부 맞춤, 연귀 장부 맞춤, 주먹장, 사개 맞춤, 삼방 연귀 맞춤, 숨은 주먹장을 들 수 있다(<표 2-1> 참조).²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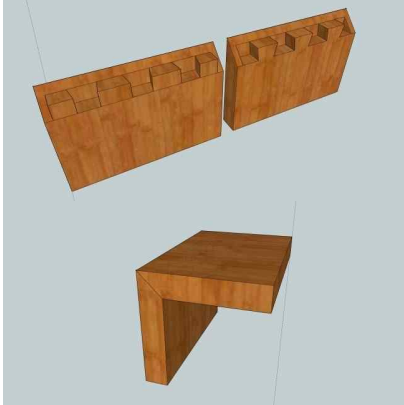
그렇다면 가구를 만들 때 짜맞춤 기술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예전 목수들은 목재는 수분과 목재의 인장력 변화에 따라 수축팽창과 변형을 한다는 것을 파악하고 이런 목재의 특성과 물성을 이해하고 보완하여

25) 이는 짜맞춤 전수관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기본적인 여섯 가지 결구법이다. <표 2-1>에서 각 결구법의 특징은 백만기(2016)에서 옮겨 왔으며, 결구법 모양은 연구 참여자이자 짜맞춤 전수관의 조교인 윤은이 교육자료로 그린 것을 옮겨 왔다.

<표 2-1> 짜맞춤의 종류 (1)

이름	모양	특징
제비촉 장부 맞춤	 <p>The image shows three wooden components. At the top, two separate pieces are shown: one with a dovetail-shaped hole and another with a corresponding dovetail-shaped protrusion. Below them, the two pieces are joined together, forming a T-shaped structure. The dovetail shape is clearly visible at the junction.</p>	<p>두 개의 각재를 연결시키는 대표적인 결구법 중의 하나이다. 겹에서 볼 때 제비촉 모양이 보이며, 숫장부를 암장부에 끼워 연결시킨다.</p>
연귀 장부 맞춤	 <p>The image shows two wooden components. The top part shows two separate pieces: one with a rectangular hole and another with a corresponding rectangular protrusion. Below them, the two pieces are joined together, forming a single L-shaped structure. The joint is a simple lap joint.</p>	<p>겹에서 볼 때 연귀 모양이 보이며, 숫장부를 암장부에 끼워 연결시킨다.</p>
주먹장	 <p>The image shows two wooden components. The top part shows two separate pieces: one with a series of rectangular protrusions (fingers) and another with a corresponding series of rectangular holes (pockets). Below them, the two pieces are joined together, forming a single rectangular structure. The joint is a finger joint.</p>	<p>두 개의 판재를 연결시키는 대표적인 결구법 중의 하나이다. 숫장부와 암장부가 결합된 모양이 주먹처럼 보인다.</p>

<표 2-2> 짜맞춤의 종류 (2)

이름	모양	특징
사개 맞춤		<p>쇠목과 쇠목은 단순 반턱 맞춤으로 얹혀 있고, 기둥이 그 반턱 결합에 턱을 만들어 뚫고 들어가는 구조이다.</p>
삼방 연귀 맞춤		<p>세 방향 모두 연귀가 들어가는 맞춤 방식이다.</p>
숨은 주먹장		<p>주먹장과 만드는 방식은 비슷하지만, 결구하는 암수 장부가 안으로 숨겨진다.</p>

가구를 더 튼튼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자생적으로 개발, 발전된 것이 짜맞춤 기법이다. 수분변화에 따른 목재의 변화를 보완하기 위해 목재는 오랜 기간 숙성하여 사용하였고 가구 제작 후에는 수분의 급격한 변화를 막고 벌레의 침입까지 해결하기 위해 옷칠이나 낙동을 하였으며 인장력의 변화에 따른 변형을 막기 위해서 모든 부재는 시간을 두고 조금씩 조금씩 가공하며 형태를 잡아가는 지혜를 터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도 일어나는 목재의 변형은 목재끼리 서로 맞물려 동시에 수축, 팽창하는 결구법과 구조를 개발하여 부재들의 이탈을 막고 원형을 최대한 유지하는 기법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이러한 방법들은 수많은 목수들이 본인과 식솔들의 생사가 달린 절박함 속에서 피나는 노력과 시행착오를 거치며 개선하여 오늘날의 짜맞춤 가구 결구법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²⁶⁾

이와 같은 짜맞춤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조선시대의 가구는 대부분 장인들에 의해 만들어져서 수공예의 개념이 강한 반면, 현대의 가구는 공장식 생산과 유통이라는 산업계와 밀접하게 관련된다(조숙경, 2019). 근대화 시기를 거치며 오늘날 주거형태가 아파트 위주로 바뀌고 공장에서 표준화되어 생산되는 다양한 실용가구가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 아파트가 도입되기 이전, 사람들은 아궁이에 불을 때며 안방과 마루를 중심으로 한 온돌 생활을 하였다. 장과 농, 문갑을 빼면 별다른 가구도 없었다. 그러나 아파트와 함께 서구 생활양식이 도입되면서 안방과 서재, 부엌과 거실이 분리되었고 각각의 공간에 맞는 가구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1960년대는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10%에 달하며 급속한 성장을 이뤘다. 경제적인 여유와 함께 빠른 속도로 증가한 인구로 인해 정부는 표준화된 국민주택과 아파트 양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하

26) 짜맞춤 기술의 필요성에 대한 이상의 내용은 본 연구의 주 참여자인 백만기가 운영하는 ‘나들목 가구 만들기’에 교육내용으로 정리한 것을 문맥의 흐름에 따라 사소한 수정만을 한 후 그대로 옮겨 왔음을 밝힌다. 백만기는 가구제작자이자 교육자로서 짜맞춤과 관련하여 상당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2016년 ‘짜맞춤, 그 견고함의 시작’이라는 책을 발간하여 짜맞춤 기술을 널리 알리는 데 평생을 헌신하고 있다.

는 주택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다. 1957년 서울시 성북구 종암동에 최초의 아파트인 종암아파트가 들어섰고, 1962년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시행되면서 아파트 건설이 활기를 띠게 되었다. 1962년부터 1964년까지 6층 높이의 마포아파트 총 7개 동이 지어지고, 국내 최초로 개별 연탄 보일러를 이용한 난방시설과 수세식 화장실을 갖춘 서구식 주거 양식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주거 변화와 함께 입식 부엌용 가구, 학생용 가구, 컴퓨터용 가구 등 새로운 가구에 대한 수요가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의 ‘한국가구’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상류층을 주요 고객으로 하거나 영국의 앤틱 가구 스타일을 재해석하여 외국으로 수출하였다. 그리고 1970-80년대에는 ‘보루네오’, ‘리바트’, ‘한샘’ 같은 업체가 공장에서의 표준화된 가구의 대량 생산 및 보급을 통해 우리나라 가구 산업의 성장을 이끌어 나갔다.²⁷⁾ 그런데 이후 국내의 고임금과 원·부자재의 수입으로 가격 경쟁력을 잃은 국내산 가구는 중국의 저가 상품에 자리를 내주고, 고급 가구는 유럽이나 미국의 수입 가구에 시장을 빼앗기게 되었다(조숙경, 2019). 근대화와 산업화라는 급속한 시대적 변화 가운데 짜맞춤 기술에 바탕을 둔 조선의 목가구는 점차 우리의 삶에서 그 필요와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백만기, 2020).

그렇다면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2010년대 한국의 목공방에서 짜맞춤 기술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은 어떻게 가능하게 된 것인가? 다음에서는 1990년대를 전후로 나타나기 시작한 DIY문화가 짜맞춤 목공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2) 짜맞춤 목공과 DIY문화

먼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짜맞춤 가구를 만드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DIY 문화와의 관계 속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오늘날과 같이

27) 위 내용은 우리나라 주거 생활 및 경제의 변화에 따라 가구의 역사를 살펴본 다음의 기사에서 많은 부분을 옮겨 왔다. (김명연, 행복이가득한집, 2009년 9월호, 디자인하우스 발행기사, ‘대한민국의 가구, 그때를 아십니까?’

http://happy.designhouse.co.kr/magazine/magazine_view/00010002/2018)

우리나라에서 가구 만들기가 활성화된 배경에는 DIY 문화와 목공방의 만남이 있기 때문이다.²⁸⁾ DIY 문화와 목공방의 만남을 통해 가구 만들기를 배울 수 있게 된 사람들은 나사와 못으로 나무를 연결하는 방식의 DIY 가구²⁹⁾를 만들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DIY 가구의 만들기가 갖고 있는 제한점을 넘어서기 위해 사람들은 조선시대로부터 이어져 온 짜맞춤 가구 만들기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먼저 DIY 문화에 대하여 살펴보면, DIY는 ‘Do It Yourself.’의 줄임말로 자신이 스스로 한다는 뜻을 갖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영국 런던 시민들은 파괴된 주택과 도시를 스스로 수리하고 복구하여 다시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국가를 부흥시키기 위한 운동을 시작하였다. 그들은 집에서 필요한 간단한 가구를 만들거나 페인트칠을 하는 일, 정원의 울타리를 만들고 꽃을 가꾸고, 컴퓨터를 스스로 조립하는 등 생활에 필요한 일들을 스스로 하는 등 자신의 집은 자신이 고친다는 의미로 DIY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그 후 1957년 ‘Do It Yourself’라는 이름의 잡지가 창간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배경을 갖고 있는 DIY 문화는 “일상 주변의 재료와 도구를 이용하여 필요한 물건을 생활환경에 적합하도록 스스로 만드는 문화”라고 정의할 수 있다(김영주, 2012).

이와 같은 의미를 갖는 DIY 문화는 목공, 도예, 자수, 집수리, 정원관리 등 스스로 제품을 만들거나 수리하는 넓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목공 또는 가구 만들기와 관련된 DIY 문화에 집중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목공방은 목공예를 전공으로 하는 전업작가와 전통 목공예 기술을 전수받은 예술인들을 중심으로 소규모로 유지되고 있었다. 한편 DIY라는 용어는 1980년대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지만 일상생활 전

28) 국내 DIY 산업 현황을 공방 중심으로 살펴본 다음의 기사를 참조하였다.

<http://www.wood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208>

29) 본 연구에서 ‘DIY 가구’는 나사와 못을 사용하여 나무를 연결한 가구라는 좁은 의미로 한정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나사와 못을 사용하지 않는 짜맞춤 가구 역시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가구가 되었다는 점에서 DIY 가구의 일부로 포함시킬 수 있지만, 앞서의 DIY 가구가 갖는 문제점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이 짜맞춤 가구였다는 점에서 둘의 대비를 부각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반에서 활발하게 이야기될 정도는 아니었다. 1990년대부터 목공방이 상업화되고 DIY 개념이 대중화되기 시작하면서 DIY와 목공방이 합쳐진 ‘DIY 목공방’이 창업되었다. 그후 DIY 목공방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었는데, DIY 목공방의 수는 2007년 500여 개에서 2016년 1,500여 개로 증가하였다. 한편 2000년대부터는 잡지 및 방송매체를 통해 경제성을 고려한 가구제작 방법, 아토피예방과 같은 건강에 대한 관심, 환경보호를 위한 친환경이라는 사회적 이슈와 관련되며 더욱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김영주, 2012).

이러한 DIY 문화와 관련된 연구물은 현재까지 거의 없는 상황인데 나는 가구 만들기와 관련된 DIY 문화의 흔적을 살펴볼 수 있는 신문기사, 관련 도서(단행본, 잡지, 인터넷 신문 등), 인터넷 카페를 조사해 보았다. 인터넷 포털 NAVER ‘뉴스 라이브러리’라는 이름으로 1920년부터 1999년까지 발행된 신문기사의 원본과 텍스트 변환본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 뉴스 라이브러리를 통해 “DIY 가구”를 검색한 결과 1988년 2건, 1989년 5건, 1990년 3건, 1991년 10건, 1992년 4건, 1993년 9건, 1995년 13건, 1996년 18건, 1997년 12건, 1998년 14건, 1999년 20건으로 1990년 중후반으로 갈수록 DIY 가구와 관련된 기사가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1999년에는 목재 산업분야 전문지인 ‘한국목재신문’³⁰⁾이 창간되었고, 2000년에는 ‘DIY, 내가 만든 우리집 가구(박종석, 2000)’라는 책이 발행되었으며, 2011년에는 목공 관련 잡지 ‘우드플래닛’³¹⁾이 발간되었다.

30) 한국목재신문의 창간 당시 이름은 ‘우드코리아’였다. 한국목재신문의 소개글 가운데 일부분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한국목재신문은 목재산업의 대변지로 가장 신뢰 있고 영향력 있는 전문지입니다. 한국목재신문은 격주간으로 24면 타블로이드 울 컬러판 신문이며 건축,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등의 섹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목재신문은 건설, 건축, 조경 및 국회, 산림청, 산림조합, 전국 산림공무원 및 조경/건축 관련 기관에 공급되며 목재산업 종사자의 뿌리 깊은 열성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국목재신문은 전문성을 살린 기획보도와 아울러 특집호를 지속적으로 발간해 목재산업과 문화 발전에 기여해 온 신문입니다.”

31) 우드플래닛의 소개글은 다음과 같다. “따뜻한 콘텐츠를 추구하는 우드플래닛은 건축, 공간, 가구, 공예, 예술, 문화 전반에 자연의 사물인 나무를 통해 삶의 실용과 감성을 표현하는 독보적 미디어입니다.”

2014년에는 ‘젊은 목수들: 한국’이 발행되었는데, 이 책에 나오는 가구 공방은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 문을 연 창작 중심의 스튜디오로 가구 디자인과 제작을 겸하는, 디자이너이자 목수인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루어지고 있다.

가구 만들기와 관련된 DIY 문화는 인터넷상에서 온라인 커뮤니티, 개인 블로그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현재 가장 많은 회원이 가입된 카페는 2005년 3월에 개설된 ‘우드워커’로 약 29만 명이 활동하고 있다. 본 연구의 연구현장인 짜맞춤 진수관 역시 ‘나들목 가구 만들기’라는 인터넷 카페를 2007년 3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약 18천 명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다. 이밖에도 Youtube, 핀터레스트 등을 통해 목공과 관련된 동영상과 이미지가 수십에서 수만 건이 등록 및 공유되고 있다.

이처럼 한국에서 1990년대 중후반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DIY 문화는 스스로 가구를 만들 수 있도록 관련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고 배우는 목공방을 통해 가구 만들기의 활성화로 연결되었다. 조선시대 짜맞춤 가구는 근대화와 산업화라는 변화 가운데 공장식 대량생산 가구에 자리를 내주게 되었다. 모든 공장식 대량생산 가구가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순수 원목가구는 매우 비싸서 소수의 사람들만 구입할 수 있었다면 공장식 대량생산 가구는 파티클보드(PB), 중밀도섬유판(MDF) 등의 합성목재를 사용하여 제작된 경우가 많았다.³²⁾ 이러한 합성목재를 사용한 가구에서는 포름알데히드, 다이옥신과 같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검출되면서 안

32) 가구의 원자재는 크게 원목, 파티클보드(PB; Particle Board), 중밀도 섬유판(MDF; Medium Density Fiberboard), 고밀도 섬유판(HDF; High Density Fiberboard), 합판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파티클보드, 중밀도 섬유판, 고밀도 섬유판은 목재 폐기물을 분쇄하여 가루로 만든 후 접착제로 붙인 것이다. 파티클보드는 목재를 분쇄한 가루에 접착제를 넣어 고온, 고압으로 압축한 후 목재 형태로 가공한 것으로 수분 침투율이 낮고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접착제에 포름알데히드라는 유해성분이 들어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중밀도 섬유판과 고밀도 섬유판은 파티클보드와 같은 방식으로 제조되지만 입자가 좀 더 부드러우며 강도가 더 세지만, 수분이 잘 침투되어 물이 묻으면 금방 불어버리는 단점이 있다. 합판은 목재의 얇은 판을 나뭇결이 서로 직교하게 하여 만든 목재로, 마감이 깔끔하고 강도가 강하다. 그러나 강도가 강하여 원하는 모양을 만드는 데 제한이 따라 주로 가구를 지탱하는 보조목으로 사용된다. 이상은 ‘가구 원자재에 대한 모든 것’이라는 다음의 인터넷 자료에 정리된 내용을 옮겨 왔다.
<https://yoonub.tistory.com/26>

정성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³³⁾

합성목재의 유해성이 알려지면서 원목을 잘라 붙여 만든 집성목이 가치 있게 되어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1990년 중반 DIY 가구를 배웠던 백만기는 집성목과 DIY 가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당시에 집성목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집성목이 DIY의 혁명을 몰고 온 거잖아요. 집성목이 원래는 외국에서 인테리어용 판넬 마감용으로 개발된 것인데, 집성목을 갖다가 똑똑 잘라서 피스만 박아서 쓰면 되니까 DIY 가구를 만드는 데 얼마나 좋은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집성목을 수입하기 시작했죠.

그에 따르면 집성목을 나사로 연결하는 방법으로 만드는 가구는 친환경적인 재료를 사용하여 ‘쉽게’ ‘뚝뚝’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DIY의 혁명”이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또한 DIY 가구는 집성목이라는 나무뿐만 아니라 재단기, 자동대패와 같은 기계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것이었다. 백만기는 다양한 기계로 가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별천지와 같은 느낌을 가졌다고 하였다.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어깨너머로 배웠던 짜맞춤 기술로는 두 달이 넘게 만들어야 하는 가구를 하루 만에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람들은 집성목이라는 나무, 각종 기계들을 사용하여 DIY 가구를 만들면서 친환경이라는 건강함, 자신의 취향과 필요에 맞는 작품을 만드는 창작의 즐거움,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냈다는 성취감, 수작업의 매력과 같은 가치를 ‘쉽고’, ‘빠르게’ 실천해 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집성목을 기계로 가공하고 나사로 연결하는 DIY 가구 만들기 방식은 좀 더 견고한 가구를 만드는 데 한계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백만기는 자신이 체험한 DIY 가구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말해주었다.

33) 1998년 7월 9일, 매일경제신문에는 ‘합성목재가구 유해물질 검출’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그런데 DIY 가구를 만들어 보니까 분명히 빠리는 만들어. 근데 이제 문제점이 하나씩 나오는 거지. 딱딱딱딱 만들어 놔는데 이게 조금 지나니까 터져. 나무의 수축 팽창이나 이런 걸 고려를 안 하고 딱딱 맞춰서 그대로 조립을 해버리니까 나무가 이게 제대로 안 맞는 거야. 그래서 그럼 아 여기에 기계를 써도 짜맞춤을 좀 넣어 볼까 짜맞춤은 그나마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쉽게 되나. 그게 또 왜냐 기계는 정확하게 딱딱 나오는데 사람 손으로 이렇게 수작업으로 하는 부분은 정교하지 않거든. 왜냐면 그때만 해도 연필로 긁고 칼금이라는 걸 쓰지 않았으니까. 연필로 다 긁고 대충 다듬고. 근데 이게 해봐서 알겠지만은 칼금 없이 그 선을 반듯하게 맞추는 건 거의 불가능해 이게.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막 헤매기 시작한 거지. 이거 어떻게 기계로 부재까지는 잘 빨리 만들 수는 있는데 정교하게 딱딱 맞춰야 하는데 죽어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엄청 헤맸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집성목을 기계로 자르고 나사로 연결하는 방식의 DIY 가구는 나무의 수축과 팽창이라는 특성을 세심하게 고려할 수 없었고, 기계 가공시 연필로 선을 그리다보니 선을 반듯하게 정확히 맞추는 일이 불가능하였다. 그는 이를 계기로 좀 더 나은 가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전국의 유명한 장인들을 찾아다니게 되었다. 그리고 전라북도 소목장 무형문화재인 故 조석진을 사사하면서 수공구와 짜맞춤 기술을 배울 수 있었다. 그는 DIY 가구의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더 나은 기술을 짜맞춤 가구의 전통에서 찾은 것이다.

이는 1990년 중반, 우리나라에서 DIY 가구 만들기가 시작될 무렵 한 사람이 겪은 이야기이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백만기가 운영하는 목공방

인 짜맞춤 전수관에는 그와 같이 DIY 가구를 배운 후 좀 더 나은 가구를 만들고 싶어 짜맞춤 기술을 배우러 온 사람들의 수가 전체 회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윤성아씨는 짜맞춤 전수관에 오기 전 2개월 동안 DIY 가구를 배웠는데, 그 역시 처음에는 DIY 가구 만들기의 매력에 빠져 집에 있는 대부분의 가구를 자신이 만든 DIY 가구로 바꿀 정도였다고 하였다. 식탁부터 시작하여 침대, 책장, 책상 등을 모두 만들었는데, 그는 어느 순간 자신이 만든 가구를 보고 이상하게 마음이 헛헛한 느낌을 갖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는 정말 “가구다운 가구”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에 주변 공방을 알아보게 되었고 짜맞춤 기술을 배우기 위해 전수관에 오게 되었다.

짜맞춤 가구는 원목을 사용하여 아름다운 나무결을 살리고, 나무의 수축과 팽창을 고려하여 나무와 나무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오늘날 기술의 발달로 많은 전동공구와 기계장비, 지그 등을 사용할 수 있는데 짜맞춤 가구를 만들 때에도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좀 더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기계가 해낼 수 없는 미세한 작업 부분에서 수공구가 뛰어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기에 수공구를 필수적으로 가르치고 배운다.

짜맞춤 목공은 조선시대부터 전해 온 것으로 근대화와 산업화 가운데 값이 싼 공장식 대량생산 가구에 밀려 소수의 장인에 의해 간신히 명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2000년대에 이르러 DIY 가구 만들기의 나무와 도구가 갖는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더 나은 기술로 재조명되기 시작하였다. 나무의 결과 물성을 보다 세심하게 고려하고, 수공구를 자신의 몸처럼 익혀 좀 더 아름답고 견고한 가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짜맞춤 목공은 가구는 기계나 피스를 사용하여 만드는 DIY 가구와 다르게 좀 더 견고하고 아름다운 가구를 만들 수 있는 보다 좋은 기술로 여겨진다. 이러한 짜맞춤 목공은 수공구와 하드우드를 잘 다루는 일을 필요로 하는데, 사람들은 이 과정이 어렵고 고된 것임을 알면서도 스스로 가구를 만드는 일에 기꺼이 자신의 노력과 시간을 들인다.

직접 가구를 만드는 사람들은 나무의 물성에 매력을 느낀다. 짜맞춤

전수관에서 만난 사람들은 나무의 부드러움, 편안함, 포근함, 자연스러움, 따뜻함이 좋다고 하였다. 또 나무의 아름다운 무늬를 보면 그 무늬를 살려서 좋은 가구를 만들고 싶은 욕망이 생긴다고 하였다. 나무는 수종마다 특유의 향을 가지고 있는데 캄포나무의 은은한 향, 느티나무의 구수한 향처럼 사람마다 좋아하는 나무의 향이 있기도 하였다. 한편 나무의 강도는 무엇인가를 만들기에 적절하여 직접 다듬고 자르고 맞추는 일을 가능하게 하는데,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게 하는 나무의 성질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다.

재료 상태인 나무와 가구로 만들어진 나무의 상태는 차이가 커서 재료 상태인 나무는 거칠고 무늬가 선명하지 않으며 비례와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만들기의 과정 동안 나무는 제작자의 감성, 손기술, 각종 도구들과 섞이면서 그 가치를 점점 드러내게 된다.

가구만들기의 과정은 나무를 준비하고 나무를 가공하는 일로 이루어진다. 치즈만들기가 재료가 되는 우유를 선택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하듯이, 가구제작은 나무를 선택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 나무는 수종뿐만 아니라 기후와 토양에 따라 결, 무늬, 색, 강도, 무게, 향 등 다양한 물성을 갖는다. 같은 나무에서, 심지어 같은 판재에서 잘라냈더라도 목재 조각은 그 성질이 제각각이다. 이와 같은 다양한 목재의 특징은 목공을 하는 사람들의 도전의식을 자극하고 창조적 영감을 떠올리게 한다(Jackson & Day, 1989).

짜맛춤 전수관의 연구반 회원이었던 미경은 나무의 물성을 느끼고 나무를 다루는 일이 주는 즐거움을 다음과 같이 말해주었다.

나무는 내가 가공할 수 있잖아요. 유리나 금속하고 다르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직접 나무를 만지고 다듬고 뭔가 만들 수 있다는 게 좋아요.

DIY 공방에서 DIY 가구를 만들다가 짜맞춤가구에 관심이 생겼다는 미경은 나무는 유리나 금속과 달라서 자신이 만지고 다듬을 수 있는 점이 매력적이라고 말해주었다.

나무는 향기도 좋고 저는 특히 무늬가 참 좋아요. 어떤 나무의 무늬를 보면 뭐랄까 뭔가에 홀린 듯 저 무늬를 잘 살려서 가구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죠.

또한 짜맞춤가구 만들기를 배운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아미산은 나무에 있는 무늬를 보며 자기도 모르게 이끌리는 감정을 갖게 되는데, 그는 이 나무가 무늬를 만들어 내기 위해 살아온 세월을 헛되지 않게 만들기 위해 그 무늬가 살아나는 가구를 만들고 싶다고 하였다.

도편수가 연구반 왼쪽 끝에서 책상 크기 정도 되어 보이는 큰 나무판을 대패질하고 있다. 작업대 아래와 나무판 옆에는 열은 우윳빛과 갈색이 섞인 듯한 대팻밥이 수북히 쌓여 있다. 대패질을 하는 도편수의 이마에는 땀이 흐르고 등도 젖어 있다. 더 가까이 다가가니 퐁퐁대며 힘쓰고 있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에게 어떤 나무를 대패질하고 있는지 물어보았다. “도편수님, 무슨 나무예요? 대패로 다듬고 계시네요?” 도편수는 대패질을 잠깐 멈추고 대답하였다. “호두나무, 호두나무예요. 내가 아는 사람한테 받아왔지. 지금 책상을 만들려고 대패질 하는데 한번 만져봐요. 어때요? (도편수가 손으로 나무결을 쓰다듬으며 나에게도 만져보라는 시늉을 한다.) 이 호두나무를 수압 대패나 자동 대패 같은 기계로 빨리 다듬어 버릴 수도 있겠죠. 근데 난 그래도 손대패로 하고 있는데 왜냐 나한테 중요한 건 빨리 가공해 버리는 게 아니라 손대패로 나무를 느끼면서 하나하나 배워 나가는 과정, 그 과정이 더 좋은 거

조니까.”

또 은퇴 후 목공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도편수는 위의 이야기처럼 목공방에는 나무를 보다 쉽고 빠르게 가공할 수 있는 기계가 있지만 손대패로 나무의 질감을 느끼며 손대패를 배워 나가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끼기도 한다.

미경, 아미산, 도편수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미 만들어진 가구를 사는 것과 직접 만드는 것에는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나무를 자신이 선택하고 가공하는 것처럼 나무와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데 있다. 이처럼 나무는 나무를 만지고 다듬으며, 나무의 향기를 맡고, 나무의 아름다운 무늬를 느낄 수 있게 한다.

또한 짜맞춤가구를 만드는 과정은 생각을 표현하고 나무로 이를 현실화하며 계속되는 상호작용 가운데 참여할 수 있게 한다. 나무와 나무를 연결하는 것이 중요한 짜맞춤 기술은 가구를 만드는 여러 방식 가운데 난이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목공방에서 만난 여러 회원들은 나무와 나무를 맞추어 딱 맞을 때 쾌감을 느낀다고 말해주었다. 다음과 같은 초등생과의 인터뷰에서도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목수가 신경 쓰는 것은 내가 만드는 가구를 완벽하게 하려고 고민하고 다시 고치고 수없이 시도하는 겁니다. 이것은 값으로 도저히 매길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대패질 하고 톱으로 자르고 끌로 다듬고 해서 만든 걸구가 딱 잘 맞으면 그날은 집에 갈 때 콧노래가 나오고 밥맛도 좋고 하루종일 싱글벙글입니다. 하하.

나무와 나무를 연결하는 걸구가 잘 맞기 위해서는 가구를 구상하고 설계하는 과정부터 나무를 가공하고 조립하는 과정에 걸쳐 오랜 시간 집중하고 정성을 들여야 한다. 이를 잘 해냈을 때의 기쁨은 회원들에게 큰 의미를 갖고 있었다.

나무로 짜맞춤가구를 만드는 일은 제작자의 의도와 계획을 나무와 함께 현실화하는 것이지만, 이는 제작자의 의도와 계획에 맞춰 나무를 전적으로 통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무, 수공구, 설계 프로그램, 주위 온도와 수분 등 이질적인 물질들이 교차하는 가운데 제작자의 의도와 계획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맞춰가는 일에 가깝다. 연구반 회원들이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지켜보고 대화를 나누면서 자주 들었던 이야기는 자신의 뜻대로 만들기 과정이 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것이다. 나무가 변형되기도 하고, 가공을 하면서 실수를 하기도 하고, 상상으로는 만들어질 것 같았던 구조가 구현할 수 없게 되기도 하면서 회원들은 계속 수정을 하고 새로운 문제에 반응하고 답을 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아미산은 이러한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이 과정을 좋아한다고 말해주었다.

성취감이랄까요. 내가 생각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나무랑 같이 완성해 가는 그런 과정이 좋은 거죠. 물론 마음 먹은 대로 된 적은 한 번도 없지만. 하하.

제작자는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과정에서 피로움을 느끼지만 이 피로움은 기쁨이기도 하다. 회원들에게 만들고 있는 작품을 보여달라고 할 때면 그들은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었는데, 그들은 힘들다고 하면서도 열정과 즐거움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자신의 작품을 보여주곤 하였다.

백만기는 나무가 갖는 물성은 사람의 촉각, 시각, 청각, 후각과 관련되어 있고 나무로부터 느낄 수 있는 감성이 목공을 하는 매력 중의 하나라고 보았다.

나무는 따뜻하고 부드러워. 그건 금속, 유리, 플라스틱 이런 거에서는 느낄 수 없는 느낌이지. 나는 길을 걸을 때도 손을 내

밀어 나무랑 나뭇잎을 만져봐. 뭐랄까 아기 살 같이 부드러운 그 느낌을 느끼려고. 나무는 무늬와 색이 아름답고. 대패로 나무를 칠 때 스윽스윽 나는 소리, 톱으로 나무를 켤 때 스윽스윽 하는 소리, 또 끌로 나무를 다듬을 때 사각사각하는 소리. 또 향도 있지. 나는 느티나무 향을 좋아하는데 사람들은 편백나무 향을 맡으면서 아, 좋다 좋아 하잖아. 이거 봐, 나무로 촉각, 시각, 청각, 후각을 다 느낄 수 있네!

짜맞춤가구 만들기를 배우기 위해 전수관을 찾은 회원들은 연령대로 구분하면 크게 직장에서 은퇴한 50-60대와 직장생활이나 학업을 병행하는 20-40대가 있다. 직장에서 은퇴한 50-60대 사람들은 짜맞춤가구 만들기를 “의미 있는 일”로 생각한다. 그들은 30-40년 넘게 일해 온 직장을 그만두고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이 많고 해오던 일이 없어졌다는 것에 헛헛함을 느끼고 있었다. 이런 그들에게 나무를 선택하고 디자인하면서 가구를 만들어가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은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 한편 젊은 20-40대의 사람들은 손으로 무엇인가를 만들기 좋아하고 나무를 다루기 좋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에게 나무는 “재밌는 일”, “할 수 있는 성취감을 주는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존재이다.

2. 짜맞춤 목공의 이동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대화와 산업화라는 급속한 시대적 변화 가운데 짜맞춤 기술에 바탕을 둔 조선의 목가구는 점차 우리의 삶에서 그 필요와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다(백만기, 2020). 국내의 고임금과 원·부자재의 수입으로 가격 경쟁력을 잃은 국내산 가구는 중국의 저가 상품에 자리를 내주고, 고급 가구는 유럽이나 미국의 수입 가구에 시장

을 빼앗기게 되었기 때문이다(조숙경, 2019). 이 연구의 주된 참여자인 백만기는 자신이 사사한 조석진과 그 스승 안은성이 시대적 변화 가운데 짜맞춤 가구를 만들었던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들려주었다.

안은성 선생님, 그 분이 동일가구에서 가구를 만들었잖아. 동일가구가 일제시대부터 가구를 일본으로 수출하는 일을 해 온 거야. 그래서 그런 업체들이 생기면서 가구는 이제 그런 공장 가구가 일제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전쟁 후 그 다음에 근대화 되면서 다 공장가구로 다 바뀌어 버린 거지. 수작업으로 가구를 만들던 사람들도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다 공장가구로 돌아선 거지. 근데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은 기계 살 돈도 없고 하니까, 근근이 자기 작업장에서 수작업으로 조금 이제 주문 들어오는 거, 찬장이 들어오든지 탁자가 들어오면 이런 거를 만들어주는 공방 개념으로 조그맣게 몇몇 사람만 유지가 된 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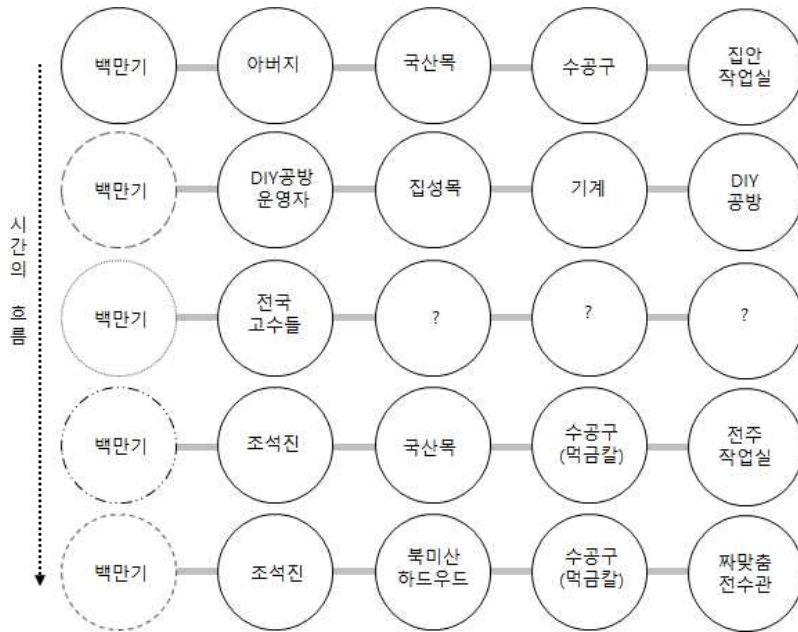
조석진의 스승이었던 안은성은 동일가구에서 가구를 만든 장인이었다. 안은성의 뛰어난 짜맞춤 기술을 보고 공장에서는 그를 데려가 일본으로 수출하는 가구를 만들게 하였다. 조석진은 안은성으로부터 짜맞춤 기술을 배웠는데 공장을 운영할 경제력이 없어 전주 지역 일대에서 주문식 가구를 만드는 소규모 공방을 운영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조석진은 1998년 1월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19호로 선정되면서 이수자 1명을 두고 짜맞춤기술을 가르치게 되었다. 이처럼 공방에서 가구제작을 하며 제자를 가르치던 조석진을 만난 백만기는 전주에 있는 조석진의 공방을 인천에서 오고가거나 전화로 궁금한 점을 물어보며 짜맞춤기술을 배웠다.

그러던 중 2011년에 조석진은 전주시의 (사)천년전주명품사업단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 사업단에서는 “천년전주 전통기술(짜맞춤)의 지적자산을 통한 산업화 연구’의 일환으로 우리의 전통짜맞춤기술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널리 보급하여 산업화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전통짜맞춤 전문가교육을 일반인(소목 경력자)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조석진은 백만기에게 이 교육과정에 참여하여 집중적으로 짜맞춤기술을 배우도록 권유하였다.

백만기는 전주시 한옥마을 내 공예명인관에서 조석진으로부터 전통짜맞춤 전문가교육을 배울 수 있었다. 조석진은 기술을 쉽게 가르쳐 주는 성격이 아니어서 그에게 기술을 배우러 간 여러 사람들은 어렵게 기술을 배웠다. 그런데 위암 말기로 수술을 받고 4년 정도 투병 생활을 하던 조석진은 위기감 같은 것을 느끼게 되었고 백만기를 만났을 때 짜맞춤기술에 대해 무엇이든 물어보면 다 알려주게 되었다. 그는 백만기에게 모든 기술을 아낌없이 가르쳐 주는 대신 두 가지 약속을 하였다. 하나는 짜맞춤기술을 널리 알려 저변확대에 힘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짜맞춤 전수관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런데 백만기는 짜맞춤 전수관을 만들면서 자신이 배웠던 짜맞춤 목공을 그대로 옮겨 온 것이 아니라, 때로는 새로운 사물을 연결되게 하고 때로는 다른 사물로 바꾸면서 짜맞춤 목공이 지속되게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3장에서 자세히 다루게 되므로 여기에서는 목공의 세계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고 변화하는 것임을 백만기가 몸담아 온 여러 목공의 세계를 통해 살펴보았다.



<그림 2-1> 이동하는 목공의 세계

목공의 체험과 행위를 가능하는 어떠한 사물과 사람이 언제, 어디서나 동일한 종류와 형태로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시대와 상황이 따라 다른 행위자들이 연결되고 이에 따라 목공의 세계가 다르게 형성되고 변화한다. 백만기가 몸담아 온 여러 목공의 세계는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림 2-1>에서 가로축으로 연결된 원들은 특정한 목공의 세계를 이루는 행위자들을 보여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각 목공의 세계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 간의 교육적 관계와 교육문화가 다르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차이에 따라서 수공구와 같은 사물들에 대한 앎을 배우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와 방식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백만기가 몸담아 온 여러 목공의 세계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목공의 세계는 백만기, 아버지, 국산목, 수공구, 집안 작업실의 관계 가운데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아버지가 목수였던 백만기에게 목공 도구는 “매일 가지고 노는 것”이었다. 그는 아버지가 연장을 갈아놓으라고 하거나 나무를 나르라고 심부름을 하면서 대패, 톱,

끌과 같은 수공구를 어느 정도 다룰 수 있을 정도로 목공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는 목수를 직업으로 삼은 가정의 가난한 형편이 싫어 목공을 배우려 하지 않았다. 또한 아무런 설명 없이 “우격다짐으로 그냥 하라고만” 하는 교육 방식이 싫었다.

기술을 가르쳐 주는 방식 자체가 옛날 분들은 좀 단순했지. 하면서 배우는 거지 하면서 아무런 설명을 안 해 준다니까 진짜로. 그냥 해, 그러면 그냥 하는 거야. 그게 일이고 그게 배우는 거야 그냥. 그러다보니까 그런 게 굉장히 싫었지 막 우격다짐으로 그냥 하라고만 하니까.

이러한 목공의 세계 안에서 백만기는 수공구에 대한 앎을 스스로 하면서 알게 되었고 집안에 필요한 가구를 아주 정교하게는 만들지 못해도 어느 정도 대강 만들 수는 있었다고 한다.

그러던 중, 개인 사정으로 인해 직업을 그만 두게 된 백만기는 몸에 익히고 있던 목공을 1990년대 중반에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DIY공방에서 기계를 사용한다는 것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되었다. 그는 DIY공방에서 공방 운영자들로부터 테이블쏘, 자동대패, 수압대패, 각끌기 등 다양한 기계를 다루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 이러한 DIY공방과의 만남은 그에게 있어 두 번째 목공의 세계로 이동 혹은 접속하는 것이었다. 그는 빠르고 쉽게 나무를 가공하는 기계식 목공을 접한 후 짜맞춤을 기계로 해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기계만으로는 정교하게 나무를 가공할 수 없었고 공방 운영들도 이 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없었다.

그리하여 백만기는 전국의 유명한 장인들을 직접 찾아 나서 몇 명의 장인들을 만났지만 그들은 백만기의 어려움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사용하는 수공구나 작업장을 공개하기를 꺼려하였다. 백만기는 이들의 폐쇄적인 태도로 인해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하였고 이에

크게 실망하게 되었다.³⁴⁾ 이와 같이 세 번째 목공의 세계에서 백만기는 장인들의 도구나 앞에 연결되지 못하였다. <그림 2-1>에서 세 번째 행에 해당하는 이러한 목공의 세계는 어떠한 사물들이 존재하는지 백만기에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물음표로 표시하였다.

한편 조석진을 만나 연필과 기계로 견고한 짜맞춤을 하는 것이 어려움을 토로하였던 백만기는 조석진을 통해 먹금칼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조석진이 있는 전주에 가서 짜맞춤 목공의 모든 노하우를 배우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러나 조석진이 짜맞춤 목공을 가르치던 방식은 자신이 작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 의미와 원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스스로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수밖에 없었다. 또한 이때 조석진은 주로 국산목을 사용하였는데 백만기가 짜맞춤 전수관을 운영하면서부터는 국내에서 국산목을 사용하는 것이 어려워져 북미산 하드우드를 수입하여 사용하게 되는 변화가 생기게 된다.

이처럼 인간과 사물의 연결에 따라 목공의 세계는 다르게 나타나고, 그 가운데 앎의 종류는 물론 이를 가르치고 배우는 방식과 분위기에도 차이가 나타난다. <그림 2-1>에서 백만기를 나타내는 원의 선 모양이 각기 다른 것은 이와 같이 어떠한 목공의 세계에 있는가에 따라서 백만기의 목공에 대한 앎은 물론 그가 다른 행위자들과 맺는 관계가 달라지고 이에 따라 백만기 역시 다른 존재가 된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백만기는 더 나은 짜맞춤기술을 배우고 자신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새로운 사람들, 그리고 새로운 사물들과 연결될 필요가 있었다. 다음 장에서는 사물과 인간의 관계 가운데 목공의 세계가 어떻게 재맥락화 되었는지를 백만기가 설립한 짜맞춤 전수관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았다.

34) 백만기가 짜맞춤기술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게 된 과정과 이 과정에서 만나게 된 새로운 사람과 사물, 그리고 이들과의 관계맺음을 통해 그 자신이 새로운 실천공동체를 재형성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Ⅲ. 목공 세계의 재맥락화와 교육의 실천

짜맞춤 목공은 고정된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장소와 시간에 따라 다르게 실행되며 계속 변화하는 과정 중에 있다. 어떠한 사물과 인간이 함께 모이게 되고, 어떠한 관계를 맺는가에 따라서 목공 활동과 그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은 다르게 나타난다. 3장에서는 조석진을 통해 짜맞춤 목공을 배운 백만기가 모든 노하우를 일반인들에게 공개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실천함으로써 짜맞춤 목공의 저변 확대를 위해 헌신해 온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목공의 세계를 이루고 있는 특정한 사물과 인간은 어떻게 하여 지금-여기에 있게 된 것인가? 어떻게 하여 어떤 것들은 지금-여기에 있고, 다른 어떤 것들은 없는가? 특정한 사물과 인간의 연결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가?

2010년대 한국의 한 목공방에서 특정한 양태로 존재하는 목공의 세계는 사물과 인간이 함께 형성하는 것으로 다양한 사물들은 목공 활동과 교육의 실천에 있어 구체적인 경험과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데 기여한다. 이 장에서는 사물과 인간의 관계를 통해 나타난 목공 세계의 재맥락화 과정을 ‘수공구의 부활’, ‘나무의 변화’, ‘장소의 탄생’, ‘새로운 전통 만들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 수공구의 부활

나무와 나무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가구를 만드는 짜맞춤 목공은 세밀하고 정교하게 나무를 가공해야 한다는 점에서 먹금칼, 대패와 같은 수공구를 숙련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짜맞춤 전수관에서는 오늘날 목공을 하는 데 있어 기계의 사용이 필요함을 인정하면서도 기계로 대신할 수 없는 수공구의 이점을 중요하게 여긴다. 이에 백만기는 학습자들이 수공구의 앎을 체득할 수 있도록 체

계적으로 가르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짜맞춤 전수관에서 볼 수 있는 먹금칼, 대패와 같은 수공구는 이전 세대의 것과 다르게 존재하고 있었다. 견고한 짜맞춤을 가능하게 하는 수공구들은 어떻게 지금-여기에 있게 되었는가?

1) 앞의 체계화

(1) 미지의 사물이었던 먹금칼

먼저 먹금칼은 목공 도구 중의 하나이다. 먹금칼은 <사진 3-1>과 같이 나무로 된 몸통과 그 끝 부분에 있는 날로 되어 있다. 보통 연필 크기와 비슷한데 이러한 먹금칼은 “금긋기칼”, “마킹나이프”라고 불리기도 하며 톱질을 하기 전 나무 부재에 선을 그릴 때 사용한다. 먹금칼로 나무에 그은 선을 “칼금”이라고 부르는데, 이 칼금을 스치며 톱질을 해야 나무와 나무를 맞출 때 딱 맞아떨어져 견고한 가구를 만들 수 있어 목공인들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수공구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먹금칼은 어떻게 하여 지금-여기에서 필수적인 목공 도구가 된 것인가?



<사진 3-1> 먹금칼³⁵⁾

먹금칼이 존재하기 위해서 어떠한 사물과 인간이 함께 연결되고 있는지 1990년대 중반부터 목공을 시작한 주 연구참여자 백만기의 이야기에 서부터 시작해 보자. 백만기는 결혼을 하고 낳은 자신의 아이들에게 공장에서 생산된 가구들을 사주었다. 기성가구는 가격이 저렴하고 예뻐지만 MDF라는 재료로 만들어져 유해물질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그는 사랑하는 딸들을 위해 더 이상 기성가구를 사용할 수 없었다.

그의 아버지는 목수였다. 어린 그의 눈에 비친 아버지는 저녁마다 술을 먹으며 목수 일의 고단함을 풀었다. 또 별이가 시원치 않아 백만기는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절대 목수가 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였다. 그러나 집에는 아버지가 쓰던 목공 도구들이 남아 있었고, 보고 자란 것이 목수일이라 그는 아버지 곁에서 어깨너머로 배웠던 짜맞춤 기술로 집에서 필요한 가구들을 하나둘 직접 만들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가벼운 취미생활로 시작한 가구 만들기였지만 점점 더 흥미를 갖게 되었다. 그러던 중 1990년대 중반 한국에 DIY 목공이 싹트기 시작하였다.³⁶⁾ DIY 목공은 원목이 아닌 집성판을 주로 사용하며 나사, 못, 도미노, 비스킷과 같은 부품을 사용하여 나무와 나무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가구를 만든다. 가구 만들기에 관심을 갖고 인터넷 검색을 하던 백만기는 이러한 DIY 목공을 알게 되었고 천안시 두정동에 있는 DIY 목공방을 찾아갔다. 백만기는 DIY 목공방에 갔을 때 느낀 점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가구에 대해서 나도 이제 조금 취미생활을 하다보니까 인터넷

35) 이 사진 속의 먹금칼은 조석진이 백만기에게 실제로 건네 준 것이다.

36) 이러한 사실은 1990년대 중반부터 DIY 목공방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백만기의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인터넷포털사이트인 NAVER에서 제공하는 뉴스라이브러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뉴스라이브러리는 1920년부터 1999년까지 발간된 종이신문을 디지털 자료로 변환해 놓은 것으로 한국에서 “DIY”, “DIY가구”라는 말은 1990년대 중반부터 증가하기 시작한다.

검색도 해보고 뭐 이렇게 하다보니까 DIY가구라는 게 눈에 띄기 시작하더라고. 근데 이제 DIY의 가장 큰 장점은 나무가 집성되어 판재가 나오니까 그냥 똑똑 잘라서 피스만 박으면 끝나는 거야. 어우,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내가 생각하던 걸구로 하면은 한 달 두 달 걸릴 것을 하루아침에 다 만들더라고. 이야! 이게 신기하더라고. 기계 같은 게 막 있는 거야!

백만기는 그 DIY 목공방에서 예전에는 보지 못한 새로운 기계들을 접하게 되었다. 자동 대패, 수압 대패, 각끌기, 테이블쏘와 같은 전동기계를 사용하여 나무를 ‘쉽고’, ‘빠르게’ 가공하여 가구를 만드는 모습을 보고 그는 “별천지”에 온 것 같았다.³⁷⁾

그때까지 내가 본 기계는 마루노꾸 하나밖에 못 봤거든. 전기 대패하고 마루노꾸라고 지금의 환거기³⁸⁾라고 있죠? 환거기, 그거 밖에 못 봤는데. 인터넷 뒤져보니까 저런 재단기도 있고 자동 대패도 있고 수압 대패, 각끌기 이런 게 다 있는 거야. 난생 처음보는 기계가 있는 거야. 근데 그걸로 해서 나무도 가공하고 구멍도 뽕뽕 뚫고 이거 뭐 별천지인 거야. 그래서 이야! 이거 한번 배워보자! 이왕 가구 만들 거 저런 기계로 하면 훨씬 빠르고 잘 만들 거 같다.

이와 같이 백만기는 새로운 기계들을 사용하여 나무를 가공하는 DIY 목공을 접한 후, 가구를 빠르게 잘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되었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배운 짜맞춤 기술을 전동기계와 연결시켜 “어떻게 하면 짜맞춤을 기계로 쉽게 가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기

37) DIY 목공을 소개하는 책이나 기사에서 눈에 띄는 표현 중의 하나는 “똑딱”이라는 것이다. DIY 목공에서 사용하는 집성판과 전동기계는 목공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변화시켰다.

38) 환거기는 테이블쏘(table saw)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테이블 모양으로 된 철판 위에 톱날이 돌아가는 것으로 나무를 자를 때 사용한다.

시작하였다. 그런데 ‘연필’이라는 도구로 나무에 선을 긋고 그 선을 전동 기계로 자르는 방식의 가구 만들기는 문제점이 있었다. 연필로 그은 선을 톱질하면 나무가 “깨끗하게” 잘리지 않았고, 전동기계에는 공차³⁹⁾가 있어 나무를 정확한 치수로 자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만든 가구는 나무의 표면이 뜯기거나, 나무와 나무의 연결이 견고하게 맞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면서 터지기도 하였다. 백만기는 연필과 전동기계를 사용하면서 겪은 어려움을 아래와 같이 말하였다.

근데 최대 단점이 연필로 아무리 잘 긋고 잘 해도 깨끗하게 안 나와. 별짓 다 해봐도 안 돼. 그리고 거기서 작업하고 집에 와서도 천막 공방할 때 계속 기계나 지그를 이용해서 만들기는 하는데 나는 진짜 다 될 줄 알았어.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 처럼 수작업 안 하고 기계작업으로만 짜맞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었어 나도. 근데 하면 할수록 어느 정도까지는 되는데 그 이상은 안 돼. 터지고 뜯기고 결국은 거의 막 한계점에 온 거지. 해도 해도 안 되니까.

이처럼 연필과 전동기계로 짜맞춤가구를 만들면서 한계점에 다다른 백만기는 혼자 힘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전국의 유명한 장인들을 직접 찾아 나서게 되었다.

그러나 장인들은 백만기를 달갑지 않게 여기거나 자신의 작업장을 둘러보는 것도 꺼려하였다. 견고한 가구를 만들고 싶었던 백만기는 장인들에게 기술을 배우고 싶었지만 가르쳐 주지 않으려 하여 그들과 교육적 관계를 맺지 못하였다.

연필로 다 긋고 대충 다듬고 그 선을 반듯하게 맞춘다는 것은

39) 공차는 어떤 기준값에 대해 규정된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를 뜻하며 기계의 성능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예를 들어 길이 30mm의 나무를 자른다고 할 때 공차가 2인 경우 29mm에서 31mm사이의 결과물이 나오게 된다.

거의 불가능해 이게.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막 헤매기 시작한 거지. 이거 어떻게 기계로 부재까지는 빨리 만들 수는 있는데 정교하게 딱딱 맞춰야 하는데 죽어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엄청 헤맸지.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하고 찾다보니까 지역별로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을 찾아다닌 거지. ... 근데 이거 배우러 가도 안 가르쳐 주고 방법도 없고.

한동안 계속 헤매던 그는 우연한 기회에 조석진(1953-2013)이라는 소목장을 만나게 되었다. 조석진은 1975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렸던 22회 국제기능올림픽 대회에서 22살의 나이로 금메달을 수상하였는데,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가구 분야에서 한국 선수가 우승한 것은 그가 처음이었다. 그는 1988년도 목재 공예업에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들만 출전할 수 있는 제1회 명인대회에 가구, 창호, 건축, 목공까지 포함한 목재 수장 분야에 출전해 이 부문 최고의 기능인임을 재확인하면서 국내 최초로 명인에 오르는 영예를 차지하기도 하였다. 또한 그는 1994년 전북 무형문화재 가운데 한 명으로 선정되어 전북 지역 전통 가구의 맥을 잇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⁴⁰⁾ 이처럼 대외적인 성취와 함께 가구를 만드는 솜씨가 아주 뛰어났던 조석진을 백만기가 만나게 된 것은 좋은 나무를 보러 다니던 길목에서였다.

그러니까 인연이라는 게 참 희한한 거야. 조석진 선생님을 알고는 있었거든, 알고는 있었는데 워낙 또 깐깐하신 분으로 유명해서 누가 와도 뭐 이렇게 반기지 않고 이런 성격이거든. ... 그런데 희한하게 만나게 되더라고 희한하게. ... 목상이 나무 좋은 거 나왔다고 하면 구경하러 가는데 희한하게 어느 날 보니까 조석진 선생님하고 계속 같이 있는 거야. 맨 처음에는

40) 이러한 조석진의 약력은 '천년전주명품은 사업단(<http://www.onnlife.or.kr>)'에 기록되어 있는 작가 소개를 참고하였다.

몰랐어 조석진 선생님인지도 몰랐어 김철수 사장이 저 분이 조석진 선생님이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하고. 옛날 분들이 다 그렇듯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못 걸고 맨 처음에는 이렇게 그냥 지나가요. 근데 또 익산에 가니까 또 만나는 거야. 그리고 또 제재하러 여기[인천]⁴¹⁾ 또 오시는 거야.

좋은 나무를 찾으러 다니던 백만기는 조석진과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자주 얼굴을 보게 되었다. 이 인연을 계기로 백만기는 전동기계와 연필을 사용하여 가구를 만드는 과정에서 자신이 부딪히게 된 어려움을 조석진에게 용기를 내어 이야기하게 되었다. 백만기의 이야기를 들은 조석진은 처음에는 아무 말이 없다가 몇 번의 만남이 지난 후 어떤 물건 하나를 백만기에게 건네주었다. 그리고 한 마디만을 하였다. “이거 써봐.”

그래서 이제 어느날 용기를 내서 어려운 점을 얘기한 거지. 선생님 제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가구 만들기를 배우고 했는데 이거 도대체가 안 맞습니다, 죽어도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석진 선생님이 처음에는 얘기도 안 하시지 몇 번 만나고 하니까 나중에는 그 먹금칼 저기 내가 받아놓은 거 있잖아요 그걸 주신 거지. 이거 써봐.

조석진이 건넨 물건은 갈색 나무 몸통에 칼날이 달려 있는 것이었다. 이렇게 하여 아버지로부터 어깨너머로 배운 짜맞춤 기술을 DIY 목공에 연결하여 가구를 만들고자 했던 백만기가 걸어온 목공의 세계에 새로운 사물이 들어오게 된 것이다. 백만기는 처음 보는 이 사물을 낯설게 느꼈다. 그가 체험하며 살아온 목공의 세계에는 없었던 미지의 이 낯선 사물의 이름이 ‘먹금칼’이었다.

그런데 먹금칼이라는 사물이 조석진으로부터 백만기에게 오게 된 것만으로 백만기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41) 이 연구에서 인용문에 추가된 대괄호는 연구자가 문맥의 이해를 돕기 위해 넣은 것이다.

먹금칼이 무엇이며,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것인지 몰랐던 백만기에게 먹금칼은 제 역할을 하는 도구로 쓰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 먹금칼을 붙들고 몇 달 동안 씨름을 하게 되었다. “이거 써봐.”라는 조석진의 한 마디와 함께 백만기의 손에 오게 된 먹금칼은 몇 달 동안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하였다. 백만기가 할 수 있는 일은 혼자 힘으로 먹금칼의 의미와 사용법을 알아내기 위해 먹금칼과 함께 실험하고 탐구하는 것이었다.

근데 선생님께서 어떻게 쓰는 건지는 설명도 안 해줘요. 그냥 이거 써봐. 근데 칼금이라는 게 안 해 본 사람이 쓰려면 톱질이 어떻게 스쳐요. 혼자 뽀뽀 거리고 몇 달을, 몇 달을 하는 거야. 그래도 잘 안 돼. 근데 어느날 우연치 않게 톱질을 해봤는데 딱 스치는 거야, 아! 이거 기가 막혀! 모서리가 딱 살아 있는 거를, 살아 있는 걸 딱 본 순간 그 감동이랄까 희열이랄까 어마어마한 거지. 이야! 이게 된다! 이게 몇 달 동안 안 됐으니까 아, 이거 괜히 귀찮으니까 나 떨굴려고 이거 하나주고 해보라고 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별 생각이 다 들었는데... 아, 그때는 정말 대단했지! 그때부터 눈이 떠가지고 조석진 선생님한테 매달리기 시작한 거야. 가서 나도 좀 가르쳐 달라고.

먹금칼로 나무에 그은 선은 “칼금”이라고 불리는데, 이러한 칼금을 “스치면서” 톱질을 하면 정교하게 나무를 자를 수 있어 견고한 짜맞춤가구를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처음 먹금칼을 손에 쥐게 된 백만기는 먹금칼을 어떻게 쓰는 것인지 감을 잡지 못하여 꽤 오랜 시간 애를 먹게 되었다. 위 이야기에 나타난 것처럼 먹금칼을 어떻게 쓰는 것인지 몰라서 헤매는 동안 너무 괴로웠던 백만기는 조석진이 자신을 밀어 내기 위해서 쓸모없는 물건을 주었다고 생각하기도 하였다. 자신의 한계를 어떻게 넘어서 수 있는 것인지 몰라 괴로웠던 백만기에게 먹금칼은 미지의 사물이

었다가 조석진을 통해 비로소 백만기의 목공 세계에 들어왔다. 그러나 백만기와 먹금칼은 아직 서로가 서로에게 알려지지 않은 낯선 존재들이었고 ‘목수와 도구의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상태였다. 다시 말하여 백만기는 먹금칼을 쓸 수 있는 ‘목수’가 아니었고, 미지의 사물 역시 목수에 의해 쓰이는 ‘먹금칼’이 아니었던 것이다.

백만기는 조석진으로부터 먹금칼을 건네받은 후 혼자 힘으로 칼금을 스치기까지 겪었던 어려움을 자신의 저서인 <짜맞춤, 그 견고함의 시작>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선을 스치게’ 톱질한다는 것의 정확한 의미조차 모호하다. 톱으로 선을 없애란 건지, 선을 남겨 놓고 그 바로 옆으로 톱질해야 하는 건지, 옆이라면 선과 얼마나 떨어져야 하는 건지 난감하다.

백만기에게 칼금 “선을 스치게” 톱질한다는 것의 의미는 “모호”하고 “난감”했다. 선을 없애면서 톱질을 하는 것인지, 선의 바로 옆을 톱질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먹금칼, 톱, 나무 연귀자와 함께 몇 달을 씨름하면서 그에게도 “그저 가는 선”에 불과하였던 칼금은 “분명히 두께”를 갖는 것으로 변하였고, 그는 마침내 “칼금의 어느 부분을 기준으로” 톱질을 해야 하는지를 찾아냈다. 이러한 과정은 <짜맞춤, 그 견고함의 시작>이라는 책에 교육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일반인이 보면 칼금은 그저 가는 선에 불과하다. 하지만 짜맞춤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칼금에도 분명 두께라는 것이 있다. 그런 좁은 간격과 싸우는 것이 결국 짜맞춤의 시작인 셈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려 놓은 칼금의 어느 부분을 기준으로 톱질해야 하는 걸까?

수백 번 칼금을 그리고 그 선을 스치기 위해 톱질을 한 백만기는 마침내 칼금과 톱이 만나는 기준을 알게 되었고 먹금칼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

(2) 기본 수공구가 된 먹금칼

미지의 사물이었던 먹금칼은 백만기에게 견고한 짜맞춤이라는 새로운 체험과 행위를 가능하게 하였다. 먹금칼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연필을 사용했는데 연필은 칼금보다 두꺼워 연필 선의 어느 부분을 기준으로 톱질하는가에 따라서 나무의 규격이 크게 달라졌다. 그리고 연필로 그은 선은 나무 위에 표시가 될 뿐 나무의 표면을 절단하지 않아 톱질을 했을 때 거스러미가 남아있게 하였다. 이와 달리 먹금칼은 연필보다 훨씬 미세하고 정교한 톱질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런데 먹금칼의 사용법을 배우지 못했던 백만기는 먹금칼로 그린 칼금이라는 가는 선이 갖고 있는 두께의 “좁은 간격과 싸우는 일”을 혼자 연구해야만 하였다. 그의 이러한 깨달음은 <짜맞춤, 그 견고함의 시작>에도 쓰여 있듯 “보일 듯 말 듯”이라는 말에 압축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각재 위에 나무 연귀자를 대고 톱의 등으로 가볍게 툽툽 쳐가며 선을 밀착시켜 보자. 일반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가이드(나무 연귀자)는 칼금이 보일 듯 말 듯한 지점에서 멈춰야 한다.

백만기는 이 “보일 듯 말 듯”이라는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먹금칼로 수없이 많은 칼금을 긋고 톱질을 하였다. 먹금칼과 함께 몇 달을 보낸 어느 날, 그는 드디어 먹금칼로 그은 칼금을 스치면서 톱질을 하게 되고 엄청난 감동과 희열의 순간을 맛보게 되었다. 수많은 탐구와 연습을 통해 마침내 먹금칼을 제대로 쓸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는 나무의 “모서리가 딱 살아 있는 것”을 보고 엄청난 감동과 희열을 느끼게 되었다. 백만

기와 먹금칼은 관계맺기를 통해, 그 관계맺음 안에서 비로소 목수가 되고 먹금칼이 될 수 있었다. 먹금칼을 손에 쥐 백만기, 곧 ‘백만기와 먹금칼’은 백만기가 DIY 목공을 하면서 사용했던 연필과 기계의 한계를 함께 넘어서게 되었다. 백만기는 먹금칼과 연결됨으로써 칼금을 스치는 톱질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톱질로 자른 나무들을 짜맞추었을 때 비로소 견고한 가구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얻게 된 것이다.

백만기는 먹금칼과의 이러한 만남 이후 그가 운영하는 목공방에서 짜맞춤가구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기본 수공구 목록에 먹금칼을 포함시켰다. 뿐만 아니라 먹금칼은 백만기가 2016년에 쓴 <짜맞춤, 그 견고함의 시작>이라는 책에도 등장한다. 이 책은 짜맞춤가구를 만들고자 하는 입문자가 “기본적인 수공구의 이해와 사용법을 배우고, 이를 활용한 핵심적인 6가지 결구법을 배우고 몸에 익힐 수 있도록”(백만기·김랑·김지우, 2016: 11) 백만기가 그의 동료들과 함께 쓴 책이다. 이 책에는 먹금칼을 사용하여 칼금을 긋는 요령, 칼금에 따라 톱질하는 방법, 칼금의 중요성이 담겨 있다.

2010년대 짜맞춤 전수관에서 목공을 배우는 학습자들과 백만기를 비교해 보면 먹금칼은 미지의 사물이 아닌 기본 수공구이며, 중요성과 사용법을 몇 달에 걸쳐 스스로 깨달아야 했던 것과 달리 체계적으로 정리된 내용으로 바로 접할 수 있고, 스승을 대면하여 시범을 통해서만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책과 유튜브 동영상들 통해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곁에 두고 반복해서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먹금칼이 책, 유튜브 동영상과 함께 목공의 기본 교육과정이 되기까지 어떠한 사건들이 있었는가? 백만기는 먹금칼과 씨름하며 숙련된 앎을 발달시키고 이를 다른 학습자들에게 공유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정리하게 된 과정을 조석진의 암묵지를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표면화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었다.⁴²⁾

42) 이때 조석진의 앎은 암묵지, 백만기의 앎은 명시지라고 분류해서는 안 된다. 모든 앎에는 암묵지와 명시지가 두 차원으로 공존하기 때문이다. 백만기가 조석진의 암묵지를 명시적으로 드러

백만기: 그러니까 지금 쓰는 게 대부분 그... 조석진 선생님의 암묵지를 자꾸 표면화로 끌어들이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거를 이제 실제 사람들에게 적용하면서 자꾸 변화하고 발전시킨 내용이지. 이게 가만히 있는 내용이 아니야 이게 다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고 지금도. 더 좋은 방법이 나오면 또 개선이 될 거고. 의외로 이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서 내가 배우는 것도 많아 의외로. 이 분들은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 보거든 처음에는. 하다하다 안 되면 이제 여기 따라오는 데 그 내 마음대로 시도는 나는 잘 안 되잖아.

연구자: 절대 그렇게 안 되지요. 몸이 그렇게 안 되지요.

백만기: 이미 해 봤기 때문에 그게 안 돼. 근데 그 사람들 보면서 아 저렇게 시도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게 나는 항상 배우는 거지. 내가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내 스스로 자꾸 배우는 거지. ... 실제 작업하는 사람들의 어떤 고충을 듣고 그 사람들의 특이한 어떤 행동이나 작업방법을 보면서 또 아이디어를 얻는 거지. 우리가 책이나 뭐 이런 걸 보면서 새로운 디자인의 아이디어를 얻듯이 기술에 대한 거는 실제 하는 사람들의 것이 제일 또 어떻게 보면 정확하고 제일 실질적인 거잖아.

그는 자신의 몸에 배어 있는 숙련된 앎을 알지 못하는 목공 학습자들을 보면서 자신과 그들 사이에 있는 차이에 주목하였다. 먹금칼을 처음 다루는 학습자들이 어떤 방법을 시도하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피면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백만기가 알고 있던 기술적 노하우는 “변화하고 발전”하면

낸 것은 일부분이며 여전히 백만기가 하는 목공에는 암묵지와 명시지가 공존한다고 볼 수 있다.

서 “계속 움직이는” 것이 된다.

연구자: 그 조석진 선생님한테 아 이 포인트다 하고 나서 사람들을 많이 보신다고 했잖아요 보고 선생님 나름대로 정리한다고 표현하신 거는 이렇게 막 고민해 보시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백만기: 그렇지. 고민도 하고. 내가 또 이렇게도 시도해 보고 저렇게도 시도해 보고. 또 사람들 하는 거 또 따라서 해봐.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나 이걸 또 어떻게 바꾸나 끝질이든 톱질이든 날물 연마든. 저게 나는 계속 아까도 그 암묵지가 이렇게 순환하는 거 그 사이클이 굉장히 짧게지만 계속 순환하고 있다고 봐야지 계속. 그냥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또 적용해 보고 또 나오면 결과 나오면 또 해 보고 계속 해 보는 거지.

이처럼 백만기는 학습자들과의 교육적 상호작용을 숙련된 앞의 명시적 표현과 체계적인 정리의 중요한 계기로 삼고 있었다. 다음의 인터뷰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조석진은 먹금칼을 무의식적으로 움직일 정도로 그 사용법이 몸에 배어 있었는데 이러한 조석진의 암묵지는 백만기를 통해 초보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정리될 수 있었다.

백만기: 선생님께 이제 가서 보면 이 살짝 깔딱 움직이는 것도 보이는 거지 눈에 들어오는 거지. 저 분은 얘기는 안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칼을. 딱 대고 약간 여유를 주려면 움직이고 밀고. 이제 내가 [책과 수업에서] 풀어서 설명을 했지만 그 분은 그게 몸에 배어 있는 거야. 정확히 할 때는 그냥 대고 하는 거고 약간 여유를 줄 때는 이제 움직이는 거고. 이런 게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도 안 하지만 암묵지처럼 몸에 배어 있는 거야 그냥. 그게 이제 나는 보이는 거

지. 아 그게 맞다 확실하다 저거는. 그런 확신이 들었지.

연구자: 그러면 조석진 선생님은 어떤 내용으로 이 칼금을 스킨이라고 말씀하세요? “보일 듯 말 듯”이라고 표현하시던가요?

백만기: 안 한다니까. 보는 거지. 조석진 선생님이 먹금칼 쓰는 거 찍어 둔 옛날 동영상 봐봐. 다들 작업하는 거 이렇게 보고만 있고... 하나하나 다 이렇게 다 알려준 거는 없는 거지.

백만기와 먹금칼의 얽힘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일어나는데 중요한 교육적 사건을 중심으로 다음의 <표 3-1>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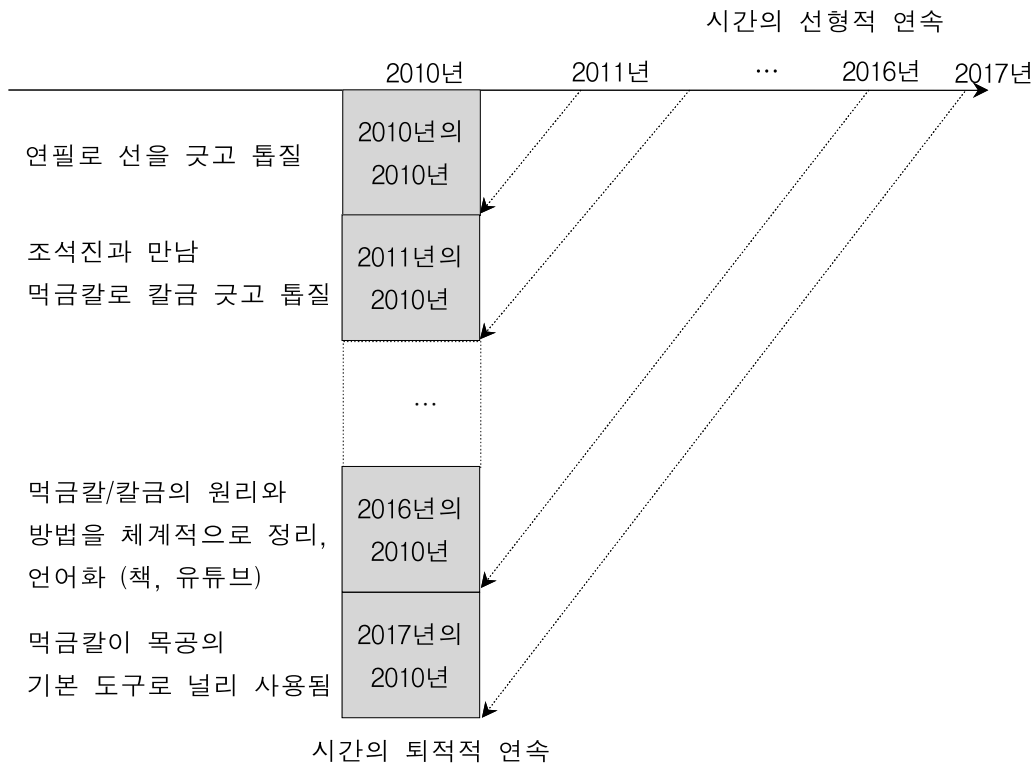
<표 3-1> 먹금칼과 교육적 사건

연도	내용	특징
2010	연필로 선을 긋고 톱질	·한계를 느끼고 해결방법을 찾아 나섰지만 가르침을 얻지 못함
2011	조석진과의 만남 먹금칼로 칼금 긋고 톱질	·조석진은 먹금칼/칼금의 의미, 원리, 방법을 명시적으로 가르쳐 주지 않았음 ·백만기 스스로 먹금칼/칼금의 의미, 원리, 방법을 깨우침 ·기술을 공개하지 않거나 체화된 실천적 지식을 명시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교육방법에 문제의식을 갖게 됨
2016	먹금칼/칼금의 의미, 원리, 방법을 언어로 정리 (책 발간)	·학습자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자신의 체화된 앎을 명시적으로 드러낼 수 있게 됨 ·학습자들이 겪는 어려움, 학습자가 보여주는 실수를 보면서 백만기 자신의 몸에 배인 앎을 언어로 정리, 새로운 내용을 추가함
2017	먹금칼이 기본 도구가 됨	·연구자가 직접 체험한 바와 같이 먹금칼을 많은 학습자들이 배우고 그 가치에 공감함

그렇다면 조석진의 먹금칼과 백만기의 먹금칼은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먹금칼이라는 사물을 단독으로 살피는 것이 아니라 먹금칼이 어떠한 사물, 사람, 사건들의 관계 가운데 놓여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다. 달리 말하여, 하나의 사물은 고정된 속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물, 그리고 인간과 어떠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특징이 변화한다. 조석진의 먹금칼은 백만기를 통해 그 의미, 원리, 방법이 명시적으로 드러나고 언어로 정리되는 작업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일종의 ‘교과서’와 같은 책으로 쓰여지게 되었다. 백만기의 먹금칼은 이처럼 명시적으로 표현된 언어를 통해 새로운 학습자에게 가르쳐질 수 있다는 점에서 조석진의 먹금칼과 차이를 갖는다. 스승과의 상호작용이나 도움 없이 몇 달을 고생하여 먹금칼을 쓸 수 있게 된 백만기의 과거와 비교하면, 새롭게 정리된 백만기의 먹금칼은 학습의 시간을 단축하고 학습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보다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다. 이를 통해 미래의 새로운 학습자들은 먹금칼의 의미, 원리, 방법을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라투르(Latour, 1999)는 어떠한 것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시간의 두 차원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첫 번째 차원은 시간의 선형적 연속으로 이때 시간은 언제나 앞으로 움직인다. 두 번째 차원은 시간의 퇴적적 연속으로 시간은 뒤를 향해 움직인다. <그림 3-1>을 보면 먹금칼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연도의 변화를 따른다. 그러나 이것이 먹금칼이 갖는 역사적 시간의 전부가 아닌데, 먹금칼은 시간의 회고적으로 만들어지는 퇴적의 과정을 통해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2017년의 먹금칼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있었던 모든 사건들을 품고 있는 것으로 2011년의 먹금칼을 일부분 포함하면서도 그와는 다른 특성을 새롭게 갖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림 3-1>의 수직축이라고 할 수 있는 퇴적의 과정은 먹금칼의 사례를 놓고 볼 때 2010년은 그 이후의 연도에 있는 수많은 조각으로 형성된다. 백만기의 삶에서 2010년에 먹금칼은 없었는데 이는 그가 연필로



<그림 3-1> 먹금칼과 시간의 두 차원⁴³⁾

선을 긋고 톱질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필로 선을 긋고 톱질하는 것은 견고한 짜맞춤가구를 만들 수 없게 하는 문제가 되었고, 백만기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던 중 2011년에 조석진으로부터 먹금칼을 받게 된다. ‘2011년의’ 2010년은 연필을 대신하여 먹금칼을 사용하였을 때 견고한 짜맞춤이 가능하다는 확신을 얻게 된 백만기를 포함한다. 또한 ‘2016년의’ 2010년은 먹금칼을 사용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몸에 배여 있

43) ‘시간의 두 차원’이라는 그림은 사물의 역사성을 논의하기 위해 라투르(Latour, 1999)가 발효균의 사례를 다루면서 제안한 것이다. 라투르(Latour, 1999)는 이 그림을 통해 1865년에 파스퇴르가 발견한 발효균이 1865년 이전에는 없었다가 1990년 대 후반 효소학으로 발전하게 되는 역사 가운데 발효균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가를 설득력 있게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그의 그림을 차용하여 발효균의 자리에 먹금칼을 대입하고 있음을 밝힌다.

던 먹금칼에 대한 실천적 지식을 명시적인 언어로 표현함으로써 먹금칼에 새로운 특성을 추가하게 된다. 다시 말하여 퇴적으로 연속되는 시간 가운데 2010년은 ‘2011년의’ 2010년과 같이 새로운 사물과의 만남을 통해 이전의 문제나 어려움이 극복되기도 하고, ‘2016년의’ 2010년과 같이 새로운 형태의 지식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의 계기를 얻기도 한다.

숙련된 앎은 주어져 있는 교육의 내용으로 간주되기 쉽다. 그러나 숙련된 앎은 완성되어 있고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의 손과 그들이 다루는 사물들 사이에서, 그리고 그 손이 아는 앎을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전유되고, 변화하고, 재탄생하는 과정 가운데 있다. 즉 숙련된 앎은 사물의 삶과 인간의 삶이 함께 엮히는 시간 가운데 부단히 변화하고 운동하고 있다. 숙련된 앎은 백만기가 조석진의 것을 전유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살을 붙고, 이렇게 살이 붙은 숙련된 앎을 학습자에게 가르치는 과정에서 다시 변형된다. 이처럼 숙련된 앎은 부분적이고 다양한 차이와 반복을 통해 시간의 두께를 입는다 하겠다.

2010년대 목공방에 기본 수공구로 되어 있는 지금-여기의 먹금칼에는 여러 겹의 시간과 사건이 겹쳐 있다. 미지의 사물이었던 먹금칼은 조석진으로부터 백만기로, 백만기에서 새로운 학습자들로 이동하며 다시 태어난다. 도제식 교육방식 가운데 스승의 시범을 통해서만 알 수 있었던 먹금칼은 이제 원리와 방법이 체계적으로 정리된 책과 동영상을 통해 배울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먹금칼은 백만기에게 견고한 짜맞춤이라는 새로운 목공의 세계를 열어주었고, 백만기는 먹금칼의 원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먹금칼의 역사에 변화를 가져왔다. 그렇다면 목공의 세계에서 또 다른 기본 수공구인 대패를 지금-여기에 있게 한 교육적 실천은 어떠한 것인가? 다음에서는 짜맞춤 전수관에서 볼 수 있었던 대패의 부활이 어떻게 가능하였는지 분석해 보았다.

(3) 다시 살아난 대패

먹금칼이 나무를 자를 때 사용된 기본 수공구라면 대패는 나무를 다듬을 때 사용된다. 대패는 목수를 대표하는 상징으로 떠올릴 만큼 목공예에 있어서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공구이다(사진 <3-2> 참조). 대패는 어미날, 덧날, 대팻집, 누름쇠로 구성되며 나무를 대패질하기 위해 어미날과 덧날을 연마하는 과정이 필요한 도구이다.

대패는 나무의 섬유질을 잘라내기 때문에 가구의 표면을 아주 매끈하게 부드럽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온다. 그런데 이러한 효과는 대패라는 사물이 계속 생산되어야 하고, 목공방에서 계속 사용되어야 하며, 이를 숙련되게 사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다음에서는 오늘날 목공방에서 대패에 관한 숙련된 앎과 교육은 어떠한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인간과 사물의 얽힘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사진 3-2> 대패

우리나라의 가구 시장은 기계화와 대량생산이라는 근대 시기를 거치며 양산 체제를 중심으로 운영되었고 이 과정에서 수작업과 수공구가 쇠

퇴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가운데 흥미롭게도 근래에 “대패가 다시 부활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짜맞춤 전수관을 찾는 사람들 중 기계를 주로 사용하는 DIY 공방에서의 나무 가공 방식과 수준에 만족하지 못한 경우를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기계로 나무를 뽑고 가구를 만들기는 하지만 점차 기술이 숙련되고 안목을 갖게 될수록 정교한 맞물림, 부드러운 촉감, 무너지지 않고 서 있는 모서리 등에 대한 갈증이 생기는 것이다. 그런데 대패와 같은 수공구의 부활은 단순히 예전의 도구 자체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 가능한 일이 아니다. 대패의 구조와 원리를 이해하고 나무마다 상황마다 솜씨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체득하는 일, 곧 기술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필요하다.

짜맞춤 전수관은 목공인들 사이에서 수공구를 제대로 가르치고 배우는 곳으로 이름이 알려져 있다. 백만기는 대패로 나무를 다듬는 것과 사포나 기계를 사용하여 나무를 다듬는 것의 차이를 강조하며 더 좋은 가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패를 숙련되게 사용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말한다. 다음은 대패를 가르치는 백만기의 모습과 말을 기록한 현장노트의 일부이다.

오늘은 대패 세팅과 대패 치는 자세를 배우는 날이다. 회원들은 대팻날을 갈거나 각재를 다듬으며 대패를 만지고 있다. 백만기는 칠판이 있는 입문반 교실 앞으로 회원들을 불러 모았다. “자, 이리 모이시죠. 오늘은 대패 세팅과 대패 치는 자세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회원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고 백만기가 직접 대패로 시범을 보이기 전 강의를 하였다.

“여러분이 DIY가구가 아닌 짜맞춤가구를 배우러 왔다는 것은 가구에 대한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의 안목과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대패가 부활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사람들이 목공 실력도 향상되고 눈높이가 높아지고 하다보니 대패가 안 되면 안 되는, 목공에서 대패가 빠지면 뭔가 부족한 상황이 됐습니다.”

백만기에 의하면, 요즘 목공인들은 쉽고 빠르게 나무를 가공할 수 있는 기계에 만족하지 않고 나무를 좀 더 잘 다룰 수 있는 대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목공을 할 때 사람들이 어떤 도구를 사용할 것인지는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여기에서의 실천 가운데 지속되기도 하고 중단되기도 한다. 대패가 부활하고 있다는 백만기의 말은 수압 대패나 자동 대패와 같은 기계를 주로 사용하는 요즘의 목공방에서 수공구인 대패가 어떻게 지금-여기에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된 것인지에 대한 물음을 갖게 한다.

짜맞춤 전수관에서는 대패를 가르칠 때 손대패와 자동 대패의 차이점을 학습자들이 직접 만져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다음은 현장노트에 기록된 내용의 일부이다.

짜맞춤 전수관의 입문반 수업에서 대패를 가르치는 첫 날이다. 백만기는 나무 판재 두 개를 책상 아래에서 꺼내어 회원들에게 건네준다. “자, 한번 만져보세요.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어느 것이 손대패이고 어느 것이 자동 대패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자, 손으로 만져보세요.” 회원들은 호기심과 궁금함이 가득한 얼굴로 한 명씩 순서를 기다려 두 개의 나무판을 만져본다. 이번에 목공은 처음 해보는 헤상이 알겠다는 표정으로 웃음을 지으며 옆에 있는 나에게 나무 판을 건네준다. 나도 손으로 나무를 문지르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느껴보았다. 하나는 다른 하나에 비해 더 부드럽고 매끈하다. 훈님에게 나무를 넘기자 훈님이 “얘는 이런 무늬가 있네요?”라고 말한다. 회원들이 훈님의 말을 듣고 나무 가까이 모여 나무 하나에는 무늬가 있고 다른 나무 하나에는 무늬가 없는 것을 같이 살핀다.

위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손대패와 자동 대패는 나무를 다듬을 때

각기 다른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짜맞춤 전수관에서는 두 종류의 대패를 모두 사용하여 나무를 가공한다. 자동 대패는 손대패에 비해 힘이 덜 들고 빠르게 나무를 평평하게 만들어 주지만, 나무 표면이 거칠고 기계의 날뿔이 회전하면서 남기는 자국을 나무 표면에 남기게 된다. 즉 기계는 사람이 손대패로 나무를 다듬을 때보다 힘과 시간 면에서는 보다 높은 효율성을 갖지만, 나무의 표면을 더 부드럽고 깨끗하게 만들지는 못한다. 니시오카 대목장 역시 이러한 차이에 대해 “전기대패로 깎은 나무를 잘 보면 매끈하지 않습니다. 보풀이 인 담요와 같은 모양입니다. … 손대패로 깎으면 나무 표면이 깨끗해지기 때문에 물이 잘 고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물을 튕겨 냅니다. 그래서 곰팡이도 생기지 않습니다.”라고 말한다(최성현 역, 2013, p. 72). 또한 나무와 나무를 조립해 놓은 상태에서는 기계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가구제작의 마무리 단계에서는 손대패를 사용해야만 하는 점도 있다. 이런 이유로 백만기는 짜맞춤 전수관에 오는 학습자들에게 손대패를 숙련되게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배우기를 당부한다.

짜맞춤 전수관에서 대패를 배우는 일은 크게 유튜브 동영상이나 <짜맞춤, 그 견고함의 시작>이라는 책으로 연습, 교수자의 시범 및 관찰, 원리에 대한 강의, 1:1 지도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 백만기는 대패에 관한 자신의 노하우를 유튜브 동영상과 책으로 정리를 하여 학습자들이 이를 보고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동영상과 책은 그가 대패를 배울 때에는 없었던 것이었다.

그는 조석진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으로부터 대패에 대해서 배울 기회가 있었는데, 그들은 주로 자신들의 목공 작업과정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가르쳐 주었다. 그들은 대패날이 예리하게 연마된 상태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대패밥이 잘 나오도록 대패를 세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같은 부분을 하나씩 설명해 주지 않았다.

예전 분들 도제식으로 해서 하는데 가서 보면 알겠지만 지금

그렇게 하는 데도 없지만 사실 조곤조곤 알려주지 않거든 절대로. 그냥 내가 작업하는 거니까 뒤에서 어깨너머로 보고 배워 이거거든. 내가 어떻게 하다가 틀렸어 그러면 이거 어떻게 고쳐야 하고 설명해 주느냐 절대 안 해줘. 어, 틀렸어? 열심히 해, 잘 해, 그러면 끝이야. 그럼 자기가 또 죽을 똥 살똥 해보는 거야 그럼 또 틀려 그럼 또 해보고. 그러면서 운이 좀 따르거나 머리 좋은 사람은 아 이거구나 하고 느끼는 게 있고 바로 되는 게 있는가 하면 그게 좀 안 맞는 사람은 죽어라고 맨날 해봐야 맨날 거기서 그 자리야 안 늘어. 그러니까 대부분 배우는 게 어렵다 하고 포기하는 거거든.

백만기는 어떻게 해야 대패를 더 잘 쓸 수 있는지 궁금하였지만 그가 선생님들로부터 들었던 말은 “열심히 해.,” “잘 해봐.”와 같은 것이 전부였다. 그는 이렇게 잘 알려주지 않는 기술교육 문화를 폐쇄적인 것이라고 느꼈는데, 이는 노하우를 자신의 밥줄이라고 여겨 다른 사람에게 잘 공개하지 않는 분위기와 노하우를 언어화하지 않고 시범 위주로 가르치는 도제식 교육방식이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목수였던 아버지로부터 받은 대패와 일본에서 생산되어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대패를 주로 사용하였는데, 아버지와 선생님들 곁에서 어깨너머로 배운 대패질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었지만 대팻밥이 잘 안 나오지 않거나 나무를 뜯게 되는 문제에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신이 대패질 하는 과정을 돌아보며 문제점이 무엇인지 연구하였는데, 그러던 중 유튜브를 통해 일본 목수가 올린 대패 동영상을 보게 되었다.

일본 동영상을 봤더니 개들은 덧날의 역할 이런 거를 다 고속으로 촬영한 게 있어. 유튜브에 간나⁴⁴⁾ 이렇게 쳐서 대패를 간나라고 하거든. 그러면 별의 별 동영상이 있는데 거기

44) 대패를 가리키는 일본어이며 ‘かん나’라고 쓴다.

에 보니까 대패밥이 덧날에 꺾인 거 촬영한 게 있고 고속촬영한 거를 보니까 어미날이 움직여. 중간이 뜨는 거야 미세하게 세게 당기면 순간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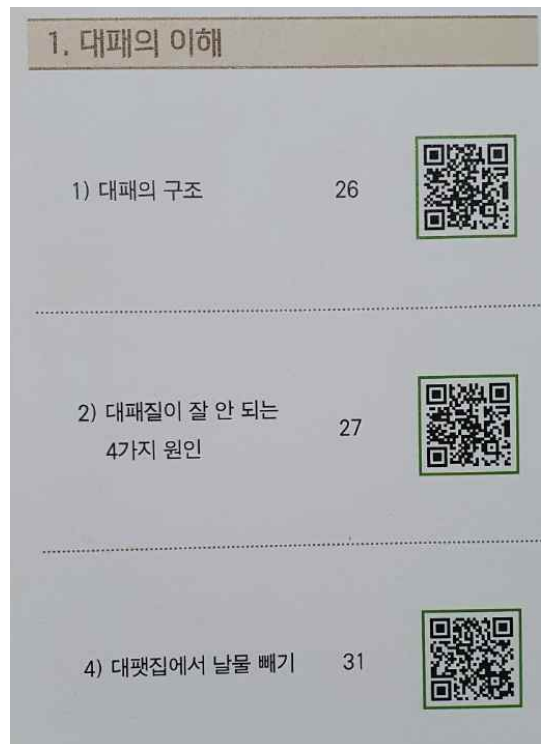
백만기는 대패날이 나무 위를 지나갈 때 어미날과 덧날 사이에 공간이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대패질이 안 되는 네 가지 주요 원인을 정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대패와 씨름하며 시행착오를 겪고 대패의 원리를 연구한 내용을 언어화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스톱퍼”라는 개념을 만들어 덧날의 기능을 이해할 수 있게 하였고, 대패날에 턱이 생기지 않도록 연마하는 방법도 개발하였다.



<사진 3-3> 대패에 대한 유튜브 동영상

그는 이러한 모든 내용을 책과 유튜브라는 매체를 통해 목공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배울 수 있도록 공개하기로 결심하였다. 그

리고 여기에 더하여 책에 QR 코드(Quick Resoponse Code) 포함시켜 책의 내용을 직접 시범으로 보여주는 유튜브 동영상과 연결되도록 하였다. 사물과 언어를 함께 결합시키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먹금칼과 대패는 보다 안정적으로 목공 교육과정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사진 3-4> QR 코드

<사진 3-3>은 백만기가 대패의 원리를 정리하여 소개하는 유튜브 동영상 화면이며, <사진 3-4>는 <짜맞춤, 그 견고함의 시작>이라는 책에 등록되어 있는 QR 코드이다. 학습자들은 책, 유튜브 동영상, QR 코드에 접속하여 대패의 구조, 대패질이 안 되는 4가지 원인, 대패집에서 날물을 빼는 방법 등 대패에 관한 백만기의 노하우를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짜맞춤 전수관에서 학습자들은 대

패를 스스로 다루어보는 실습 시간이나 작품을 만드는 자유 시간에 모바일폰을 곁에 두고 백만기가 나오는 유튜브 동영상을 본다. 유튜브 동영상은 한번 보았던 장면을 다시 반복하여 볼 수 있고, 재생 속도를 조정할 수도 있다. 학습자들은 이러한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강의에서 놓쳤던 부분을 다시 확인하기도 하고 자신이 잘 되지 않는 부분을 반복하여 연습하는 데 도움을 얻는다.

짜맞춤 전수관을 찾는 학습자들은 백만기를 유튜브를 통해 먼저 접하고 오는 경우가 많으며 미국, 캐나다, 제주도 등 국내외의 먼 거리에서 유튜브를 통해 수공구 사용법이나 짜맞춤 기술을 보다가 직접 배우고 싶어 찾아오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백만기가 자신이 어렵게 깨닫게 된 노하우를 전부 공개하였다는 것에 대해 놀라움과 감사를 표현하였다.

2) 후속세대와의 연결

백만기가 조석진으로부터 배우고, 스스로 연구하며 체득한 짜맞춤 기술은 그의 몸에 일상화된 솜씨로 체득되어 있다. 그는 이러한 짜맞춤 기술을 짜맞춤 전수관에 회원으로 등록하는 학습자들에게 수업을 통해 가르쳐 오고 있다. 한편으로 백만기는 이러한 짜맞춤기술은 <짜맞춤, 그 견고함의 시작>이라는 책, <나들목 가구 만들기>라는 네이버 카페, <백만기(짜맞춤 전수관)>이라는 유튜브에 텍스트나 동영상으로 기록하였다. 백만기가 만든 이러한 물질들은 목공의 세계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는데, 책과 동영상은 그 물질적 특성으로 인해 영속성과 이동성을 갖는 물질들이다. <표 3-2>는 짜맞춤 기술을 담고 있는 다양한 물질적 형태들의 종류와 특징을 정리한 것이다.

백만기의 스승이었던 조석진이 자신이 세상을 떠나면 짜맞춤기술이

<표 3-2> 짜맞춤 기술을 담고 있는 다양한 물질들

이름	종류	특징
짜맞춤, 그 견고함의 시작	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 짜맞춤 결구법으로 가구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수공구 다루기와 사용법을 소개한 목공 입문 가이드 · 2016년 2월 발행 · 2021년 3월 기준 10쇄 발행 · 국내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 판매 · QR 코드로 유튜브 <백만기(짜맞춤 전수관)> 동영상으로 연결됨 · 네이버 카페 <나들목 가구 만들기> 소개
나들목 가구 만들기	네이버 카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ttps://cafe.naver.com/nadulmokdiy · 짜맞춤가구 전수자를 양성하고 짜맞춤가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교육, 홍보, 정보공유하는 카페 · 운영자: 나들목(백만기) · 가입일: 2007년 3월 · 가입자: 2021년 6월 기준 18,882명 · 방문자: 2021년 6월 기준 1,905,666명 · 카페 검색어⁴⁵⁾: 하드우드, 짜맞춤가구, 전통가구, 수공구, 가구만들기, 짜맞춤전수관, 소목장, 짜맞춤그견고함의시작, 가구, 전수자과정
백만기 (짜맞춤 전수관)	유튜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ttps://www.youtube.com/c/백만기/videos · 짜맞춤가구의 계승발전과 저변확대를 위해 수공구 사용법과 결구법 등 다양한 노하우를 동영상으로 공유 · 가입일: 2014년 2월 · 조회수: 2021년 6월 기준 1,702,565회

45) 인터넷 네이버 검색란에 해당 검색어를 입력하면 <나들목 가구 만들기> 카페가 검색 결과로 나오도록 카페 운영자가 설정해 놓은 단어들을 가리킨다.

사장되어 버릴 것을 염려하였다는 말처럼, 백만기가 체득하고 있는 짜맞춤기술은 책이나 동영상과 같은 물질적 형태로 기록되지 않으면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 또한 백만기는 수공구에 대한 특강 요청이 있는 경우와 같이 짜맞춤 전수관 외에 다른 곳으로 수업을 하러 가기도 하지만 그의 일정과 형편에 따라 방문할 수 있는 곳과 횟수가 제한적이다.

책과 동영상은 서점이나 인터넷 공간에 연결되어 목공 교육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사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들은 안정된 물질적 형태로 유지되면서 백만기가 갈 수 없는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짜맞춤기술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가능성은 관계적인 것이어서 책과 동영상을 지속적으로 유통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곧 출판사나 인터넷 기업 등이 뒷받침될 때 영속성과 이동성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책과 동영상을 찾아보고 구매 혹은 구독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이들은 계속 유지될 수 있다. 즉 교육의 맥락에서 볼 때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배우기 위해서는 “관심으로 표현되는 몸과 마음의 기울임, 시간을 냄, 교수/학습(자)에 다가가기 위한 이동, 교육적 관계 맺기 등”(조용환, 2021: 170)한데, 책과 동영상은 짜맞춤기술이 무엇인지 알게 하며 교수자와 학습자가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연결해 준다. 이는 백만기가 몸담고 있는 목공의 세계에 새로운 학습자를 초대하고, 그들을 후속 세대가 되게 함으로써 그 세계를 확장시켜 나가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렇다면 백만기와 새로운 학습자들은 책, 카페, 유튜브라는 매개체를 통해 어떻게 하여 연결되었는가? 먼저 백만기와 새로운 학습자들의 만남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하나는 책, 카페, 유튜브를 통해 백만기를 알게 된 목공인들이 혼자 책을 보고 공부하거나, 카페회원으로 가입하거나, 유튜브 동영상을 구독하면서 짜맞춤기술을 배우는 학습자들이다. 이들은 독학을 하는 학습자, 또는 “인터넷 제자”로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유튜브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목공이나 짜맞춤기술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동영상을 볼 수 있어 책이나 카페에 비해 이동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나는 백만기의 유튜브 동영상 가운데 하나인 ‘대패질이 안 되는 4가지 원인’에서 영어로 된 댓글을 볼 수 있었다. 흥미롭게도 이 동영상은 대패의 원리에 대한 이론적 강의내용을 담고 있는데, 대패의 원리에 대한 백만기의 유튜브 동영상에 대하여 외국인들은 “뛰어난 기술”, “멋진 기술적 지식”이라는 평가를 보여주고 있었다. 이처럼 유튜브는 국외로 백만기의 짜맞춤기술을 이동시켜 새로운 학습자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준다고 할 수 있다.

책, 카페, 유튜브와 같은 매개체를 통해 백만기와 새로운 학습자들이 만나는 두 가지 방식 가운데, 다른 하나는 같은 경로로 백만기를 알게 된 후 짜맞춤 전수관을 찾아와 백만기와 함께 수업에 참여하는 경우이다. 학습자들이 짜맞춤 전수관에 오게 된 과정을 살펴보면 책, 카페, 유튜브가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손으로 무엇인가를 만들기 좋아하는 아미산은 목공을 제대로 배워보고 싶은 마음에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다가 <나들목 가구 만들기> 카페를 보게 되었다. 그는 카페에 백만기가 정리해 놓은 짜맞춤기술에 대해 살펴보았고, 그 교육내용이 목공을 잘 배울 수 있겠다는 느낌을 주어 짜맞춤 전수관에 찾아오게 되었다. 다음은 아미산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목수였는데 그래서인지 아버지 옆에서

이것저것 만들고 놀기를 좋아했어요. 톱이랑 망치로 책꽂이도 만들고, 손으로 무언가 만드는 것을 좋아하고 전공도 미술을 해서 한번 목공을 제대로 배워보자 해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했어요. 그러다 <나들목 가구 만들기> 카페를 보게 됐고, 카페에 올라온 교육내용을 자세히 살펴봤죠. 교육내용 보고 아 잘 배울 수 있겠다 싶어서 찾아오게 됐어요.

아미산은 짜맞춤 전수관에 오기 전에 목공방 수업에 참여해 본 경험이 없는 경우인데, 이와 달리 DIY 목공이나 짜맞춤기술을 배운 후 짜맞춤 전수관에 온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이전에 배웠던 목공과 백만기로 부터 배운 짜맞춤기술의 차이를 체험하고 있었다.

도편수는 DIY 목공을 2개월 정도 배운 후, 집에서 혼자 취미 목공을 1년 정도 하였다. 그는 목공에 필요한 도구 사용법을 유튜브를 통해 찾아보고 배웠는데 그 과정에서 백만기(나들목)이 올린 동영상은 보게 되었다. 이는 유튜브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특정 주제를 검색하게 되면 관련 동영상들이 알고리즘을 통해 보여지게 된다. 그리고 특정 동영상을 시청하게 되면 그와 관련된 동영상이 인터넷 화면상에 노출된다. 다음은 도편수와 인터뷰 내용이다.

여기 짜맞춤 전수관에 오기 전에 1년 정도를 취미 목공을 했어요, 이런 본격적인 짜맞춤 목공 이전에 동네에서 생활 목공 하는 식으로 2개월 정도 배우다가 집에서 이제 혼자 작업대를 만들어 놓고 1년여 이상 했었죠. 이제 그런 과정에서 목공에 필요한 이 도구, 기구, 또는 사용법 이런 것들을 유튜브에서 검색하고 익히는 과정에 이 “나들목”이라는, “나들목”에서 만들어서 제작하는 과정 동영상이 올라와 있더라고.

그는 유튜브 검색을 통해 보게 된 백만기의 짜맞춤가구 제작 과정을 보고 그가 지금까지 해오던 목공은 “제대로 하는 목공이 아니었음”을 느

끼게 되었다. 짜맞춤기술을 배우고 싶었던 도편수는 인터넷을 통해 공방을 검색해 보게 되었는데 그가 살고 있던 서울 근교에서는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그 만드는 과정을 보고 아 지금까지 내가 해 오던 목공은 제대로 하는 목공이 아니구나. 그래서 짜맞춤 목공, 전통 방식의 목공을 해보자 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마땅한 곳이 없어요. 짜맞춤을 가르쳐 주는 곳이 마땅한 곳이 없어요 서울 근교에는. 내가 배우고 싶은 목공이랑 나들목에서 가르쳐주는 것이랑 잘 맞아떨어져서 오게 된 거죠.

도편수는 짜맞춤기술을 배울 수 있는 목공방을 계속 찾아보다가 서울이 아닌 인천에 위치한 짜맞춤 전수관을 알게 되었고, 이 곳에서 그가 배우고 싶은 목공을 배우게 되었다. 그는 혼자서 목공을 배울 때 여러 종류의 대패를 구입하였는데, 대패 연마법이나 사용법을 몰라 인터넷 검색으로 독학을 하였다. 그런데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아도 대패가 잘 되지 않았고 날물을 망가뜨리거나 비싸게 구입한 나무를 망가뜨리거나 하였다.

대패를 샀는데, 뭐 이거 연마를 할 줄 아나 사용할 줄을 아나.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로 사람이 잘 모르면 자기 눈에 보이는 것대로 하게 되요. 처음에 사포로 하다가 안 되니까 누가 유리로 하면 된대. 배워보니까 오랜 시간 노하우를 쌓아온 거잖아요 이 짜맞춤이라는 게 정말 대단한 기술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던 중 짜맞춤 전수관에서 백만기에게 대패를 배우게 되었는데, 도편수는 오랜 시간 노하우를 쌓아온 백만기의 가르침을 통해 짜맞춤이 정말 대단한 기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신이 해결하지 못했던 문

제를 풀어나갈 수 있게 도와주고 대패의 연마법과 사용법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주는 백만기를 통해 도편수는 스스로 대패를 연마하고 나무를 정교하고 매끈하게 다듬을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다.

다음으로 다른 학습자의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한다. 메디치의 아버지는 액자 만드는 일을 했었는데, 그가 마흔이 넘어 취미로 해볼 만한 것으로 목공을 시작하게 된 것은 아마도 아버지의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살고 있는 동네 주변의 목공방을 찾아보게 되었는데, 모두 DIY 목공을 하는 곳이었다. 그는 한 목공방에서 입문자반과 심화반에 등록한 후 가구 만들기를 배우게 되었다. 그가 배운 DIY 목공은 교수자가 나무를 재단해서 주면 학습자가 전동드릴과 피스로 연결하는 방식이었다. 그는 이 과정을 배우면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여러 가구를 찾아보게 되었는데, 그가 만들고 싶은 가구를 DIY 목공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갖게 되었다. 다음은 메디치의 이야기이다.

목공을 취미로 배워보고 싶어서 동네 DIY 목공방, 동네에 주변에 있는 목공방인 다 그렇잖아요, DIY. 처음에 짜맞춤은 몰랐어요. 거기서는 전동드릴과 피스로 만드는 건데 의자만 드는 데 도색 빼면 가공하는 작업이 10일 정도 밖에 안 걸렸던 거 같아요. 도면작업 빼고 가공작업만 하면 4일? 5일? 거기는 나무를 다 재단해서 줘요. 그 과정을 배우고 나니까 이거 가지고 인터넷 화면으로 본 가구, 내가 상상하는 가구, 내가 만들고 싶은 가구를 이 기술만 가지고 만들 수 있나 의문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그 가구들은 DIY로 만든 가구랑 구조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메디치는 인터넷 화면에서 본 가구와 자신이 만들어 온 가구가 구조부터 완전히 다르다는 것은 알았지만, 인터넷에서 보고 자신이 상상하며 만들고 싶은 가구를 “짜맞춤”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당시 그는 짜맞춤이라는 말을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는 인터넷에

수제가구, 원목가구 같은 검색어로 관련 정보를 찾아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짜맞춤가구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짜맞춤기술은 DIY 목공과 다른 “새로운 세계”라고 느꼈다.

알고 봤더니 짜맞춤으로 만든 가구였던 거예요. 내가 배운 것이랑 다르다는 걸 그때 알았죠. 짜맞춤이라는 말도 몰랐으니까 그때는. 인터넷을 통해 물어 물어 온 게 짜맞춤만들기였던 거예요. 처음에는 수제작가구, 원목가구 뭐 이런 검색어로 검색을 했죠. 아 이런 새로운 세계가 있구나.

메디치는 짜맞춤기술을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나들목 가구 만들기> 카페를 방문하여 회원가입을 하고, 백만기가 정리해 놓은 교육과정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는 그 교육과정을 보면서 기초적인 교육과정이 잘 정리되어 있고 짜맞춤가구 만들기에 필요한 기본 수공구를 탄탄하게 배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자신이 만들고 싶은 가구를 만들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며 짜맞춤 전수관을 찾아 백만기와 교육적 관계를 맺게 된다.

카페에 올라온 교육과정을 다 봤어요. 이 정도 시간내서 내가 학습을 하면 내가 만들고 싶은 가구를 만들 수 있겠구나. 가장 기초적인 교육과정이 정리되어 있어서 수공구를 기본부터 탄탄하게 배울 수 있겠다 확신이 든 거죠. 수강료도 저렴하고

다음으로 육미경과 다량의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들은 백만기가 몸담고 있는 목공의 세계에 책을 통해 오게 된 경우이다. 먼저 육미경은 국내에서 가장 회원수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목공인 카페에서 백만기가 <짜맞춤, 그 견고함의 시작>이라는 책의 내용을 게시글로 공개한 것을 보게 되었다. 그녀는 DIY 목공을 배운 경험이 있었는데 대패,

톱, 끌 같은 수공구를 다루어 보기도 하였다. 그녀는 백만기가 쓴 책의 내용을 보고 자신이 잘 배우지 못한 수공구를 잘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짜맞춤 전수관을 찾아오게 되었다. 아래는 육미경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우드위커[인터넷 카페] 같은 데 보면 선생님 책 쓰셨잖아요. 그 책 내용을 올리셨더라고요. 그걸 읽어보고 오게 됐죠. 대패 가르쳐주고 끌질 잘 가르쳐주고 하는 것을 보고, 다른 곳은 그냥 이렇게 하면 돼 하는데 대패랑 결구랑 다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려주잖아요. 다른 곳은 회원을 1명씩 받고 들어오는 순서대로 온전히 그리는 법부터 끌질까지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샘플을 가져다주고 이거 이렇게 해봐 하는 거죠. 여기는 먹금칼부터 가공과정부터 완성된 것까지 알려 주잖아요 그런 곳이 없죠.

육미경은 백만기를 통해 수공구를 배워서 좋았던 점으로 수공구를 사용하여 짜맞춤 결구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범과 함께 방법과 원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으며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녀가 다른 곳에서 결구법을 배웠을 때에는 교수자가 완성된 결구법을 보여주며 “그냥 이렇게 하면 돼.”라고 말하거나, “이거 이렇게 해봐.” 하는 방식이어서 나무에 어떻게 무엇으로 톱질 선을 그리는 것인지, 그 선을 따라 가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이와 달리 백만기는 짜맞춤 결구법과 수공구 사용법을 직접 보여주고 동시에 방법과 원리에 대한 강의를 한다. 이런 교육내용은 육미경이 짜맞춤기술을 체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백만기의 <짜맞춤, 그 견고함의 시작>이라는 책을 보고 짜맞춤 전수관에 온 또 다른 학습자인 다량 역시 육미경과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백만기에게 짜맞춤기술을 배우기 위해 대전에서 인천으로 올라와 하루 이틀을 인천에서 자고 갈 정도로 열정이 많은 학습자였다. 그

는 대전에서 DIY 목공과 짜맞춤기술을 모두 배워 본 경험이 있었다. 그런데 그는 짜맞춤가구를 만들면서 대패를 거의 사용하지 않아 대패날을 어떻게 연마하는지, 실제로 나무를 어떻게 대패질 하는 것이지 실습해 볼 기회가 없었다.

DIY를 배웠는데 드릴로 피스 박고 하면 되니까 심오한 게 없어요. 마침 옆 반에 짜맞춤반이 있었는데 해보니까 더 매력적이고. 그런데 거기서는 대패를 잘 쓰지도 않지만 날 가는 거, 평 잡는 거 설명 정도 들었지 여기서처럼 기술을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했죠. 어미날 가는 거 덧날 넣는 거 평 잡는 거 이론적으로 체계적으로 배우고 실습을 하고 이런 과정이 전혀 없었어요. 대패를 잡는 법, 몸의 자세, 팔의 위치, 시선의 위치 이런 것들을 체계 있게 이론적으로 가르쳐 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거기서 교수는 대패 갖고 와서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라고 하면 이제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세팅도 알아서 해라. 그래서 짜맞춤을 치고 그 책을 인터넷에서 보고 사서 보게 됐죠.

그가 배웠던 공방에서는 교수자가 대패를 가지고 와서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라고 시범을 보여주면 그 모습을 보고 학습자가 따라하는 방식이었다. 대패질을 하기 위해서는 대패날을 연마하고, 대패집의 평을 잡은 후, 어미날과 덧날의 간격을 맞추어 대패집에 넣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한데 이 모든 과정을 꼼꼼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나무를 다듬기 어렵다. 그런데 그는 이러한 과정을 배우지 못하였다. 교수자는 대패질을 아주 잘하였지만, 그가 대패하는 모습만을 보고 따라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는데 다람은 아래와 같이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사람이 대패하는 모습만 보고 따라하는 거는 나 같은 사람은 10년은 걸리겠더라고. 대패 잡는 법, 파지법, 연마하는 법도 모르는데. 본인은 잘해요. 대패질도 아주 잘 하셨고. 그런

데 본인은 알지만 그런 교육으로 안 배웠기 때문에 가르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교육을 배울 수가 없을까 하다가 백만기 선생님 책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유튜브를 보게 됐어요.

수공구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배우고 싶었던 다량은 백만기의 책을 보게 되었고 그 책에 소개된 QR 코드를 통해 유튜브를 보고 직접 배우고 싶다는 마음으로 짜맞춤 전수관을 찾게 된 것이었다. 다량은 짜맞춤 기술을 자신이 잘 하는 것과 이를 잘 가르쳐 주는 것은 다르다고 하였는데, 백만기가 모든 기술을 학습자들의 교육을 위해 책, 유튜브, 짜맞춤 전수관에서의 수업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는 사실에 크게 감동하고 있었다. 다량은 백만기에게 짜맞춤기술을 배우면서 그 전에는 수공구를 배우지 못해 알지 못했던 짜맞춤의 정교함을 깨달았다고 말해주었다.

대개 장인들이 자기 기술은 자기 자식에게도 안 가르쳐준다고 하잖아요. 거기서도[대전] 마찬가지로인데 자기 기술을 잘 가르쳐 주어야겠다 하는 게 없는 거 같아요. 근데 우리 백만기 선생님은 교육을 위해서 자기 기술을, 모든 노하우를 가르쳐 주고 오픈하고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좋은 거죠. 여기서 배우면서 정말 짜맞춤이라는 것이 이렇게 정교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죠.

지금까지 백만기가 몸담고 있는 목공의 세계가 후속세대에게 연결되는 과정이 책, 카페, 유튜브와 같은 매개체를 통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백만기가 짜맞춤기술을 언어와 영상으로 정리하여 만든 책, 카페, 유튜브는 짜맞춤기술을 체화하고 있는 물질들이면서 동시에 영속성과 이동성을 가지면서 후속세대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공구는 DIY 목공방의 활성화, 더 좋은 가구 만들기에 대한 사람들

의 관심을 통해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계기를 얻고 있다. 그리고 백만기는 수공구에 대한 노하우를 잘 공유하지 않는 폐쇄적인 기술전수 문화를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언어적 표현 없이 보여주기만 하는 교육방식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언어화하며 책, 유튜브, QR 코드 등으로 연결시켰다. 이는 그의 오랜 연구와 시행착오가 수공구와의 깊은 관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제 수공구에 대한 노하우는 특정한 사람에게 속해 있는 신비로운 비법과 같은 것이 아니라 백만기, 책, 유튜브, QR 코드와 연결됨으로써 목공을 배우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되었다. 이를 통해 수공구는 지금-여기에서 다시 그 삶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목공의 세계에서 특정한 사물과 인간의 함께 있음은 이들 사이의 구체적인 연결이 계속 만들어지고 유지될 때 가능하다. 함께 있음은 언제나 매개되는 것이기 때문이다(Latour, 2005; Law, 2004). “한 존재자가 갖는 실제성은 그것과 함께 협동하는 다른 존재자들과의 연합을 통해 얻어지는 상대적인 성질이다”(Latour, 1999/2018: 13). 떡금칼과 대패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어떠한 사물이 지속적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실체뿐만 아니라 그 사물을 잘 쓰고 돌보는 사람들, 사물의 의미와 규칙을 정리한 언어, 이러한 언어를 담아내는 책과 동영상이라는 매체가 필요하다. 이들이 함께 이루는 관계를 통해서 사물은 비로소 존재할 수 있고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

백만기는 떡금칼과 대패를 통해서 자신이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거나 새로운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다음 세대의 학습자들이 떡금칼, 대패와 함께 하는 목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었다. 떡금칼, 대패와 백만기는 서로 의존하여 다시, 새롭게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할 수 있다. 떡금칼, 대패와 백만기의 이러한 공생은 돌봄의 측면에서 이해해 볼 수 있다.

목공의 세계는 학습자, 교수자와 같은 인간으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

라 먹금칼, 대패와 같은 사물의 존재를 통해 구성된다. 이처럼 사물이 참여하며 함께 만드는 세계에서 인간은 인간 이외의 존재들과 더 잘 소통할 수 있는 방식을 배워야 한다. 먹금칼, 대패와 같은 인간 이외의 존재들은 그들 자신을 인간과는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다. 백만기는 먹금칼, 대패와 친숙해지는 과정에서 그들의 ‘말하는 것’을 귀기울여 듣고 이해해 나가는 시간이 필요하였다. 이때 먹금칼, 대패의 말은 인간의 언어와는 다르지만 세계에 어떠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의미를 표현하는 기호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사물이 말하는 기호를 감각한 백만기는 그것을 언어로 다시 표현하는 일은 너무 어려운 작업이었다고 말해 준 적이 있다.

백만기는 먹금칼, 대패의 기호를 이해하고 그들과 소통함으로써 그들의 “헌신적인 대변인”(Mol, 2021: 129)이 되었고 그들을 지속적으로 돌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자신의 목공방을 찾는 학습자들에게 필수적인 수공구로 가르치는 과정을 통해 먹금칼, 대패의 기호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다음 세대의 헌신적인 대변인을 키우고 있다. 먹금칼과 대패는 더 좋은 가구를 만들기 위해서 호기심에 가득 찬 눈으로 자신들을 바라보며, 자신들과 친숙해지고자 애쓰는 사람들과 함께 지금-여기에 살아 있다.

2. 나무의 변화⁴⁶⁾

나무는 가구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재료이다. 짜맞춤가구는 색, 무늬, 결, 향기, 강도 등 나무의 고유한 특성을 이해하고 가공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기술을 필요로 한다. 목공방에서 나무는 교육의 대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백만기와 같이 목공방의 운영자이면서 동시에 교수자인 사람에게 좋은 나무를 구입하고 보관하며 학습자들이

46) ‘나무의 변화’에 대한 이 연구의 내용은 ‘물질적 전회를 통해 본 나무와 인간의 얽힘, 그리고 상황적 지식(김은아, 2020)’이라는 제목의 학술지로 발표된 바 있다.

필요한 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은 중요한 교육 실천의 하나가 된다.

백만기의 스승이었던 조석진은 느티나무, 떡감나무, 오동나무 등 국산목을 주로 사용하여 가구를 만들었다. 그런데 2000년대 전후반에 목공을 시작한 백만기는 점차 국산목을 구입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는 한편으로 국내에서 벌목할 수 있는 국산목이 크게 줄어들었고 다른 한편으로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이들이 대부분의 국산목을 독점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백만기는 지방에 있는 지인이나 목상을 통해 국산목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상황이 점점 안 좋아져 결국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하였다.

백만기는 원목가구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목재를 구하기 위해 2010년 북미산 하드우드를 공동구매할 수 있는 “하드우드 유통연합”을 결성하게 되었다. 당시에 있었던 국내의 북미산 하드우드 수입업체에서는 대량으로 구매하는 공장이 아닌 목공방과 같은 곳에서 소량의 나무를 사는 경우 그리 호의적이지 않았다고 한다. 업체의 운영시간 동안 종일 기다리다가 담당자가 조금 한가해지면 겨우 나무를 사러 왔다고 말할 수 있거나 빈손으로 돌아서는 일이 많아졌다. 이에 백만기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전국에 공방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공동구매를 제안하고 대량의 나무를 함께 사서 나누는 방식으로 북미산 하드우드를 구하게 된다.

그후 국내에서 북미산 하드우드 수입업체가 많아지면서 점차 목공방에 소량의 나무를 제공하는 곳이 늘어났고 백만기는 그 가운데 한 업체를 통해 나무를 구하거나 개인 소매상으로부터 질 좋은 나무를 구하게 되었다. 이처럼 목공 교육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나무는 국산목에서 북미산 하드우드로 변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그렇다면 목공방의 나무들은 어떻게 하여 지금 여기에 오게 되었는가? 오늘날 목공방에서 주로 쓰이는 나무들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과정을 거쳐 지금-여기에 오게 된 것인가? 오늘날 짜맞춤가구를 만드는 사람들은 나무와 함께 어떠한 앎을 가르치고 배우는가?

1) 목공방의 나무

짜맞춤 전수관과 같이 오늘날 가구만들기를 가르치고 배우는 목공방에서는 특정한 형태를 갖는 나무를 사용한다. 다음에서는 2018년 8월에 연구자이자 학습자로서 참여한 짜맞춤 전수관의 이수자반 수업을 통해 목공방의 나무가 갖는 특수성에 대해 알게 된 과정, 그리고 이러한 나무에 대해 가르치고 배우게 되는 상황적 지식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였다.

(1) 목공방 안에서 ‘나의 오크’ 47)를 만나다

짜맞춤 전수관 이수자반의 수업이 시작되었다. 이번 이수자반에서 나와 동기들은 공통 과제로 스톨을 만들게 되었다.⁴⁸⁾ 온은 조교가 오크(oak)라는 나무를 작업대에 가지고 들어왔다.⁴⁹⁾ 오크는 비치, 애쉬, 메이플, 체리, 월넛과 함께 현대 목공방에서 널리 쓰이는 북미산 하드우드 가운데 하나이다.⁵⁰⁾

47) 여기서 ‘나의 오크’는 일반적인 나무(a tree)가 아니라 목공 학습자이자 연구자로서 만난 ‘그 나무(the tree)’임을, 그리고 오늘날 한국의 목공방과 학습자/연구자의 몸이 처한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위치가 그 나무와의 만남을 통해 이루게 된 관계성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게 되었다.

48) 짜맞춤 전수관의 이수자반은 입문반 과정을 통해 수공구와 결구법을 배운 학습자들이 가구 만들기의 전체 과정을 체험하고 그 흐름을 몸에 익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만들어야 할 가구가 과제로 제시되는데, 과제는 “필수 과제”와 “선택 과제”로 구분되어 있다. 전수관에서는 학습자들의 반응에 따라 해당 기수의 과제를 계속 변경해 오고 있는데 내가 수업에 참여할 당시 필수 과제는 스톨이었으며, 선택 과제는 다탁과 사이드 테이블이었다.

49) 오크는 화이트 오크와 레드 오크로 나뉘는데, 내가 다룬 나무는 화이트 오크였기에 이 글에서 나는 화이트 오크와 관련된 자료를 연구하였다. 이 글에서 오크라고 언급되는 나무는 모두 화이트 오크이다.

50) 북미산 하드우드의 수종은 한국에서도 자라고 있는데 각 나무에 해당하는 이름은 다음과 같다. 오크(oak)는 참나무, 비치(beech)는 너도밤나무, 애쉬(ash)는 물푸레나무, 메이플(maple)은 단풍나무, 체리(cherry)는 벚나무, 월넛(walnut)은 호두나무. 그런데 이 글에서 “오크”와 같이

목재는 크게 소프트우드(soft wood), 하드우드(hard wood), 특수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표 3-3> 참조). 견고하고 아름다운 가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용하는 목재의 종류와 특징, 나무와 나무를 붙여 더 큰 판을 만드는 접합 방법 등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표 3-3> 나무의 종류

	소프트우드	하드우드	특수목
종류	소나무 스프러스	비치 애쉬 오크 메이플 체리 월넛	흑단 웬지 지브라 티크 파텍 부빙가 로즈우드
특징	침엽수이다. 조각이 무르다. 색, 무늬가 단조롭다. 가격이 저렴하다.	활엽수이다. 조각이 치밀하고 억 세다. 무늬가 아름답다. 가격이 비싸다.	단단하다. 가공이 매우 까다롭다. 무늬가 특이하다. 악기나 고가의 가구 제 작과 같은 특수한 용도 로 사용된다.

짜맞춤 진수관은 하드우드를 주로 사용하는 공방 중의 하나이며, 사람들은 입문반에서 소프트우드를 사용하고 이수자반과 연구자반에서는 하드우드와 특수목으로 가구를 만든다. 입문반에서 소프트우드를 사용하는 것은 가격이 저렴하고, 초보자로서 수공구 사용법과 짜맞춤 기술을 익히는 데 무른 나무가 수월하기 때문이다.

특정 수종에 대하여 “참나무”라는 한글명으로 번역하여 사용하지 않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영문명과 한글명을 통해 나무의 산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며, 다른 하나는 오크와 참나무는 언어적으로는 같은 나무이지만 물리적으로는 그 성질이 다르기 때문이다. 운은 조교는 “북미산 하드우드는 오크면 오크, 월넛이면 월넛이라고 부르지 참나무, 호두나무라고 부르지 않아요. 월넛이랑 호두나무는 나무가 전혀 달라요.”라고 말해주었다. 나는 연구현장에서 실제로 월넛과 호두나무의 차이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호두나무의 빛깔은 월넛보다 훨씬 연하고 월넛 특유의 진한 갈색 빛깔 대신 미색을 띠고 있었다.

솔안, 스페이스, 그리고 나는 나무 곁으로 다가갔다. 우리는 손으로 나무의 표면을 만져보기도 하고 가까이 다가가 나무의 색과 무늬를 들여다 보기도 하였다. 나는 오크 각재를 하나 들어보았는데 입문반에서 다루었던 미송과는 확연히 다른 느낌이었다. 그 느낌은 눈으로 보기보다 손으로 만져 보았을 때 더 생생하게 와 닿았다. “와! 이거 무겁네요. 단단하기도 엄청난데요. 이걸로 맞으면 뼈도 못 추리겠어요.” 내가 손에 들고 있던 오크 각재를 몽둥이 휘두르듯 공중에서 움직이자 스페이스는 그런 나를 보며 웃었다. 가재단이 된 각재는 길이가 비슷하고 색의 차이도 크지 않았는데, 이에 비해 판재는 폭의 길이도 제각각이고 색도 저마다 많이 달랐다. 함께 나무를 살피던 우리들은 스톨을 만드는 데 있어 ‘좋은 나무’를 고르기 위해 한동안 고민에 잠겼다. “어떤 게 좋은 나무지?”

스тол 다리로 쓸 각재를 이리저리 살피던 솔안이 말하였다. “이거 나무가 이상한데. 마구리가 다 갈라져 있네.” 스페이스와 나는 놀란 눈으로 오크 각재 가까이 다가가 마구리를 하나씩 살피니 솔안의 말대로 나무의 결 사이에 틈이 생긴 것이 보였다. 그러나 목공 초보인 나는 전수관에서 제공하는 나무를 쓰는 것 외에 별다른 수가 없었다. 우리들은 스톨 다리를 둥근 원기둥 모양으로 깎아낸다는 점을 생각하여 중앙에 갈라짐이 없는 나무를 고르기 시작하였다.

다음의 <사진 3-5>는 당시 내가 선택한 오크이다. 이 사진에 나온 오크는 우리와 만나기 전 다른 사람과 각종 도구들을 통해 벌목, 제재, 건조, 숙성의 과정을 거쳤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들 스톨의 사이즈에 대략 맞는 치수로 가공이 되어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진 3-5> 목공방 안에 있는 ‘나의 오크’

색, 무늬, 치수, 갈라짐을 살펴 신중하게 고른 오크를 가지고 내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수압 대패와 자동 대패⁵¹⁾로 두 개의 판재를 같은 두께로 다듬고 수평을 맞추는 일이었다. 그리고 다리가 될 각재 세 개는 아래로 갈수록 폭이 좁아지는 원 기둥 모양이 되도록 사각 기둥의 모서리를 깎아내야 했다. 이러한 일들에 필요한 수공구는 (손)대패였다. 한편 스톨의 앞부분은 지름이 30cm인 원모양으로 만들 것이었기 때문에 루터⁵²⁾라는 전동 공구도 사용하였다.

열은 황토 빛깔을 하고 판재와 각재 모양으로 된 ‘나의 오크’는 어떻게 이 목공방에 오게 된 것인가? 나는 왜 판재와 각재로 다듬어진 ‘나의 오크’에서부터 가구만들기를 배우고 있는 것인가? 자동 대패, 수압 대패, (손)대패, 루터와 같은 도구로 나무를 알고 배우는 일은 판재와 각재가 되기 전의 나무와 그 나무를 다루기 위한 도구를 알고 배우는 것과 어떠

51) 수압 대패는 기준면의 평을 잡는 용도로 쓰이는 기계이고, 자동 대패는 일정한 두께로 나무를 깎아내는 기계이다.

52) 루터는 물딩을 같거나 홈과 목재 연결 부위를 같기 위해 회전하는 비트를 사용하는 휴대용 전동 공구이다.

한 차이가 있는가? 나는 ‘나의 오크’와의 만남 가운데 이러한 물음을 갖게 되었고, 이는 뜻밖의 여정으로 이어졌다.⁵³⁾ ‘나의 오크’가 어떻게 목공방 안에 오게 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우리는 함께 목공방 밖으로 나가 보았다.

(2) ‘나의 오크’ 를 따라 목공방 밖으로 나가다

‘나의 오크’는 북미산이었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미국 위스콘신의 숲에서 자란 나무였다. 이 나무가 목공방 안으로 오기까지 어떠한 과정이 있었는가? 나무와 인간은 어떻게 얽히어 나무를 만들었으며, 그 가운데 나무를 알고 배우는 일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나는 목공방 밖의 사물-장소-인간⁵⁴⁾이 생성하는 관계 속에서 ‘나의 오크’는 목공방 안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지를 살펴보고, 그 가운데 나무에 대한 앎과 배움이 어떻게 분산되어 있는지를 알아보았다.⁵⁵⁾

오크는 참되고 진실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나무로 우리나라에서도 참나무라고 불린다.⁵⁶⁾ 그런데 참나무는 특정 수종을 지칭하기보다는 약 600여 종의 나무 종류를 부르는 이름이다. 미국에서는 주로 대왕참나무를 가리키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에서는 상수리나무, 떡갈나무

53) 나는 현장연구를 수행하는 동안 나무로 건축물이나 가구를 만드는 목수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책을 읽고 있었고, 연구참여자 백만기와 함께 제제소에 방문하였으며, 그가 어떻게 회원들이 사용할 하드우드를 공급하는지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보고 듣게 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의 오크’와 함께 얽히어 목공방 안과 밖의 상황적 지식이라는 주제에 대한 물음을 낳았다고 볼 수 있다.

54) 사물-장소-인간은 나무에 대한 앎과 배움이 체화되어 있고 환경에 속해 있음을 드러내기 위한 분석적 관심을 나타낸다.

55) 이 글에 실린 내용은 숲의 나무가 목공방에서 사용하는 목재로 되는 모든 과정을 풍성하게 다루고 있지 못하며 연구자로서 자료화할 수 있는 부분에 한정되어 있음을 밝힌다.

56) 나무는 영어로 ‘tree’라고 하는데, 트리는 본래 ‘oak’를 뜻하는 고대 인도 유럽어 ‘deru’, ‘daru’에서 변화한 말이다. 이 단어는 단단하고 견고하다는 뜻을 갖고 있다. ‘참’, ‘진짜’라는 뜻을 가진 ‘true’라는 영어 단어도 ‘deru, daru’에서 파생한 말이다.

등 참나무속에 속하는 수많은 나무들을 통틀어 참나무라고 부른다. 오크는 북반구의 온대기후 지역에서 주로 자라고 꽃은 암꽃과 수꽃이 한 나무에서 따로 4-5월에 꽃이 피며 가을에 도토리가 열린다. 이처럼 오크는 대부분 도토리를 맺는다는 특징이 있어 ‘도토리 나무’라고 부르기도 한다.

오크는 결이 좋은 활엽수인데 건조가 어렵고 건조 후 변형도 많이 올 수 있는 나무이다. 가공이 까다롭지만 강도가 강하고 나무의 질이 좋아 다양하게 사용된다. 무늬목으로 많이 만들어져 많은 가구에 오크의 옷을 입혀주기도 한다.



<사진 3-6> 숲에 있는 오크

하나의 나무가 자라나는 과정에는 숲 속의 다른 생물, 미생물은 물론 인간과의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나무는 곰팡이, 박테리아, 사슴, 태양, 딱정벌레와 상호작용하며 그것들을 변형시킨다. (중략) 나무는 인간의 과정 특히 호흡 과정에 관여한다. 나무와 인간은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공생 교환을 포함한 생물학적 상호작용을 한다”(WHF, 2018/Sapiro, 2018:

149). 일본의 한 목수는 나무와 다른 인간, 비인간의 상호작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기도 하였다. “나무의 앞에서 광합성이라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토양의 물과 미네랄, 공기의 이산화탄소 및 태양의 빛은 신비로운 방법으로 나무의 생명을 이루는 물질을 만들어낸다. 이 기적적인 과정이 없으면 식물도 없고 동물도 없고 사람도 없을 것이다”(Nakashima, 1981/2011: 79).

나무의 나이테는 기후 조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다양하게 나타난다. “나무가 목격하고 견뎌낸 모든 기록은 그 나이테에 기록되어 있다. 그것은 나무의 나이를 숫자로 알려준다. 그것은 가뭄, 홍수, 화재 및 곤충이 땅을 파괴했을 때와 생명을 주는 비가 풍성해졌을 때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된다. 어려운 성장기 동안, 일부 나무의 고리는 너무 좁고 서로 가깝기 때문에 그 수를 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도 하다”(Nakashima, 1981/2011: 79).

곰팡이, 박테리아, 사슴, 태양, 딱정벌레, 인간 등 다양한 존재들과 상호작용을 하며 그 흔적을 몸에 새기고 있는 나무는 벌목을 통해 목재로 되는 과정에 들어선다. 목재라는 상품으로 유통될 나무를 선택하고 지속 가능한 숲을 만들어 가는 일은 목재 회사의 전문 수목관리원이 담당한다. 미국 소재의 목재회사인 American Good Lumber의 홈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안내되고 있다.

우리 회사의 목재 벌목 프로그램은 숲 관리 목표에 맞추어 운영한다. 숲 관리 활동은 전문 수목관리원에 의해 진행된다. 우리 회사에서 선택한 목재 벌목전문가는 엄격한 환경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공식기관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다. 우리 회사는 반드시 다 자란 나무만을 선택하여 벌목하며, 지나치게 우거지고 병에 걸리거나 죽은 나무, 제대로 자라지 않은 나무는 제외한다. 좋은 나무들을 선택함으로써, 숲 관리 전문가들은 미래 세대를 위해 보다 더 생산적이고 수준 높은 질의 목재를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숲 관리를 담당하는 전문 수목관리원과 목재 별목전문가의 역할에 대한 간략한 소개이지만, 이를 통해 어떠한 나무가 별목되는지 알 수 있다. “다 자란 나무”만이 별목할 나무로 선택되고, “지나치게 우거지고 병에 걸리거나 죽은 나무”, “제대로 자라지 않은 나무”는 제외된다. 보통 나무 몸통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가지 아래의 직경이 40cm 이상이 되어야 다 자란 나무로 본다. 좋은 나무를 선택하는 일은 환경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공식기관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좋은 나무의 선택과 관련된 앎과 배움은 전문가에 의해 실천된다.

‘나의 오크’는 북미에서 왔다. 북미는 지구의 북반구, 서반구에 위치한 대륙이다. 북쪽은 북극해, 동쪽은 북대서양, 남동쪽은 카리브해, 서쪽은 북태평양과 접하며, 남쪽으로는 파나마 지협을 통해 남아메리카와 연결된다. 북미는 통상 미국, 캐나다, 멕시코 이 3개 국가들이 소속된 중앙아메리카의 북쪽 지역을 통칭하여 말한다.

미국은 전체 국토의 1/3이 삼림 지역이며, 이 중 2/3에 해당하는 4억 9천만 에이커(acre) 중 벌채가 금지된 지역을 뺀 3억 에이커 정도에서 목재생산이 가능하다. 이중 목재나 제지의 생산을 주된 목적으로 관리하는 경제림은 1억 9천만 에이커로 남북한을 합한 면적의 20배에 달한다. 미국의 목재생산량은 연간 6억 7천만 m³로 세계 최대 규모이다. 연간 목재 총 생산액은 790억 달러, 원화로 환산할 때 63조 2천억 원에 달한다.

이러한 미국의 북동부에서 남부까지 약 3천 마일을 가로질러 있는 삼림 지역의 40%가 활엽수(하드우드)이다. 학자들은 북미 지역에서 연간 강수량이 1,400mm 이상이고, 연평균 기온이 4-12도인 지역의 숲을 온대 우림으로 분류한다. 이러한 기후에서 자란 북미산 하드우드는 대부분 나이테가 조밀하고 뚜렷하며 나무결과 무늬가 뛰어나게 아름답다. 북미산 하드우드는 미국에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한국 등 동아시아로 수출되어 미국의 경제 발달에 기여하고 있다.

미국의 북동부에는 북미산 하드우드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목재 회사가 많이 자리하고 있다. 1953년에 뉴욕 함부르크에 설립된 American Good

Lumber는 이러한 목재 회사 중의 하나로 제재소와 야적장을 자체 운영하고 있다. American Good Lumber는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위스콘신을 비롯하여 북미 여러 곳에 자회사를 두고 미국 하드우드 목재 협회(NHLA; National Hardwood Lumber Association)가 정한 품질기준에 따라 최상의 목재를 생산하고 유통한다.



<사진 3-7> 위스콘신 야적장에 있는 나무와 상인들

American Good Lumber의 해외 거래처 중의 하나인 창승목재는 경기도 포천에서 무늬목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이영수 사장이 운영하고 있다. 나의 북미산 오크는 American Good Lumber가 위스콘신에서 벌목하고 이를 이영수 사장이 수입해 온 것이다. 그는 나무의 수관이 닫히고 잘 자라지 않아 벌목하기에 좋은 가을이나 겨울에 시카고를 방문한다. 한국에서 시카고까지 13시간이 넘게 비행기를 타고, 시카고에서 7-8시간 동안 렌트카를 직접 운전해야 위스콘신에 있는 야적장에 도착할 수 있다.

야적장을 중심으로 서울에서 대전까지의 직선거리인 150km 정도를 반경으로 하는 숲이 있다. 이 숲에서 나무를 벌목하여 야적장까지 운반해

오게 된다. 이영수 사장은 이러한 야적장에 직접 방문하여 판매자가 준비해 놓은 나무들을 살피고 그 중에서 좋은 나무를 선택한다. 앞의 <사진 3-7>은 야적장에 있는 나무와 상인들의 모습을 담고 있다.

그는 원목 수입회사에서 30년 넘게 일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그는 무늬목 생산에 좋은 나무를 고르는 안목이 뛰어나 관련 사업가들이 그에게 북미산 목재의 선택과 수입을 대신해 달라고 부탁할 정도이다. 잘려진 원목의 외부 상태만 보고도 내부의 상태까지 파악할 수 있는 앎과 배움은 상당한 전문성을 요구한다. 다음은 원목을 보고 좋은 나무를 선택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원목을 고르는 것은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원목의 외부 상태만 보고도 내부의 상태까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원목 끝을 보아서 목재의 품질이나 색을 파악하고, 어떤 문양의 무늬목이 나올지 판단하고, 심재와 변재의 비율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밖에 반점, 웅이, 지나치게 큰 웅이, 송진, 구멍 등 통나무의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취약부나 결함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도 알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은 먼저 원목을 길이 방향으로 잘라보면 쉽게 알 수 있다. 하지만 원목을 먼저 구입해야 잘라볼 수 있기 때문에 원목의 외부 상태만 보고도 내부 상태를 알 수 있는 안목이 반드시 필요하다.
(Albert & Day, 1989/1996: 30)

이처럼 원목을 고르는 일은 잘린 나무의 횡단면을 보고 품질, 색, 문양, 심재와 변재의 비율 등을 판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웅이나 구멍처럼 나무의 특수한 결함도 알 수 있어야 한다. 나는 통나무 형태로 잘린 나무를 곁에서 보고 이러한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여 이영수 사장에게 어떻게 좋은 나무를 고를 수 있는지 물어 보았다. 그는 가공 후 남은 지름 80cm, 길이 40cm 정도의 오크 통나무로 나를 데리고 가서 나이트의 중심이 정중앙에 있는 나무가 좋은 나무

라고 알려주었다. 이처럼 나무의 심지는 겉으로 노출된 나무의 횡단면을 보면 알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나무의 속은 오랜 경험과 학습을 통해 꿰뚫어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웅이, 핀홀(pin hole)⁵⁷⁾과 같은 흠을 잘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무의 긴 몸통을 유심히 살펴보면 살짝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곳은 웅이가 있기 쉽다고 한다. 그는 나무의 속을 살피기 위해서 물을 뿌려 보거나 작은 톱으로 나무의 일부를 잘라보기도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마음에 드는 나무에 플라스틱으로 된 라벨을 다는데, 이 표시가 있는 나무들은 수출용 컨테이너에 실리게 된다.

컨테이너에 실려 북미에서 한국으로 이동한 오크는 인간과 비인간의 또 다른 얽힘을 통해 나무 되기의 과정을 계속 해나간다.⁵⁸⁾ 딱 잘라낸 목재에는 수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목재를 건조한다는 것은 세포벽과 세포 안 구멍에 있는 수분을 제거하는 일이다. 목재 내부에 응력⁵⁹⁾이 발생하지 않고 팽창이나 수축 등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수분함유량이 적절한 수준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건조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건조는 크게 자연건조와 인공건조로 나뉘는데 인공건조는 자연건조와 달리 열풍이나 고주파와 같은 효과를 내는 기계를 사용하여 이루어진다. 좋은 가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건조 시간이 필요하다. 두께가 25mm인 침엽수를 건조하는 데 1년 정도가 걸리고 활엽수를 건조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6개월 정도이다. 오랜 시간 건조해야 하는 이유는 목재의 속과 겉이 최소한으로 변형되게 하기 위함이다. 또한 자연건조의 과정 없이 인공건조를 하게 되면 목재의 겉과 속 모두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갈라짐, 구멍남, 휘어짐이다. 자연건조를

57) 아주 작은 벌레들이 나무속을 갉아 먹은 흔적을 말한다.

58) 일반적으로 벌목된 나무는 제재소에서 제재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은 이 글에서 다루고 있지 않다.

59) 재료에 압축, 인장, 굽힘, 비틀림 등의 하중(외력)을 가했을 때, 그 크기에 대응하여 재료 내에 생기는 저항력

오래하면 오랜 풍화작용으로 자연스럽게 석화과정이 진행되어 목재 내의 세포벽이 더 단단해지고 살아 있는 때의 나무 모습을 최대한 유지시킬 수 있다. 반면 자연건조 없이 인공건조를 바로 하게 되면 나무의 내부 세포벽이 쪼그라들고 갈라지기 쉽다.

그런데 목재를 판매하는 목재소의 입장에서는 목재 보관 및 관리에 드는 인건비, 시설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목재를 건조하여 제품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제품화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자연건조에 많은 투자를 하기 어렵게 만든다. 자연건조를 건너뛰고 인공건조 과정으로 바로 넘어갈 경우 길어도 2개월 정도면 제품화할 수 있다.

북미에서 수입되는 나무는 원목과 제재목으로 나눌 있는데, 원목은 국내의 제재소에서 제재하여 건조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미 건조 과정을 거친 제재목도 나무의 상태에 따라 추가적인 건조가 필요할 수 있다. 북미 위스콘신에서 원목 상태로 수입되었던 ‘나의 오크’는 이영수 사장에 의해 건조 작업을 거쳐야 했다. 오크와 이영수 사장은 건조를 위해 고주파 진공 건조기와 상호작용해야 했는데, 나는 연구를 통해 이 과정에서 최상급의 품질을 가진 원목으로 선택되어 북미에서 한국으로 이동한 오크가 큰 시련을 겪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나는 스톨을 만들기 위해 선택한 오크 각재에 갈라짐이 있었음을 말한 바 있다. 나는 연구참여자 백만기와 나무에 관한 인터뷰를 나누다가 우연히 나의 오크가 갖고 있던 갈라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백만기는 목공방의 학습자들이 사용할 오크를 이영수 사장으로부터 구입하였다. 그런데 이 오크는 속이 모두 갈라져 있는 문제가 있었다.

오크 각재가 이렇게 단면을 보면 사각이잖아. 겉에는 다 멀쩡해. 근데 이 가운데가 흠 다 갈라져 있어. 겉에는 멀쩡한데. 어이, 그거 환장하는 거야. 못 쓰지. 그것도 맨 처음에는 [이영수 사장이 건조가] 잘 됐다 그러는 거야. 내가 봐도 건조가 잘 됐어. 그런데 사람들이 쓸 거 아니야. 어? 이거 이상한데

요. 해서 떡 보니까 갈라짐이 있는 거야. 쪽쪽 갈라져 있는 거야. 어우. 사람들이 다 터졌다고 내가 보니까 잘라보니까 다 그래. 중간중간 다 터져 있어.

오크의 건조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고주파 진공 건조기는 내부를 진공 상태로 만든 후 고주파를 쬐어 나무의 수분을 건조시키는 기계이다. 이영수 사장은 이 건조기를 중고 상품으로 구입하였는데 무늬목 공장을 운영하던 초기에 그는 이 건조기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하였다. 나무 수종, 두께, 그리고 자연건조를 어느 정도 했는가에 따라서 진공 챔버에서 압력을 얼마나 걸지, 고주파를 얼마만큼 쬐어야 할지 결정해야 한다.

이영수 사장을 만나 어떤 건조 과정이 있었는지 알아보니, 당시 그가 수입한 오크 원목은 자연건조가 안 된 상태여서 직접 건조를 해야 되었다. 오크는 특히 수관이 발달된 나무로 수관에 물이 가득 차 있을 경우 오랜 시간 자연건조를 통해 물을 빼내야 갈라짐을 줄일 수 있다. 그런데 그는 이러한 것을 잘 알지 못하였고 건조기 사용법도 익숙하지 않아 어렵짐작으로 고주파 진공 건조기를 사용하였던 것이다.

인간은 나무를 건조기에 넣는다(<사진 3-8> 참조). 건조기는 고주파와 진공이라는 효과를 발생시켜 나무에 작용을 가한다. 나무는 건조기 안에서 수분이 증발되고 결에 따라 수축되거나 갈라진다. 이를 확인한 인간은 나무를 꺼내고 건조기의 압력과 세기를 조정한다. 다시 나무는 건조기에 들어간다. 나무와 인간과 건조기라는 배치 가운데 나무는 변형이 적은 좋은 나무가 될 가능성을 갖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건조기, 인간, 나무의 상호 얽힘은 서로의 상태에 영향을 주어 예기치 않은 결과를 낳기도 한다. 좋은 나무가 될 수 있었던 ‘나의 오크’가 갈라져 버린 것처럼 말이다.



<사진 3-8> 나무와 인간과 건조기

지금까지 목공방 밖으로 나가 ‘나의 오크’가 목공방에 오기까지 어떠한 사건들이 있었는지, 인간과 비인간의 얽힘은 어떠하며 그 가운데 어떠한 앎과 교육의 실천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수목관리원, 벌목전문가, 상인은 각기 다른 장소, 사물, 관심, 목적을 통해 나무에 대한 상황적 지식을 실천한다고 할 수 있다. ‘나의 오크’는 목공방의 안과 밖에서 다르게 생성되고 변화하는 상황적 지식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적 지식의 경계는 교육의 실천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2) 나무와 상황적 지식

나무가 목재가 되고, 목재가 목가구가 되는 과정에서 나무는 숲에서 자라는 것로부터 시작하여 잘 자란 나무를 베어 내고 운반하며, 나무의 성질을 살려 가공하는 데까지 수많은 인간과 비인간의 얽힘을 통하여 가능하다. 나무는 이러한 과정 가운데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는 기회와 위

협 모두에 열려 있다. 그렇다면 이처럼 인간과 비인간, 기회와 위험이라는 다층적인 관계 속에서 나무가 되어가는 과정은 오늘날 한국의 목공방에서 나타나는 나무에 대한 상황적 지식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이제 ‘나의 오크’로 스톨을 만들었던 목공방 안으로 다시 돌아가보려 한다. 내가 처음 만난 오크의 모습을 기억하는가? 나의 오크는 각재와 판재의 모양으로, 표면이 다듬어진 상태로 되어 있었다. 나는 앞서 이러한 오크가 북미에서 한국으로, 숲에서 공방으로, 땅에서 건조기로 이동하며 어떠한 과정을 거쳐 왔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2018년 8월 이수자반의 수강생이었던 나에게 오크가 지나온 기나긴 과정은 가려져 있었다. 그렇다면 내가 다루었던 오크처럼, 나무가 되는 오랜 과정을 거쳐 왔지만 그 과정이 학습자와 단절되어 있는 나무를 오늘날 목공방에서 만난다는 것은 나무에 대한 앎과 배움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1) 목공방의 상황성

오늘날 한국의 목공방에서 다루는 나무의 물질이 어떠한 앎과 배움을 가능하게 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날 한국의 목공방이 교육 공간으로서 갖는 상황성을 갖는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때 목공방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주어져 있는 어떤 경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몸과 세계가 묶여 있는 공간을 뜻한다. 이는 오늘날 한국의 목공방이 갖는 상황성을 살펴볼 때 가구를 만드는 사람들, 그들의 실천, 그들이 상호작용하는 세계, 세계 내의 사물과 도구가 함께 만들어내는 특징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한국의 목공방은 2019년 현재 전국에 약 2,000개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의 목공방은 2010년대를 전후로 하여 크게 확산되었는데, 이는 1990년대 중반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사회 전반의 DIY문화가 가구분야와 접점을 갖게 되면서 일반인들이 직접 가구를 만들 수 있는 목공방이 운영되었기 때문이다. 그전까지 우리나라의 목공방은 목공예를

전공으로 하는 전업작가와 전통 목공예 기술을 전수받은 예술인들을 중심으로 소규모로 유지되고 있었다. 목공방은 가구제작 방식에 따라 나무와 나무를 연결할 때 나사, 도미노, 비스킷과 같은 재료를 사용하는 DIY 목공방과 나무와 나무를 직접 연결하는 짜맞춤 목공방으로 구분할 수 있다. DIY 목공방의 대표적인 예로는 독일에 본사를 두고 우리나라에서 체인점의 형태로 운영되는 ‘헤펠레 목공방’을 들 수 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한국의 주요 목공방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육과정을 살펴본 바에 따르면, 대부분의 교육과정은 2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운영되고 있다. 이 연구의 연구현장인 짜맞춤 전수관은 짜맞춤 목공방에 해당하는데 입문반은 2개월, 이수자반은 2개월, 연구자반은 자유기한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은 2개월 단위의 교육과정은 취미로 가구를 만드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1년 단위의 교육과정은 가구제작을 직업으로 하고자 하는 전문가들을 위한 것이다.⁶⁰⁾

가구만들기를 직업으로 하는 과거의 소목장들은 스승 곁에서 도제식으로 기술을 배웠는데 그들의 교육과정은 수 년에서 수십 년이라는 기간 동안 진행되었다. 소목장 조석진은 그의 스승 안은성을 6년 동안 사사하였고, 일본의 대목장들은 3년 동안 대패의 날만 연마하면서 도제생활을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에 비해 오늘날 목공방은 2개월 또는 1년이라는 짧은 기간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목공 기술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짧은 기간의 교육에 맞추어 기술의 내용과 관련 재료를 변형하게 되는 측면을 갖게 된다.

60) 그러나 2개월 교육과정과 1년 교육과정을 각각 취미로 가구를 만드는 사람과 가구제작 전문가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개월 교육과정을 취미로 시작하였다가 가구제작 전문가가 되기를 희망하게 된 경우도 있고, 가구제작 전문가가 되기를 원하지만 개인의 일정상 2개월 교육과정을 수강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많은 목공방에서 1년 교육과정은 ‘전문가반’ 혹은 ‘창업반’과 같은 별도의 이름을 두어 부르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1년 교육과정은 가구제작 전문가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수강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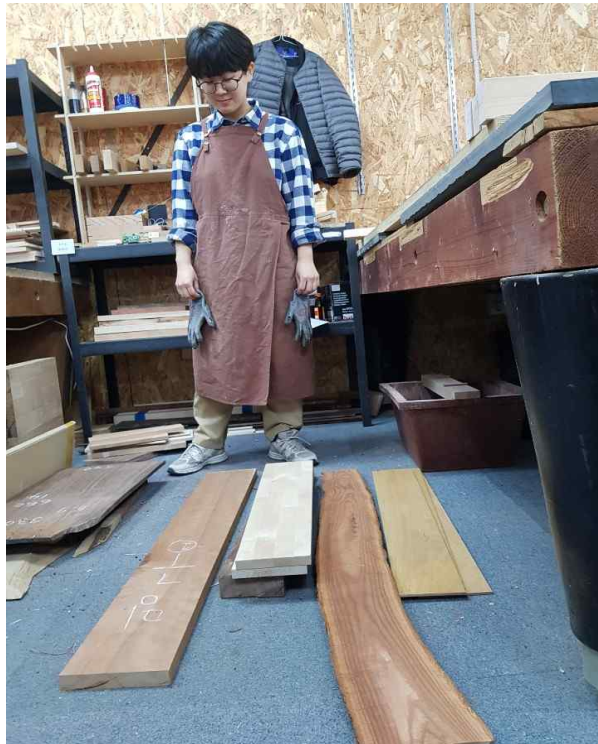
나의 연구현장인 짜맞춤 전수관을 사례로 하여 학습자들이 어떠한 나무를 다루는지 살펴보자. 학습자들은 입문반, 이수자반, 연구자반에서 각각 다른 상황에서 나무를 접하게 된다. 먼저 입문반에서는 소나무(미송)를 가지고 수공구와 짜맞춤 기술을 배우는데, 이때 ‘각재의 형태로 가공된 소나무’가 학습자에게 제공된다. 학습자는 소나무 각재로 대패치기, 톱질하기, 끌질하기를 배우고 연습한다. 소나무는 나무의 강도가 낮은 소프트우드(soft wood)로 분류할 수 있는데, 입문반에서 소나무를 제일 처음 다루는 것은 수공구 기술이 아직 몸에 배어 있지 않아 나무를 다루기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또한 폭이 좁은 ‘각재’는 다루어야 하는 면이 넓은 판재와 달리 초보자들이 나무를 가공하기에 보다 수월한 형태의 나무이다.⁶¹⁾ 한편 소나무는 국내산과 수입산 모두 저렴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어 초보자들이 나무를 망칠 염려를 덜 하면서 만질 수 있는 나무이기도 하다. 이처럼 입문반에서 학습자들이 다루는 ‘각재의 형태로 가공된 소나무’는 나무의 물성, 초보자를 위한 교육적 배려, 경제성이 얹히어 만드는 상황성 가운데 좋은 나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수자반에서는 하드우드(hard wood)를 가지고 정해진 과제를 만들게 되는데 이때의 하드우드 역시 교수자에 의해 미리 각재나 판재의 형태로 가공되어 있다. 입문반에서 수공구를 다룰 수 있는 기초 실력을 쌓은 이수자반 학습자들은 소나무가 아닌 오크, 월넛, 체리, 애쉬, 메이플과 같은 하드우드를 다루게 된다. 입문반에서는 다루기 쉬운 각재만을 사용하였다면 이수자반에서는 판재를 사용하여 한 단계 높은 수준의 나무 가공을 하게 된다.

연구반이 되면 회원 학습자가 직접 나무를 선택하는 과정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서랍의 가벼움과 항균작용을 위해 사용하는 오동나무를 제외하면 연구반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드우드를 사용한다. 이들은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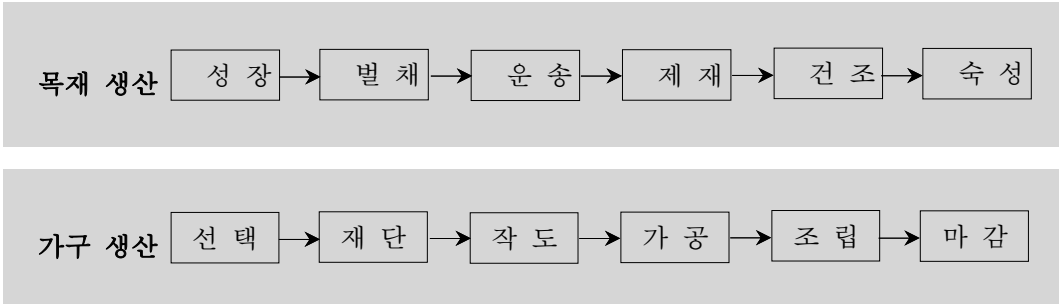
61) 짜맞춤 전수관에서는 2012년을 전후로 판재의 대패평을 잡아 각재를 만드는 과정이 교육과정에 있었다. 그러나 점점 학습자들이 각재를 만들기까지 걸리는 오랜 시간을 버거워 하고 많은 경우 목공예 흥미를 잃기도 하여 숙련된 교수자가 각재를 만들어 제공하게 되었다고 한다.

수관에서 판매하는 하드우드를 바로 구입하거나, 소비자가 원하는 치수에 맞게 재단을 해주는 인터넷 업체를 통해 구입하기도 한다. 어느 경우이든 이미 재단이 되고 가공이 된 나무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음의 <사진 3-9>는 연구반의 명구가 자신이 모아둔 나무들 중에서 상자를 만들기 위해 나무를 고르는 모습이다.



<사진 3-9> 목공방에서 나무를 고르는 학습자

이처럼 입문반, 이수자반, 연구반의 학습자들이 다루는 나무는 목재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벌목, 제재, 건조, 숙성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 이미 완성된 상태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다음의 <그림 3-4>는 목재의 생산 과정과 가구의 생산 과정을 보여준다.



<그림 3-2> 목재와 가구의 생산 과정

목재의 생산 과정은 성장, 벌채, 운송, 제재, 건조, 숙성의 단계를 거치며, 가구의 생산 과정은 선택, 재단, 작도, 가공, 조립, 마감의 단계를 거친다. 나무는 각 단계마다 다른 모양새와 쓰임새를 갖게 되고, 학습자는 이러한 나무를 어떤 단계에서 접하는가에 따라 다른 앎과 배움을 실천하게 된다.

오늘날 목공방에서 가구만들기는 <그림 3-2>에서 볼 수 있는 목재의 생산 과정을 이미 거쳐 온 나무들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즉 학습자들은 벌목, 제재, 건조, 숙성의 과정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 마친 나무에서부터 가구제작을 시작한다. 이러한 나무는 앞서 오늘날 목공방이 갖는 상황성에 비추어 볼 때 짧은 교육과정 안에 무엇인가를 만들 수 있는 ‘빨리 쓸 수 있는’ 나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빨리 쓸 수 있는’ 나무는 상황적 지식, 그리고 교육적 실천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2) 상황적 지식과 교육의 실천

상황학습론에 따르면 상황학습은 사회문화적으로 구조화된 세계 내에서, 그리고 그러한 세계를 통해 생겨나는 활동의 공동체에 참여하는 실천방식이다(Lave & Wenger, 1991). 다시 말하여 학습은 세계에 대한 지식을 개인적으로 내면화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의 과정에 내재해 있는 세

계의 맥락에 참여하는 것이다. 곧 “학습은 세계에 대하여 알게 되는 방식이 아니라 그 세계 속에서 존재하는 방식이다”(Lave & Wenger, 1991/2010: 16).

상황학습의 ‘상황성(situatedness)’ 또는 ‘상황적(situated)’이라는 말은 세계의 맥락에 참여하는 실천, 세계 속에서 존재하는 방식으로서 학습을 이해하기 위해 도입된 핵심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상황성의 의미는 “사람들의 사고와 행위가 구체적인 공간과 시간에서 일어난다는 것”, “사고와 행위가 타인들의 존재를 전제한다는 것”, “사고와 행위가 그것들을 발생시키는 사회적 장면 때 순간 순간에 처해 그 의미를 발동시킨다는 것”과 같이 다양하게 해석되었다(Lave & Wenger, 1991). 그런데 이러한 해석들은 학습이 세계 안에서, 세계와 함께 실천된다는 점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여전히 사람의 활동(사고와 행위)에만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레ιβ와 뎡거(Lave & Wenger, 1991), 레ιβ(Lave, 2019)는 ‘사회적 세계’에 대한 개념 없이는 활동의 상황성을 분석할 수 없다고 말한다. 사회적 세계는 물질적 또는 기호적 도구들, 역사적이고 문화적으로 구성된 의미들, 정치경제적 구조들이 서로 맞물려 있는 세계를 뜻한다. 상황성은 이러한 세계와 그 세계에서의 활동을 분리되지 않은 하나의 실체로 바라볼 수 있게 한다.

상황학습 이론은 상황적 지식이 특정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물질들,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사건, 참여자들의 관심사 등이 서로 얽히어 생성되고 변화하는 것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수 있게 도와준다. 사회구조, 권력, 기술 등은 실천공동체에서 어떠한 것이 지식으로서 가치가 있는가에 영향을 주고, 동시에 그러한 지식을 누가 어떠한 방식으로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가에 영향을 준다.⁶²⁾ 따라서 상황학습에서 중요한 점은 물질적,

62) 국내에서 수행된 상황학습의 상황성에 대한 연구로는 문성숙·손민호(2012), 조현영(2014, 2016), 김무영·안용덕(2015)을 들 수 있는데, 이 연구들은 기술, 도구, 사물 등의 물질적 차원이 생성하는 상황성에는 주목하고 있지 않다.

사회적 배치들 가운데 지식과 학습에 대한 ‘경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있다(Haraway, 1988).

이러한 상황학습에 비추어 볼 때, 오늘날 목공방에서 학습자들이 주로 다루는 나무가 만드는 상황적 지식의 물질성은 나무가 오늘날 목공방에 이르기까지 거쳐 온 과정이 어떠하며, 오늘날 목공방에서 학습자들이 어떠한 역사적, 문화적 위치에서 가구만들기를 배우고 있는지를 함께 고려할 때 그 의미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 나는 앞의 절에서 오늘날 목공방에서 다루는 나무는 목공방 외부의 사람들, 도구와 기계들, 지역에 의해 생산·유통·가공되며 목공방의 교육과정은 2개월에서 1년으로 비교적 짧고, 만들기의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그렇다면 오늘날 목공방과 다른 상황성을 갖는 곳에서의 나무는 어떤 차이를 갖는가?

나는 문헌연구와 현장연구를 병행하며 예전의 목수들은 “오래된 나무”를 좋은 나무로 여기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먼저 일본의 대목장 니시오카(Nishioka, 1993)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무를] 베어서 말리더라도, 건조 기간이 얼마 안 된 나무는 성질이 남아 있다. 천 년생의 나무는 천 년이란 긴 세월의 성깔이 붙어 있다. 그런 나무는 몇 십 년쯤 건조시켜도 성미가 남아 있는데, 당연한 일이다. 사람과 다를 게 없다. 나무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수축한다. 바로 베어 낸 나무는 마르면서 틈이 생긴다. 목수라면 이런 나무보다는 건조가 잘된, 안정된 나무를 쓰고 싶은 게 사실이다. 오래된 목재는 이런 성깔이 없다. 긴 세월 속에서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부드러운, 좋은 나무가 된다. (Nishioka, 1993/2013: 64)

오래된 나무는 자라온 세월만큼 생겨난 성깔이 사라지고 부드럽게 될 때 좋은 나무가 된다. 니시오카(Nishioka, 1993)에 따르면 이러한 나무의 성깔은 자라난 장소에 따라 달라진다. “남쪽에서 자란 나무는 가늘어도

강하고, 북쪽에서 자란 나무는 굵더라도 연약하고, 응달에서 자란 나무는 무른 것처럼, 자라난 장소에 따라 나무에도 각기 다른 성질이 붙는다”(ibid.: 26). 이와 관련하여 일본에는 ‘대형 목조 건물을 지을 때는 나무를 사지 말고 산을 사라’는 말이 전해져 내려오는데, 이는 산에 가서 나무를 고를 때 나무가 자란 장소와 그에 따른 나무의 성질을 온전히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일은 목수가 아닌 제재소의 몫이 되었고 그에 따라 목수들은 산에서 나무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목재소에서 치수로 주문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분업은 편리하고 빠르다는 장점이 있는데, 좋은 물건을 빠르게 만드는 것이 반드시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일이 여러 단계로 분업되고 속도를 중시하는 방식에 놓치는 것이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니시오카(Nishioka, 1993)는 목수들은 물론 목수에게 건축을 맡기는 사람들 역시 완전히 말리지 않은 나무라도 빨리 지을 수만 있다면 사용해도 괜찮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고, 나무의 성질을 무시한 채 집을 짓는 현상이 나타남을 안타까워하였다. 그는 다음의 인용문과 같이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 필요한 건조 시간을 50년으로 보고, 나무를 베고 재단해서 바로 사용하는 요즘 목수들은 ‘나무를 보는 힘’을 기르는 데 소홀하다고 말한다.

진짜 쓰기 좋은 나무로 말리는 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오십년이다. 그 정도 말린 나무는 다루기가 쉽다. 그런데 요즘은 베고 재단해서 바로 사용한다. ... 목수에게 나무를 보는 힘이 불필요해졌다. 필요가 사라지면 당연히 그런 힘을 기르는 데 소홀해지고 마침내는 사라져 버린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나무를 다루는 목수가 나무의 성질을 모른다는 뜻으로, 대단히 곤란한 일이다. (ibid.: 65)

나의 연구참여자인 백만기 역시 그의 스승인 소목장 조석진으로부터

“나무는 오래 묵은 것을 쓴다.”라는 가르침을 받았다고 한다. 나무는 건조 과정을 거친 후 다시 숙성의 시간을 가져야 뒤틀림이나 갈라짐과 같은 성질이 약해지는데, 이런 숙성을 위해 나무를 오래 묵히는 일이 필요하다.

선생님께서서는 나무는 오래 묵어야 쓰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돈만 있으면 나무를 사라고 했어. 싸게 나오면 재어 놔라. 나무 쓰려면 나무를 무조건 구해놓으라고 그런 말 하시고. 5년, 10년 묵혀 놔다 써라 그런 얘기지.

백만기는 오래된 나무, 숙성이 된 나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신이 갖고 있는 각재 하나를 손에 들어 느낌을 보고,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소리를 들려주었다. 그는 그 나무의 느낌을 “가뿐하다”라고, 그리고 소리는 “맑은 소리”라고 표현하였다.

숙성이 된 나무는 크랙[갈라짐]이 달라. 숙성이 된 나무는 마구리부터 갈라져. 갈라진다는 거는 건조 상태로 보았을 때 오래된 나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지. 오래된 나무는 만져 봐도 알고 두들겨 봐도 알고. 얼마 안 된 나무 하고 오래된 나무하고. 오래될수록 나무가 이제 맑아지고 가뿐해. 가뿐해진다고.

그런데 오늘날 목공방에서는 효율성과 경제성을 우선시하는 목재소가 별목하여 빨리 팔아버리는 나무를 구입하고, 그 나무를 별도의 건조나 숙성 과정 없이 바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백만기의 말이다.

인장력이라는 게 일 년 된 나무하고 이 년 된 나무하고 십 년

된 나무하된 나무도 잘라보면 변형을 일으키더라고. 그러니까 목수가 하는 일은 결코 그게 완전히 다르거든. 안정화되고 세지가 않아. [베어낸 지] 백 년이 구를 구조적으로 튼튼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나무를 만들어 쓰는 게 제일 좋은 거지. 그런데 그냥 막 사다 쓰고 하다보니까 계속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짜맞춤 하는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는 거지. 요즘 와서는 다 모르는 거지. 그냥 사다 쓰는 거야. 보통 육 개월 일 년도 안 된 나무야. 수입해 오는 체재목들이 개네들이 그걸 오래 보관해서 오지 않거든. 바로 킨 드라이 들어서 물이 너무 많은 게 킨 드라이 들어가면 갈라지니까 그걸 바로 그냥 바로 수출을 해버리는 거야. 그래야지 효율이 나지 그걸 자연 건조를 하기 위해 오래 보관하고 있으려면 유지비가 너무 비싸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나무가 대부분 오니까 우리도 거기에 대비해서 나무를 숙성해서 쓰는 게 좋지. (중략) 요즘 사람들은 나무 필요해? 그럼 바로 가공을 해서 다음날부터 걸구 들어가고 그러니까 운이 좋으면 또 변형이 안 일어나지만 잘못 걸리면 완전히 다 돌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알고 준비를 해야 하는데...

백만기는 베어낸 지 백 년이 된 나무를 다루어 본 체험을 말하며 그만큼 오랜 시간 숙성이 된 나무도 힘이 남아 있어 변형이 올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좋은 나무를 만드는 건조와 숙성의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채 필요한 나무를 “막 사다 쓰고”, “바로 가공하는” 방식은 짜맞춤가구를 만드는 과정을 더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완성된 가구에 변형이 일어나기 쉽다. 그는 ‘나무를 보는 힘’을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젊은 목수들을 안타까워 한 니시오카(Nishioka, 1993)처럼 오늘날 목공방에서 나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상황에 대하여 아쉬움을 표현하였다. 그는 목수가 하는 일은 크게 “나무를 숙성하여 준비하는 것”과 “기술로 나무를 짜맞추는 것”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보았다.

목수가 하는 일은 물론 가구를 만드는 건데 나무가 수축 팽창이나 변형을 일으키는 거를 결국로 잡아주든지 아니면 나무를 잘 관리하고 숙성을 시켜서 변형을 완전히 잡은 다음에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가지 일이 있는 거야. 나무라는 거를 수축 팽창이나 변형이 심하게 하면 제 기능을 못하고 가구가 부서지고 문제가 생기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일차적으로는 나무를 잘 숙성을 하고 잘 관리를 해서 그런 수축 팽창을 최소화시켜서 결국에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일차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기술이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나무도 모르고 기술도 모르니까 가구가 이상하게 가는 거지 사실은. 그래서 이제 나무를 먼저 알고 사실은 결국에 들어가고 해야 하는데 이거는 안 하고...

백만기의 말에 따르면 목수가 하는 일은 나무로 가구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나무를 잘 숙성시켜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 그런데 오늘날 목공방에서는 나무를 준비하는 일과 나무를 짜맞추는 일이 분리되어 있는데, 이러한 분리는 나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가구를 만드는 문제를 가져온다. “딸을 낳으면 집 앞에 오동나무를 심어라.”는 옛말이 있듯이, 예전의 목수들은 나무를 키우고 준비하기도 하였지만 오늘날 목공방에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 생산된 나무를 사다가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나무를 사서 쓰는 경우 나무의 건조와 숙성이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 알기 어렵고 그 과정에 관여하여 더 좋은 나무를 만드는 일이 불가능하다.

옛날에는 나무 관리하는 거부터 배웠잖아. 옛날 사람들은 나무부터 구하고 그거를 5년, 10년 잘 숙성을 했다가 그 다음에 그 사이에 기술도 익히고 해서 가구를 만드는 거지. 심지어는 예전에 딸 낳으면 집에 오동나무 심었잖아. 나무를 이미 이제 준비하는 거지 재료를. 옹이도 없고 깨끗하게 잘 키워서 그거를 잘라서 만드는 거니까 몇 십 년을 두고 나무를 준비하는

거지. 키우는 거지. 그 정도로 나무에 신경을 쓰고 그랬는데 지금은 나무? 그냥 사다 쓰는 거야. 내가 베서 뭘 어떻게 해서 준비를 하는 이런 거를 할 여건도 안 되고. 옛날에는 공간이라도 많으니까 베어다가 놓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어디 놓을 데도 없고 베기도 힘들고 제재하기도 힘들고 관리하기도 힘들고 모든 게 힘든 거지. 그러니까 이제 양산, 목재소 제재소 같은 데서 생산돼서 나오는 거를 쓰니까 나무를 더 모르는 거지 나무를. 전혀 모르는 거지 전혀. 그래서 나무를 많이 알아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데 그런 게 많이 아쉬운 거지 사실은.

지식과 학습은 상황적으로 구성되며, 어떠한 것이 포함되고 배제되는가 하는 구성의 경계는 유동적이고 새로운 가능성에 언제나 열려 있다. 과거 목수들에게 좋은 나무는 “오래된 나무”였으나 오늘날 목공방의 학습자들에게 좋은 나무는 “빨리 쓸 수 있는 나무”이다. 이러한 차이는 목재 생산의 분업, 목공방의 교육과정, 학습자들의 생활공간과 관련되어 있으며 목공방에서 다루고 있는 나무가 구성하는 상황적 지식이 갖는 특징을 돌아보게 한다. 연구참여자인 윤성아씨는 목공방에서 구입하여 사용하는 나무를 “인스턴트(instant)”에 비유하기도 하였다. 즉석조리 식품과 같은 나무는 다른 사람과 도구들에 의해 일정한 상태로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손쉽게 접근하고 빨리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원하는 무늬와 색으로 나무를 채단하거나, 천천히 조금씩 가공하여 변형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작업하는 과정에 학습자가 관여할 수 있는 기회는 제한된다. 그는 다음 작품은 천천히 시간을 들여 나무를 직접 만들어 보고 싶다고 하였다.⁶³⁾

63) 여기서 ‘천천히’는 원하는 치수의 각재를 만들기 위해 먼저 그보다 큰 치수로 가공을 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조금씩 작게 다듬어 나가는 과정을 반복하기 위한 필요한 시간을 뜻한다. 각 과정 사이에 나무를 비닐랩으로 싸서 변형되는 것을 막고 충분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놔두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각재로 만드는 사방탁자의 경우, 길게는 일 년 넘게 이렇게 나무를 만드는 과정이 소요되기도 한다.

오늘날 목공방에서 나무를 다루는 일은 숲을 찾아 나무에 스며든 햇빛의 방향과 양을 가늠하며 나무의 굵어짐을 헤아리고, 땅과 물이 만드는 비옥함을 살피 나무의 질을 이해하며 어떤 나무를 베어내도 좋은지 판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지 않는다. 목공방에서는 스스로 몸을 움직여 아름다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노동을 즐기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DIY문화가 실천되고, 노동의 분업과 산업화라는 자본주의의 원리 속에서 생산된 목재를 수급하여 가구를 만드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판재와 각재로 재단된 나무는 한편으로 학습자들로 하여금 손쉽게 가구만들기를 배울 수 있게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목리를 헤아려 벌목·건조·숙성하는 앎과 배움의 실천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⁶⁴⁾

나무는 다른 물질들과 더불어 그리고 이들의 리듬에 연결됨으로써 어떤 것이 될 수 있는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갖는다. 이러한 물질의 가능성과 한계는 그 물질과 함께 무엇을 알고 배울 수 있는지에 영향을 미치는 힘이 된다. 목공방에서 주로 다루는 나무는 불가피하게 무엇인가는 앎과 배움으로 선택되고 다른 무엇인가는 배제되어 상황적 지식과 교육적 실천의 특정한 경계를 그리게 됨을 보여주는 매개체라 할 수 있다.

3. 교육 장소의 탄생

어떠한 활동이 안정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그 활동을 가능하게 하

64) 이러한 분석과 비슷한 연구로 제빵사에 대한 세넷(Sennett, 1998)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그는 미국 보스턴의 한 제과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참여관찰하고 과거 그리스의 제빵사들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현대 보스턴과 과거 그리스에서 제빵사들은 물질(밀가루)을 다른 방식으로 다루었다. 과거 그리스에서는 제빵사들이 두 손으로 빵 반죽을 직접 만지고 그 과정에 땀을 흘리며 참여했다면, 현대 보스턴에서는 빵 반죽이 아닌 마우스를 만지며 빵이 구어지는 과정을 컴퓨터 화면으로 바라보는 방식으로 참여하였다. 세넷(Sennett, 1998)은 빵 반죽, 도구와 기계, 다른 노동자들과의 관계 가운데 일어나는 이러한 참여의 변화가 빵에 대한 앎, 그리고 빵을 굽는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는 장소가 필요하다. 집, 회사, 교회 등의 다양한 장소는 사람들을 한 자리에 모이게 할 뿐만 아니라 휴식, 식사, 일, 예배, 교제와 같은 활동이 특정한 양태로 전개되도록 영향을 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학교는 교육의 과정을 형식화하고 안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근대적 교육 제도이자 공간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서덕희, 2006). 학교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다른 사물들의 개입을 필요로 한다. 그렇다면 짜맞춤 목공을 가르치고 배우기 위한 장소는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고, 어떤 특징을 갖는가? 오늘날 나무와 가구만들기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그 주위의 사물들을 모이게 하는 장소와 함께 교육의 실천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1) 장소의 구조화

견고하고 아름다운 짜맞춤 가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공구와 결구법을 비롯한 여러 내용을 배우고 익히는 일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은 특정한 장소에서 전개되게 되는데, 장소의 배치와 구성 요소들은 교육의 실천을 특정한 양태로 나타나게 하는 데 관여한다. 다음에서는 짜맞춤 전수관이 교육 장소로서 어떠한 특징을 갖는지 살펴보고, 짜맞춤 목공을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들의 기대와 그 차이가 짜맞춤 전수관을 다중적인 장소로 만들고 있음을 알아보았다.

(1) 장소의 질서

짜맞춤 전수관은 수공구를 다루는 방법, 짜맞춤 결구법, 가구제작 기술 등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설립되었다. 2011년 11월부터 2년 동안 조석진과 함께 부천시 소사구에서 짜맞춤 목공을 가르쳐 왔던 백만기는 짜맞춤 목공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문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새로운 장소를 찾고 있었다. 2013년 9월, 짜맞춤 전수관은 인천시 부평구

에 있는 새 건물로 이사를 하였다.

조석진은 백만기에게 모든 기술을 아낌없이 가르쳐 주는 대신 두 가지 약속을 하였다. 하나는 짜맞춤기술을 널리 알려 저변확대에 힘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짜맞춤 전수관을 만드는 것이었다. 조석진은 전라북도 전주에서 짜맞춤 목공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백만기는 주위에 짜맞춤 가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전문적인 교육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 적절한 교육 기회는 많지 않은 현실을 안타까워 하였다. 이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짜맞춤 목공을 접하고 배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조석진의 작업실이 있는 전주보다는 서울이나 경기도 부근에 짜맞춤 전수관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다.

백만기는 짜맞춤 전수관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만들고 조석진과 함께 교육과정을 정리하고 검토하는 작업을 하였다. 교육과정을 입문반, 이수자반, 연구반으로 단계별로 구분하고 어떤 내용을 가르칠 것인지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였다. 다음은 짜맞춤 전수관을 시작하면서 백만기가 인터넷 카페에 자신의 다짐을 글로 적어놓은 것이다.

짜맞춤가구 전수관은 짜맞춤가구 기술과 수공구 기술 등을 전문적으로 교육하고 짜맞춤가구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튼튼하고 멋진 가구를 디자인 및 제작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짜맞춤가구 전수자 과정을 수료하신 분들의 구심점이 되어 짜맞춤가구를 제작하는 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 다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짜맞춤가구와 기술의 저변확대를 위한 “구심점”이 되고 있는 짜맞춤 전수관이라는 장소는 이렇게 하여 탄생하게 되었다. 짜맞춤 전수관은 짜맞춤가구 만들기를 배우고자 하는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있으며 소정의 교육비를 내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처럼 회원제 목공방으로 운영되는 짜맞춤 전수관의 입문반, 이수자반은 각각 최대 20명씩 주 2회, 총

8주의 교육과정으로 진행되며 연구자반은 원하는 시간만큼 자유롭게 등록할 수 있다. 입문반과 이수자반은 각각 주 2회씩 수업에 참여하게 되는데, 평일반과 주말반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3-3>와 같이 짜맞춤 전수관에서 입문반, 이수자반, 연구자반은 각각 다른 공간에 배치되어 있다.

기계실(1)	연구자반	연구자반	사무실
연구자반		입문반	
기계실(2)		이수자반	

<그림 3-3> 짜맞춤 전수관의 배치

짜맞춤 전수관의 배치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입문반, 이수자반, 연구자반의 “문이 모두 개방”되어 있어 각 과정의 학습자들이 서로 작업이나 실습 과정을 관찰하고 궁금한 점을 묻고 답하며 의견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다. 백만기는 새로 온 학습자들에게 전수관 사용 규칙을 알려주면서 이 점을 강조하고 자유롭게 적극적인 자세로 다른 과정의 학습자들과 교류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회원들은 입문반, 이수자반, 연구자반을 모두 자유롭게 다니며 자신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과정을 배우고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가까이 살펴보고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회원들 간에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적 관계가 형성되기도 하였다. 반대로 이수자반이

나 연구자반에 속한 회원들은 입문반 수업이 있을 경우, 다시 수업에 참여하여 자신의 부족한 점이나 어려운 점을 확인하고 배우는 경우도 볼 수 있었다.

또한 백만기는 수업이 없는 나머지 5일 동안 회원들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짜맞춤 전수관에 와서 배운 내용을 연습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고” 있다. 이러한 시간 운영은 더 많은 회원을 모집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을 충분히 배우고 익혀 자신의 것으로 체득할 수 있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의 교육철학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에 백만기는 전수관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모든 회원에게 공개하고 배운 내용을 복습하며 짜맞춤 목공의 기술을 체득하기 원하는 회원들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은 사람들의 출입을 허락하고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 짜맞춤 전수관의 문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교류를 위해 각 교육과정마다 열려 있고, 충분한 실습 시간을 위해 매일 열려 있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는 짜맞춤 전수관이라는 장소와 문이라는 요소가 인간의 활동과 얽히어 특정한 참여의 형태를 질서화 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문은 공간과 사람들을 분리하는 칸막이일 뿐만 아니라, 공간과 공간 사이의 만남을 열어주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 물론 이때 문을 통과하는 데 무조건적인 자유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회원들은 짜맞춤 전수관의 문을 열고 언제든지 실습을 하러 들어올 수 있지만, 냉난방 기기나 전등을 정해진 방식대로 켜고 꺼야 하며 불이 붙기 쉬운 오일을 정해진 곳에 버리고 가야 하는 등의 사용 방식을 따라야 한다. 또한 다른 교육과정의 반에 들어갈 때에는 사람들의 작업이나 교육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작업 중이거나 완성되어 건조 중인 가구를 제작자의 허락 없이 만져 망가뜨리거나, 교육 중에 불쑥 끼어들어 흐름을 방해하는 것과 같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처럼 짜맞춤 전수관의 문은 개방성, 교류, 충분한 시간이라는 교육의 가치를 추구하는 데 관여하고 있는 사물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짜맞춤 전수관에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장소의 질서는 학습자들이 각자 자신의 작업대를 갖고 있다는 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사진 3-10> 참조). 짜맞춤 전수관은 장인의 공방과 같이 장인이 작품을 만드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며 배우는 교육 방식이 아니다. 물론 백만기와 조교들은 각자의 작업실이 있고 그곳에서 짜맞춤가구를 만들며, 학습자들은 이러한 모습과 가구를 자유롭게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짜맞춤 전수관의 교육은 기본적으로 일종의 ‘수업식’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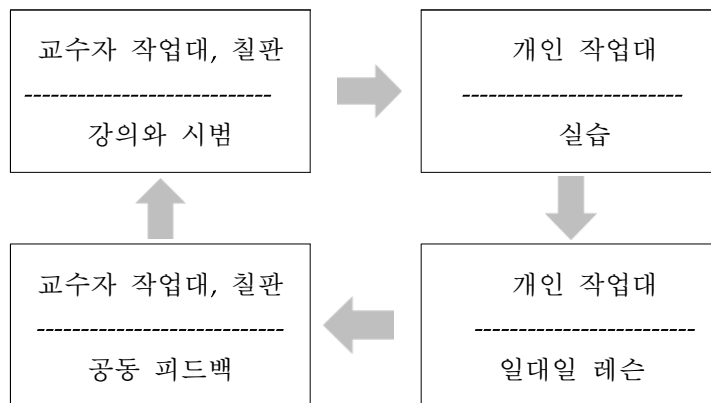
<사진 3-10> 짜맞춤 전수관 안의 개인 작업대

직업 훈련과 같이 실제 일을 수행하는 곳에서 실행되는 교육과 학교와 같은 곳에서 실행되는 교육은 다르게 나타난다. 가령, 도축된 돼지나 소의 뼈와 살을 분리하는 정육사의 일을 정육점에서 배울 때 초보자들에게는 비싼 부위의 고기를 다루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값이 싼 부위부터 만질 수 있게 할 것이다. 한편 정육점에서는 도축된 돼지나 소가 정육점에 들어오는 과정, 고기의 질이나 가격을 두고 흥정하는 고객들을 다루는 방법 등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을 것이라 상상해 볼 수 있다. 이

와 달리 학교에서는 어떤 부위의 고기를 학습자들에게 가르칠 것인지에 대해 정육점의 경제적 가치와 다른 논리로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학교에서 도축된 돼지나 소의 입고 과정이나 고객들과의 교류는 현장에 서와 같이 실제 상황을 접할 수는 없다.

이처럼 어떤 장소에서 가르치고 배우는가에 따라 교육의 내용과 방식, 중요한 가치들은 변화하며 이때 장소 안의 사물들은 교육의 실천이 실행되는 데 관여한다. 짜맞춤 전수관은 짜맞춤 가구를 만들어 작품으로 출품하거나 판매하는 목공방의 성격을 갖고 있지 않아서 ‘교육 공방’으로 분류된다. 즉 짜맞춤 전수관에 온 학습자들은 백만기나 조교가 작품이나 상품을 목적으로 짜맞춤 가구를 만드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수업을 위해 별도로 체계화된 교육과정에 의해 짜맞춤 목공을 배우게 된다. 이에 따라 입문반에서는 수공구 다루기, 기본적인 결구법 배우기를 배우고 이수자반에서는 과제로 지정된 가구 만들기, 기계 다루기를 배운다.

백만기와 조교들은 짜맞춤 전수관에서 강의와 시범, 개별 실습, 일대일 레슨, 공동 피드백과 같은 활동으로 수업을 하며 짜맞춤 목공을 가르친다. 그리고 <그림 3-4>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각 활동이 전개되는 공간과 사물이 변화한다.



<그림 3-4> 짜맞춤 전수관의 사물과 교육활동

짜맞춤 전수관에서는 교수자 작업대, 칠판, 학습자 작업대가 있으며 교실의 배치 형태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물들은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을 구성하는 데 참여한다. 즉 사물들은 사회적인 것의 일부가 되어 교수와 학생의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가령, 교수자의 강의와 시범이 있는 경우 사람들은 교수자 작업대와 칠판이 있는 교실 앞쪽으로 모인다. 그리고 교수자가 교육활동을 위해 미리 준비해 둔 재료, 도구, 결구 모형 등을 가지고 강의와 시범이 진행된다. 이러한 강의와 시범이 끝나면 학습자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작업대로 돌아가 개별 실습 시간을 갖는다.

하루에 2-3번 정도 있는 일대일 레슨은 백만기나 조교가 학습자마다 어떻게 실습을 하고 있는지 파악한 후, 부족한 점이나 고쳐야 할 점을 가르쳐 주는 시간이다. 이때 교수자는 학습자 작업대를 순회하면서 해당 학습자에게 맞는 도움을 주며, 때로 공통적으로 지도가 필요한 경우 주변의 다른 학습자를 그곳으로 모이게 하기도 한다.

또한 하루 수업을 마칠 무렵이면 공동 피드백 시간을 갖는데, 이때에는 하루 동안 실습한 결과에 대해 점검하고 어떤 원리나 방법에 주의해야 하는지 가르쳐 준다. 이 경우 교수자는 다시 학생들을 교수자 작업대로 모이게 하고, 자신의 작업물과 학습자 중 2-3명의 작업물을 비교해 보거나 학습자 중 잘한 예와 그렇지 못한 예를 선택하여 모두 함께 어떤 점이 잘 되었고 부족한지 함께 살핀다.

(2) 장소의 다중성

짜맞춤 전수관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짜맞춤 목공을 가르치고 배우기 위해 설립된 교육의 장소이다. 또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일정한 금액의 수업료를 내고 회원이 되는 방식의 교육 장소이기도 하다. 이러한 특징을 갖는 장소에서 실행되는 교육은 언제 어디에서나 동일한 내용과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적 실천 가운데 특정한 양태로 나타

난다.

회원제 목공방의 성격을 갖는 짜맞춤 전수관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숙련된 앓은 지방 무형문화재였던 조석진의 작업실과 그곳에서의 숙련된 앓을 그대로 옮겨 온 것이 아니었다. 오코너(O'Connor, 2009)는 13세기부터 시작된 이탈리아 무라노의 유리불기 전통이 2000년대 미국 뉴욕의 스튜디오에서 어떻게 전유되고 있는지를 ‘실천의 장소(place in practice)’라는 관점에서 분석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 그녀는 이탈리아 무라노와 미국의 뉴욕을 단순히 거리가 있는 두 지점으로 생각하고 유리불기의 숙련된 앓이 무라노에서 뉴욕으로 그대로 이동하였다고 보는 것은 실천의 장소성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때 “장소는 단순한 지리적 위치라기보다는 도구나 재료와 같은 물질들 그리고 숙련된 앓의 규칙들이 있는 세계와 활동하는 몸이 만나는 곳”(O'Connor, 2009: 242)이다. 세계와 몸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고정된 실체로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도구, 재료, 규칙, 몸과 같은 이질적 요소들이 모이고 관계를 이루는 가운데 수행되는 실천 안에서 생성되고 변화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앓은 체화(embodied)될 뿐만 아니라 장소화(emplaced)된다(O'Connor, 2009).

이와 같은 실천의 장소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살펴봄으로써 숙련된 앓이 특정한 방식으로 재맥락화 되는지 이해할 수 있다. 숙련된 앓은 어떠한 곳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배울 것인가에 대한 실천가들의 살아 있는 몸을 통한 해석에 의해 역동적으로 매개되기 때문이다. 실천가들의 살아 있는 몸은 도구, 재료, 타인과의 관계 가운데 특정한 상황을 이루고 실천가는 이러한 상황 안에서 숙련된 앓을 어떻게 가르치고 배울 것인지를 조율하게 된다. 숙련된 앓과 교육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실천의 장소에 특정한 양태로 새겨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백만기가 운영하는 회원제 목공방의 경우 실천의 장소로서 어떻게 생성되었으며 다른 장소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먼저 백만기의 목공방에서는 수공구를 다루는 숙련된 앓을 체득하기 위해 “사용법”만이

아닌 “원리”를 배우고 수공구를 다룰 때 마주하게 되는 문제점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가르치고자 한다. 이는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와 같이 사용법을 보여주는 방식을 넘어 “왜 이렇게 하는 것인지”와 같이 수공구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것을 뜻한다. 전자의 경우는 교수자가 자신에게 이미 숙련되어 있는 기술을 보여주는 것이 라면 후자의 경우는 시범과 함께 어떠한 원리에 의해 특정한 방식으로 수공구를 써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백만기는 연구자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수공구에 대해 배웠을 때를 회상하며 다음과 같이 말해주었다.

수공구라든가 사용법, 사용법을 가르쳐줘 사용법. 튼질 이렇게 하는 거야 끝질 이렇게 하는 거야 대패질 이렇게 하는 거야 사용법은 가르쳐 주는데 대패를 세팅을 하면은 우리 항상 왜, 이게 문제가 생기면 왜 생기는지 또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이걸 빼고 가르쳐. 그러니까 분명히 보고 배우기는 배웠어. 근데 실전에 와서 스스로 딱 할려고 하면 이게 안 돼. 사용법은 알려줬으니까 거기에 담긴 노하우는 알아서 터득을 하라는 거야.

그는 사용법만을 보여주고 알려주는 방식으로는 스스로 수공구를 다룰 때 마주하게 되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어 일반인들이 수공구 배우기를 포기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래서 그는 숙련된 앓을 시범으로 보여주는 기존의 교육 방식에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씩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을 더하게 되었다. 아래의 내용은 백만기가 연구자와의 인터뷰에서 원리를 강조하게 된 이유를 말해 준 것이다.

그러니까 전에는 전자제품으로 하자면 사용설명서 위주 정도로 했다면, 이제 점점 가면서 원리를 얘기하는 거죠 원리를. 왜 그런지를 자꾸. 이걸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식

으로 가르친다기보다. 이것을 왜 해야 하는지, 왜 공간을 더
줘야 하는지, 왜 반대쪽을 좁게 해야 하는지, 왜 그런지를 자
꾸 얘기하는 거지.

이처럼 백만기는 이전 세대의 교육 방식을 자신의 목공방에 그대로
 옮겨 온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수공구의 원리를 이해함으로써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소로서 ‘다시’, ‘새롭게’ 만들 필요
가 있었다. 백만기는 자신의 목공방에서 배우는 학습자들이 수공구를 소
 홀히 다룬 채 기계에 의존하여 가구를 빨리 만드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수공구를 깊이 이해하고 숙련된 앎을 충분히 체득하여 자신만의 더 견고
 하고 아름다운 가구를 만들어가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나는 이러한 백만
 기의 목공방에서 다른 목공방과 달리 수공구의 숙련된 앎을 제대로 배울
 수 있어 좋다는 학습자들을 여러 명 만나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대전
 에서 짜맞춤 기술을 배우기 위해 올라온 다량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주었다.

여기는 다른 목공방하고 다르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대전에
서 그 목공방에서 배울 때는 톱질을 이렇게 하는 거다 보여
주기만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안 알려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톱을 잡는 자세, 톱질을 어떤 과정으로 해야 하는
지, 칼금을 스치는 게 뭔지 왜 중요한지, 잘 된 톱질이 무엇
인지 다 가르쳐 주잖아요.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건 정말 대단
하다고 생각해요.

실천의 장소로서 다시 만들어지는 목공방의 또 다른 모습은 교육비를
내고 회원으로 등록하여 짜맞춤 기술을 배우는 학습자들과 관련되어 있
다. 목공방의 이수자반은 과제로 지정된 작품 세 가지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하여 도면 그리기부터 마감까지 스스로 해봄으로써 가구제작의 흐름
을 익히는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러한 이수자반은 8주 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1년에 총 여섯 기수가 과정을 마치게 된다. 나는 최근 1년 동안의 이수자반 교육과정을 살펴보던 중 과제로 지정된 작품 세 가지가 계속 변화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어떻게 하여 이러한 변화가 나타났는지 궁금하여 백만기와 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연구자: 이수자반 교육과정을 보니까 만드는 작품이 계속 변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변화를 주게 된 건가요?

백만기: 그러니까 이제 기술을 늘리는 측면에서는 기존에 사이드테이블⁶⁵⁾이 훨씬 낫겠죠. 결구법도 많이 들어가고, 난이도도 높고, 판재 가공이라는 어떤 힘든 점도 있고. 그래서 입문과정의 연장선상에서 저거를 사이드테이블을 했었는데 회원들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더라고 회원들이.

백만기는 사이드테이블과 같이 여러 종류의 결구법이 많이 들어가고, 만들기의 난이도가 높으며 각재와 판재 모두를 가공해야 하는 작품을 이수자반의 지정과제로 포함시키고 있었는데 이 사이드테이블을 계속 만들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목공방을 찾는 회원들 가운데 짜맞춤기술을 숙련되게 배우기보다 2개월의 교육과정을 마치면 자신들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간단한” 가구를 만들고 싶다고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백만기는 짜맞춤기술을 계속 고집할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만들고 싶은 것을 만들고 가게 해야 하는지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다. 다음은 이러한 백만기가 어떠한 점에서 이러한 고민을 하게 되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인터뷰 내용이다.

내가 고민을 많이 했죠. 이거 기술을 계속 고집을 해야 하나 사람들 필요한 거 만들고 가게 해줘야 하나. 그런데 요즘 대부분의 목공방이 다 만들기 과정이에요 기술을 가르치는 게

65) 침대나 쇼파 옆 공간에 두는 작은 테이블을 가리킨다.

아니고 다 만들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 보면 한 달 두 달이면 다 뭐 만들어 가는데. 여기도 회원들이 와서 면담을 해보면 “두 달 끝나면 뭐 만들어 가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에 두 달이면 긴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어가겠다는 잠재적 생각을 다 갖고 있더라고. 기술도 기술이지만. 뭔가 갖고 가야 하는데 그런 생각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좋다 그러면 만들 사람은 만들고 기술 할 사람은 기술해라. 선택을 하게 하자. 그래서 이수자반에서는 선택의 폭을 넓혀 주는 거죠. 스톨부터 트라이휠 뭐 이런 간단하게 집에서 필요하지만 간단하게 만들 사람은 만들게 하고 나는 사이드테이블 하고 싶다 하면 그거 하게 하고. 우리가 준비하고 가르치는 데 조금 힘들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쪽으로 변신을 해 봐야겠죠.

백만기가 운영하는 짜맞춤 전수관은 짜맞춤가구 만들기를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목공방으로 설립되었지만 회원들 중에는 짜맞춤기술의 핵심을 충분히 배우고 익히기보다는 쉽고 간단한 가구나 생활용품을 만들어 집에 가지고 가고 싶어 하였다. 짜맞춤 전수관은 회원들의 교육비로 운영되는 유료 회원제 목공방으로 회원들 없이는 목공방 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 이에 백만기는 이수자반의 지정과제에 회원들이 원하는 작품을 포함시켜 짜맞춤기술을 더 배우고 싶은 경우와 간단한 만들기 과정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변화를 주고 있었다.

이와 비슷한 연구 사례로, 오코너(O'Connor, 2009)는 고도로 숙련된 이탈리아 무라노의 유리블기 기술이 미국 뉴욕의 스튜디오로 이동하는 가운데 유리로 원하는 결과물을 만드는 표현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몸의 재구조화를 위한 충분한 실습과 반복, 이와 관련된 용어들의 습득을 통해 실천 안에 거주(dwelling)하기보다는 짧은 시간에 결과를 만들어내는 경험을 하는 것에 그치게 된다고 하였다.

뉴욕에 있는 유리불기 스튜디오의 교수자들은 실천의 중요한 기초들을 배우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무엇인가를 만들어 갈 것인가에 집중하는 학습자들을 가르쳐야 할 때 좌절감을 느낀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학습자들은 돈을 지불한 만큼 무엇인가를 집으로 가져가기를 원하였고, 학습자들의 돈으로 스튜디오가 운영되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탈리아 무라노의 유리불기 기술이 미국 뉴욕의 스튜디오로 이동하면서 생겨난 이러한 변화에 대하여 오코너(O'Connor, 2009)는 숙련된 앎을 깨닫기 위해 몸의 충분한 단련을 중시하는 무라노와 추상적인 모방에 그치는 뉴욕의 스튜디오는 실천의 장소성이 다르다고 보았다.

백만기가 운영하는 목공방은 오늘날 스스로 짜맞춤가구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숙련된 앎을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실천의 장소이다. 이러한 실천의 장소는 단순히 지리적 위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도구, 재료, 그리고 숙련된 앎이 특정한 양태로 생성되어 교육의 가능성을 열고 닫는 곳이다. 백만기의 목공방은 한편으로 수공구 사용의 방법과 원리를 체득할 수 있도록 장소화되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기술의 숙련보다 만들기의 결과에 대한 관심이 드러나는 곳이기도 하다. 이처럼 목공방에서는 앎과 교육의 실천이 매끄러운 하나의 전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다르게 나타나며 때로는 부딪히면서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종적·횡적 연대

짜맞춤 목공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위해 탄생한 짜맞춤 전수관에서는 짜맞춤 목공의 앎을 체득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이 전개된다. 이 과정에서 짜맞춤 전수관은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종적 연대뿐만 아니라 학습자 간의 횡적 연대를 통해 앎의 공유와 공감의 일어난다. 다음에서는 연구자가 직접 짜맞춤 목공을 배우는 학습자가 되어 짜맞춤 전수관에서 수공구를 배웠던 경험을 중심으로

종적 연대와 횡적 연대를 살펴보았다.

(1) 종적 연대

나무를 깎는 도구인 대패라는 사물을 능숙하게 사용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전수관에 일 년 넘게 드나들던 어느 날, 나는 백만기가 대패를 “세팅”⁶⁶⁾하고 나무를 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울동을 하는 것 같았다. 그는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동작으로 대패를 세팅하고 리듬감 있게 대패를 치고 있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바로 대패와 함께 하며 대패를 통해 나무의 결과 살을 느끼는 목수와 같이, 인간과 사물이 하나로 얽혀 있는 관계에 대한 주목이다. 이와 같은 ‘대패-인간’의 관점은 사물을 통해 우리 몸을 확장하고, 사물을 우리 몸에 통합시키는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이해에 필요한 태도는 대패와 인간을 독립적 실체로 떨어뜨려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대패와 인간’이라는 관계, 또는 ‘대패질’이라는 실천 속에 서로를 휘감고 있는 현상으로 보는 것이다.

나는 전수관 입문반에서 대패를 배우면서 대팻날 연마와 대패질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초보자였던 나에게 대패는 큰 바위와도 같았다. 나의 첫 대패인 폭 80mm의 각리는 한 손으로 쉽게 들어 올릴 수 없는 크기와 무게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대패질을 하기 위해 대패의 날과 바닥을 준비하는 시간 동안 점점 더 진이 빠져서 대패질을 해야 할 때가 되면 더 크고 무거워져 있었다. 이와 달리 나에게 대패를 가르쳐 준 백만기와 호인 조교는 내 대패를 가지고 시범을 보여줄 때마다 그 움직임이 가볍고 단순하여 그리도 말을 안 듣던 내 대패를 쓰고 있는 것이 맞나 의심이 들 정도였다.

나는 호인 조교가 느끼는 대패는 어떠한지 궁금하여 “당신에게 대패

66) 대팻질을 할 수 있도록 대팻날을 연마하고, 대팻집 바닥의 평을 잡으며, 어미날과 덧날의 간격을 조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일컬어 대패를 “세팅”한다고 말한다.

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해보았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자신의 오른손을 움직여 보였다. “대패란… 제 손이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묻자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대패가 손이라고 한 것은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무가 있다고 할 때 왼쪽을 치고 싶으면 왼쪽을 칠 수 있고, 오른쪽을 치고 싶으면 오른쪽을 치는 거죠. 제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막 대패를 배우기 시작한 초보자에게 ‘대패=큰 바위’로 느껴지는데 반해 3년 넘게 대패를 다루어 온 호인 조교에게 ‘대패=손’으로 느껴진다. 자신의 손이 된 대패로 나무를 치는 호인 조교의 시선은 대패보다는 나무를 향해 있었다. 그는 대패가 지나간 나무 표면이 매끄러운지, 나무의 결이 뜯기지는 않았는지, 대패밥이 원하는 두께로 나왔는지 살피면서 나무를 다듬어 나갔다. 마치 대패는 사라지고 호인 조교의 손이 나무와 직접 접촉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나는 대패를 잘 잡았는지, 대패를 당기는 힘은 적당한지, 대패를 당기면서 팔다리는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와 같이 나무보다는 대패에 더 신경을 쓰고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왜 나타나는 것인가?

일본의 목조건축을 짓고 수리하는 대목장이었던 니시오카(Nishioka, 1993)는 목수의 연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연장은 목수에게 있어 손의 연장(延長)과 같다. 그 정도까지 연장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Nishioka, 1993/2013: 66). 또한 “연장이란 제힘으로 갈고 자기 뜻대로 사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쓸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Nishioka, 1993/2013: 66). 호인 조교도 이와 같이 대패를 연장된 손으로 느끼며 대패에 익숙해져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호인 조교가 대패와 함께, 그리고 대패를 통해 나무를 만지면서도 대패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대패가 그의 보조식(subsidiary awareness)이 되었기 때문이다.

폴라니(Polanyi, 1962)는 얇의 두 측면을 초점식(focal awareness)과 보조식으로 구분한다. 그는 망치를 사용하여 못을 박는 일을 예로 들어

두 개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망치를 내려칠 때 우리는, 그 손잡이가 우리의 손바닥을 쳤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머리가 못을 쳤다고 느낀다. 그러나 우리는 망치를 쥐고 있는 손바닥과 손가락의 느낌에 틀림없이 주의를 한다. 그것은 망치를 효과적으로 다루게 하고, 우리가 못에 기울이는 주위의 정도는 동일하지만 이런 느낌들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주어진다. 우리는 손가락과 손바닥을 강하게 인지하면서 다른 것에 주목한다. 나는 못을 박고 있는 초점식에 녹아들어 있는 손바닥의 느낌에 대한 보조식을 갖는다. (Polanyi, 1962/2001: 96)

손에 익숙해진 망치로 못을 박을 때, 우리는 망치(머리)가 못을 치는 느낌과 망치(손잡이)가 손바닥을 치는 느낌을 안다. 그런데 우리의 주목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망치가 못을 치는 느낌으로 이것이 곧 초점식이라 할 수 있다. 망치를 다루는 손바닥은 보조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못에 주목할 수 있도록 하는 부차적 역할로 물러난다. 이처럼 사물을 인간 몸의 일부로 통합하여 세계를 체험하고 이해하는 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일에 대하여 폴라니(Polanyi, 1962)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것[사물 혹은 도구]들은 필연적으로 우리 자신의 일부를 이루는 인격을 완성시켜가는 우리의 입장에서 존재하게 된다. 우리는 스스로를 그것에 쏟아 붓고 그것을 우리 자신의 실존의 일부로 동화시킨다. 우리는 그것들에 거주함(dwelling)으로써 그것을 실존적으로 받아들인다”(Polanyi, 1962/2001: 102).⁶⁷⁾ 이때 거주는 “우리 신체가 사물을 감각을 지닌 존재로 파악하여 그것이 우리 신체의 일부분처럼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일”(Polanyi, 1967/2015: 102)을 가리킨다.

67) 마지막 문장의 영어 표현은 다음과 같다. “We accept them existentially by dwelling them.” 한글 번역본에서는 ‘dwelling’을 ‘안주’로 옮겼으나 나는 ‘거주’가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반영하고 있음을 밝힌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메를로-퐁티(Merleau-Ponty, 1945)는 맹인의 지팡이를 말한다.

맹인의 지팡이는 맹인에 대하여 대상이기를 그쳤고, 더 이상 그 자체로 지각되지 않으며, 그 끝은 감각적 지대로 변형되었고, 그 지팡이는 접촉 행동의 넓이와 반경을 증대시키며, 시선에 유비되는 것이 되었다. 모자, 승용차, 지팡이에 습관을 들인다는 것은 거기에 거주한다는 것이거나, 역으로 이것들로 하여금 고유한 신체의 부피에 가담하게 한다는 것이다. ... 습관은 우리가 우리의 세계-에로-존재를 확장시킬 수 있는 능력이나 새로운 도구들에 의해 우리를 합병시킴으로써 존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표현한다. (Merleau-Ponty, 1945/2002: 228).

폴라니(Polanyi, 1962)와 메를로-퐁티(Merleau-Ponty, 1945)의 말에서 주목할 점은 사물이 인간에게 더 이상 대상이 아닌 인간이 움직이고 접촉하고 감각하는 일을 가능하게 하는 인간 몸의 일부가 된다는 점이다. 근대의 경험론과 관념론은 주체와 대상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주체의 자리에 인간을, 대상의 자리에 사물을 놓았다. 경험론에 따르면 대상의 속성은 주체와 독립되어 있고, 주체는 이를 수동적으로 수용할 뿐이다. 반대로 관념론에 따르면 주체는 의식을 통해 속성을 구성해내는 절대적 힘을 갖는다.⁶⁸⁾ 주체와 대상에 대한 이와 같은 근대적 사유는 ‘대패=손’과 같이 자기 몸의 일부로 사물을 받아들임으로써 새로운 능력을 얻고 세계에 참여하는 삶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사물을 통해 우리 몸을 확장하는 것은 연필을 잡는 것, 우산을 쓰는 것, 신발을 신는 것,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과 같이 일상생활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 이러한 사물들은 우리의 몸과 얽히어 ‘감각적 지대’를 함께 형성함으로써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고 행위하고 느끼는 일에 관

68) 류의근(2003)은 경험론의 주체는 무능하며, 관념론의 주체는 전능하다고 말한다.

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한다. 그런데 이처럼 사물들이 우리 몸의 일부가 되는 일은 인간과 사물을 근대적 사유에서와 같이 주체와 대상으로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로 간주할 때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20년 넘게 목공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백만기에게 대패는 어떠한 존재일까? 그는 입문자반 수업의 마지막 날, 수강생들이 이수자반에 가서도 대패를 계속 배워 나가기를 당부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점차 대패에 친숙해지면 오랫동안 곁에 두고 노는 어린 시절의 장난감과도 같은 느낌을 갖게 되요. 말을 걸어오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되지요.” 백만기와 대패의 관계는 주체와 대상이 아닌 ‘말을 걸어오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의 관계이다. 그는 말을 걸어오는 대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대패 같은 수공구하고는 친해지는 거 같아. 서로 대화가 되는 거지, 대화. 결과가 안 나오면 어? 뭐가 의사소통이 잘못 됐구나 하면서 계속 소통이 된다고 봐야지. 대패도, 끌도, 톱도 그렇고 나에게 신호를 보내거든.

대패와 같은 수공구는 백만기와의 관계맺음 가운데 나무를 가공하면서 대패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왜 원하는 대패밥이 안 나오는지에 대한 ‘신호’를 백만기에게 보낸다. 여기서 신호는 언어와 문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물이 ‘말하는’ 기호를 의미한다(조용환, 2019). 백만기는 대패가 보낸 신호에 반응을 하며 다음의 행위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생각하고 대패, 나무, 자기 자신이 이루고 있는 관계를 돌아본다.

대패가 이야기를 하는 걸 안단 말이야. 듣는 거야 그 신호를. 대패가 이야기하는 거를 듣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천천히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대패가 이야기하는 걸 따라 줘야지. 대패를 딱 치는 순간 애가 지금 어떠하다는 것을

알려주잖아. 날이 예리한가 안 한가 그걸 애가 결과물로 보여주잖아. 그러면 애가 이야기를 해주면 초보인 사람은 대화가 안 되는 거지. 대패는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내 갈 길 간다 그러면 친할 수가 없는 거지.

백만기는 대패의 말과 이야기를 ‘듣고’ 대패와 대화를 하기 위해 노력한다. “나는 내 갈 길 간다.”와 같이 자기만의 길을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대패와 함께 길을 걸어간다. 이러한 대패와 인간 몸의 교차는 얹이 살로부터 일어나는 것임을 보여준다. 메를로퐁티(Merleau-Ponty, 1964)는 인간과 세계의 상호교차를 살(chair)이라는 개념으로 표현한 바 있다. 인간과 대패처럼 인간의 몸과 세계가 교차하고, 나와 타자의 상호작용에 의해 얹이 생성된다. 대패와 같은 사물들은 실상 우리 인간의 몸 밖에 대상으로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속에 혹은 ‘몸과 살의 교차’(Merleau-Ponty, 1964) 속에 항상 이미 함께 있고(being-with) 또 함께 되어가고(becoming-with) 있다(Postma, 2016/ 조용환, 2019 재인용).

초보 학습자인 나에게 ‘대패=큰 바위’였지만 백만기와 유희인 조교에게 계속 대패를 배우고 혼자 연습시간을 가지면서 나는 조금씩 대패에 대해 달리 느끼게 되었다. 나는 연구와 목공 배우기를 병행하면서 2017년 10월에 배우기 시작한 대패를 2018년 6월까지 시간이 허락하는 동안 틈틈이 다루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동안 손에서 놓았던 대패를 다시 잡아보니 느낌이 달랐다. 대패날을 연마하고 바닥 평을 잡는 솜씨가 서툴렀지만 이제 큰 바위 같은 버거움은 느껴지지 않았다. 대패는 한결 가벼워졌고 한 손으로 대패를 잡거나 당기는 데 예전보다 힘이 덜 들었으며 대패질이 간결해졌다. 나는 이렇게 변화한 대패와 나의 관계에 새삼 놀라며 그동안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돌아보았다. 아래에서는 그 변화를 크게 ‘부분에서 전체로’, ‘둔감에서 민감으로’, ‘옛 습관에서 새 습관으로’와 같이 정리해 보았다.

첫째로 대패질을 처음 배울 때 나의 대패질은 연속적인 단계들로 하나씩 나누어져 있었다. 유희인 조교가 대패질을 가르칠 때 대패질의 단계를 시범을 보이면서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 초보자는 이러한 설명처럼 대패질을 하나의 단계에서 다음으로, 다음 단계에서 그 다음으로와 같이 선형적인 연속으로 하게 된다. 즉 숙련자는 대패를 잡는 방법, 대패를 나무에 거는 방법, 대패를 치는 방법이 하나의 리듬을 이루어 단번에 되지만 초보자는 연속적인 단계를 따라가게 된다. 아래는 대패질을 가르치는 장면을 기록한 현장노트이다.

#1. 대패를 잡는 방법

대패질, 우선은 기본적인 파지 법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왼손을 대패를 지금 가지고 있는 분들은 따라 해도 좋습니다. 흉내내 보시죠. 일단은 왼쪽 세 손가락으로는 날을 움켜질 겁니다. 그래서 두 손가락으로 걸어서 땡기는 역할을 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리고 오른손은 이거[대패 몸통]를 대패를 이렇게 감싸질 건데 이거를 그냥 감싸주면 안 되고 이거를 최대한 돌아가서 그거를 아무 생각 없이 잡고 치면 더 많이 기울여서 친다는 얘기죠. 땡기는 손으로 이렇게[왼쪽으로 치우쳐서] 습관적으로 이렇게 쳐요. 그냥 치면 거의 왼쪽만 쳐져요.

#2. 대패를 나무에 거는 방법

처음 시작 자세는 대패를 나무에 거는 겁니다. 이렇게 날이 나무 가까이 오도록 대패를 나무 위에 올리고. 애(대패)를 멀리서 땅 치면 이빨[날]이 다 깨져요. 일단은 제가 치지 않고 몸만 해볼게요.

#3. 대패 치는 자세

발은 뭐든지 시작은 정 가운데 정자세로, 배꼽을 정 가운데 맞추고 서서 그래야 정확하게 칠 수 있으니까요. 그리

고 편안한 쪽 한 보폭을 뒤로 나갈 건데 나갈 때 이 뒷꿈치가 나갈 때 무릎이 펴져 있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하나면 동영상 보거나 하면 이렇게 하거든요 이거는 막대패 할 때 자세예요 골반이 돌아가면 안 돼요. 균형을 잃어버리거든요. 정확하게 일자로 나가야 해요. 그런데 대부분 초보자들이 돌아가 있거든요? 왜그러냐 하면 빠진 다리가 굽혀져 버리면 몸이 들러 버려요 이렇게. 그러면 대패를 끝까지 누르지 못하고 이렇게 들러 버려요. 뒷꿈치 떨어지고 무릎 펴지고. 제가 지금 다리 한 보폭 빼면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상체는 숙여질 수밖에 없어요. 그 각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선형적인 연속을 따라 순차적으로 대패질의 자세와 방법을 따르던 초보자는 연습을 거듭할수록 점점 부분으로 나누어진 단계를 보다 큰 전체로 통합할 수 있게 된다. 처음 대패질을 배울 때 나는 대패를 잡는 법, 대패를 나무에 거는 방법, 대패를 치는 방법이라는 세 부분을 각각 하나의 목표로 잡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가령, 대패를 손으로 잡기 위해서는 엄지, 검지, 중지는 어미날을 나머지 두 손가락은 대패 몸통을 잡는 것과 같이 손가락을 각기 달리 움직여야 했다. 이것은 왼손이고 오른손은 엄지와 검지와 벌려 대패의 몸통을 움켜쥐어야 하는데 이 역시 대패를 놓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했다. 대패를 제대로 잡은 것인지를 확인하고 나서야 대패를 나무에 걸게 되는데, 거는 위치가 적절한지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여러 차례 대패를 움직여 보아야 하므로 이 또한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점차 대패질에 익숙하게 되면 대패를 잡는 법, 대패를 나무에 거는 방법, 대패를 치는 방법과 같은 세 부분은 더 이상 분절되지 않고 ‘단 번에’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대패질의 연속적인 부분에 대한 의식은 점진적으로 몸에 배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되는 일이 되는 것이다.



<사진 3-11> 대패와 인간이 함께 하는 대패질

부분에서 전체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교수자와 학습자는 앞서 폴라니(Polanyi, 1962)가 말한 초점식과 보조식을 오고가는 체험을 하게 된다. 먼저 교수자는 위의 유희인 조교와 같이 자신에게는 이미 보조식이 된 실천적 지식을 학습자를 위해 초점식으로 변화시킨다. 이 과정에서 그의 몸에 배여 있던 실천적 지식 가운데 일부는 명시적인 언어로 표현된다. 그리고 학습자에게는 ‘부분에서 전체로’ 이행하였던 과정이 교수자에게는 ‘전체에서 부분으로’ 뒤바뀐다. 학습자는 ‘전체에서 부분으로’ 실천적 지식을 세세하게 분절시키는 교수자를 통해서 ‘부분에서 전체’로 나아가게 된다.⁶⁹⁾

한편 부분들을 통합한 초보자의 전체와 숙련자의 전체는 질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 초보자는 어딘가 어설피고 조화롭지 않은 모습을 보이기 쉽다. 이때 숙련자인 교수자는 어설피나마 전체를 이루어가는 초

69) 여기에서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지만, 30년 가까이 회원들을 가르치고 있는 백만기는 강의경력 이 2년 정도로 짧은 유희인 조교에 비해 자신의 실천적 지식을 ‘전체에서 부분으로’ 분절하는 일에 능숙하였다.

보자의 실천적 지식에서 어떤 점이 부족한지를 정확히 읽어낸다. 그리고 그 지점을 초점식으로 주목할 수 있도록 초보자를 이끌어준다.

대패질에서 생긴 두 번째 변화는 무엇이 잘된 것이고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감(感)을 잡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유리불기 공예를 하는 사람들의 실천적 지식을 연구한 오코너(O'Connor, 2009)는 초보자들이 긴 대롱(pipe)을 불가마에 넣어 적절한 양과 온도의 유리를 모을 때 너무 많지도 않고 너무 적지도 않은 양,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식은 것도 아닌 온도와 같이 ‘적절함에 대한 감을 잡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였다.

나는 대패를 배우는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초보자들은 무엇이 제대로 된 상태인지를 모르는 상황에 자주 처하게 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대패질을 예로 들면, 대패질을 하기 위해서는 날카롭게 연마된 어미날을 준비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어미날 끝에 생기는 잔재⁷⁰⁾를 날 전체에 고르게 올라오게 만든 후 깔끔하게 없애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잔재가 날끝에 있는지 없는지, 굵은지 가는지를 감각할 수 있어야 하는데 초보자들은 이에 대한 감을 잡는 데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 따라서 어미날의 잔재를 적절히 올라오게 하고 정리하는 일은 입문반에서 중요한 수업내용으로 다루어진다. 다음은 현장노트의 일부로 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담고 있다.

백만기가 어미날 연마를 가르치기 위해 물통 앞에 앉았다. 먼저 1000방 물숫돌에 어미날 앞날을 한두 번 왔다갔다 한 후 왼손으로는 날을 들고 오른손 엄지는 날끝으로 가져갔다. 날끝을 훑듯이 엄지손가락 끝쪽으로 만져본 후 회원들에게 어미날을 건네주었다. “음. 됐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만져보세요. 뚝이 어디에 올라왔나 잘 보세요. 한 명씩 전부 만져보세요. 스스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선생님께서부터 날을 건네 받은 회원들은 선생님과 같은 동작으로, 어미날 끝을 만져보

70) 영어로는 ‘burr’라고 하며, 현장에서는 “뚝”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어미날과 같은 쇠붙이 끝에 거칠게 떨어져 나오는 미세한 조각을 가리킨다.

왔다. 나도 그들 사이에 앉아 있다가 차례가 되어 어미날을 건네받았는데 오른손 엄지로 날끝을 만져보아도 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긴가민가 하였다. 옆에 있던 솔안에게 어미날을 전달하며 “으음. 있는 건가 잘 모르겠네요.”라고 말하였다. 나에게 어미날을 건네받은 솔안은 “있는 것 같은데, 은아씨는 없어요?”라고 말하였다. 다음은 스페이스의 차례였다. “있는데요. 있어.” 나와 솔안은 스페이스를 바라보며 “그래요? 있어요?”라고 말하고는 뚱이 과연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도통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웃음을 터뜨렸다.

백만기는 대팻날 끝의 잔재가 있는지 없는지를 “스스로 볼 줄 아는 것”은 날물을 계속 연마해야 하는지 판단을 내리는 기준이 되므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때 대팻날 끝의 잔재는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크기인데, 사람들은 엄지 손끝으로 이것을 더듬고 만지는 촉각을 통해 보아야 한다.

폴라니(Polanyi, 1967)는 감을 잡는 것은 어떤 사물을 의미 있게 보려는 노력으로서, 이는 “상호 관련이 있다고 추정되는 단서들을 꼼꼼하게 조사하여 그 의미를 해석하는 탐구”(Polanyi, 1967/2015: 62)라고 말한다. “어떠한 사물은 우리가 그것에 주의를 집중해야 비로소 하나의 탐구 대상이 되는 것으로 사물로부터 우리가 어떤 특징을 의미 있게 지각해내는 가 하는 데서 문제의식 나타난다”(ibid.: 62).

듀이(Dewey, 1919)는 감각은 인지적이고 지적인 것이라기보다 정서적이며 실천적이라고 말한 바 있다. 감각은 선행적인 행위와 그에 따른 몸의 적응이 방해를 받아서 발생하는 변화에 대한 충격이다. 이런 점에서 “감각은 행위의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Dewey, 1919/2010: 127)로서 이후의 탐구 행위를 자극한다. 우리는 이러한 실천 가운데 이러한 감각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듣게 된다. “이런 충격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교란된 환경과 나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것에 관해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환경에서 발생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나의 행동 방식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가? 그런 변화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나의 행동을 재조정해야 하는가?”(ibid.: 128)

그런데 초보자들은 처음 접하는 모든 것에 주의를 기울이다보니 산만하고 어떤 부분이 다른 부분과 관련되는 것인지,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비해 숙련자들은 자신의 주의를 끄는 부분에 주목하는 능력이 발달해 있는데, 학습자는 이러한 숙련자 곁에서 그가 주목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살피고 함께 해봄으로써 문제에 대한 모종의 감을 잡아가게 된다. 백만기는 자신에게는 선명하게 보이는 문제인 “똥”을 아직 보지 못하는 학습자들을 위해 “똥”을 일부러 크게 만들거나 굵은 “똥”과 얇은 “똥”을 만져보고 그 크기를 가늠해 보게 함으로써 학습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다음은 어미날 뒷면을 연마하는 중에 학습자가 주목해 본 문제와 교수자가 주목하는 문제가 다른 경우를 보여준다. 은우는 날의 왼쪽 끝에 생긴 “흐릿한 색”에 주목하였지만, 백만기는 평이 안 맞아서 “균일하게 안 나온 색”에 주목하였다.

은우가 다이아몬드 슛돌에 어미날 뒷면을 연마하고 있다. 은우는 날의 왼쪽 끝이 흐릿한 색이라는 점이 문제라고 보았는데, 백만기는 그것보다 평이 안 맞아 빛깔이 균일하게 안 나왔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였다. “빛깔이 균일한지 보는 안목이 생겨야 돼요. 안목이 생겨야 더 같지 안 같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으니까.”

이와 같이 학습자는 교수자와 함께 “자신의 주의를 끄는 세부 사항에 주목해 보고, 그 주목이 옳은지 그른지를 고생하여 발견하는 체험을 하며 그 장면이 점점 더 의미로 가득 차 간다는 것을 깨닫는다”(Dreyfus, 2009/2015: 108).

대패와 나의 관계에서 생긴 세 번째 변화는 옛 습관에서 새 습관으로의 이행이다. 듀이(Dewey)는 경험의 계속성 원리를 습관이라는 개념을 통해 말한 바 있다. 그는 우리가 어떠한 경험을 하고 경험의 결과를 겪는다고 할 때 그 경험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이후의 경험에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경험을 통해 우리는 습관을 형성하게 되는데, 습관은 “정서적이고 지적인 태도의 형성을 포함하며, 삶의 과정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삶의 조건들에 대한 기본적인 감수성과 그러한 조건들을 대하고 그것에 반응하는 방식들을 포함한다”(Dewey, 1938/엄태동 편저, 2001: 47).

나는 대패질을 배우고 다른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교수자가 배우기를 원하는 자세와 학습자가 실제 취하는 자세가 반대로 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었다. 다음은 나의 학습일지 중 일부인데, 대패를 치는 자세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백만기는 한 사람씩 대패를 직접 쳐보게 하고 잘못된 점을 바로 잡아주었다. 내 차례가 되었을 때, 선생님은 먼저 대패를 잡은 내 손가락을 가다듬어 바로 잡아주었다. 그리고 배와 손에 힘을 주고 하나, 둘, 셋 할 때 오른쪽 다리를 뒤로 빼고 편 상태로 있으라 하였다. 하나, 둘, 셋! 선생님 말씀에 따라 몸을 숙이기 위해서는 오른쪽 다리를 굽히면 안 되는데, 나는 자꾸 오른쪽 다리가 굽고 몸이 일으켜졌다. 자, 다시 하나, 둘, 셋! 여전히 오른쪽 다리가 굽고 몸은 일으켜져 있다.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이 놈의 오른쪽 다리는 왜 이렇게 자꾸 굽고 몸은 안 숙여지는 거야! 나는 내 몸인데도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민망하여 얼굴이 붉어졌다. 선생님은 두세 차례 자세를 잡아주다가 계속 잘 안 되니 내 목 뒤쪽 옷을 움켜쥐고 몸이 일어나지 못하게 막았다. 그리고는 팔이 아니라 몸으로 당기라고 소리쳤다.

대패를 칠 때 몸으로 힘을 주기 위해서는 상체를 숙여야 하는데 이렇

게 되려면 뒤로 빼는 오른쪽 다리를 펴야 한다. 그런데 대패를 치는 데 익숙하지 않은 나의 몸은 계속 반대로 움직였다. 다음은 입문반에서 대패를 배운 산초의 학습일지이다.

어느 정도의 연마를 다듬어낼 수 있게 되고 본격적인 대패질의 시작, 처음에는 척하고 나무를 반을 쪼갤 것처럼 날을 도끼처럼 많이 빼놓고도 해보고 한쪽만 많이 빼놓은 줄도 모르고 그냥 죽자고 막 쳐보기도 하고. ... 될 리가 만무합니다. 손목은 어찌나 아픈지... 무게중심이동을 못하는 이유를 처음에는 축구하다 다친 왼쪽 무릎 탓을 하며 보조목을 왼발 앞꿈치에 대고 해보고, 좀 나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합니다. 통증도 아프다 못해 얼얼하니 손목은 아직도 내 팔이 붙어있는 것인지 가끔씩 쳐다봅니다.

안 되도 너무 안 됩니다. 나들목 선생님 보일 때마다 자세 한번 봐달라고 하고, 호인조교님 지나다닐 때마다 왜 안 되냐 물어보고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천천히 대패를 잘 파지하고 몸이 들리거나 휩 빠지지 않게 잘해 보랍니다. 누구나 당한다는 선생님께 뒷목 깃을 잡히고 대패질 하기는 필수였구요.

그렇게 몇 날, 몇 일을 대패질을 했는지도 모르게 온몸은 아파오고 주먹은 쥐어지지도 않고 손목은 내 손목이 아닌거 같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선생님 붙잡고 묻습니다. 손가락 이랑 손목이 너무 아픈데 다들 이런 게 맞냐고, 돌아오는 대답은 대패를 너무 짝 쥐면 그러니 파지를 잘하고 당기기를 잘하고 몸을 쓰라고... 손을 좀 편하게 감아쥐고 슬슬 천천히 당겨봅니다. 손과 손목은 좀 편안해졌지만 대패는 잘 안쳐잡니다.

산초 역시 대패 치는 자세와 리듬을 익히는 가운데 자신의 옛 몸과 새롭게 변해야 할 몸 사이에서 부조화를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는 “몸을 쓰는” 대신 “손가락과 손목”을 써서 통증을 느낀다. 몇 일 동

안 연습을 하던 중 백만기는 그에게 “몸을 쓰라”고 조언해 주는데 그는 손가락과 손목을 쓰지 않으려 노력하고 그제서야 편안한 느낌을 갖게 된다.

몇 일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 선생님이 지나가시면서 대패질 하는 저를 가만히 보시곤 한 마디 하십니다. 리듬을 타라! 하나, 둘, 셋 하고 쑥 당겨! 잉? 천천히 하라매? 잘 보고 하라매? 힘으로 잘 누르고 하라매? 원,투, 뜨리, 쑥~ 하라고?

선생님 앞에서 이렇게요? 하면서 한 번 원,투, 뜨리, 쑥~ 해 봅니다. 어라?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랍니다. 그때 든 생각은 이래서 소림사는 물 길어오라고 몇 달을 시키고 마당 쓸고 눈 쓰는 걸 몇 달을 시키는 거구만! 생각해 보면 몸 자체가 힘도 없었을 뿐더러 발란스[균형]가 안맞는 상태에서 아무리 리듬을 타봐야 대패가 춤을 추는 것은 당연한 것이거늘.

힘이 붙고 손에서 대패가 좀 쥐어진다고 싶어지니 선생님 눈에도 이쯤 되면 쑥 해봐도 되겠다 정도로 보였을 것 같더군요. 그때 깨달은 대패질의 리듬 자체는 잊어버리기 어려울 정도로 인상이 깊었네요.

다시 몇일이 지나고 그가 대패 치는 모습을 지켜 보던 선생님은 리듬을 타라고 말한다. 이는 그동안 천천히 몸에 힘을 주고 했던 것과는 다른 가르침이어서 산초는 당황하지만, 리듬 타는 연습을 몇 차례 하면서 자신의 옛 몸은 “몸 자체가 힘도 없었을 뿐더러 발란스[균형]가 안맞는 상태”였기 때문에 리듬을 타라고 가르칠 수 없었던 것임을 깨닫는다. 산초의 대패질 연습에는 ‘손가락과 손목으로 힘을 주던 몸’에서 ‘천천히 몸에 힘을 주는 몸’으로, 그리고 다시 ‘리듬을 타는 몸’으로 계속 자신의 몸을 재구조화 해가는 과정이 잘 드러나 있다.

메를로-퐁티(Merleau-Ponty, 1945)는 몸이 세계를 구조화하는 능력을 몸틀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몸틀을 통해 몸은 대처해야 할 대상들 혹은 상황이 요구하는 형태들을 자신 속에 구조화할 수 있다. 몸은 세계를 체험하면서 획득하게 된 습관적인 형태들을 축적하게 되는데, 이렇게 축적된 습관이 몸틀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몸틀은 구조화된 것이면서 동시에 세계를 구조화하는데, 이러한 몸틀의 이중적 운동을 통해 우리는 전혀 대한 적이 없는 대상이나 상황에도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 가령, 피아노를 연주하는 몸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번도 연주해 보지 않은 악보라 할지라도 연주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다시 산초의 경우로 돌아가 보면, 산초는 대패를 배우기 전후에 다른 몸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나는 종종 대패질을 연습하는 산초 곁에 가서 인사를 나누곤 하였는데, 대패질이 원하는 대로 안 되던 산초는 반쯤 웃으면서 “슬슬 짜증이 날려고 하네요.”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새 몸틀이 되고 싶지만 옛 몸틀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학습자는 산초와 같이 좌절감과 실망감을 맛볼 수밖에 없다.

메를로-퐁티(Merleau-Ponty, 1945)는 몸틀의 재구조화를 습관의 획득으로 보고, 습관의 획득은 신체를 통해 이해하는 것임을 강조한다.

우리는 습관을 획득하는 데 있어서 ‘이해하는’ 자는 신체라는 것을 보다 강하게 말하고 싶다. 이해라는 것이 감각 소여를 관념에 포섭하는 것이고 신체가 대상이라면, 이러한 공식은 불합리하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습관의 현상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다’ 및 신체에 대한 우리의 개념을 수정하도록 만든다.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가 겨냥하는 것과 주어진 것 사이에서, 의도와 실행 사이에서 조화를 경험한다는 것이고, 신체는 세계에 닿을 내리고 있는 우리의 정박지이다. (류의근 역, 2002: 230)

그런데 새로운 습관을 획득하고자 하는 몸들은 구조화된 옛 몸들을 끌어 안고 있기 때문에 “겨냥[목표]하는 것과 주어진 것 사이에서, 의도와 실행 사이에서 조화를 경험”을 쉽게 하지 못한다. 여기서 옛 몸들은 주어진 것이자 실행되는 것에 해당한다면 새 몸들은 겨냥[목표]하는 것이자 의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무엇인가를 이해하고자 하는 학습자는 자신의 옛 몸들을 새 몸들로 변형시키는 과정 중에 있으며, 새 몸들을 갖게 되었을 때 학습자는 새로운 의미를 깨닫는다.

도구의 체화와 관련하여 대패가 교육활동이 전개되는 현장에 ‘사물’로서 있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물론 대패는 사물이면서 동시에 언어나 그림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그러나 대패는 언어나 그림과 같은 ‘표상으로만’ 교수자, 학습자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표상과 함께 실제 사물로서 존재한다. 이러한 사물로서의 대패는 그의 몸에 새겨진 기호를 갖고 있다. 학습자가 대패질을 직접 하며 배우는 과정에서 대패는 학습자의 머릿속에서 갑자기 떠올랐다가 사라지는 표상이 아니라 목공 활동이 지속되는 동안 그 활동의 일부로서 참여하는 사물이자, 인간 몸의 일부가 되는 사물이다.

대패와 관계를 맺고 실천적 지식을 습득한다는 것은 이러한 사물로서의 대패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언제 사용하고, 그것들이 나타내는 기호를 따라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아는 것을 포함한다(Dohn, 2014). 이는 무엇보다 “명제적으로 반성을 통해 아는 것이 아니라 수행적으로, 상황에서 요구되는 행위로서, 그 요구에 대한 반응 안에서 아는 것”(Dohn, 2014: 70)이다. 다시 말하여 “사물은 사유되는 대상이 아니라 보고 듣고 말하고 사용하는 등 행위의 대상이 된다”(조현영·손민호, 2017: 32).

사물로서의 대패는 무게, 질감, 강도, 휘어짐과 같은 물리적 특성을 갖는 동시에 이러한 대패를 이루는 부분들이 잘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의미의 규칙도 갖는다. 대패의 이러한 물질적 기호들은 인간의 의도에 따라 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패질을 한다는 것은 대패를

구성하는 부분적 요소들 간의 물질적 기호뿐만 아니라 대패와 나무, 대패와 환경, 대패와 인간과 같이 여러 층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물질적 기호에 반응함을 뜻한다. 어미날과 덧날을 원하는 대패밥의 두께만큼 붙이기 위해서는 어미날과 덧날이 맞닿는 끝의 미세한 두께를 읽어내고 필요한 만큼 망치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대패질을 해야 하는 나무의 수종과 상태에 따라서 같은 어미날이라고 할지라도 각도를 달리 하여 연마해야 하는데, 단단한 나무일수록 고각의 날물이 필요하다. 대패집은 가시나무로 되어 있는데 어미날과 덧날의 무게에 의해, 공기 중의 수분에 의해 대패집의 바닥이 변형된다. 학습자는 이러한 변형을 감지하고 대패집의 바닥을 수평으로 맞출 수 있어야 한다. 대패질을 할 때 대패를 잡은 손과 다리 등 온 몸의 움직임이 일정한 리듬에 맞추어야 하는데 이 리듬은 대패, 인간, 나무가 함께 만들어내는 물질적 기호에 적절히 반응할 때 형성된다.

따라서 도구를 외부의 다른 것들과 분리한 채 하나의 독립된 실체로 바라보지 않고, ‘도구-제작자-재료’가 이루는 관계와 그 관계를 통해 수행되는 실천의 관점에서 탐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도구를 표상으로 환원하지 않고 물질성을 갖는 사물로서 제작자의 몸, 그리고 나무라는 재료에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측면에도 주목해야 한다. 대패와 같은 사물은 고정된 속성을 가진 실체로 인간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목공 활동을 수행하는 데 인간과 함께 참여하면서 인간으로 하여금 특정한 반응을 보이게 유도한다.

초보자들은 주목의 대상에 대하여 둔감함에서 민감함으로 발달된 감각을 얻게 된다. 둔감한 시기에 사물과 인간의 관계는 서로에 대한 강한 저항감을 드러낸다. 대패의 모양에 맞게 손가락과 몸의 자세, 힘이 변하면서 둘은 서로의 요구에 맞추어 조율이 되면서 점차 부드럽게 조화를 이룬다.

완전히 보조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전의 습관으로 돌아가려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게 된다. 교수자는 이러한 모습이 보일 때마다 보조식

을 다시 보게 가르쳐준다. “몸이 또 그대로 서 있어요. 숙이면서 당기세요.” “손가락 위치가 잘못되었어요. 다시 잡아보세요.” “왼쪽으로 힘이 더 많이 들어갔어요.” “대팻밥을 계속 보세요.” 나무와 대팻밥에 주목하기 위해서는 대패-손이 이루는 보조식, 움직임에 의식적인 주의를 기울여 익숙해지도록 갖고 닦아야 한다.

학습자들은 자신의 몸에 축적되어 있는 습관들을 가지고 실천에 참여한다. 학습자들은 대패를 만나기 전의 습관이 새겨진 몸으로 대패와 관계를 맺기 시작하므로 대패와 자신들 사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른다. 나는 나무의 한쪽을 계속 비뚤게 대패질을 하면서도 대팻날에 문제가 있는지, 자세에 문제가 있는지, 누르는 힘에 문제가 있는지 알지를 못하였다. 호인이 다가와 내가 쓰던 대패를 나무에 올려놓자마자 “이거 너무 비뚤게 되었네요. 날이 한쪽으로 많이 나온 거 같은데요.”라고 말하였다. 이처럼 교수자는 도구와 나무에 새겨진 흔적들을 보고 바로 잘못된 부분을 알아차리거나, 학습자에게 다시 해볼 것을 요청하고 그 실천을 관찰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알아차린다.



<사진 3-12> 학습자와 교수자, 두 몸의 만남

교수자들은 학습자가 사물과 관계를 맺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주의 깊고 끈기 있는 자세로 바라보고 학습자와 사물이 뒤엉켜 만들어낸, 대패-나무-학습자의 몸에 새겨진 잘못된 기술을 명료한 산문처럼 읽어낸다. 이는 교수자 역시 자신의 몸에 축적되어 있는 습관들을 가지고 실천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곧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의 몸에 새겨져 있는 습관은 대패와 같은 사물을 다루는 실천 속에서 겹쳐지면서 차이를 발생시키는 역할을 한다. 위의 <사진 3-12>는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학습자(사진에서 왼쪽)가 대패질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교수자(사진에서 오른쪽)는 “여기서 힘을 더 줘야 해.”라고 말하며 자신의 손으로 학습자의 손에 겹쳐 놓는다. 그리고 “지금 내 손의 힘이 느껴져?”라고 말하며 자신의 몸에 습관으로 배여 있는 대패질을 하기에 적절한 힘을 몸으로 표현한다. 우리는 체화된 역사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습관을 통해 실천을 하고, 학습자와 교수자의 습관 차이는 새로운 배움이 필요한 지점을 드러내준다.

2) 횡적 연대

백만기의 짜맞춤기술이 후속세대와 연결되어 새로운 학습자를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에서 한 세대와 다음 세대가 연대하게 되는 것을 종적 연대라고 한다면, 같은 시공간상에서 그 의미와 가치를 소통하고 공감하는 측면은 횡적 연대라 할 수 있다.

짜맞춤 전수관에서는 2개월 단위로 운영되는 교육과정을 ‘기수’로 구분하고 있는데, 같은 기수에서 목공을 배우는 사람들을 ‘동기’라고 부른다.⁷¹⁾ 나는 입문반 33기로 여러 동기를 사귀었는데 연구를 위해 다른 기

71) 이와 같이 한 교육과정에서 함께 배우는 기수를 동기라고 하는 것은 좁은 의미에서의 동기에 해당하는데, 학습의 시간이 점차 흘러 초보자들이 숙련자가 되어가면서 이전 기수와 이후 기수는 공감의 영역이 생기게 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짜맞춤가구 만들기를 배운 사람들은 넓은 의미에서의 동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동문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수의 수업도 참여관찰하면서 그들과도 동기로 지내게 되었다. 이러한 동기들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 목공을 배우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새롭게 발전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된다. 그러는 동안 도구의 상태가 어떠한지, 어떤 도구가 좋은지, 나무는 잘 가공되고 있는지 등을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이러한 대화는 일상생활의 안부를 주고받는 일을 대신하게 되고 수업 시간은 물론 쉬는 시간에도 중요한 대화의 소재가 된다.

가령, 떡금칼로 나무에 선을 긋고 있는 나에게 다가와 “오늘은 톱질 잘 되요?”, “떡금칼 날이 무더진 것 같은데 한번 갈아서 쓰는 게 어때요?”, “오! 칼금을 제대로 스쳤군요.”와 같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는 어떻게 도구를 사용해야 하는지, 어떤 상태가 좋은 것인지를 이해해야 하므로 대화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초보자에서 숙련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중요한 표시가 된다. 목공의 세계는 이와 같이 도구에 대한 대화를 통해 실천적 지식을 소통하고 공유하는 사람과 사물로 이루어진다.

유리불기 세계에서 실천적 지식이 어떻게 발달하는가를 연구한 O'Connor(2009)는 제작자-물질-도구의 사이에서 표현되는 이러한 대화를 ‘tool talk’라고 불렀는데, 이를 통해 사람들은 유리불기 과정에서 체득하는 감각에 대해 소통하면서 공감적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대화는 유리불기라는 세계를 형성하고 그 세계에서 느낄 수 있는 의미와 가치를 풍성하게 만드는 데 기여한다고 보았다.

나는 칼금을 스치면서 직선으로 내려가는 톱질을 하는 데 애를 먹었는데, 톱질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톱길을 낼 때 칼금을 스쳤다고 해도 그 후에 톱날이 바깥으로 빠지거나 반대로 안으로 들어와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톱을 좌우로 크게 움직이다 보니 전체적인 톱질이 많이 흔들렸다. 나의 동기 중 “에이스”로 불리는 싸클은 톱질도 상당히 잘 하여 처음 톱질을 배운지 며칠이 안 되어 칼금을 스치고, 직선으로 반듯하게 톱질을 해냈다. 나는 싸클이 톱질을 할 때면 곁에 다가가 그의 손동작,

전체 몸의 자세, 톱의 움직임에 유심히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싸클처럼 톱질을 잘 할 수 있는지 물어보곤 하였다. 때로는 나의 자리로 싸클을 불러 내 톱과 나무로 톱질을 한번 해줄 수 있느냐고 요청하기도 하였다. 하루는 잘 되지 않는 톱질에 성질이 나서 한 손으로 해야 하는 톱질을 두 손으로 무리하게 하고 있는 나를 보더니 싸클이 “은아님, 화가 많이 났네.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돼. 다칠 수 있어.”라고 말해 주었다. 나는 “아유, 정말 안 되네요.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이것 좀 보세요.”라고 말하며 톱질이 엉망으로 된 나무를 싸클에게 보여주었다.

또 다른 동기로 벽하가 있었는데 그는 35기였지만 연구과정에서 매 수업시간마다 함께 시간을 보내다보니 친하게 지내게 되었다. 그날은 먹금칼로 칼금을 긋고 톱질을 하는 방법을 배우는 첫 시간이었다. 벽하를 비롯한 회원들은 개인 실습시간에 나무 각재에 칼금을 1cm 간격으로 그은 후 칼금을 스치며 직선으로 톱질하는 연습을 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 주변을 돌아다니며 어떻게 톱질을 하고 있는지 관찰하던 중에 벽하 앞으로 가게 되었다. 벽하가 나에게 가까이 와보라는 손짓을 하며 “이것 봐요. 톱질이 어렵구나. 아! 이게 스쳤다! 봐봐요. 이걸 아예 먹어 버렸고 이걸 너무 남았는데, 이걸 잘 스쳤죠?”라고 말하였다. 나는 벽하가 톱질한 나무를 같이 살펴하며 “아. 정말 그렇네요. 이 쪽이 버리는 쪽인 거죠? 이걸 정말 잘 스쳤어요. 벽하님, 잘 스친 것 먹금칼로 가리켜 주세요. 톱질 잘 한 기념으로 사진 찍어 놓게요.”라고 말하며 사진을 찍었다.

벽하와의 대화에서 볼 수 있듯이, 톱질의 결과는 “좋은 것”, “잘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초보자들은 이를 판단하는 일부러 배워 나간다. 톱질의 결과에는 톱의 상태, 톱의 움직임, 사람의 자세, 톱을 잡은 상태, 칼금에 댄 나무 연귀자의 위치 등 톱질의 모든 과정이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초보자인 동기들은 “좋은 것”, “잘된 것”이 애매한 결과를 놓고 서로 자신의 판단이 맞는지 물어보면서 확인하기도 하고, 잘 되지 않은 것을 보여주면서 실망감이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한다. 이처럼 동기들과의 대화에는 지식적인 내용뿐

만 아니라 목공을 배우면서 갖게 되는 감정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대화 공동체를 통해 동기들은 서로의 학습을 자극하고 격려하며 실천적 지식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간다.

나와 동기들은 이 대화 공동체를 형성하며 백만기가 먹금칼로 그은 칼금을 처음으로 스쳤을 때 느꼈던 “어마어마한 감동과 희열”에 참여하고, 먹금칼의 실천적 지식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배움의 과정을 함께 한다. 실천적 지식의 확산은 그것을 계속 실천하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배우며, 정성껏 돌보는 가운데 이루어진다. 학습자들의 대화 공동체는 이러한 행위들이 일어나는 관계로서 먹금칼의 의미와 가치를 ‘지금-여기’에 존재할 수 있게 한다.

‘tool talk’를 나누는 것과 같이 동기들과 대화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먹금칼의 의미, 사용하는 방법, 주의사항 등을 함께 배워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먹금칼이라는 사물, 이와 관련된 언어, 배우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과 다양한 감정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오고가게 된다. 이는 매우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이어서 자칫 사소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학습 동기들 간에 끈끈한 유대감을 쌓고 짜맞춤 목공이 갖는 매력과 가치를 함께 공유하고 공감하는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먹금칼을 손에 잡고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것, 즉 배움의 시간을 산다는 것은 앞서 태어난 사람들이 했던 노력이 침잠되어 있는 시간 속에 인격적으로 참여하는 일이다. 먹금칼을 쓸 수 있도록 배우는 과정은 먹금칼을 길들이면서 동시에 먹금칼에 의해 길들여지는 시간이다. 이 시간은 인격적으로 참여하는 개인과 그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대화 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우정의 시간으로 두툼한 두께를 갖는다.

종적 연대는 백만기가 그의 스승 조석진으로부터 배우고 동시에 스스로 학습하며 체득한 짜맞춤 목공을 후속세대들에게 가르치는 과정과 같이 한 세대와 다음 세대가 연결되는 것을 의미한다. 횡적 연대는 짜맞춤 전수관의 수업에 함께 참여한 동기들이 ‘도구 이야기(tool talk)’를 나누

며 교류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학습에 도움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종적 연대와 횡적 연대를 가능하게 하는 짜맞춤 전수관을 통해 수공구, 그에 대한 앎, 새로운 학습자들은 계속 연결되어 목공의 세계를 지속되게 할 수 있다.

4. 새로운 전통 만들기

짜맞춤 전수관은 만들기를 좋아하고 나무에 매력을 느끼는 일반인들이 짜맞춤 목공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며 그들의 필요와 애정이 담긴 가구를 만들 수 있게 하는 교육 장소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목공방에서 짜맞춤가구는 어떠한 것으로 만들어지고 있는가? 또한 사람들은 짜맞춤가구를 만들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가? 다음에서는 짜맞춤가구의 변화와 온-오프라인의 교차를 통해 이루어지는 목공 활동을 통해 짜맞춤 전수관에서 새로운 전통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1) 짜맞춤 가구의 변화

짜맞춤 목공이 사라지지 않고 조선시대 전문 장인들의 작업실에서 오늘날 목공방으로 지속될 수 있는 것은 짜맞춤가구를 가치 있는 것이 되게 하는 적극적인 실천들을 통해 가능하다. 짜맞춤가구의 가치는 짜맞춤가구 자체에 있는 것도, 사람들이 짜맞춤가구에 부여하는 의미에만 있는 것도 아니다. 견고하고 아름다운 짜맞춤가구와 이를 가치 있는 것으로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의 공조(共調; co-ordination)를 통해 짜맞춤가구의 가치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짜맞춤가구’라는 하나의, 같은 이름으로 불리는 조선시대의 짜맞춤가구와 오늘날 짜맞춤가구는 어떠한 모

습으로 존재하는가? 사람, 도구, 재료, 기술 등이 함께 얽히어 만들어지는 짜맞춤가구는 오늘날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이 연구를 수행하는 동안 짜맞춤 전수관의 복도에는 작품 전시공간이 있는데, 이 곳에는 조석진이 먹감나무로 만든 문갑과 좌식 테이블이 놓여 있었다(<사진 3-13>, <사진 3-14> 참조). 나는 두 가구의 모양새가 주는 느낌으로 볼 때 문갑은 ‘전통’ 가구로, 좌식 테이블은 ‘현대’ 가구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물음을 가지고 있었다. 문갑은 시간적으로 좀 더 오래 전에 만들어졌고 현대에는 쓰지 않을 것 같다는 점에서 ‘과거(전통)’의 느낌을 주었고, 좌식 테이블은 지금 바로 사용할 수 있겠다는, 곧 ‘현재(현대)’의 느낌을 주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어떤 개인적인 취향에서 비롯한 느낌이라기보다 사십 년 가까이 한국에서 자라온 내가 일상생활, 박물관, TV, 책 등을 통하여 ‘전통’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해왔기 때문이다.



<사진 3-13> 조석진이 만든 문갑



<사진 3-14> 조석진이 만든 좌식 테이블

그런데 이와 같이 ‘과거(전통)’, ‘현재(현대)’라는 분류 기준을 받아들이는 경우, 조선시대의 짜맞춤가구를 전통 가구로 보게 된다. 그렇다면 조석진이 만든 좌식 테이블은 짜맞춤가구의 전통이라고 볼 수 없는가? 또 지금 현재 짜맞춤 전수관에서 그가 만들었던 것과 전혀 다른 새로운 디자인의 짜맞춤가구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은 전통에서 벗어나 있는 것인가?

전통과 주체의 관계는 ‘전통계승론’과 ‘전통창출론’이라는 두 관점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임근혜, 2016). 전통계승론은 현대사회에 존재하는 전통을 잔존문화로 바라보고 무형문화재를 통해 과거 문화가 어떻게 보존되고 있는지, 혹은 보존되어야 하는지를 논의하는 입장을 가리킨다. 이러한 전통계승론은 고정된 형태의 문화를 전제하고,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장인에게 이를 재현하고 보존하는 역할과 정체성을 부여한다. 앞서 언급한 짜맞춤의 구조와 기술에 한정하여 짜맞춤가구의 전통을 말하는 것은 이 중 전통계승론의 입장과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전통창출론은 변화하는 시대적, 사회적 상황 가운데 문화를 재해석하고 새로운 기술 개발과 적용 전략 등을 발전시키면서 문화를 만들어어나가는 주체의 삶에 주목한다. 이러한 관점은 과거의 잔존문화가 아닌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화와 그 문화를 만들어 가는 주체의 실천을 중요하게 여긴다. 전통은 당해 문화의 주체인 인간이 과거와의 연속성 속에서 지속과 창출의 과정을 통해 현재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조용환(1997)은 문화전달이론(theories of cultural transmission)과 학습인류학(anthropology of learning)의 차이점을 논의하였다. 먼저 문화전달이론에서는 문화를 포괄적으로 전달이 가능한 통합되고 안정된 체제로 파악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를 전달하는 집단이나 교수자의 역할을 곧 교육이라고 보며 개인이나 학습자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부여한다. 문화전달이론은 문화의 형성과 변화라는 역동적 측면, 구체적인 삶의 맥락 가운데 전개되는 역사적 측면, 교수와 학습의 상호작용적 측면을 주목하지 않는다. 이와 달리 학습인류학은 문화를 초유기체적인 무엇에 의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 각자가 사회적 경험을 통해 부단히 (재)구성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임근혜(2016)와 조용환(1997)의 논의에서 볼 수 있듯이 전통계승론과 문화전달이론에 대한 비판적 대안이 제시하고 있는 공통점은 전통을 ‘주체와 독립된 실체’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의 실천들과 얽혀 있는 것’으로 본다는 데 있다. 이러한 실천들에는 임근혜(2016)가 안성 유기를 만드는 장인들의 정치적·경제적 실천에 주목한 바와 같이 다양한 종류가 있을 수 있다.

전통의 계승은 어떠한 유무형의 산물을 복원할 수 있는가의 문제보다 전통을 통해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더 나은 것이 되어 가는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조정호, 2007). 이는 어떠한 전통의 가치를 선언적으로 강조하거나 선형적으로 전제하기보다는 전통이 현재의 우리 삶에 어떻게 활용되어 가치 있는 전통으로 이어지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이때 전통을 특정한 짜맞춤가구라는 대상 속에 고정된 속성들로서가 아닌 다양하고 이질적인 것들의 마주침과 연결을 통해 수행되는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미국의 수제 치즈 만들기를 연구한 팩슨(Paxson, 2013)은 ‘만들어진 전통(invented traditions)’과 ‘전통 만들기(tradition of invention)’를 구분한다. 홉스봄(Hobsbawm, 1983)의 연구로 사회과학 분야에서 주목을 받게 된 만들어진 전통이라는 개념은 현재의 문화적 실천들이 의미 있다는 것을 과거와의 연속성을 주장함으로써 확인하려고 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가치의 기준이 과거에 있다는 것이다. 반면 전통 만들기는 어떠한 전통의 의미와 실천이 부단히 현재의 삶 가운데 변화하고 있음을 긍정하는 것이다. 팩슨(Paxson, 2013)은 1800년대부터 시작된 수제치즈 만들기가 오늘날 미국에서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고 사람들의 취향과 필요에 맞추어 변화하면서 동시에 예전의 장인들이 했던 방식처럼 손으로 만든 치즈를 만드는 노력이 공존하는 모습을 분석한 바 있다. 같은 맥락에서 임근혜(2016)도 안성맞춤 유기가 조선시대 후기의 수공업,

식민지 시기의 근대화, 1960년대의 지역 전통문화상품화, 1970년대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과정을 거치면서 그 의미와 가치가 계속 변화하였음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전통 만들기’의 입장을 따라 시대와 상황에 따라 가구 만들기의 의미와 실천은 계속 변화하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그리고 전통 만들기를 기술의 전수라는 제한된 관점을 넘어 전통을 번역하고 다시 쓰는 수행성으로 바라보고자 한다. 문화는 추상적인 체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다시 감각되고, 사유되고, 재해석되는 것이다(김현미, 2005). 따라서 “과거는 뛰어넘어야 하는 대상이 아닌 재고하고, 반복하고, 둘러싸서, 보호하고, 재조합하고, 재해석하고 다시 섞어야 하는 대상이 된다”(Latour, 2009: 194). 이러한 전통의 다시 쓰기는 특정한 관심을 가지고 특정한 위치에 있는 인간과 그를 둘러싼 다양한 사물들에 의존하여 실천된다.

짜맞춤 전수관에서 학습자들이 만들고 있는 짜맞춤 가구는 조선시대의 짜맞춤 가구와 디자인, 용도, 크기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학습자들이 만드는 가구는 면분할이 많고 장식적 요소가 많은 조선시대의 가구와 달리 보다 간결하고 단순한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가구의 종류와 이름도 달라져 있었는데, “콘솔”, “의자”, “상자”, “테이블”처럼 현대의 주거 생활에 필요한 가구들을 만들고 있었다. 또한 “오디오 거치대”, “스피커”와 같이 새로운 가구를 만드는 시도도 볼 수 있었다.

짜맞춤 가구는 사람들의 관심과 취향 필요, 주거 환경, 다른 가구들과의 조화라는 상황에 맞추어 다른 형태로 만들어진다. 나는 목공방에서 사람들이 다시, 새롭게 만들고 있는 짜맞춤 가구를 통해서 전통은 조선시대의 짜맞춤 가구와 같은 산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실험하고 번역하는 과정을 통해 다시 쓰여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들이 만들고 있는 짜맞춤 가구는 조선시대의 짜맞춤 가구라는 원형과 기원으로부터 얼마나 가깝고 멀리 있는가의 문제가 아닌 새로운 실험과 번역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떻게 생성되고 있는지, 이를 통해 전통

이 어떻게 다시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주목하게 한다. 백만기는 목공방에서 회원들이 이 시대의 감성과 삶의 이야기를 담은 짜맞춤 가구를 만들어 가는데 자신의 얹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가르침에 헌신하고 있었다.

우리 생활하는 사람들과 같이 만나서 여기서 우리가 새로 문화를 만들어 내면 그게 우리 전통이 되는 거지. 그걸 뒤편 옛날 이 형식을 그대로 갖다가 만들어야 전통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작지만 이야기가 있는 가구를 만들어 가면 좋겠어요. 우리 시대에 맞는 우리의 가구, 사람의 정체성과 시대의 가치가 담긴 그런 가구를 이제 전수관의 새 회원들이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백만기는 조석진과 같은 윗세대들이 만든 가구는 조선시대부터 만들어 왔던 가구의 치수를 조금 바꾸는 정도였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것과 같이 옛날의 가구를 그대로 만들어야 전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시대에 맞는 가구, 가구를 만드는 사람의 정체성과 시대의 가치가 담긴 가구를 새롭게 만드는 일에 전수관의 사람들이 동참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짜맞춤 가구를 새롭게 만들어 감으로써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고 이러한 문화가 지속된다면 이 역시 전통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뜻이기도 하였다.

짜맞춤 전수관의 회원들에게 어떤 가구를 만들고 있는지 혹은 어떤 가구를 만들고 싶은지 물어보면 조선시대의 가구를 따라서 만들어 보고 싶다는 경우와 자신의 집에 있는 가구와 어울리는 가구를 만들고 싶다는 경우로 구분이 되었다. 이를 통해 짜맞춤 가구는 어느 특정 시대의 것이 바람직하고 좋은 것으로 미리 규정되어 있다기보다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주위의 가구들, 집의 환경, 취향, 필요와 함께 다양하게 만들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짜맞춤 가구는 하나의 대상으로 정해져 있고 이에 대한 사람들

의 관점이나 해석이 복수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짜맞춤 가구가 다르게 만들어진다는 점이 중요하다. 문화는 가치나 규범에 불박혀 있을 뿐만 아니라 물질에도 불박혀 있으며, 사람들은 새로운 디자인의 짜맞춤 가구와 함께 새 전통을 써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계속되는 만들기 가운데 사랑을 받게 되는 짜맞춤 가구는 지금-여기에 적응할 수 있게 되고 변화를 거듭해 나간다.



<사진 3-15> 나미목의 날개책상 (1)



<사진 3-16> 나미목의 날개책상 (2)

<사진 3-15>와 <사진 3-16>은 연구자반 회원이었던 나미목이 오크와 편백나무를 사용하여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큰외손녀 선물로 만든 어린이용 책상이다. 이 책상의 이름은 ‘날개책상’으로 날개를 펴고 무한한 미래의 세계로 날기 바란다는 의미가 담겨 있으며, 책상의 양옆에 보조테이블이 날개모양으로 펼쳐지게 되어 있다. 이 날개모양의 보조테이블은 책가방, 책, 학용품, 간식 등을 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짜맞춤 전수관에서는 짜맞춤 가구와 이를 만드는 사람들의 삶이 상호구성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짜맞춤 가구는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고, 사람들은 짜맞춤가구를 계속 살아 있게 만든다. 그런데 이러한 짜맞춤 가구와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삶은 목공방을 넘어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더욱 풍성해지고 있었다.

2) 온-오프라인 목공

가구를 만드는 일은 어떤 가구가 필요한가, 어떤 이야기와 감성을 담아낼 것인가, 어떤 수종으로 어떤 무늬와 색으로 만들 것인가와 같은 복합적인 판단과 선택의 과정이다. 제작자는 이 과정에서 자신이 만들 가구를 도안으로 그려보며 상상 속의 가구를 실제 가구로 바뀌는 일을 하게 된다. 이러한 일을 하는 데 짜맞춤 전수관의 학습자들이 자주 사용하고 있는 기술 중의 하나는 핀터레스트라는 앱이었다. 자신이 원하는 가구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짜맞춤 전수관의 연구반에서 이루어지는데, 학습자들은 스마트폰에 있는 핀터레스트 앱에 접속하여 필요한 가구 사진이나 이미지를 검색해서 보았다.

핀터레스트는 “한 눈에 멋진 아이디어를 발견하고 영감을 얻으세요.”라는 소개 문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미지 기반의 소셜 미디어이다. 벽에 사진을 붙이듯이(pin up) 사진을 바둑판식으로 정렬해 놓고, 마음에 드는 사진을 클릭해서 보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미술, 디자인 계통의 사

람들이 좋아하는 소셜 미디어 중의 하나로 양질의 이미지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짜맛춤 전수관의 사람들은 이 앱을 사용하여 “테이블”, “의자”와 같은 특정 종류의 가구나 “서랍 손잡이”, “주먹장”과 같이 필요한 내용을 검색어로 입력해서 같은 주제의 이미지들을 불러온다. 핀터레스트에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사람들이 올린 이미지들을 동시에 볼 수 있다.

가령, 콘솔을 만들고자 했던 아미산은 핀터레스트에 콘솔을 입력한 후 검색되는 이미지들 가운데 관심이 가는 것들을 하나씩 클릭하며 어떤 디자인이 좋은지 구상해 보고 영감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해 주었다. 한편 윤성아빠는 사방탁자를 만들었는데 어울리는 손잡이를 찾지 못하여 고민하던 중에 핀터레스트에 서랍 손잡이를 검색해 보았다. 수십에서 수백에 이르는 다양한 이미지를 보던 중 국내의 한 가구제작자가 나무를 다각형으로 깎아 손잡이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윤성아빠는 그 이미지를 보고 자신의 사방탁자 서랍에 알맞은 색상의 나무와 크기를 정하여 서랍 손잡이를 만들 수 있었다.

이처럼 짜맛춤 전수관에서 가구를 디자인하는 사람들은 핀터레스트 앱을 통해 전 세계의 다양한 이미지들을 검토하면서 아이디어를 얻거나 모방 또는 변형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핀터레스트에는 조선시대의 가구들도 검색이 된다. 그러나 이제 조선시대의 가구들은 오늘날 짜맛춤 가구를 만드는 데 있어 하나뿐인 출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구들 가운데 하나로 비교되고 선택될 수 있는 요소로 변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학습자들은 핀터레스트 앱과 함께 아이디어를 상상하고 구체화하는 과정을 해나간다. 그런데 컴퓨터 화면상에 사진이나 그림으로 물질화되어 있는 가구는 이후 나무로 만들 가구와는 다른 물질성을 갖는다. 가구의 이미지는 선과 면을 통해 비례, 두께, 치수를 갖지만 나무가 갖는 무늬, 강도, 수축이나 팽창과 같은 물성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습자들은 이미지만으로 ‘볼 수 없는’ 나무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기 위해 보다

숙련된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연구반의 승훈은 탁자를 만들기 위해 핀터레스트 앱을 검색하였는데, 여러 이미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신의 필요에 맞게 변형을 주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도면을 그렸는데, 백만기는 승훈이 그린 이 도면을 보고 “어디 봅시다. 위쪽이 삼방연귀이기 때문에 아래쪽에 둘러주는 지지대가 없으면 삼방연귀가 벌어져 버려요. 옆으로 고정이 어려우니 아래쪽에 제비축을 둘러보면 어때요?”라고 말하였다. 또 운은 조교는 “음… 지금 보면, 상자가 주먹장이라면 높이가 되는 부분을 고정할 수 없고 상자의 가로로 된 모서리가 주먹장이면 나무결이 수직방향이 되어 나무의 마구리면을 결구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옆으로 수축팽창이 일어나서 고정하는 데 문제가 생겨요. 각재와 판재가 결합되는 가구가 이래서 만들기 어려워요.”라고 말하였다.

이처럼 핀터레스트의 이미지는 목공 활동에 있어 초보자와 숙련자 사이의 차이를 드러나게 한다. 승훈은 핀터레스트 이미지의 선과 면으로 물질화된 가구를 보지만, 가구제작 경험이 많은 백만기와 운은 조교는 나무의 힘, 결, 변형을 함께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여 승훈에게 도면 속 가구는 벌어짐도 없고, 고정에도 문제가 없었지만 백만기와 운은 조교의 풍부한 경험과 연결된 핀터레스트 이미지에 있는 가구는 벌어짐과 고정의 문제를 예견해 주고 있었다.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 핀터레스트와 같은 앱은 가구 디자인이나 제작방법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목공 학습자들이 검색하고, 새로운 디자인이나 방식을 구상할 수 있게 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학습자들은 자신들이 검색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실제 가구를 만들 수 있는지, 만들었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수정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숙련자의 가르침을 필요로 한다.

핀터레스트 앱은 전 세계의 수많은 아이디어를 한 자리에 불러 모으고 디지털화된 이미지로 검색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이러한 기술과 함께 짜맞춤 목공을 배우는 학습자들은 다양한 디자인을 자유롭게 둘러보고

기존의 디자인을 따라하거나 변형하여 자신의 가구를 실제로 만들어 볼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얻게 된다. 그런데 핀터레스트 이미지의 선과 면은 특히 초보 학습자의 경우 나무의 물성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나무로 제작하게 될 때 발생할 문제를 보여주지 못한다. 이런 점에서 핀터레스트라는 앱은 새로운 가능성과 함께 나무의 물성 가운데 결, 힘, 변형과 같은 부분은 물질화하는 데 제약을 갖는 기술로 숙련자의 풍부한 제작경험과 연결될 때 가구 제작에 필요한 중요한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가능성을 촉발시킨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핀터레스트 앱과 함께 목공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 보았다. 다음에서는 인스타그램 앱의 경우를 살펴보고자 한다. 짜맞춤 전 수관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요즘 어떤 가구를 만들고 있는지를 안부 인사처럼 묻게 되면 사람들은 휴대폰을 꺼내서 사진을 보여주고 싶어 하였다. 휴대폰의 “갤러리”에 사진이나 영상을 저장해 놓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카페, 블로그, 앱 등 온라인 공간에 자신의 작업 과정과 결과를 올려놓은 사람들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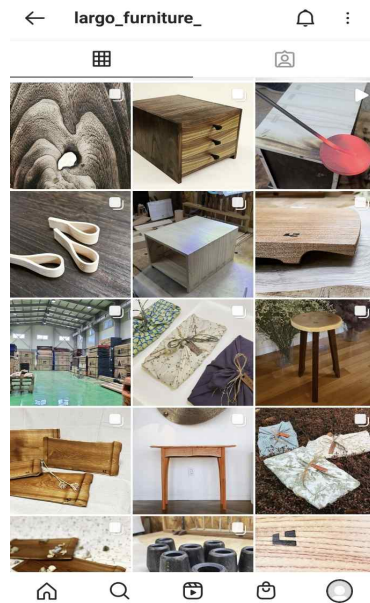
그런데 휴대폰과 온라인 공간은 목공방에서 있었던 작업 과정과 결과를 단순히 옮겨 놓는 곳이 아니라 짜맞춤가구 만들기와 교육의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매개체로서 사람들의 목공 생활에 있어 중요한 일부를 이루고 있었다. 여기에서는 여러 매개체 가운데 인스타그램에 주목하여 짜맞춤가구와 사람, 그리고 인스타그램이 어떻게 접속하고 무엇을 생성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인스타그램은 목공방-짜맞춤가구-사진-제작 체험-목공인 공동체를 연결시켜 주는 매개체이며 인스타그램을 통해 만들어진 새로운 관계는 오늘날 목공방에서 짜맞춤가구를 만들며 시도되는 크고 작은 실험들을 공개하고 특정한 반응을 주고받게 하는 효과를 낳는다.

인스타그램은 휴대폰에서 무료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리고 이를 팔로워(follower)나 원하는 그룹과 공유하는 앱이다. 다음은 인스타그램 앱에 등록되어 있는 인스타그램 소개글이다.

Instagram은 iPhone 및 Android에서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사진 및 동영상 공유 앱입니다. Instagram에서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이를 팔로워나 원하는 친구 그룹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Instagram에서 친구들이 공유한 게시물을 보고 댓글을 달거나 좋아요를 누를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이메일 주소를 등록하고 사용자 이름을 선택하여 계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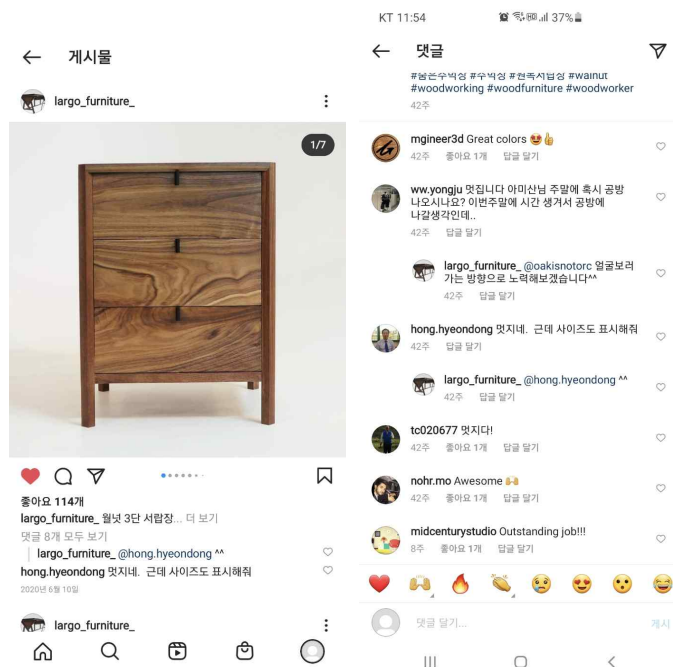
사람들은 휴대폰에 인스타그램을 설치하고 짜맞춤가구 만들기의 과정과 결과를 사진, 영상, 글로 올려 놓는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올려 놓은 게시물을 보고, 댓글을 달고, 좋아요를 누른다. 이러한 행위를 통해 짜맞춤가구와 만들기 과정은 목공방에서 온라인 공간으로 이동하여 여러 가지 사건을 만들어낸다.



<사진 3-17> 인스타그램
(1)

먼저 인스타그램은 짜맞춤가구 만들기의 과정과 결과를 사진, 영상, 글로 “기록하게” 한다. 이러한 기록들은 일종의 학습 포트폴리오와도 같다. 사람들은 만들기 과정이나 결과에서 있었던 느낌, 고민, 판단 등을 관련된 사진과 함께 적어 둔다. 다음의 <사진 3-17>은 아미산의 인스타그램으로 그가 지금까지 만든 작품과 이를 만드는 과정이 앨범의 형태로 보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스타그램이 지정해 놓은 이러한 형식에 따라 짜맞춤가구 제작 과정과 결과가 최신순이 위쪽에 오도록 정리된다.

다음으로 인스타그램은 댓글과 좋아요를 통해 게시물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소통하게” 한다. 사람들은 어떤 작품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표현하기도 하고 궁금한 점을 묻기도 한다. 인스타그램은 작은 전시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목공방에서 같이 가구를 만드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친분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스타그램에 접속하여 작품을 보고 느끼며 감상을 남길 수 있다(사진 <3-18> 참조).



<사진 3-18> 인스타그램 (2)

그리고 인스타그램은 팔로우/팔로잉, 해시태그(#)를 통해 사람들을 “연결되게” 한다. 여기에는 목공을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목공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포함된다. 사람들은 팔로우/팔로잉 신청을 하여 관심 있는 사람의 목록을 만들 수 있다. 또한 자신이 올린 게시물의 주제어를 해시태그로 달아서 같은 주제로 연관된 게시물로 이동할 수 있다.

이처럼 인스타그램을 통해 기록하고, 소통하며, 연결되는 일은 짜맞춤 가구와 사람, 그리고 인스타그램이 함께 만들어가는 삶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짜맞춤 가구, 사람, 인스타그램은 관계를 맺게 되고 이 관계 가운데, 이 관계를 통해 서로를 존재하게 만든다. 이처럼 짜맞춤 가구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배우게 되고, 실행되고, 유지되며, 이해되고 있다.

조선시대에 꽃을 피웠던 짜맞춤 가구는 근대화를 거쳐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되는 가구에 비해 경쟁력이 낮아 지역의 무형문화재나 작가들, 이름 없는 장인들에 의해 그 명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오늘날 목공방에서는 나무를 사랑하고 수작업을 즐겨워하는 사람들이 더 좋은 가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짜맞춤 가구를 만들고 있다. 그리고 짜맞춤 가구의 아름다움, 작업과정의 고민과 즐거움은 목공방이라는 물리적 경계를 넘어 인스타그램과 같은 모바일 앱을 통해 사람들을 불러모으고, 대화를 나누게 하고 있다.

라투르(Latour)는 어떠한 현상이 있다는 것은 단지 그것이 주어져 있고 계속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관점이 위험하다고 지적하면서 지속적인 실행과 훈육을 통해 하나의 제도로 자리잡을 때까지 ‘막대한 보살핌으로 관찰되고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라 말한다.

역사의 한 지점에서, 생산되기에 너무 어려웠던 현상의 실재성을 유지하는 데 관성으로 충분하다고 상상하는 것은 언제나 위험하다. 현상이 ‘결정적으로’ 존재할 때, 이는 그것이 영원히, 또는 모든 실행 및 훈육과는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막대한 보살핌으로 관찰되고 보

호되어야 하는, 거대하고 값비싼 제도 안에 자리 잡아 왔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Latour, 1999: 250)

사진과 동영상을 무료로 게시하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게 하는 모바일 앱 인스타그램은 짜맞춤 가구를 목공방이라는 지리적 경계를 넘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상으로 연결되게 하고 짜맞춤 가구를 만드는 과정과 결과를 함께 살피고 공감과 소통을 나눌 수 있게 한다. 짜맞춤 가구와 목공인의 삶은 이러한 인스타그램과 연결됨으로써 새로운 가능성을 함께 만들어나가고 있다고 하겠다.

손기술로 무엇인가를 만든다는 것은 재료와 도구처럼 다양한 사물들과 상호작용하는 동시에 그러한 사물들을 이미 다루어 본 선조들의 지혜와 발자취를 만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즉 목공이라는 행위와 체험은 이를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사물들과 인간들이 참여하고 있는 세계 안에서, 그리고 이러한 세계와 함께 무엇인가를 생성하는 과정이다. 이런 점에서 목공이라는 삶의 방식은 세계와 상호의존적인 관계 속에서 함께 되어가기(becoming with)의 과정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중요한 사례가 된다.

문화는 “이성, 감정과 충동을 가진 인간들이 경험하고 실천하며, 바꾸어 놓는 과정”(김현미, 2005: 50)으로 의미 있는 세계와 관계를 맺고 몸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 그리고 그 무엇인가를 더 잘하기 위해 배우는 것을 필요로 한다. 즉 문화는 세계의 의미를 몸으로 체험하고 배우는 교육의 과정을 통해 체현되는 것이다. 인간과 사물들이 함께 만드는 실천으로서 교육을 탐구하는 것은 물질성을 목공이라는 제작활동과 일상적 삶의 가치를 구성하는 중요한 차원으로 바라볼 때 가능한 일이다. 교육은 책 속의 지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세계와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지를 가르치고 배우는 일로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목공방에 들어서면 나무 향기, 푹푹이는 소리, 열기, 땀, 움직임 속에서 드러나는 짜맞춤 가구를 만날 수 있다. 그리고 이 짜맞춤 가구는 사물들

과 인간들로 가득찬 목공의 세계에 붙박여 있는 의미를 온 몸으로 체험하고 배우는 사람들의 삶의 일부가 된다. 짜맞춤 가구를 만드는 사람들은 열정과 상상으로 가득 차 있고, 기쁨과 고통을 겪으며, 도구를 숙련되게 사용하는 솜씨를 갖추고, 나무의 신비함을 존중하면서 짜맞춤 가구와 함께 자신들의 삶을 만들어간다. 그리고 짜맞춤 가구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빛이 나고, 다양한 실험 가운데 변화되며 자신의 삶을 지속해 나간다. 목공의 세계는 짜맞춤 가구를 만들고, 이를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들을 통해 계속 확장해 가는 가운데 있다.

IV. 해석 및 논의

근대화와 산업화를 거치며 수작업의 가치가 낮게 평가되면서 짜맞춤 목공도 소수의 장인에 의해 명맥이 유지되고 점차 그 저변이 약해지는 문화 가운데 하나였다. 그런데 1990년대 후반 국내의 목공방을 중심으로 직접 가구를 만드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였고, 좀 더 견고하고 아름다운 가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짜맞춤 목공이 주목을 받게 되었다. 백만기는 이러한 흐름 가운데 짜맞춤 목공의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한 사람 중의 하나였다. 짜맞춤 목공을 일반들이 배우며 좋은 가구를 만들 뿐만 아니라, 삶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된 것은 목공 세계의 재맥락화를 통해 가능하였다.

다시 말하여 수공구와 그에 대한 앎이 체계화되고 언어화되는 과정에서 유튜브나 책과 같은 매체와 연결되는 것, 제재된 북미산 하드우드를 사용하여 보다 쉽게 가구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것, 교수자의 시범과 강의, 그리고 개별 실습이 가능한 짜맞춤 전수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 소셜 미디어와 같은 앱을 통해 새로운 디자인을 찾고 만들기 과정과 결과를 공유하는 일들을 통해 짜맞춤 목공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배울 수 있도록 안정되고 확장될 수 있었다. 이처럼 목공 세계가 재맥락화되면서 짜맞춤 목공의 저변이 확대되는 과정은 백만기와 학습자들이 수공구, 나무, 책, 기계, 전수관, 앱(App)과 같은 다양한 사물들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성취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짜맞춤 목공, 그리고 이를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은 짜맞춤 목공이라는 체험과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다양한 물질들의 접속, 대치, 창조 등을 통해 생성된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목공 세계의 재맥락화에서 나타나는 사물과 인간의 얽힘이 앎과 교육의 실천에 갖는 의미를 해석해 보았다.

1. 교육의 실천과 물질성

이 연구에서 목공 세계의 재맥락화는 조석진으로부터 짜맞춤 목공을 배우고 짜맞춤 목공의 저변 확대를 위해 헌신해 온 백만기와 새로운 학습자들, 그리고 그들 주위의 다양한 사물들이 모여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었다. 목공 세계의 재맥락화와 교육의 실천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사람과 사물들이 새로 연결되거나 변경되는 과정에서 목공 세계와 교육의 실천 모두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여 목공 세계와 교육의 실천은 주어진 것, 고정된 것,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며 특정한 상황 가운데 다르게 실행된다.

2010년대부터 지금까지 백만기에게 짜맞춤 목공을 배우는 학습자들은 조석진과 백만기가 목공을 가르치고 배웠던 것과 다른 상황에 참여하고 있다. 무엇인가를 배우고 가르친다고 할 때 우리는 책이나 누군가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전달받아 이를 내면화하는 것이 아니다. 목공을 배우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체험과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적합한 장소, 적절한 도구와 재료가 있는 상황에 참여해야 한다. 즉, 다양한 물질적 실체들과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놓일 필요가 있다.⁷²⁾

상황은 가능한 활동을 위해 의미 있게 구성된 환경 안에 있는 다양한 실체들의 관계적 집합체 혹은 덩어리를 가리킨다(Rouse, 2002a: 150/Wehling, 2006 재인용).⁷³⁾ 과학자, 실험실, 책상, 의자, 책, 연필, 컴퓨터, 조명들은 과학의 상황을 구성하고 예배자, 예배당, 향초, 빵, 십자가는 예

72) 이때 ‘목공’이 수공구, 기계, 나무 등 사물들을 직접 만지는 활동이기 때문에 물질적 실체들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목공만이 아니라 과학, 음악, 놀이, 예배 등 모든 활동은 다양한 물리적 실체들이 있는 생활세계에 몸으로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목공’은 사물들을 직접 만지는 활동이기 때문에 비물질적 실체들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옳지 않다. 가령, 대팻날을 연마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날카로움에 대한 개념과 판단력이 필요하다.

73) 이에 대한 원문은 다음과 같다. “Situation is the relational complex of embodied agents in meaningfully configured settings for possible action.”

배의 상황을 구성한다. 이처럼 상황을 구성하는 사물들은 특정한 활동을 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런 점에서 사물들은 활동의 기반시설(infrastructure)을 이룬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사물들이 활동의 기반시설을 이룬다는 말은 사물들이 인간 활동을 위한 배경으로 그저 주어졌거나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수동적인 것임을 뜻하지 않는다.

인류학자 밀러(Miller, 1987)는 ‘사물의 겸손(humility of things)’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일상적 실천에서 사물이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지 않는 대상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이야기한 바 있다. 사물의 겸손은 다른 말로 사물의 비가시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언제나 이미 사물들과 함께 있고 사물들과 함께 특정한 행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 인식되지 않는 까닭은 사물이 행위의 구성요소로 매우 깊숙이 포함되기 때문이다(김환석, 2016). 예를 들어, 글씨를 쓴다고 할 때 필요한 적절한 강도의 연필심과 찢어지지 않는 두께의 종이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어 글씨를 쓰는 일은 사람의 의도나 의지에 의해 가능하다고 여기는 것과 같다. 그러나 연필심이 부러지거나 너무 얇은 종이를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글씨를 쓰는 행위가 불가능해짐을 알게 된다.

그런데 교육의 실천에 있어 사물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여타의 활동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우리는 교과서, 실험 장비, 미디어, 시간표와 같은 것 없이 어떤 교육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의 역사에서 프뢰벨 은물, 몬테소리 교구와 같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물들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물들의 참여에 대한 이해는 크게 두 가지로 제한되어 왔다(Waltz, 2006).

하나는 인간의 목적에 의해 전적으로 통제되는 도구로서의 사물이며, 다른 하나는 변화를 결정하는 원인으로서의 사물이다. 도구로서 사물을 바라보면 어떤 일을 실행하는 사물들의 힘과 기여를 과소평가하고 인간의 의도, 욕망, 정서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수동적인 것으로 남아있게 된다. 한편 원인으로서 사물을 바라보면 사물은 이미 경계지어져 있는 단

힌 체계로서 예측가능한 결과만을 가져오게 된다. 이와 같은 이해는 사물들이 다른 사람, 사물들과 연결됨으로써 어떤 일이나 질서를 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연결을 통해 복잡한 효과가 생성되고 계속 변화한다는 점을 간과하게 된다. 사물들은 인간의 의도에 의해 일방적으로 사용되는 도구적인 것이거나 어떤 결과를 결정짓는 원인적인 것이 아니라 수행적인 존재이다. 사물들은 주위의 다른 사물들,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특정한 형태의 참여를 일어나게 하고 제한하고 조정하는 데 관여한다.

따라서 사물과 인간의 얽힘을 통해 교육의 실천을 이해한다는 것은 사물 역시 인간과 함께 크고 작은 차이를 만들며 상황에 변화를 가져오는 힘이 있음에 주목하는 것이다. 또한 단지 이러저러한 사물들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특정 사물들이 주위의 다른 존재들과 함께 운동하면서 어떠한 교육의 실천을 가능하게 하고 제한하는지를 살피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물과 인간의 상호작용적 행위성과 관계성을 중시하는 접근은 ‘관계적 존재론(relational ontology)’이라고 불린다. 또한 인간을 사물과 분리되어 있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존재로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포스트휴머니즘(post humanism)’에 속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바라드(Barad, 1999, 2003, 2007)는 “인간과 물질이 함께 운동하면서, 혹은 상호작용하면서 구체적인 실재들을 생성하고 의미화함”(조용환, 2021: 125 재인용)을 ‘상호작용(interaction)’이 아닌 ‘내부작용(intraaction)’이라 표현한 바 있다. 이는 “그 운동이 ‘외부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몸’ 속에서 이루어짐”(조용환, 2021)을 뜻한다. 사물과 인간의 관계는 무엇이 해결되어야 할 문제인지, 어떠한 가치를 성취할 수 있는지와 같은 일을 함께 형성한다.

로와 헤더링턴(Law & Hetherington, 2003)은 물질성의 종류를 세 가지로 범주화한 바 있다. 먼저 도구와 인공물이 첫 번째 종류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예로 교실, 체육관, 디지털 기술, 화학물질 등을 들 수 있다. 두 번째 종류는 몸들이다. 몸은 다른 실체들과의 관계 안에서 꾸며지고, 규

올화되고, 손상되거나 확장된다. 가령 몸은 안경, 보조장치, 질병과 접촉될 때 새로운 가능성과 한계를 갖게 된다. 세 번째는 언어가 불박혀 있는 사물들로 문서, 지도, 저널, 소식지, 교과서, 역량 목록, 소프트웨어, 시험 도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텍스트로서의 사물들은 그 안에 담긴 정보와 담론적 차원만이 아니라 종이, 디지털, 플라스틱과 같은 물질성이 갖는 무게, 질감, 유동성 등의 차이도 중요하다.

최근 교육학 분야에서도 홈스쿨링 가정의 물리적 배치물(서덕희, 2006), 유아교실에서의 디지털 사진(동폴잎, 2019), 고등학교 온라인 수업에서의 컴퓨터 기계(조성원·소경희, 2021) 등 다양한 사물들이 어떻게 인간과 관계를 맺고, 교육 상황을 형성하며 변화시키고 있는지 이해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연구는 사물들이 인간에 의해 의미와 용도가 결정되는 수동적 대상이거나 인간 활동을 위한 물리적 배경으로 단순히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및 다른 사물들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특정한 효과를 만들어내는 힘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사물들은 인간과 다른 능력과 방식으로 세계의 일부를 이루며 인간과 함께 세계를 형성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렇다면 사물과 인간의 얽힘 가운데 교육의 실천이 특정한 양태로 질서화되고 변화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일은 어떤 교육학적 의미를 갖는가?

먼저 교육의 실천에 대한 규범적 기준을 미리 정의하는 대신 사람들이 물질적 사물들과 상호작용하는 상황 가운데 어떠한 교육의 실천을 하게 되는지를 경험적으로 탐구할 수 있다. 다시 말하여 특정한 교육 상황을 형성하는 데 사물과 인간, 그리고 규범이나 가치와 같은 비물질적 실체들이 어떻게 기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어떤 문제들이 새롭게 발생하게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짜맞춤 목공 문화는 언제 어디에서나 보편적인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적으로(local) 특수하게 실행되고 그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들의 삶에서 특정한 가치를 갖는 것으로 체험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사례로 기술하고 분석한 짜맞춤 목공, 그리고 교육의 실

천은 특수성을 갖는다. 이러한 특수성을 명료화하는 일은 처방적(prescriptive)이라기보다 제안적(suggestive)인 것이라 할 수 있다(Pols, 2015). 백만기와 학습자들이 짜맞춤 목공을 가르치고 배우면서 저변을 확대해 가는 과정에서 볼 수 있었던 다양한 사물들과 인간의 얽힘은 다른 시공간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 혹은 좋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2010년대 한국의 한 목공방에서 일반인들에게 개방된 짜맞춤 목공과 교육의 실천이 갖는 특수성을 주의 깊게 들여다봄으로써 이러한 특수한 실천들이 다른 시공간으로 이동하게 될 때 어떠한 협상과 타협이 필요한지를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즉 특수한 실천들은 이야기되어야 하고, 다른 상황과 장소에서의 새로운 수행과 효과성을 위해 탐구되고 공유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Pols, 2015).

이런 맥락에서 ‘최고의 실천(best practices)’과 ‘도움이 되는 실천(useful practices)’을 구분해 볼 수 있다(Orlikowski, 2002). 2010년대 한국의 한 목공방을 중심으로 지속되고 있는 짜맞춤 목공을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도 실행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는 흔히 ‘전이(transfer)’의 문제로 일컬어지기도 하는데, 이 연구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2010년대 한국의 한 목공방에서 볼 수 있는 특정한 사물과 인간의 관계는 과연 언제든, 어디로든 그대로 옮겨질 수 있는 것인가?

앞서 3장에서는 짜맞춤 전수관의 장소성을 다루면서 작품이나 상품을 제작하는 목공방과는 다른 교육 공방으로서의 성격을 이야기한 바 있다. 만약 이 연구에서 살펴본 짜맞춤 목공을 상품의 빠른 생산과 판매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는 목공방에서 실행되게 한다면 이를 가능하게 하는 다른 사물들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가령, 수공구는 전동 기계로, 값이 비싸고 다루기 어려운 하드우드는 보다 저렴한 나무로 대체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곳에서 짜맞춤 목공을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들의 얽과 활동들 역시 변화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어디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동질적이고 보편적인

‘최고의 실천’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이 연구에서 드러낸 짜맞춤 목공과 교육의 실천이 갖는 특수성은 다른 시간과 장소에 ‘도움이 되는 실천’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하여 짜맞춤 목공과 교육의 실천을 지금-여기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떠한 존재들이 참여해야 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연결되어야 하는지를 들여다보고 필요한 조정, 개입, 전환이 무엇인지를 내다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어떤 하나의 사물이 새로 등장하거나 사라지게 되면 그 주위의 사물들은 변형되고 다시 모이게 된다. 사물들이 어떻게 공조하여 특정한 양태로 질서화되는지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문화예술교육 분야에서 온라인을 통해 감각을 어떻게 가르치고 배울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줌, 인공지능, 소셜 미디어 등과 같이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천하려는 움직임들도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기술들이 특정한 장소와 시간에서 교육의 실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연결되어야 한다. 사물과 인간의 얽힘이라는 이 연구의 접근은 새로운 기술이 교육의 실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물질성들을 탐색해 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이때 각 기술이 어떠한 물질성을 갖는가에 따라서 접속되어야 할 교수자와 학습자의 몸, 종이 교과서, 교실 구조, 전자 기기, 전산망 등의 종류와 방식은 달라질 것이다.

또한 이러한 연결 가운데 새로운 기술들이 특정한 형태의 참여를 조정하고, 유도하며, 제한하고, 제외하면서 어떤 교육의 실천을 현실화하는지에 대한 탐구도 시도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상황에서 학교 수업은 화상회의 기술인 줌 수업으로 전환(이동)되었다. 이러한 전환에서 드러난 학교 수업과 줌 수업이 갖는 물질성은 어떤 차이가 있으며, 학교 수업에서의 교사와 학생 그리고 주위의 사물들이 맺고 있던 관계가 줌 수업으로 이동하기 위해 어떤 개입과 변화가 필요했는지 연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때 교육의 실천이 일어나는 상황에

사물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 사이의 특정한 관계를 가시화하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사물과 인간의 얽힘을 통해 교육의 실천을 이해하는 일은 교육의 생태적 지속성을 고려하는 데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인간 세대의 이어짐 가운데, 한 세대가 다음 세대의 앞에 기여하는 것은 비체화된, 탈맥락적인 정보를 전수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활동을 통해 다음 세대들이 지각과 행위의 체화된 기술을 발달시킬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Ingold, 1999: 19)이라 할 때, 상황의 생성과 변화에 관여하고 있는 물질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물질과 함께 상황을 만들어가는 일은 교육적 실천의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사물과 인간의 얽힘을 통해 교육의 실천을 이해하는 일은 사물들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특정한 교육의 실천 안에서 주위의 다른 존재들과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따라서 어떠한 다양한 효과들을 만들어내는지 주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가령, 스마트폰과 같은 기술은 언제나 미리 결정된 효과를 달성해내는 것이 아니다. 스마트폰이 ‘똑똑하게’ 일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배터리, 사용법에 대한 숙련, 안정된 통신망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것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에 따라서 스마트폰이 줄 수 있는 똑똑함의 효과는 여러 스펙트럼으로 나누어질 것이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사물들은 예기치 못한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동풀잎(2019)은 유아교실에서 디지털 사진이 유아들의 놀이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게 되면서 어떤 놀이를 교사들이 사진 찍기에 더 좋은 놀이로 여기는지를 의식하게 되는 측면이 생김을 말한 바 있다. 이처럼 어떠한 사물들이 특정한 활동에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는지는 미리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물들이 사용되는 가운데 그 흔적을 따라 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동일한 사물일지라도 그 사물이 사용되는 시간과 장소, 주위와의 관계 가운데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는지 탐구될 필요가 있다.

2. 앎의 경계들

이 연구에서는 짜맞춤 목공을 사례로 사물과 인간의 얽힘 가운데 목공의 앎이 어떻게 상황적으로 실천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백만기가 몸담고 있는 목공의 세계를 구성하는 사물과 인간은 계속 변화하는 가운데 있으며, 백만기와 학습자들이 배우게 되는 목공의 앎도 달라지고 있었다. 가령, 제재된 북미산 하드우드를 주로 사용하게 된 학습자들은 나무를 벌목, 건조, 숙성하는 앎에 접근하는 기회를 가지지 않게 되었음을 볼 수 있었다. 또한 핀터레스트와 같은 앱을 통해 가구 디자인을 검색하는 학습자들은 전세계의 다양한 가구들을 볼 수 있게 됨으로써 만들고자 하는 가구 디자인을 조선시대의 전통 가구로만 한정하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학습자들이 어떤 스승을 만나거나 집단에 속하게 되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그대로 전수받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학습자들은 사물과 인간이 함께 구성하고 있는 특정한 상황에 참여하면서 그 상황이 가능하게 하는 체험과 행위를 하면서 목공의 앎을 배워 나갔다. 이 연구에서는 의식적으로 앎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지식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는 어떤 요소와 사실로서 이루어진 결과로서의 지식이 아닌 알아가는 행위의 과정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Orlikowski, 2002).

가르침과 배움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실현하며 더 나은 존재로의 변화를 추구하는 교육의 실천에서 어떤 분야의 지식을 교육 소재로 선택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의 문제는 핵심적이다. 그런데 이러한 지식을 누군가의 머릿속이나 책에 기록하고 저장하며,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다고 이해하게 되면 지식은 고정된 실체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지식을 고정된 실체로 보는 관점은 지식의 종류를 분류하고 각 종류의 지식을 생성, 공유, 관리하는 효율적인 수단을 찾는 방향으로 연결된다(Orlikowski, 2002). 이러한 분류학적 접근의 대표적인 예는 폴라니(Polanyi, 1967)의 암묵지와 명시지이며, know-how와 know-what, 절차

적 지식과 선언적 지식과 같은 이분법도 포함된다.

쎄(Shön, 1983)은 앎의 과정보다 결과로서의 지식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학문적 경향에 대해 효율적인 행위를 예측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이론들을 만들고 싶어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나무 블록을 가지고 노는 방법을 배우는 어린이들을 연구한 학자들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어린이들이 나무 블록을 이리저리 만지고 움직이며 놀이 방법을 알아가는 과정을 언어로 옮기고 이것이 곧 놀이 방법에 대한 지식이라고 확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확정된 지식은 다른 어린이들에게 놀이 방법을 효율적으로 가르치는 내용이자 목표로 삼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주로 결과로서의 지식에 초점을 두게 되는 되면 특정한 상황에서 학습을 위한 가능성이 어떻게 생성되며 이때 필요한 다양한 물질들, 비물질적 실체들은 무엇인지를 볼 수 없게 된다. 조직학습이나 상황학습 분야에서는 이처럼 앎의 과정이 갖는 상황적 특징을 강조하기 위해 ‘knowing in practice’(Orlikowski, 2002; Fenwick & Edwards, 2010) 또는 ‘knowledgeability’(Lave, 2019)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앎은 특정한 시공간에서 학습자가 주위의 어떤 사물, 사람과 관계를 맺는가에 따라서 언제나 상황적으로 실천되며, 이때 학습을 위한 가능성은 상황을 함께 형성하는 사물과 인간의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이런 점에서 언제 어디서나 보편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갖는 앎은 없으며, 앎은 언제나 부분적(partial)으로 실행된다고 할 수 있다(Lave, 2019). 이때 앎이 언제나 부분적이라는 말은 앎의 행위가 일어나는 과정에 어떠한 물질성들이 참여하게 되는가에 따라 앎의 종류와 범위가 달라짐을 뜻한다(Law & Singleton, 2003). 예를 들어, 빗을 입자로 이해하는 앎은 이중슬릿실험과 같은 장비들, 이를 숙련되게 다루는 과학자들의 몸이 함께 구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이 연구에서도 드러난 바 있듯이 수공구에 대한 앎은 조석진의 시대에는 수공구, 목공인, 그리고 제한된 언어적 표현의 관계로만 이루어져 있었다면 백만기의 시대에는 수공구, 책, 유튜브, QR 코드와 같은 새

로운 사물들의 관계로 변화하였다. 이에 학습자들은 이전 시대와 달리 수공구에 대한 앎을 접하게 되었다. 이처럼 앎은 고정된 실체 혹은 결과로서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앎의 과정을 가능하게 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물질들과 상호작용하게 되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해러웨이(1988)는 이런 맥락에서 상황적 지식을 이야기하며 어떠한 존재들이 특정한 지식을 가능하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지식의 경계가 달라진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곧 모든 것을 아는 전지전능한 사람은 없으며 언제, 어디에서, 무엇과 관계를 맺는가에 따라서 앎의 경계를 형성하게 됨을 의미한다. 어떠한 앎이 실행되고 있을 때 그것을 독립적인 실체로 바라보지 않고 사물과 인간의 얽힘과 같이 관계적인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그 앎의 독특한 경계를 만들어내는 데 관여하는 다양한 존재들이 무엇인지를 가시화해서 볼 수 있을 것이다. 가령, 학교의 교과서에 담긴 앎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경계는 국가, 대학, 집필진, 객관식 시험지 등과 같은 관계들이 모여 만들어내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앎의 경계는 사람의 의도나 계획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 목공방에서 나무에 대한 앎이 벌목, 제재, 건조, 숙성의 과정을 제외한 것으로 드러났던 것과 같이 사물들 역시 앎의 경계를 형성하는 데 개입한다. 따라서 어떠한 앎을 가르치고 배울 것인가의 문제를 다룰 때 그 앎이 포함하는 것과 제외하는 것을 동시에 살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물들이 갖는 물질성으로 인해 앎의 경계가 만들어질 수도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식, 습관, 역량 등은 인간이 가지고 있거나 머릿속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질적인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으로부터 발생하는 특정 사건의 질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한편 앎의 경계는 계속 변화하는 가운데 있다. 만약 존재하는 지식을 전수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것을 교수와 학습의 과정으로 이해한다면, 새로운 앎은 어떻게 하여 창조될 수 있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가 된다. 그러나 앎을 세계에 유연하게 참여하는 과정, 주위의 사물 및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으로 이해한다면 새로운 앎을 발견하고 이를 통

해 얹의 경계를 변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백만기는 조석진으로부터 짜맞춤 목공의 얹을 그대로 전수받은 것이 아니라, 조석진이 도구나 나무를 다루는 상황 가운데 함께 참여하면서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을 새롭게 만들어 가는 과정을 거쳤다. 예를 들어, 백만기는 수공구에 대한 얹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조석진은 몸으로만 보여주었던 감각이나 행위를 자신에게 목공을 배우는 학습자들을 위해 최대한 언어화 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어떤 활동을 하면서 이전의 얹과 접속하는 동시에 주위의 사물, 사람들과 연결되면서 여러 협상과 조정을 통해 새로운 얹을 생성해 나간다고 볼 수 있다.

짜맞춤 전수관에 있는 학습자들은 백만기로부터 가구 디자인에 대한 얹을 배울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핀터레스트, 인스타그램과 같은 앱을 통해 전세계의 다양한 가구 디자인을 검색하여 알아가는 활동을 하였다. 이 역시 학습자가 주위에 있는 사물과 연결됨으로써 새로운 얹의 가능성을 만들어 가는 모습을 잘 보여준다.

다음 세대의 학습자들은 교수자의 머릿속에 있는, 혹은 언어화된 텍스트와 인지적으로 접속하는 것이 아니라 교수자의 얹이 실천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사람들, 사물들, 언어들이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교수자와 학습자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사물들은 부차적인 맥락으로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얹을 알아가는 데 핵심적인 요소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어떠한 얹의 타당성과 안정성은 그 얹을 가능하게 하는 사물과 인간의 얹힘이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계속 유지되고 반복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얹은 “생물리학적 실체로서의 인간 몸이 아니라 유기체-인간, 분리될 수 없는 몸과 마음, 풍성하게 구조화된 환경에 의해 구성되는 관계들의 전체적인 장”(Ingold, 2000: 353)에 걸쳐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물과 인간의 얹힘을 통해 얹을 이해하는 것은 그 얹이 존재하기 위해서 동원되어야 하는 다양한 실체들의 관계들에 주목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V. 요약 및 결론

목공의 세계는 사물과 인간의 얽힘을 통해 지속적으로 생성되고 변화한다. 목공의 세계에 일상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 도구, 나무, 기술 등 다양한 사물들은 더 좋은 가구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을 스승, 동료, 현미경, 유튜브와 같이 다양한 인간들과 사물들이 함께 실험하고 탐구해 온 잠정적인 성취로 형성된 것이다. 이러한 잠정적 성취가 만들어 낸 목공의 세계를 통해 이후 학습자들은 새로운 체험과 행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얻고 교육의 실천을 통해 그 세계에 참여함으로써 목공의 세계를 지속시키게 된다.

이 연구는 목공의 구체적인 체험과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목공의 세계를 인간만의 공동체가 아닌 인간과 사물이 함께 모여 이루는 사회물질적 집합체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교육의 실천에서 나타나는 물질성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자 하였다. 또한 인간과 사물의 연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며, 이 가운데 특정한 양태의 얽과 교육의 실천이 생성됨을 짜맞춤 목공의 저변 확대 과정을 사례로 하여 드러내었다.

1. 요약

이 연구는 목공 문화가 저변을 확대하며 오늘날까지 지속되어 온 과정을 사례로 하여 사물과 인간의 얽힘 가운데 얽과 교육이 어떻게 실천되는지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짜맞춤 목공은 조선시대에 꽃피운 목공 문화로 근대화와 산업화 시기를 거쳐 수작업의 필요성과 가치가 낮게 평가되면서 소수의 장인들에 의해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2000년대를 전후로 목공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이 짜맞춤 목공을 배워 새로운 짜맞춤 가구를 만들 뿐만 아니라 제작과정과 작품을 온라인에 등록하고

공유하며 활발한 소통을 해나가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과정을 가능하게 한 사물과 인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짜맞춤 전수관을 연구현장으로 선정하여 장기간의 참여관찰, 교수자 및 학습자와의 심층면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현지자료조사를 진행하였다.

연구를 통해 짜맞춤 목공을 조석진으로부터 배운 백만기가 이후 세대들에게 목공의 앎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건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목공의 세계는 조석진으로부터 백만기로, 백만기로부터 이후 세대로 고정된 실체로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물과 사람의 얽힘 가운데 재맥락화되며 계속 변화하고 있었다. 목공 세계의 재맥락화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수공구의 부활’을 통해 소수의 장인들만 알고 있고 폐쇄적인 문화 가운데 공유되지 않았던 수공구가 어떻게 짜맞춤 전수관에 있게 되었는지, 이전 세대와의 차이는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었다. 오늘날 먹금칼과 대패라는 수공구는 백만기, 책, QR 코드, 인터넷 카페, 유튜브와 연결되어 짜맞춤 목공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되었다. 그리고 교수자가 수공구를 사용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배웠던 방식은 체계적으로 정리된 원리와 언어적 표현과 함께 가르치고 배우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다음으로 ‘나무의 변화’는 오늘날 목공방에서 다루게 되는 나무가 어떠한 물질성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러한 나무를 통해 변화된 앎과 교육의 실천을 드러내고 있었다. 목공방의 학습자들은 제재된 나무를 사용하게 되면서 벌목, 제재, 건조, 숙성과 같이 좋은 나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기회가 제한되고 나무를 다루는 기술과 앎도 달라지고 있었다. 나무가 갖는 이러한 상황성은 이중적인 측면을 갖는데 한편으로는 쉽게 쓸 수 있는 나무를 통해 짜맞춤 목공에 보다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얻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나무를 보는 힘이나 앎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은 제외되고 있었다.

목공 세계의 재맥락화는 그 다음으로 ‘교육 장소의 탄생’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짜맞춤 전수관이라는 장소의 배치와 구성 요소들은 개방성,

교류, 충분한 숙련의 시간이라는 교육의 가치를 추구하는 일에 관여하고 있었다. 또한 작품이나 상품의 제작과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짜맞춤 전수관에서는 교수자의 작업과정을 지켜보는 방식이 아니라 강의와 시범, 실습, 일대일 레슨, 공동 피드백과 같은 교육활동을 통해 수업식으로 배우고 있었다. 이러한 교육활동은 교수자 작업대, 칠판, 학습자의 개인 작업대와 같은 사물과 함께 질서화되고 있었다. 한편 짜맞춤 전수관은 단순한 사용법이 아닌 깊이 있는 원리를 가르치기 위해 장소화 되어 있지만, 회원제 목공방으로서 학습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나 목표에 따라 다른 장소가 될 수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끝으로 ‘새로운 전통 만들기’에서는 짜맞춤 가구가 오늘날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를 만드는 사람들이 온-오프라인을 오고 가며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목공의 세계가 재맥락화 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짜맞춤 가구는 조선시대의 것을 그대로 재현하는 방식이 아닌 오늘날의 가구, 주거환경, 취향, 관심 등에 따라 다르게 만들어지고 있었다. 또한 짜맞춤 전수관의 사람들은 핀터레스트와 같은 앱을 스마트폰으로 사용하며 짜맞춤 목공에 필요한 이미지를 검색하고 변형하면서 자신만의 가구를 만들어 가고 있었다. 핀터레스트와 같은 앱은 가구디자인에 대한 앎을 폭넓게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었는데, 반면 이미지만으로는 볼 수 없는 나무의 물성으로 인해 숙련자의 가르침을 필요로 하게 만들고 있었다. 한편 사람들은 인스타그램과 같은 앱을 통해 목공의 과정과 결과를 공유하고 공감하면서 짜맞춤 전수관에서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목공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연결해 나가고 있었다.

목공의 세계, 그리고 그 안에서의 앎과 교육의 실천은 다양한 물질들과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연결되는가에 따라 재맥락화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의 실천에서 사물과 같은 물질들은 수동적으로 주어졌거나 변화를 결정하는 원인이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 가운데 크고 작은 차이를 함께 만들며 교육의 실천에 변화를 가져오는 힘이 있음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앎은 머릿 속이나 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상

황 가운데 이를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물질들에 따라 그 종류와 범위가 달라지며 독특한 경계를 갖게 된다. 따라서 결과로서의 지식보다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과정을 가능하게 하는 사물들과의 상호작용을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논의하였다.

이 연구는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삶과 교육의 실천은 무엇이며, 어떻게 그것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의 문제는 사물과 같은 물질들과의 관계와 분리될 수 없음을 구체적인 사례로 드러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2. 결론

목공의 세계는 살아있다. 목공의 세계에는 서로 엮이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 없는 사람들, 도구들, 나무들, 가구들이 함께 만드는 관계 속에서 그리고 관계를 통해 살아있다. 이 연구에서 나는 목공의 세계를 사례로 교육적 실천과 상황이 인간과 사물의 함께 함, 그리고 함께 있음을 통해 가능한 것임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그리고 인간과 사물이 함께 되어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것들이 생성되고 변화하는지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관점과 결과는 몇 가지 이론적 함의와 실제적 시사점을 갖는다.

먼저, 이 연구는 일상의 교육적 실천을 구성하는 다양한 사물들의 존재, 그리고 이 사물들과 인간의 관계맺음을 구체적인 사례로 드러내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국내의 공예 분야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주로 장인들의 학습과 발달과정을 중심으로 수행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는 사회문화적 실천을 이론적 관점으로 삼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는 장인들의 학습과 발달과정을 개인적이고 인지적인 내면화의 과정으로 이해하지 않고 구체적인 생활세계의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 참여하며 어떠한 학습의 패턴을 보이는지 살피거나, 어떠한 능력이나 기술이 발달되는지 살피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장인과 그가 속한 세계와의 관계에 있어

서 물질적 가능성과 제한이 잘 드러나지 않았다. 장인의 몸, 도구, 재료 등이 이루는 물질적 관계와 실천에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이 연구는 목공인들의 숙련된 앎, 그리고 이를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적 실천이 인간과 다양한 사물들이 얽히어 함께 만드는 상황적 물질성을 통해 이루어짐을 살피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목공방에 있는 사물들인 도구, 재료, 가구를 중심으로 지금-여기에 있는 사물들의 종류, 형태, 다른 사물들과의 관계를 단순히 특정 공간 안에 주어져 있는 것이나 고정된 속성을 가진 것으로 보지 않고 어떠한 역사를 거쳐 목공방의 교육이 실현되도록 모이게 되었는지를 살피는 것이었다. 이는 학습자와 교수자의 관계나 상호작용, 시기에 따른 활동의 변화 등을 유형화하는 기존 연구의 방식과 달리 학습자와 교수자가 일상의 교육적 실천에서 접촉하게 되는 사물들이 무엇이며, 이 사물들과 함께 무엇을 하게 되는지 보여주는 작업이었다.

둘째로 이 연구는 인간과 사물의 얽힘 가운데 학습자와 교수자가 숙련된 앎을 발달시켜 나간다는 인간의 변화 측면뿐만 아니라 그 관계맺음을 통해 사물도 변화하고 있음을 드러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 연구의 3장에서 드러난 수공구, 나무, 짜맞춤 전수관, 가구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교육의 실천에서 사물은 인간의 발달을 위해 사용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물질적 실체를 유지할 수 있는 계기를 얻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인간 및 사물과 어떻게 접촉되는가에 따라서 다르게 변화한다. 이는 기존 연구와 달리 사물도 되어가는 과정으로서의 삶을 가질 수 있다는 측면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이 연구의 결과는 실제적 관점에서 몇 가지 시사점을 준다. 먼저 이 연구에서 사례로 선택한 연구현장은 학교와 같은 제도교육 기관이 아닌 자생적으로 형성되고 성장하고 있는 목공방이다. 이는 국가의 권위나 목적에 맞추어 외부에서 결정된 교육과정이나 자원들이 아니라 짜맞춤가구 만들기의 저변확대를 위해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를 고민하고 정성껏 가꾸어 온 교육현장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의 공예 분야 선행연

구에서 알 수 있듯이, 기존의 연구는 직업적 장인에 국한되어 있는데 이 연구는 일반인들의 만들기 체험과 교육의 실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국지적으로 노력해 온 과정을 보여준다. 이는 목공의 세계가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제작자의 앎과 이를 실현되게 하는 다양한 사물들이 무엇 인지를 해당 분야에 있는 내부자의 관점에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공예 진흥을 위한 정책적, 경제적 지원을 하고자 할 때 무형문화재나 장인과 같은 협소한 범주가 아니라 일반인들로 확대하고 앎의 발달에 필요한 다양한 사물들을 어떻게 돌보고 지속되게 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특정한 문화와 교육의 실천에서 어떠한 사물(도구, 재료 등)을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앎과 교육이 달라지게 된다는 점에 주의하여 교육의 과정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가령, 최근 짜맞춤 목공을 문화예술교육의 일환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 모든 나무가 미리 다듬어져 있고 이를 조립하는 과정만 하면 가구가 완성되는 키트를 제공하는 시도가 있었다. 이러한 키트의 사용은 짜맞춤 목공의 결과물을 쉽게 달성할 수 있도록 돕고, 흥미를 끌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키트를 사용함으로써 목공의 체험과 활동은 단순히 조립을 해보는 것으로 크게 축소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교육의 실천을 통해 어떤 체험과 활동을 할 수 있게 할 것인가를 고려할 때, 교육의 실천에 동원되는 사물들의 물질성을 세심하게 살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이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갖는데 첫째로 짜맞춤가구 만들기라는 목공의 세계는 현재진행형의 과정에 있다. 나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이 목공의 세계에 참여하며 2000년대부터 현재까지 목공의 세계가 형성되고 변화한 과정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주 연구참여자인 백만기와 그가 돌보며 관계를 맺어 온 사물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수공구, 교육과정, 책, 유튜브, 가구 등 다양한 사물들은 계속되는 탐구와 실험 가운데 조금씩 새로운 변화를 더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외부의 시장경제, 산업사회, 주거환경, 온라인매체 등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또 다

른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따라서 짜맞춤가구 만들기가 앞으로 어떠한 학습자들, 그리고 어떠한 사물들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며 지금-여기에서 다시 생성되는지, 이 연구에서 드러난 것과 비교하여 중요한 변화와 차이는 무엇인지 지속적인 탐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국내의 목공방은 운영형태와 작품유형에 따라 여러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운영형태에 따르면 전시나 판매를 위한 작품을 만드는 작가공방, 회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개인들이 원하는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교육공방, 별도의 교육과정 없이 목공인들에게 공간과 도구, 기계 등을 공유하는 열쇠공방이 그것이다. 그리고 작품유형에 따라 구분하자면 조선시대의 전통가구를 재현하여 만드는 공방, 짜맞춤기술을 바탕으로 현대가구를 만드는 공방, DIY가구 제작방식으로 현대가구를 만드는 공방이 있다. 이 연구는 교육공방이면서 짜맞춤기술을 바탕으로 현대가구를 만드는 공방을 사례로 선택하였는데, 다른 목공방에서는 짜맞춤기술이 어떠한 방식으로 해석되고 실천되는지. 그 가운데 드러나는 인간과 사물의 얽힘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는 것은 다루지 못하였다. 추후 다양한 목공방의 교육적 실천을 비교하는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목공의 세계와 연구자의 세계가 얽히며 만들어 온 과정이자 그 산물이다. 나는 짜맞춤가구 만들기의 저변확대를 위해 평생을 헌신해 온 백만기를 만나 그가 만들어가고 있는 목공의 세계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었다. 그가 만들어가고 있는 목공의 세계는 참으로 뜨거웠다. 나는 짜맞춤 전수관을 오고가며 백만기의 구부러진 손, 전수관의 도구들, 그가 발행한 짜맞춤 관련 책, 유튜브, 그의 스승과 제자들, 상인들 등의 관계 가운데 살아 있는 목공의 세계, 그리고 이러한 목공의 세계를 가능하게 하고 동시에 목공의 세계를 통해 가능한 교육적 실천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 연구를 통해 내가 가장 크게 깨닫게 된 점은 어떠한 세계가 나에게 주어진다든 것은 그 세계를 형성하고 지속시키기 위한 수많은 사람들과

사물들의 상호의존적 관계맺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사물들은 그 사물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주의 깊게 이해하고 사물들의 필요에 세심하게 반응하는 사람에게 그 진가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는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적 실천을 인간 존재의 성장에 초점을 두고 이해해 왔던 것과 다르게 세계를 만드는 인간과 비인간의 존재와 함께 되어감에 주목하는 것으로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 연구는 인간 이외의 존재들 가운데 사물에 관심을 가지고 수행되었지만 사회물질적 세계 안에서의 관계적 실천이라는 연구의 관점을 바탕으로 앞으로 반려동물, 반려식물, 인공지능 등과 같이 다양한 인간 이외의 존재들과 더불어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교육의 실천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으며,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지 확장된 연구를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강인애(1995). 인지적 구성주의와 사회적 구성주의에 대한 간략한 고찰. 교육공학연구, 11(2), 48-63.
- 곽영순(2001). 구성주의 인식론의 이론적 배경. Journal of Korean Earth Science Society, 22(5), 427-447.
- 권미애·손민호(2018). 숙달의 정체성으로서의 장인에 관한 연구: 송의동 목공장인의 작업장 들여다보기. 교육문화연구, 24(6), 597-625.
- 권혁희(2014). 내셔널리즘과 ‘전통의 발명’: ‘전통의 발명’ 담론을 둘러싼 인류학의 논쟁과 민속학에서의 포크로리즘 논의를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20(2), 95-138.
- 김정석·이지혜(2013). 국내외 유리공방 분석을 통한 유리공예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공예논총, 16(1), 45-64.
- 김세건(2002). 전승교육과정의 실상과 문제점에 관한 일연구: 공예·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8(2), 195-234.
- 김영주(2012). DIY 목공방 운영 분석을 통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가구학회지, 23(4), 415-424.
- 김용익(2009). 학교 목공 교육의 가치에 대한 소고. 한국가구학회지, 20(4), 253-261.
- 김은주·정수경(2010). 전통 짜맞춤 기법을 활용한 아동용 교구디자인개발. 산업디자인학연구, 4(4), 9-18.
- 김정호(2015). 대한민국 명장(名匠)의 작품 성향에 관한 연구 II: 목재수장 명장 1호 고(故) 조석진(1953~2013). 한국가구학회지, 26(3), 196-206.
- 김재호(2015). 옹기장인들의 불에 대한 민속지식과 민속분류. 민속연구, 31, 269-298.
- 김지혜·이건남·최지연(2017). 초등학교 교사의 목공교육 실행 경험에 대

- 한 내러티브 탐구. 한국실과교육학회지, 30(4), 241-269.
- 김태우(2019). 동아시아 의학의 관계적 존재론: 존재론적 전회를 통해 읽는 황제내경-소문, 음양응상대론. 의철학연구, 27, 59-84.
- 김환석(2009). 두 문화, 과학기술학, 그리고 관계적 존재론. 문화과학, 57, 40-60.
- _____ (2012). '사회적인 것'에 대한 과학기술학의 도전: 비인간 행위성의 문제를 중심으로. 사회와이론, 20, 37-66.
- _____ (2016). 사회과학의 '물질적 전환(material turn)'을 위하여. 경제와 사회, 112, 208-231.
- _____ (2018). 새로운 사회학의 모색(1): 탈인간중심주의. 경제와사회, 117, 236-261.
- 남궁선·이유리·정수경·정성환 (2010). DIY가구 제작에 활용도를 높이는 짜임의 난이도 연구. 한국가구학회지, 21(2), 97-110.
- 남궁선(2013). 전통짜임의 활성화를 위한 조형적 분석. 한국콘텍츠학회논문지, 13(4), 418-426.
- 동폴잎(2019). 유아 교실 속 디지털 사진이 구성하는 다양하고 예측 불가능한 관계와 의미: 행위자-네트워크 이론 중심으로. 교육인류학연구, 22(3), 173-198.
- 류의근 (2003). 메를로-퐁티의 감각적 경험의 개념. 철학과 현상학연구, 93-114.
- 문옥표(2011). 문화유산으로서의 전통공예: 일본 교토 니시진오리의 사례. 한국문화인류학, 44(3), 3-35.
- 문화체육관광부(2014-2015). 공예백서.
- 박명배(2004). 전통 목가구와 나무. 숲과 문화, 13(6), 105-109.
- 박성용(2014). 옹기장들의 물레 성형과정에 있어서 기술행동의 특징: 흙가래 타림법과 첻바퀴 타림법의 기술과정 비교. 비교문화연구, 20(1), 119-156.
- 박휴용(2019). 포스트휴먼 시대 학습자의 존재론적 이해와 학습이론 패

- 러다임의 변화. *교육방법연구*, 31(1), 121-145.
- 백만기·김량·김지우 (2016). 짜맞춤: 그 견고함의 시작. *해든아침*.
- 백만기(2020). 짜맞춤 결구를 활용한 가구 디자인 연구: 삼방장부짜임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백성희·금지현(2013). 목공예를 활용한 창의적 체험활동이 초등학생의 기술에 대한 태도와 융합인재소양에 미치는 영향. *교과교육학연구*, 17(4), 991-1006.
- 서덕희(2009). 문화와 교육 개념의 실존성: ‘살아있는’ 교육인류학을 위한 소고. *교육인류학연구*, 12(2), 1-44.
- 서민환(1995). 참나무의 일생. *숲과 문화* 총서, 3, 122-132.
- 서정록(2003). 지금은 자연과 대화할 때: 서정록의 인디언 이야기. 서울: 열린책방.
- 송미원·남현옥(2010). ‘드래그스터 목제품 만들기’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창의력 및 학습 몰입에 미치는 영향. *한국실과교육학회*, 23(2), 67-96.
- 안주영(2009). 무형문화재의 도제제도에서 나타난 상황학습에 대한 고찰: 경기도 무형문화재의 세 사례를 중심으로. *중앙민속학*, 14, 123-175.
- 오명석 (2012). 지식의 통섭과 인류학. *비교문화연구*, 18(2), 175-222.
- 유진경·박유정·최경란(2015). 한국 전통목가구 제작기법을 활용한 생활 가구에 관한 연구: 구조적 측면의 짜임제작기법 중심으로. *한국 과학예술포럼*, 21, 287-298.
- 이미경·이춘식(2010). 실과 ‘목제품 만들기’ 단원의 프로젝트 학습이 학생들의 창의성에 미치는 효과. *실과교육연구*, 16(1), 85-104.
- 이민경·강호양(2008). 목공의 교육적 가치에 대한 고찰: 수공노작교육 중심으로. *한국가구학회*, 19(5), 403-410.
- 이병준·박은희(2015). 수공업 장인의 문화적 학습과정에 대한 연구: 통영 장인의 학습생애사 연구. *문화예술교육연구*, 10(3), 27-43.

- 이은희·이춘식(2008). 실과의 ‘목제품 만들기’ 수업에서 프로젝트 학습이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에 미치는 효과. 실과교육연구, 14(3), 29-48.
- 이재희(2019). 조지나카시마 가구와 우리나라 전통짜임기법 비교연구. 전 시디자인연구, 6, 19-25.
- 이종석(1993). 한국의 목공예에 사용된 나무와 지방특산. 숲과 문화. 2(2), 27-34.
- 이진경(2011). 불온한 것들의 존재론: 미친한 것, 별 볼일 없는 것, 인간도 아닌 것들의 가치와 의미. 서울: 휴머니스트.
- 이진욱·이태경(2016). DIY가구제작체험을 통한 가치소비 향상. 조형디자인연구, 194-212.
- 임근혜(2016). 안성맞춤유기 생산전통의 구성과 지속.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박사학위논문.
- 장원섭·김지영(2013). 명장의 길: 우연에서 필연으로. 진로교육연구, 26(3), 23-41.
- 장인운·장원섭(2013). 전통 수공업 장인의 학습 과정과 특성에 관한 질적 사례 연구. 직업교육연구, 32(4), 59-78.
- 정범모(1968). 교육과 교육학. 서울: 배영사.
- 정성미(2018). 악기장의 전통지식 및 기술의 변화와 장인 정체성에 관한 연구. 한국예술연구, 20, 285-308.
- 정수경(2013). 전통 짜맞춤을 활용한 한글교구 연구. 상품문화디자인학연구, 32, 45-54.
- 조성원·소경희(2021). 비대면 온라인 수업 속 인간과 기계의 얽힘의 이야기: 신유물론적 관점에서의 이해. 내러티브와 교육연구, 9(1), 77-101.
- 조주현(2016). 과학적 실천이론과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의 접점: 캐런 바라드의 경우. 한국여성철학, 25, 66-104.
- 조숙경(2019). 한국가구의 역사. 서울: 미진사.

- 조용환(1997). 사회화와 교육: 부족사회 문화전승 과정의 교육학적 재검토. 서울: 교육과학사.
- 조용환(1999). 질적 연구: 사례와 방법. 서울: 교육과학사.
- 조용환(2001). 교육적 존재론. 교육인류학소식, 7(1), 1-2.
- _____ (2011). 다문화교육의 교육인류학적 검토와 존재론적 모색. 교육인류학연구, 14(3), 1-29.
- _____ (2015). 현장연구와 실행연구, 교육인류학연구, 18(4), 1-49.
- _____ (2019). 포스트휴머니즘과 신물질주의. 한국교육인류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 _____ (2021). 교육다운 교육. 바른박스.
- 조용환·윤여각·이혁규(2006). 문화와 교육.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조정호(2007). 전통문화의 전승과제 탐색: 연구자 가정제례와 학술활동을 중심으로. 교육인류학연구, 10(1), 217-241.
- 조현영·손민호(2015). 상황주의 교수설계론: 실천의 관점에서의 제고. 교육과정연구, 33(4), 201-226.
- 조현영·손민호(2017). 경험은 어떻게 맥락적으로 학습되는가. 교육인류학연구, 20(1), 25-58.
- 최기·문정인·최임정(2016). 노인요양시설 목재가구 개발을 위한 목재 짜맞춤 기법 선호도 조사 및 내구성 분석 연구. 한국가구학회, 27(4), 291-301.
- 최병두(2017). 초국적 결혼이주가정의 음식 네트워크와 경계 넘기.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3(1), 1-22.
- 홍성욱(2010). 인간, 사물, 동맹: 행위자네트워크 이론과 테크노 사이언스. 서울: 이음.
- Barad, K. (1999). Agential Realism: Feminist Interventions in Understanding Scientific Practices. Science Studies Reader. 박미선 (2009). 행위적 실재론: 과학실천 이해에 대한 여성주의적 개입. 문화과학, 57, 61-82.

- Beisel, U. & Schneider, T. (2012). Provincialising Waste: the Transformation of Ambulance Car 7/83-2 to Tro-tro Dr.JESUS.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30, 639-654.
- Bengtsson, J. (2013). Embodied Experience in Educational Practice and Research. *Studies in Philosophy of Education*. 32, 39-53.
- Calhoun, C. & Sennett, R. (2007). *Practicing Culture*. Routledge.
- Chun, T. W. & Kim, K. R. (2008). Study on Satisfaction According to Result of Participants in DIY Woodworking. *한국가구학회지*, 19(6), 487-497.
- Coole, D. (2005). Rethinking Agency: A Phenomenological Approach to Embodiment and Agentic Capacities. *Political Studies*, 53, 124-142.
- Davis, B., Sumara, D. & Luce-Kapler, R. (2008). *Engaging Minds: Changing Teaching in Complex Times*. 한승희·양은아 역 (2017). *마음과 학습: 교육학의 복잡계적 접근*. 서울: 교육과학사.
- Deleuze, G., Guattari, F. (1980). *Mille plateaux*. 김재인 역 (2001). *천 개의 고원 (1장)*. 서울: 새물결.
- Dreyfus, H. (2009). *On the Internet*. (2nd Ed.) 최일만 역. (2015). *인터넷의 철학*. 서울: 필로소픽.
- Edward, L. C. (?). *Furniture Design History*. 조정숙·조정민 편역 (1992). *가구의 역사*. 서울: 기문당.
- Edwards, R. (2010). The End of Lifelong Learning: A Post-human Condition?. *Studies in the Education of Adults*, 42(1), 5-17.
- Fenwick, T. & Edwards, R. (2010). *Actor-Network Theory in Education*. Routledge.
- Fenwick, T. Edward, R. Sawchuk, P. (2011). *Emerging approaches to educational research: Tracing the socio-material*. Rutledge.

- Fenwick, T. & Landri, P. (2012). Materialites, Textures and Pedagogies: Socio-material assemblages in Education. *Pedagogy, Culture & Society*, 20(1), 1-7.
- Fenwick, T. (2012). *Matterings of Knowing and Doing: Sociomaterial Approaches to Understanding Practice*.
- Fenwick, T. & Stirling, D. (2015). Sociomateriality and learning: a critical approach. David S. & Hargreaves, E. (eds.). *The Sage Handbook of Learning*. Sage Publishers.
- Fox, S. (2002). Community of practice, Foucault and actor-network theory. *Journal of management studies*, 37(6), 853-868.
- Fredriksen, A. (2014). *Assembling Value(s): What a Focus on the Distributed agency of assemblages can contribute to the study of value*. LCSV Working Paper Series No. 7, The Leverhulme Centre for the Study of Value.
- Graeber, D. (2001). *Toward Anthropological Theory of Value*. 서정은역. (2009). *가치이론에 대한 인류학적 접근*. 서울: (주)그린비출판사.
- Haraway, D. (1988). Situated Knowledges: The science question in feminism and the privilege of partial perspective. *Feminist Studies*, 14(3), 575-599.
- _____ (2008). *When species meet*.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_____ (2016). *Manifestly Haraway*. 황희선 역 (2019). *해러웨이 선언문*. 서울: 책세상.
- Hennion (2007). Those things that hold us together: taste and sociology. *Cultural Sociology*, 1(1), 97-114.
- Hickey-Moody, A. and Page, T. (2015). Introduction: Making, Matter and Pedagogy. In Hickey-Moody, A. & Page, T. (eds.) *Arts,*

- Pedagogy and Cultural Resistance: New Materialisms. London: Rowman and Littlefield International.
- Ingold, T. (2007). Material against Materiality. *Archaeological Dialogues*, 14(1), 1-16.
- _____ (2013). *Making: Anthropology, Archaeology, Art and Architecture*. Routledge.
- Jobér, A. (2018). Education Extended: A Sociomaterialist Perspective on Science Education. Otreel-Cass, K., Sillasen, M. K. & Orlander, A. A. (Eds.) (2018). *Cultural, Social, and Political Perspectives in Science Education*. Springer.
- Kang(2015). *Life and Learning of Korean Artists and Craftsmen: Rhizoactivity*. Routledge.
- Latour, B. (1991). *We Have Never Been Modern*. 홍철기 역 (2009). *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 서울: 갈무리.
- Latour, B. (1999). *Pandora's Hope*. 홍성욱 역 (2018). *판도라의 희망: 과학기술학의 참모습에 관한 에세이*. 휴머니스트.
- Lave, J. (2019). *Learning and Everyday Life*. Cambridge.
- Lave, J. & Packer, M. (2008). *Towards a Social Ontology of Learning*. Nielsen, K., Brnkmann, S., Elmholdt, C., Tanggaard, L., Musaeus, P. & Kraft, G. *A Qualitative Stance*. Aarhus University Press.
- Lave, J. & Wenger, E. (1991). *Situated Learning: Legitimate Peripheral Participation*. 손민호 (2010). *상황학습: 합법적 주변 참여*. 서울: 강현출판사.
- Law, J. (2007). *Actor Network Theory and Material semiotics*. Version of 25th April 2007 available at <http://www.heterogeneities.net/publications/Law2007ANTandMaterialSemiotics.pdf>

- _____ (2010). Pinboards and books: Juxtaposing, learning and materiality. Version of 28 April 2006, available at <http://www.heterogeneities.net/publications/Law2006PinboardsAndBooks.pdf>
- Law, J. & Singleton, V. (2013). ANT, Multiplicity and Policy. Heterogeneities.net
- Leonardi, P. M. (2012). Materiality, sociomateriality and socio-technical systems: what do these terms mean? How are they related? Do we need them?. SSRN Electronic Journal.
- Lupton, J. (2006). D.I.Y. Theory. Lupton, E. & Bost, K. Eds. D.I.Y. Design It Yourself.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 Merleau-Ponty, M. (1945). *Phenomenologie de la perception*. 류익근 역 (2002). *지각의 현상학*. 서울: 문학과지성사.
- Merleau-Ponty, M. (1945). *Phenomenologie de la perception*. 류익근 역 (2002). *지각의 현상학*. 서울: 문학과지성사.
- Miller, D. (1987). *Material Culture and Mass Consumption*. New York: Wiley-Blackwell.
- Miller, D. & Woodward, S. (2011). *Global Denim*. 오창현·이하얀·박다정 (2017). *청바지 인류학*. 서울: 도서출판 놀민.
- Mol, A. (2002). *The Body Multiple: Ontology in Medical Practice*. Duke University Press.
- _____ (2008). I Eat an Apple. *Subjectivity*, 22, 28-37.
- _____ (2010). Actor Network Theory: Sensitive Terms and Enduring Tensions. *Kölner Zeitschrift für Soziologie und Sozialpsychologie*, 50, 253-269.
- _____ (2015). Living with omega-3: new materialism and enduring concerns.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33, 4-19.

- _____ (2021). *Eating in Theory*. Duke University Press.
- Nakashima, G. (1981/2011). *The Soul of Tree: A woodworker's reflections*. Kodansha USA.
- Niemimaa, M. (2014). Sociomaterial ethnography: Taking matter seriously. MCIS, Proceedings, Paper45.
- Nishioka, Tsunekazu & Shiono, Yonematsu (1993). 木のいのち木のころ. 天. 최성현 역 (2013). 나무에게 배운다. 하동군: 상추쌈.
- O'Connor (2009). *Hotshop: A Ethnography of Embodied Knowledge in Glassblowing*. The Doctoral Dissertation in the New School for Social Research of the New School.
- Ogawa, Mitsuo & Shiono, Yonematsu (2001). 木のいのち木のころ. 地. 人. 정영희 (2014). 다시, 나무에게 배운다. 하동군: 상추쌈.
- Olesen, F. & Markussen, R. (2007). How to Place Material Things: From Essentialism to Material-Semiotic Analysis of sociotechnical Practice. *Doing Things with Things: The Design and Use of Everyday Objects*.
- Orlikowski, W. J. (2002). Knowing in practice: Enacting a collective capability in distributed organizing. *Organization Science*, 13(3), 249-273.
- Packer, M. J. & Goicoechea, J. (2000). Sociocultural and Constructivist Theories of Learning: Ontology, Not Just Epistemology. *Educational Psychologist*, 35(4), 227-241.
- Polanyi, M. (1962). *Personal Knowledge: Towards a Post-Critical Philosophy*. 표재명·김봉미 역(2001). 개인적 지식: 후기비판적 철학을 향하여. 서울: 아카넷.
- Paul Hager, P. , Lee, A. & Reich, A. (Eds.) *Practice, Learning and Change: Practice-Theory Perspectives on Professional Learning*. Springer.

- Polanyi, M. (1967). *Tacit dimension*. 김정래 역(2015). *암묵적 영역*. 서울: 박영스토리.
- Pols, J. (2015). Towards an empirical ethics in care: relations with technologies in health care. *Medical Health Care and Philosophy*, 18, 81-90.
- Price, L. & Hawkins, H. (2018). *Geographies of Making, Craft and Creativity*. Routledge.
- Risatti, (2007). *A theory of craft: function and aesthetic expression*. 허보윤 역(2011). *공예란 무엇인가*. 서울: 미진사.
- Roddick, A. P. & Stahl, A. B. (2016). *Knowledge in Motion: Constellations of Learning Across Time and Place*. *Amerind Studies in Anthropology*.
- Schazki, T., Knorr-Cetina, K. & Savigny, E. (2001). *The Practice Turn in Contemporary Theory*. Routledge.
- Simonsen, K. (2012). In Quest of a New Humanism: Embodiment, Experience and Phenomenology as Critical Geography. *Progress in Human Geography*, 37(1), 10-26.
- Schön, D. (1983). *Educating the reflective practitioner*.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 Sørensen, E. (2009). *The materiality of learning: Technology and knowledge in educational practi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tacy, A. (2010). *Bodily Natures: Science, Environment, and the Material Self*. 윤준·김종갑 (2018). *말, 살, 흙: 페미니즘과 환경정의*. 서울: 그린비.
- Tachuch, H. L. (2010). Going beyond the theory/practice divide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Introducing an Intra-active pedagogy. 신은미 외 역(2018). *들뢰즈와 내부작용 유아교육: 이*

- 론과 실제 구분 넘어서기. 서울: 창지사.
- Thomas, M. (?). Zhuangzi. 권택영 역 (2004). 토머스 머튼의 장자의 도. 서울: 은행나무.
- Tsing, A. (2015). *The Mushrooms at the End of the World: on the Possibility of Life in Capitalist Ruin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Tuana, N. (2007). *Viscous Porosity*. Alaimo, S. & Hekman, S. J. (eds.) *Material Feminisms*.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 Tummons, J. & Beach, D. (2020). Ethnography, materiality, and the principle of symmetry: Problematising anthropocentrism and interactionism in the ethnography of education. *Ethnography and Education*, 15(3), 286-299.
- Waltz, S. B. (2006). Nonhumans Unbound: Actor-network theory and the reconsideration of “things” in educational foundation. *Educational Foundations*, Summer-Fall, 51-68.
- Wehling (2006). The situated materiality of scientific practices: Postconstructivism - a new theoretical perspective in science studies?. *Science, Technology & Innovation Studies*, Special Issue 1, 81-100.
- Wenger, E. (1998). *Community of Practice*. 손민호·배을규 역(2007). 실천공동체. 서울: 학지사.
- WHF (2018). *The Human Image in a Changing World*. Proceedings of the World Humanities Conference, Busan, Korea, Oct.31-Nov.2 2018, World Humanities Forum, Seoul, South Korea.

기타

하드우드, DIY가구공방에서 인기 높아져 2015

<http://www.wood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828>

우리나라 DIY 시장 보고서

http://toolmagazine.kr/webzine/sub/search_view.jsp?wz=151&bid=1&col=&sw=&pg=1&num=869

국내 DIY사업현황

<http://www.wood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208>

목공에 빠진 사람들

http://travel.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7/13/2016071301872.html

무형문화재 전통 장인

<http://www.handmk.com/news/articleView.html?idxno=1734>

대한민국의 가구, 그때를 아십니까?

http://happy.designhouse.co.kr/magazine/magazine_view/00010002/2018

소목장

<https://ko.wikipedia.org/wiki/%EC%86%8C%EB%AA%A9%EC%9E%A5>

소목장 조석진

<https://blog.naver.com/elfwjd/120190198520>

소목장 조석진 60, 70년대 목공소

http://munhwajl.com/?doc=article/article01_view.php&art2_id=6702

지금은 DIY 시대 (목재신문 2011.8.15.)

<http://www.wood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64>

한국경제신문 (나들목가구만들기 소개)

전통가구 만들기 (DIY vs 짜맞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678151>

한국전통목가구

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IIRz&articleno=502808&categoryId=115426®dt=20071103154850

John Phillips, 2006: 108-109 "agencement/assemblages" Theory, Culture and Society, 2

Abstract

The entanglement of people and things in practice of education and knowledge

: an ethnography on sustaining of Korean woodworking culture

Kim, Eunah

Educational Anthropology,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Human beings are born in a specific world and learn the culture of that world, learn how to live, and realize new possibilities. Culture can sustain its existence and value through the process of being actively enjoyed and re-created through generations. However, in order for culture to travel like this, heterogeneous entities are needed that make concrete experiences and actions possible. To experience and enjoy culture in daily life is not through cognitively accepting rules or systems of meaning but through active interactions with things and people that shape everyday life. Therefore, in order to understand how the practice of education, which teaches and learns culture, realizes new possibilities, and makes a change into a better

being, is manifested in a specific time and space, it is necessary to look at the specific situation formed through the relationship between things and people.

This study tried to reveal how knowledge and education are practiced in the entanglement of things and humans through a case of sustaining Korean woodworking culture. JJamachum woodworking was a woodworking culture that blossomed during the Joseon Dynasty, and was maintained by a small number of craftsmen as the necessity and value of manual work was underestimated through the period of moder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However, around the 2000s, ordinary people who are interested in woodworking have not only learned woodworking and made new pieces of the woodwork but have also been actively communicating by registering and sharing the production process and works online. In this study, in order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ings and people that made this process possible, the JJamachum education center was selected as a research site, and long-term participatory observation, in-depth interviews with instructors and learners, and online and offline field data surveys were conducted.

Through the research, it was possible to discover important events in the process of teaching the knowledge of woodworking to future generations by Baek Man-ki who learned woodworking from Jo Seok-jin. The world of woodworking was not given as a fixed entity from Jo Seok-jin to Baek Man-ki and from Baek Man-ki to subsequent generations but was constantly changing as it was recontextualized in the entanglement of things and people. The recontextualization of the woodworking world can be divided into four major categories. First, through the 'revival of hand tools,' how hand tools, which only a few craftsmen know and were not shared in a closed culture, came

to be, and how it was shared with previous generations. I could understand what the difference was. Today, hand tools such as marking knives and planes have become accessible to anyone who wants to learn crafting woodworking as they are connected to Baek Man-ki, books, QR codes, internet cafes, and YouTube. And the way the instructor learned while watching how to use hand tools changed to teaching and learning with systematically organized principles and verbal expressions.

Next, 'change of tree' revealed what kind of materiality the wood used in today's carpentry workshops had, and the changed knowledge and practice of education through these trees. As learners in the carpentry workshop use sawn wood,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in making good wood such as logging, sawing, drying and maturation are limited, and their skills and knowledge of handling wood are changing. This situation of wood has two aspects: on the one hand, the possibility of more convenient access to woodworking is obtained through an easy-to-use wood, but on the other hand, teaching and learning the power or knowledge of seeing wood is excluded.

The recontextualization of the world of woodworking was next to be found in 'the creating of an educational place'. The arrangement of the place called JJamachum education center was involved in pursuing the values of education such as openness, exchange, and time for sufficient skill. In addition, in the JJamachum education center, which does not aim to produce and sell works or products, they were learning in a style of school class through educational activities such as lectures, demonstrations, practice, one-on-one lessons, and joint feedback, rather than observing the professor's work process. These educational activities were being ordered together with

things such as the teacher's workbench, the blackboard, and the learner's personal workbench. On the other hand, the JJamachum education center is a place to teach in-depth principles rather than simple usage, but as a membership wood workshop, it can be seen that it can be a different place depending on the expectations and goals of the learners.

Finally, in 'creating a new tradition', we could see how JJamachum furniture is changing today, and the world of woodworking is being recontextualized as the people who make it go online and offline to create a new tradition. JJamachum furniture was made differently according to today's furniture, living environment, tastes, and interests, not in a way that reproduces the things of the Joseon Dynasty as it is. In addition, the people at the JJamachum education center were making their own furniture by using apps such as Pinterest on their smartphones to search for and transform images needed for custom woodworking. Apps such as Pinterest were contributing to broadening the knowledge of furniture design, but on the other hand, due to the properties of wood that cannot be seen through images alone, they were making it necessary to teach the experts. Meanwhile, people were sharing and empathizing with the process and results of woodworking through apps such as Instagram, connecting teaching and learning of woodworking both in and off-line as well as at the JJamachum education center.

The world of woodworking and the practice of knowledge and education within it were recontextualized according to when, how, and where they were connected with various materials. In this regard, in the practice of education, it was discussed that materials such as things are not passively given or the cause of change, but have the power to bring about change in the practice of education by making

large and small differences in relationships with humans. And knowledge is not in the head or in a book, but in a specific situation, the type and scope of the knowledge change depending on the various materials that make it possible, and it has a unique boundary. Therefore, it was discussed that the interaction with things that enable the process of knowing something should be considered more important than knowledge as a result.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revealed as a concrete case that the problem of what is the practice of knowledge and education that we can participate in and how to make it possible cannot be separated from the relationship with materials such as things.

keywords : situated learning, the entanglement of people and things, materiality, woodworking

Student Number : 2013-30404